

I . 연 구 의 개 요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청소년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이 되어 자립하고자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학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중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있는 주변인적 상황(marginal situation)에서 새로운 심리적 적응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한준상,1989:4).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동과 같이 의존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황정규외,1989:1).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태도, 가치, 사고 및 행동의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 및 아동기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에서 이러한 사회화과정이 수행되나 청소년기에는 사회화의 장(場)이 가정을 넘어 학교, 친구집단,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적응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점차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나 행동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태도나 행동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족내 접촉이 줄어들고 가족외부의 친구집단, 학교, 그 밖의 사회환경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사회조직 및 집단들이 이질적인 가치나 규범을 갖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양춘,1984:81).

청소년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상에 사는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면으로는 청소년기는 문제의 시기이며 불만의 시기이며 고민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양면

성 때문에 청소년에 관한 언급들은 청춘을 예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하고 동경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고민과 좌절과 문제에 얽매인 청소년을 그리는 암울한 종류도 있다. 근년에 들어서는 두 부류 중 후자에 속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아래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다. 점점 툭툭하고 생기있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주눅이 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소극적이 되어간다. 부모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출세해야 한다고 자녀들을 다그친다. 학교에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만을 시키며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인정을 받는다. 간혹 갖게 되는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망설여지며 갈 곳이 없다. 기껏해야 만화가게나 전자오락실에 가게 된다.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외출을 삼가게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의심을 하라고 가르침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하교시에 지나치는 거리와 차내에서, 학교주변과 집주변에서, TV나 각종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부모와 이웃들을 통해 사회를 배우게 된다. 그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주위환경과 대중매체를 통해 비뚤어진 사회를 배운다. 퇴폐 향락풍조의 만연, 각종 강력범죄의 빈발, 가치관의 부재, 돈만 벌면 제일이라는 황금만능주의의 팽배를 보고 배운다.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에 달려 있다고 배운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의 청소년들은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거침없이 행동하며 극히 타산적이다’, 또한 ‘인내심이나 지구력이 없고 만사를 요령주의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매사를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성세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부적합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어 문제청소년으로 전락되고 있다. 강도·폭행·강간 등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10대의 임신과

성범죄의 증가, 마약 등의 약물남용, 가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청소년 문제 및 비행이 왜 심각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전통적인 수직문화가 현대적인 수평문화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전통윤리는 붕괴되고 아직 수평적인 구조의 윤리는 미처 형성되지 못한 문화적 전이 계기가 맞는 위기라든가 경제지향적 가치체계의 부산물인 물질만능주의와 한풀이 식으로 지금을 사는 전후세대의 비정상적 생활방식이라든가, 서구문물이 부채질한 성개방의 물결이라든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소외, 익명성, 가정기능의 변화,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결여로 인한 법치질서의 혼미(정진홍, 1989:42),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각종 사회환경 등이 수없이 얘기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 또는 청소년의 현재에 대한 책임이 주위 환경과 성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건전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문제청소년 자신에 기인한다거나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주장과 청소년 자신의 책임을 따지는 주장은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문화와 사회제도 및 환경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과잉보호 등 가정의 문제,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 타락된 사회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으며 사회화를 담당하는 제반 사회제도 및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들 중 가정과 학교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그밖의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최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는 유해환경 실태와 그에 대한 법규 및 대책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청소년 비행의 증가, 가치관의 혼란, 조급하고 나약한 청소년의 양산과 같은 제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에서 찾을 수 있으나 악화되는 가정교육 및 모범이 되지 못하는 가정생활, 부적합한 학교교육, 비뚤어진 성인문화 및 사회환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 및 학교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거나 일면에 편중되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반면에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사회환경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와 아울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논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저해한다고 평가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 및 대책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신문, 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실태조사도 청소년 관련기관 및 관심집단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및 논의는 유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서울지역에서 유해환경 접촉이 빈번한 남자고등학교생을 주대상으로 실시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그 이외의 학생청소년(국민학생, 중학생, 고교생)들이 유해환경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유해환경 연구가 주로 유해업소에 국한되어 있었다. 유해환경의 개념 규정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물리적인 유해업소에 관심이 치중되어 그밖의 유해환경(예를 들면 TV, 비디오 등 대중매체, 인쇄물, 영상물, 유해물품 등)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셋째,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밝혀 유해환경의 유해성을 밝혔으며 비행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몇몇 사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시했으나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했다. 넷째, 연구의 대상이 학생청소년과 소수의 비행청소년에 국한되어 왔고 반면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전국적이고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의 표본을 추출하고 남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근로청소년을 포함하는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표본은 지역별, 성별, 교급별, 직업별로 일부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유해환경 접촉실태의 파악과 아울러 비행경험을 파악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해환경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수의 사례에 근거한 논의를 보편화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법규와 행정조치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실태파악에 근거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기존의 유해환경 논의가 성인들에 의해 규정되어 왔던 관행에 비추어 청소년 자신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실제 활동범위가 학교주변에 국한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주변을 넘어 전체 사회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함께 대중매체, 인쇄물, 영상물, 유해물품 등을 통한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대책을 파악 검토하고자 연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유해성에 대한 평가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대중매체 등 각종 유해환경을 지난 일년 동안에 접촉하거나 이용한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① 일주일에 1~2회 이상

② 한달에 1~2회 정도

③ 두세달에 1~2회 정도

④ 일년에 1~2회 정도

⑤ 가본적이 없다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① 아주이롭다 ② 이롭다 ③ 보통이다 ④ 해롭다 ⑤ 아주해롭다

1) 시설 및 장소

공원,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성인오락실, 당구장, 톨라스케이트장, 디스코장, 성인디스코장, 퇴폐이발소, 경양식집(레스토랑), 카페(술도 파는곳), 일일찻집, DJ있는 커피숍, 만화가게, 심야만화가게, 사설독서실, 포장마차, 음악감상실, 제과점, 분식점, 패스트 푸드(햄버거집 등), 비디오 가게, 입시 및 각종학원, 성 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문방구, 사창가, 유흥가, 소극장

2) 물품

불량장난감, 불량학용품, 담배자판기(본인의 흡연을 위한 이용), 불량식품,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 히로뽕·마약·마리화나 등 약물류, 안정제·수면제 등 각성제,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 잡상인, 인기인 사진

3) 대중매체

가) TV

쇼·코메디 프로, 연속극 및 수사물,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외국영화 및 연속물,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만화영화, AFKN(미군방송), 일본 방송, 유선방송

나) 신문, 잡지, 소설

각종 스포츠 신문, 여성대상 월간지, 청소년대상 월간지, 일반 성인용 주간지, 월간 오락잡지, 사건 및 야담잡지, 외국음란잡지, 성인만화, 어린이 월간지,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다) 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옥외광고(길거리 광고)

라)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음란 비디오테이프,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2) 유해상황에 대한 평가 및 해당정도

1) 가정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식구들의 잦은 싸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식구들의 무관심

2) 학교(직장)

학교(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근무시간),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 선배나 친구의 강요, 친구들간의 경쟁, 학교(직장)주변 폭력배, 자율학습, 잦은 시험 및 입시 위주 교육,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3) 사회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정치불안, 물가 폭등 및 사회혼란, 데모, 유흥가 불량배, 민생치안 부재, 과소비 풍조

4) 기타

장난전화, 어른들의 술주정,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유행어(흥미위주의)

(3) 비행경험 및 유해성 평가

컸닝, 야간 배회, 무단결석(무단결근), 도박, 절도, 집단패싸움, 흥기소지, 흡연, 음주, 위협, 폭행, 가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반항(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 음란낙서, 이성과 성관계, 가벼운 성추행, 성폭행

(4) 유해환경 대책에 관한 평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대책과 어른들의 간섭에 대한 평가

(5) 기존의 유해환경 대책에 대한 연구

- 현행법규, 행정조치, 단속실태
- 업계 자주규제 실태
- 시민운동 현황

(6) 인구학적 변인

성, 연령, 성장지, 가정의 한달 총수입,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생활수준, 주거형태, 주거지역의 환경, 가족구조, 학교성적, 직장의 규모, 직장의 업종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 수집과 아울러 정책연구를 하고자 문헌연구, 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기존의 논문, 조사연구, 법규 및 보도된 기사를 수집, 분석하여 이제까지 연구된 내용, 밝혀진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질문지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유해환경에 대한 현행의 대책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다.

(2) 면접조사

질문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문헌연구 및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되지 못한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청소년 문제전반과 유해환경에 관해 관심과 경험이 많은 관계부서, 교육위원회, 일선학교, 교사, 관계단체 등을 방문하여 실무담당자와 일선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질문지 조사

1) 표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표본 규모는 전국적으로 5천명이었다. 조사내용의 직업별, 지역별, 교급별,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좋으나 예산, 기간 등의 제약을 감안하여 5천명으로 한정했다.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연령은 9~24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해업소 출입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이나 생활범위가 크게 한정되는 국민학생 보다는, 통학거리 등 생활범위가 다소 확대되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정서적으로 과도기에 처해 있고 신체적으로는 급성장하지만 유해환경 접촉이 통제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주요 연구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각각 1,500명씩 표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학생 1,598명과 고등학생 1,402명이 표집되었다. 학생청소년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근로청소년 1,000명을 표집하였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 접촉이 점점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국민학교 주변에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 유해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학생 1,000명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이들 교급별·직업별 응답자 수는 지역별,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지역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균형된 표본을 추출하고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학생청소년의 경우 대도시에서 50%인 2,000명, 중소도시에 20%인 800명, 읍면에서 30%인 1,200명을 표집하였다. 지리적으로 서울·경기·강원·충북 등 중부지방에서 44%, 부산, 경상남북도 등 영남지방에서 28%, 광주, 대전, 전라남북도, 충남 등 호서지방에서 28%를 표집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49.2%와 50.8%씩을 표집하였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응답자를 교실에서 만나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학급단위로 조사가 진행되어 조사대상 학교수가 제한되므로 각 지역권내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별로 대표적인 지역 각각 1개씩을 선정하였다. 중부권에서는 서울, 충주, 이천, 영남권에서는 대구, 마산, 양산, 호남권에서는 광주, 이리, 곡성을 각각 선정하여 각 지역내에서 남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표집하

였다.

실제조사가 행해진 학교의 선정은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학교교사, 청소년 문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교급별로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학교들을 선정하였다. 즉 해당지역의 유흥가와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근접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조용한 환경에 있지 않으며 학교에 대한 평판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학교를 피하여 비교적 중립적인 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와 실업계에 따른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4:3으로 하였다. 선정된 학교내에서는 조사가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점과 1학년과 3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간 학년인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성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남자 335명, 여자 665명을 표집하였으며, 연령별로는 학생청소년과 큰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하여 20세 이하의 비중을 크게 하고 21세 이상의 비중을 적게 하여 20세 이하 735명, 21세~24세 260명을 표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조사의 편의상 3개 지역권내에서 가장 근로청소년이 많은 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에서 세지역 근로청소년의 분포와 지역당 적정표본수를 고려하여 서울 600명, 부산 200명, 광주 200명을 선정 표집하였다.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에 청소년회관 등 근로청소년 대상 복지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직장에 의뢰하여 근무의 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된 표집계획 및 실제 조사수는 <표 I-3-1>과 같다.

청소년 인구구성비, 표집계획 및 실제표본

〈표 I-3-1〉

		인구구성비	예정표본수	실제조사수	비고(통계년도)
〈학생청소년〉					
성 별	남	50.4	2000	49.2(1955)	1989
	여	49.6	2000	50.8(2016)	
무응답				(29)	
교급별	국민학생	34.7	1000	25.0(1000)	1990
	중 학 생	32.6	1500	40.0(1598)	
	고등학생	32.7	1500	35.1(1402)	
거주지 규모별	대 도 시	45.7	2000	60.0(3000)	1989
	중소도시	20.0	800	16.0(800)	
	읍 면	34.4	1200	24.0(1200)	
지역별	충 부 권	43.5	1600	44.0(2200)	1989
	영 남 권	29.4	1200	28.0(1400)	
	호 남 권	27.1	1200	28.0(1400)	
	계	100%	4000	100%(4000)	
〈근로청소년〉					
성 별	남	31.4	335	33.6(334)	1989
	녀	68.6	665	66.4(660)	
무응답				0.6(6)	
연령별	19세 이하		801	50.6(503)	1989
	20-25		199	49.3(492)	
무응답				0.5(5)	
지역별	서울	68.4	600	60.0(600)	
	부산	27.0	200	20.0(200)	
	광주	4.6	200	20.0(200)	
	계	100%	1000	100%(1000)	
총 계		100%	5000		

2) 질문지 작성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질문지를 보완 확정된 후 해당 학교와 직장 또는 청소년 회관을 방문하여 선정된 응답자들이 자기기입법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경험과 이해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로 구분하였다.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는 국민학생들이 자주 접촉하지 않거나 극단적인 유해환경(예:사창가, 카페 등)을 제

외하였으며 응답시간이 단축되도록 질문문항을 상당부분 축소하였다. 학생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경우 직업에 따라 구별되는 질문에는 괄호 안에 근로청소년에 해당하는 대체 용어를 적어 넣었다. 작성된 질문지는 사전조사에 의해 문항의 수를 줄이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질문지 조사 실시

질문지 조사는 199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 되었으며 현지 조사원 모집 등에 대하여 코리아리서치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4) 분석

표본조사의 질문지는 조사가 완료된 후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딩 및 편칭을 하였고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해환경 접촉 및 유해성 평가에 관한 문항들은 성별 및 교급별로 남자국민학생, 여자국민학생,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남자근로청소년, 여자근로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지난 1년내 접촉경험률과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주로 비교하였다. 전체 응답자 5,000명 중에서 35명(국민학생 18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5명, 근로청소년 6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아 집단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별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4,965명이었다.

그밖에 지역 크기별 등 변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논의하였다. 또한 TV시청 등 접촉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간 경험률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5.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상의 시간 및 경비의 제약으로 전국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모두 포함시키지

는 못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주변환경 실태조사에 있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 있는 표집이 되도록 응답자의 다각적인 특성을 포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보아 이러한 특성을 개괄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표집대상의 특성은 모두 13개 변인이다. 이는 응답자의 성, 연령, 성장지, 가정의 한달 총수입,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생활수준, 주거형태, 주거지역의 환경, 가족구조, 성적, 직장의 규모, 직장의 업종으로 나뉜다. 이러한 13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분류 즉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 및 집단별 특수 특성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표집한 인구학적 특성은 <표 I-5-1>~<표 I-5-4>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성 별

<표 I-5-1> [단위 : %(명)]

성 별 집단별	남	여	무응답
국 민 학 생	50.5(468)	49.5(486)	(18)
중 학 생	47.9(763)	52.1(829)	(6)
고 등 학 생	49.8(696)	50.2(701)	(5)
근 로 청 소 년	33.6(334)	66.4(660)	(6)
전 체	46.1(2,289)	53.9(2,676)	(35)

응답자 특성-나 이

<표 I-5-2> [단위 : %(명)]

나 이 집단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무응 답
중 학 생	0.6	24.5	58.7	9.4	2.5	4.0	0.3							(9)
고 등 학 생			0.2	1.6	31.3	58.2	8.7							(8)
근로청소년			0.1	0.8	5.9	10.3	15.5	18.0	23.3	9.0	7.9	5.1	4.0	(5)
전 체	0.3	9.8	23.5	4.5	13.4	24.6	7.0	4.5	5.8	2.3	2.0	1.3	1.0	(22)
	(10)	(390)	(936)	(179)	(535)	(978)	(279)	(179)	(232)	(90)	(79)	(51)	(40)	

응답자 특성-성장지역

〈표 I-5-3〉

[단위 : %(명)]

성장지역 집단별	서울	직할시	도청 소재지	기타시	읍·면 소재지	농어촌 지역	외국	무응답
중학생	18.9	32.2	1.3	14.6	19.5	13.4	0.1	(12)
고등학생	19.7	20.7	2.2	13.9	29.8	13.6	0.2	(8)
근로청소년	21.7	28.4	0.9	4.6	20.1	24.3	0.0	(12)
전체	19.9	27.2	1.5	11.8	23.3	16.2	0.1	(32)
	(788)	(1,080)	(59)	(470)	(924)	(642)	(5)	

응답자 특성-가족구조

〈표 I-5-4〉

[단위 : %(명)]

가족구조 집단별	어머니 아버지 자녀	아버지 자녀	어머니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형 오빠 동생	누나 언니 동생	혼자	기타	무응답
국민학생	72.9	0.9	3.0	17.9	0.5	0.3	0.2	0.3	39	(32)
중학생	74.7	1.4	5.2	16.4	0.4	0.1	0.1	0.2	1.4	(33)
고등학생	70.3	1.7	7.9	17.4	0.2	0.3	0.3	0.2	1.7	(16)
근로청소년	63.9	3.5	13.9	11.1	0.5	2.1	0.9	2.6	1.5	(20)
전체	70.9	1.8	7.2	15.9	0.4	0.6	0.3	0.7	2.0	(101)
	(3,475)	(89)	(355)	(780)	(20)	(30)	(17)	(34)	(99)	

남녀의 성비는 전체적으로 남자 46.1%, 여자 53.9%로 50:50의 비율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각 집단별로는 국민학생, 중고등학생의 성비가 거의 50:50인데 반해 근로청소년은 33.6:66.4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정도로 표집되었다. 이는 근로청소년 그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연령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생청소년 집단인 경우 국민학생은 5학년 집단이, 중고등학생은 2학년 집단이 각 교급별 특성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근로청소년은 연령분포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여 14세에서 24세에 걸쳐 다양한 연령층을 표집하였으나 학생청소년과의 연령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세 이하의 비중을 높여 20세 이하와 21-24세의 비율은 73.9%와 26.1%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을 알아본 결과 서울과 직할시인 경우가 47%,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가 13.3%,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 지역은 39.5%, 외국은 0.1%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표집지역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비율과

는 다소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유동성이 강한 현대 산업사회의 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들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근로청소년인 경우는 결혼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를 모두 합한 결과 그 비율이 23%로 국민학생(5.0%), 중학생(7.4%), 고등학생(10.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2)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한달 총수입,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주거형태, 주거지역의 환경을 알아보는 객관적 판정기준과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의 주관적인 판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5-5>~<표 I-5-12>에 제시되어 있다.

한달 총수입에 대하여 응답할 때에는 응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100만원 이상을 상류로, 30-100만원을 중류로, 30만원 이하를 하류로 재분류 해보았을 때 학생청소년 집단인 경우 상류가 19.7% - 20.8%, 중류가 60.9% - 64.8%, 하류가 14.0% - 19.4%로 비교적 상중하의 비율이 집단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인 경우 상류가 8.3%, 중류가 47.8%, 하류가 42.8%로 나타나 학생청소년보다 상류와 중류가 훨씬 적으며, 그 대신 하류가 높

응답자 특성-월평균 가구 수입

<표 I-5-5>

[단위 : %(명)]

수입 집단별	20만원 이 상	20~30 만 원	30~50 만 원	50~70 만 원	70~100 만 원	100~130 만 원	130만원 이 상	무응답
국 민 학 생	9.2	10.2	14.1	22.1	24.7	10.4	9.3	(31)
중 학 생	6.8	8.0	18.1	24.0	22.7	10.3	10.1	(76)
고 등 학 생	6.7	9.3	20.5	23.1	19.5	11.3	9.5	(49)
근로청소년	12.5	30.3	19.8	15.9	12.1	5.4	3.9	(51)
전 체	8.4	13.2	18.3	21.8	20.1	9.6	8.6	(207)
	(402)	(634)	(878)	(1,044)	(963)	(462)	(410)	

응답자 특성-아버지의 학력

〈표 I-5-6〉

[단위 : %(명)]

학 력 집단별	중학교나 국 민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 업	대 학 교 졸 업	대 학 원 졸업이상	무 응 답
국 민 학 생	16.8	51.8	23.7	7.7	(35)
중 학 생	37.5	41.3	18.2	2.9	(35)
고 등 학 생	47.2	32.8	15.6	4.5	(26)
근로청소년	66.5	28.8	3.4	1.2	(38)
전 체	41.9	38.5	15.6	4.0	(134)
	(2,039)	(1,874)	(760)	(193)	

응답자 특성-어머니의 학력

〈표 I-5-7〉

[단위 : %(명)]

학 력 집단별	중학교나 국 민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 업	대 학 교 졸 업	대 학 원 졸업이상	무 응 답
국 민 학 생	26.5	53.5	16.8	3.2	(37)
중 학 생	55.8	35.1	7.9	1.2	(33)
고 등 학 생	66.1	25.4	7.2	1.4	(26)
근로청소년	85.8	12.6	1.0	0.9	(36)
전 체	58.8	31.5	8.1	1.6	(132)
	(2,861)	(1,535)	(395)	(77)	

응답자 특성-아버지의 직업

〈표 I-5-8〉

[단위 : %(명)]

직 업 집단별	농 립 어업자	자영업	관 매 서비스	기능직 작업직	사무직 기술직	관리직 경영자	전문직	무 직	무응답
국 민 학 생	9.0	19.1	8.0	21.5	19.6	17.6	3.0	2.3	(26)
중 학 생	18.1	18.2	6.3	22.2	18.2	13.1	1.8	2.1	(96)
고 등 학 생	29.0	14.8	7.6	18.4	13.2	11.4	2.9	2.7	(80)
근로청소년	50.5	8.5	4.0	18.6	5.3	5.0	1.1	7.0	(117)
전 체	25.4	15.6	6.6	20.3	14.7	12.0	2.2	3.2	(319)
	(1,190)	(729)	(307)	(949)	(687)	(563)	(104)	(152)	

응답자 특성-어머니의 직업

〈표 I-5-9〉

[단위: %(명)]

직업 집단별	농림 어업자	자영업	판매 서비스	기능직 작업직	사무직 기술직	관리직 경영자	전문직	주부	무직	무응답
국민학생	5.1	12.8	11.3	2.4	4.4	4.8	0.8	54.9	3.5	(25)
중학생	11.7	13.1	8.6	4.3	4.3	1.9	0.3	53.9	1.8	(57)
고등학생	20.4	9.5	9.0	5.0	2.3	1.3	0.4	50.3	1.8	(37)
근로청소년	39.7	7.3	7.4	4.2	0.7	1.8	0.3	34.3	4.3	(50)
전체	18.3	10.9	9.0	4.1	3.1	2.3	0.4	49.3	2.6	(162)
	(885)	(526)	(437)	(198)	(148)	(112)	(21)	(2,383)	(128)	

응답자 특성-주거형태

〈표 I-5-10〉

[단위: %(명)]

주거형태 집단별	자기집	전세집	전세방	월세방	친척집	기숙사	하숙	자취	무응답
국민학생	63.2	22.9	8.0	4.3	0.9	0.0	0.2	0.5	(19)
중학생	66.7	20.5	4.9	5.8	0.9	0.2	0.1	0.9	(19)
고등학생	71.5	14.4	3.8	2.4	1.4	0.1	1.2	5.1	(14)
근로청소년	23.1	18.5	6.5	8.0	2.9	30.5	0.5	9.9	(15)
전체	58.6	18.9	5.5	5.0	1.4	6.2	0.5	3.8	(67)
	(2,893)	(930)	(273)	(247)	(71)	(305)	(25)	(189)	

응답자 특성-주거지역의 환경

〈표 I-5-11〉

[단위: %(명)]

집주위 집단별	상점점포 지역	논밭 지역	아파트 지역	일반 주택지	공장지	슬집유흥 업소지역	무응답
국민학생	18.3	14.4	16.3	48.5	0.9	1.6	(25)
중학생	13.8	18.9	12.0	50.8	3.1	1.8	(28)
고등학생	8.0	22.7	14.3	50.9	1.2	2.8	(14)
근로청소년	9.4	6.9	34.4	40.2	6.7	2.3	(15)
전체	12.1	16.7	18.0	48.3	2.8	2.2	(82)
	(593)	(820)	(886)	(2,373)	(140)	(106)	

응답자 특성-생활정도 평가

〈표 I-5-12〉

[단위 : %(명)]

생활정도 집단별	아주 잘사 는 편이다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	중간이다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다	아주 못사 는 편이다	무응답
국 민 학 생	2.8	31.0	58.4	6.9	0.9	(30)
중 학 생	1.4	18.7	62.2	15.8	1.9	(27)
고 등 학 생	1.4	12.8	59.6	22.1	4.0	(11)
근로청소년	0.6	7.4	49.4	33.1	9.5	(12)
전 체	1.5	17.2	58.1	19.3	3.8	(80)
	(75)	(845)	(2,860)	(950)	(189)	

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아버지인 경우 80.4%, 어머니인 경우 90.3%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아버지 19.6%, 어머니 9.7%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부모들의 학력이 학생집단에서는 모두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청소년인 경우 학생청소년보다는 부모의 학력이 낮았다.

부모의 직업분포를 살펴 본 결과, 농림·어업자(25.4%), 기능직·작업직(20.3%)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15.6%), 사무직·기술직(14.7%), 관리직·경영자(12.0%)가 높았고, 판매·서비스(6.6%)와 전문직(2.2%)인 경우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국민학생인 경우 아버지가 사무직·관리직, 관리직·경영자 혹은 전문직인 경우가 전체의 40.2%로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자는 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음을 보여준다.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국민학생과 마찬가지로 사무·기술직, 관리직·경영자, 전문직의 비율이 중학생 33.1%, 고등학생 27.5%로 나타났으나 근로청소년인 경우 사무·기술직, 관리·경영자 및 전문직은 11.4%로 학생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고, 기능·작업직에 있어서는 학생청소년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나, 농림·어업직은 전체 직업비율의 50.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도 7.0%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청소년의 아버지의 직업분포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의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현재의 주거형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자기집인 경우가 58.6%, 전세집 및

전세방, 월세방인 경우가 29.0%, 친척집인 경우가 1.4%, 그외에 기숙사, 하숙, 자취인 경우가 각기 6.2%, 0.5%, 3.8%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근로청소년인 경우 자기집인 경우가 23.0%로 학생청소년(63.2% - 71.5%)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청소년인 경우 기숙사(30.5%), 하숙(0.5%), 자취(9.9%)를 하는 경우가 학생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근로청소년이 가정내의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 유해환경의 접촉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일반주택지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 단지(18.0%)와 논밭지역(16.7%), 상점·점포 지역(12.1%)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공장지(2.8%)와 술집·유흥업소 지역(2.2%)은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학생청소년 집단은 앞서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나 근로청소년인 경우는 집단 특성상 집주위가 일반주택지인 경우가 40.2%로 학생청소년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아파트 단지(34.4%)와 공장지(6.7%)인 경우가 학생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어느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를 평정케 한 결과, ‘아주 잘사는 편이다’, ‘중간보다 잘사는 편이다’에는 전체응답자의 18.7%가 응답했다. 그리고 58.1%의 응답자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간정도라고 판정했으며, 23.1%의 응답자는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다’ 혹은 ‘아주 못 사는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각 집단별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는 또다른 객관적 판정기준의 하나인 가정의 한달 총수입과 비교해 보면, 학생청소년인 경우 자신의 생활 수준이 중간이라고 보는 비율이 중류에 해당되는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아주 잘 사는 편이다’ 혹은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상류에 해당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국민학생과 중학생인 경우에는 더 높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고등학생, 근로청소년은 더 낮았다. 또한 ‘못사는 편이다’ 혹은 ‘아주 못사는 편이다’의 주관적 판정은 국민학생인 경우 하류에 해당되는 비율보다 매우 낮게 반응했으며 중

고등학생은 더 높게 반응했으나 근로청소년은 주·객관적 판정의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근로청소년인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 판정에 있어 주·객관적 판정이 거의 일치하나, 학생청소년집단은 학년이 낮을 수록 두 판정간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집단별 특성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집단을 크게 학생청소년 집단과 근로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표집하였고 각 집단만이 갖는 특성으로 학생청소년인 경우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적을 조사하였고, 근로청소년인 경우는 직장생활을 위주로 한 직장의 규모나 업종이 조사되었다.

〈표 I-5-13〉에는 학생청소년의 성적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학교성적

〈표 I-5-13〉

[단위 : %(명)]

학교성적 집단별	상	중	하	무응답
국 민 학 생	28.5	60.5	10.9	(31)
중 학 생	26.7	51.3	22.0	(40)
고 등 학 생	24.8	52.4	22.4	(25)
전 체	26.5 (1,034)	54.0 (2,109)	19.5 (761)	(96)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26.5%였으며 중위집단은 54.0%이고 하위집단의 경우가 19.5%인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신의 성적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학생인 경우(60.6%), 중학생(51.3%), 고등학생(5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성적평가 방식이 다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학생의 경우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정이 많이 개입되었음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직장의 규모

〈표 I-5-14〉

[단위 : %(명)]

직장규모 집단별	종업원 9인미만	종업원 10~49	종업원 50~100	종업원 100~300	종업원 300인이상	무응답
근로청소년	11.1 (84)	12.8 (97)	8.8 (67)	14.4 (109)	52.9 (401)	(237)

응답자 특성-직장의 업종

〈표 I-5-15〉

[단위 : %(명)]

업종 집단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무응답
근로청소년	80.5 (633)	2.2 (17)	5.5 (43)	1.8 (14)	1.4 (11)	0.5 (4)	8.1 (64)	(209)

〈표 I-5-14〉와 〈표 I-5-15〉에는 근로청소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규모 및 업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종업원 9인 미만-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32.7%로 나타났고, 종업원 100-300인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종을 그 분포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80.5%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8.1%), 도·소매업(5.5%), 건설업(2.2%), 음식·숙박업(1.8%), 운수·창고업(1.4%), 금융·보험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Ⅱ.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II.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1. 유해환경의 개념과 유해성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은 청소년과 관련하여 일반사회에서나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85년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로 등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청소년 주변환경과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이나 범주 등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참조: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1990:93).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미비는 학문적 관심의 소홀이나 결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는 유해성과 구조의 모호성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해환경과 그 유해성은 환경의 분류범주에 의해서 뿐아니라 청소년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의 정도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또한 성인과 청소년에 의해서 각각 달리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 연구물이나 평론물에서 논의되어온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재천(1989)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중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향을 주시하여 그 대상으로 잡지, 방송, 영화, 만화과 같은 대중매체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중환(1989) 역시 청소년 매체물의 불건전성을 유해환경의 유해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유수현(1989)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대표적인 유해환경으로서 첫째, 임시위주의 교육풍토, 둘째, 학교주변 향락업소, 셋째, 유해 저질 영

상매체, 넷째, 유해 저질 출판물을 범주로 하고 있다.

학교주변의 향락업소의 실태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YMCA(1989)에서는 청소년 환경의 유해요소로서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하고 청소년범죄의 주원인으로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해환경의 범주도 교육문제, 음란비디오, TV, 성인잡지와 만화 등과 특히 향락업소 등과 같은 유해업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향락문화의 현황에 대한 시민운동보고서(1990)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은 비교적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참조: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1990:77-78)'으로 정의하고, 유해환경의 범주는 첫째,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둘째, 매스컴 등의 대중매체, 셋째, 전자오락실, 넷째, 만화가계, 다섯째, 비디오, 영화 및 유선방송, 여섯째, 불량출판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주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곳, 당구장, 다방, 술집, 디스코, 극장 및 유흥가 등(참조:김준호,1987:4)과 같은 향락업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이나 청소년 잡지, 만화, 신문 등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환경의 유해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대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건전성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자극 중심의 유해성 요인 인식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성적 관련 사항이나 문제의 거론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문화풍토는 통념적으로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없이 사회적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무엇이 유해환경인지, 그 규제의 정당성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다. 특히 일본사회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분류 등에 대한 이론적 인식들은 한국사회에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을 논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면서 유해환경과 소년비행의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주로 풍속환경과 관련하여 유해환경이 인식되어 왔다. 주로 유해환경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체, 물(物), 장소, 기회, 행위 등(참조: 藤本哲也:1985:18-19 ; 靑少年育成國民會議,1985:9)’으로 규정된다. 즉,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이 인간적으로 성숙·발전해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문화적·정신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환경의 유해성은 유해환경의 성격과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서적이거나 향락업소와 같은 환경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며 혹은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이 유해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완구류와 같은 유해물품의 유해성은 성적 감정을 자극하고 혹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이라 할 수 있다(참조: 藤本哲也,1985:18).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사회적·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환경 요인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체계(참조: 강대근, 1984 ; 한준상,1991)로 간주할 수 있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요소들 즉, 사회·심리학적 개념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때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는 하나의 물(物)이나 매체, 장소 혹은 기회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다시 말해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적·정신적인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공해(教育的 公害)’로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공해’의 요건 즉, 유해성의 요소는 크게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및 ‘비행화’의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참조: 矢島正見,1987). 첫째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로서의 유해성 요건은 유해환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범죄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성들이 포함된

다. 둘째, ‘피해’의 유해성 요건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행하게 되는 요소들로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공포심을 부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나 위해를 미치는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비행화’의 요건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의 조장과 범죄성의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의 축적은 아직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유해환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적 논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유해환경과 비행이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증해 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비행의 내성이 유해환경과 대단히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참조:유혜경,1986 ; 김준호,1987). 즉, 유해환경은 직접적인 비행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거나 비행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동료집단을 매개로 해서 비행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친화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해환경의 개념과 유해성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참조:矢島正見, 1987) 첫째,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즉, 유해환경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발달의 정도 및 사회적·문화적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예를 들어 비행의 경향이나 징후가 많은 청소년이나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의 롤라스케이트장, 전자오락실 및 디스코장 출입 등은 문제행동의 유발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지만, 그러한 시설이나 장소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유해환경이나 장소로 규정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TV, 비디오, 만화,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정보매체들의 유해성에 대한 판정 기준은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비교적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성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가 높은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적 호기심의 자극에 대한 유해성의 요건과 기준이 한

국사회와는 극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개념적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이중성을 떨 수 있게 된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이 극히 상대적 개념인 관계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결과는 청소년의 인간적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플러스 측면과 오히려 장애요인의 제거와 함께 그 자체의 건전한 활용이나 기회를 봉쇄하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마이너스 효과가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보다는 교육환경의 적극적인 조장이 효과적 대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해환경이란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은 개체와 환경간의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반응과 영향관계로 규정되지 않는다. 청소년 환경의 유해성은 청소년과 그 환경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유해환경은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체와 환경의 반응과 영향 관계의 과정 그 자체에서 작용하고 의미를 갖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해환경의 유해성 요건 중에서도 ‘피해’의 요소는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 단지 유해환경의 개체에 대한 영향의 정도와 개체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연령이나 신체적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이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일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허용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근거는 이러한 개체의 반응정도의 차이 즉,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접촉이나 관계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특성은 곧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나 법적 규제 등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유해환경의 분류

청소년들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환경을 분류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환경의 분류와 인식체계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환경의 분류가 많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또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해환경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해환경은 그 존재 자체가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에서 그것이 물리적 환경이건 심리적 환경이건 사회문화적 환경이건 간에 인간의 반응 영향체계의 관계 속에서 발달과정에 장애가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체계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즉, 유해환경은 궁극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간의 영향체계 속의 한 하위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환경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유해환경은 환경 자체의 기본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자연적 유해환경, 물질적 유해환경, 제도적 유해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유해환경은 지역의 기후, 지리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음향, 공기, 일조, 수질 등 주변의 자연조건 등의 좋지 않은 반응과 영향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 각종 자연환경의 공해는 일반 사회 뿐만 아니라 주요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일종이다. 둘째, 물리적 유해환경은 각종 공간, 구조물, 시설과 설비품들 중 청소년의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물리적 유해환경에는 지금까지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시하고 지적해온 향락퇴폐업소, 유흥·유기장, 각종의 불건전한 놀이마당과 장소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제도적 유해환경은 물리적, 자연적 환경과 달리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발달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각종 사회이념, 가치, 문화 등과 사회나 학교규칙 등의 각종 규정과 제도 등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 성격에 의한 분류를 기능상의 질적 성질에 따라 물리적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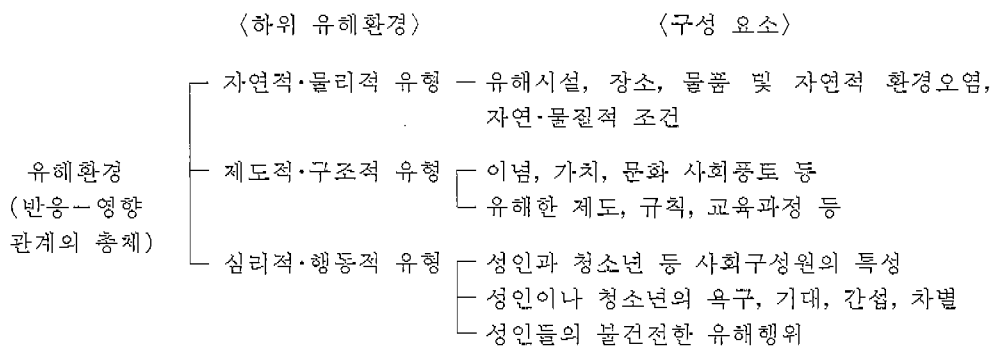
경과 사회·심리적인 환경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참조:교육개혁심의회,1987). 물리적 환경은 일종의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앞의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사회·심리적 환경은 이와 반대로 비가시적이고 비유형적인 환경으로서 제도적·구조적 환경과 아울러 사회구성원의 특성, 지각, 요구, 각종 역할기대 및 성인들의 행동 등도 포괄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특성과 작용 양식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지위, 구조, 과정 환경 등으로도 분류 가능(참조:강대근,1984)하며, 이경우 심리적 요인등은 과정환경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환경분류의 형태로서 청소년들의 생활의 장에 따라 유해한 가정환경, 유해한 학교환경, 유해한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는 부모들의 음주와 흡연, 빈번한 말다툼과 싸움, 가족들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열악한 물리적 교육조건과 상황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많은 교과목과 수업시간, 교사의 지나친 간섭이나 차별, 학교친구나 선배의 강요나 경쟁 등은 학교환경의 유해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황금만능주의적 사회풍조, 과소비 성향 및 향락퇴폐 문화의 성행 등은 유해한 사회환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생활의 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때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인식이 주로 가정과 학교교육 부문을 제외한 사회환경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의 향락업소, 대중매체, 학교주변의 물리적 유해환경의 영역 못지않게, 청소년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유해요소는 가정과 학교환경 부문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유해환경의 주요 자원으로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만이 집중되어 왔었던 것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 진단의 경향과 밀접되어 있는 것 같다. 즉,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일탈에 대한 인과적 논의들은 대개 사회적 원인론으로 집중되어 왔다. 청소년 비행과 대중매체의 상관이나, 문화적·심리적·구조적 결손가정과 관련성(참조:한준상,1989:165-233)에 대한 지적 관심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관심은 결국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과 분류에 있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파악

(참조:대한교육연합회,1981 ; YMCA,1989)이나 대중매체나 출판물 및 향락업소와 시설의 실태(참조:이중한,1989 ; 유수현,1989) 중심의 인식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가정이나 사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청소년 문제발생의 진원지일 수도 있다는 ‘학교교육 원인론(참조:한준상,1989:273-292)’ 등으로 이해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해환경의 인식영역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가정과 학교교육 환경에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의 범주로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유수현, 1989)나 재수생이나 청소년 자살의 한 원인으로 교육제도상의 문제 등 각종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시도(YMCA,1989)들은 이러한 경향의 뚜렷한 징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유해환경의 구성요인들과 분류방법을 종합하여, 기능상의 질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자연적·물리적 유해환경, 둘째, 제도적·구조적 유해환경, 셋째로 심리적·행동적 유해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



비고 : 이 분류는 최지운(1984)이 대학환경의 구성요인을 분류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이러한 유해환경의 분류 요인들은 최지운(1984)이 대학환경요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전체 체계로 통합되는 관계에 있다. 자연적·물리적 유해환경과 제도적·구조적 유해환경은 자극적 조건이 되는 환경요소이며 심리적·행동적 환경은 성인과 청소년 자신들의 상호작용 혹은 과정 상에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기능상의 질적 성격에 의한 분류와 구성 요인의 인식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째, 유해환경을 일반적 환경의 한 하위체계로 이해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유해환경은 단순히 특정 이념이나 관점을 통해 파악되는 일시적인 나쁜 유행적 현상이나 물리적 퇴폐 형태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환경의 반응과 영향체계상의 한 기능으로 고려해야 한 영향체계로서 유해환경을 인식하고 접근하게 해 줄 수 있다.

둘째, 유해환경의 유형형태를 자연적 환경에서부터 구조적·심리적·행동적 환경 요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향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수질이나 공기 등의 오염에 의한 환경공해가 청소년의 교육적 환경으로서의 ‘교육적 공해’ 차원의 성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대응방안과 전략은 곧 환경공해에 대한 생존적 차원과 동일한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해환경의 기능상의 분류가 이러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인지 가능한 존재형태로 분류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책의 수립이나 사회적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해환경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비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기능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현재 청소년들이 접촉하게 되는 존재형태를 주요한 근거로 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별 분류는 비록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적 접근을 소홀히 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환경의 사회적 실체의 확인이나 인지가 용이하며, 특히 청소년과 비행과 유해환경간의 관

계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유해환경과 비행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어렵지만 현상적 관계, 예를 들어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로 접근함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어떤 환경이 청소년의 비행의 장소로 제공되고 기회를 매개하는지의 관계 인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대상은 대개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학교주변이나 대중매체 등의 유해요소 등으로 지역이나 특정 장소 중심과 존재형태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존재형태별 분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행위, 물품 등 사회적 실체별로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참조: 藤本哲也, 1985;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11-12). 특히 후지모또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크게 (1) 유해행위 (2) 유해물품 (3) 유해시설 (4) 그 자체는 유해환경이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해행위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여 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성폭행, 야간배회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 범죄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신들이나 성인들의 문제행동 등도 크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리적·행동적 유행의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품으로는 유해완구, 유해도서(도색잡지, 만화 등), 유해광고물, 유해약품, 술, 담배, 자판기, 각종 포르노비디오, 성인영화, 피임구, 일부 스포츠신문 등을 분류하고 있다. 셋째, 유해시설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장소적인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음란 출판물이나 성도구를 파는 노점상과 학교주변의 각종 위험물과 쓰레기 하치장, 도축장 등과 같은 각종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시설들도 대표적인 유해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어떠한 시설이든지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그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그 시설이 주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어떤 내

용이나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유해시설의 유해성 판단의 주요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유해시설의 유해성을 해소 척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유해성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거나 차단하기 보다는, 적절한 보호와 지도하에서 시설을 이용하되 유해성있는 내용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넷째,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청소년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즉, 역 주변, 동네의 어둡고 한적한 장소, 농촌의 빈 집이나 빈 온상 등과 디스코장, 전자오락실, 각종 분식점 및 스낵코너, 불량집단이나 폭력단 및 정보공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주요한 지적 소유나 판단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는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가치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소지를 안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정보원천과의 접촉 시간이 장기화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량 자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청소년들을 수많은 정보의 내용에 그대로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건전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배양시키거나, 건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새로이 창출하거나 변형하여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존재형태별로 분류하는 두번째 방식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유해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유해환경이나 풍속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참조:內山杓子,1985). 첫째, 유해환경이 직접 비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나 성인영화의 선전광고나 혹은 포르노잡지 등의 정보를 통해 직접 성적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강간 등 각종 성폭행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 관계의 유해환경이다. 또한 전자오락실이나 디스코장에서 쓸 유흥비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 불법 음란비디오의 관람이 청소년의 ‘모방’ 충동 등 심리학적 ‘탈제지’ 기제를 통해 자위행위에서 근친상간, 미혼모 급증, 집단 성행위와 가정 파괴범을 양산하는 계기를 제공(참조:서울YMCA청소년성교육상담센터,1989)하고 있거나, 소년범죄의 동기별

상황에서 유흥비나 허영 사치심에 의한 유발이 매년 15% 안팎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들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유해환경의 역할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각종 숙박업소나 공원 등 비교적 한적하거나 밀폐된 공간이나 유흥업소 등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각종 약물이나 카스 흡입 등의 문제행동의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유해환경이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매개로 해서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이다.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대단히 미진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일정한 환경변인이 비행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보다는 비행가능성이 있는 동료집단과의 매개를 통해 비행 경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참조:유혜경,1986). 일본의 청소년육성국민회의보고서(1985)는 포르노잡지나 각종 매스미디어 등의 정보환경과 비행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정보환경의 영향 빈도나 정도는 적으며, 있더라도 또래집단의 작용이 매개요인이 되며, 각종 매스미디어가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위 수행에 편리한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간에 범죄적 미디어의 내용에 있어서 접촉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서 의견이 참조가 될 수 있다(참조:內山栂子,1985). 이렇게 볼 때 유해환경은 직접적인 비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내용이나 형태등의 접촉을 매개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을 통해 환경을 분류할 경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연령과 발달 차이에 따라 그 관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과정에 있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에 있어서는 심리적·생리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성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소년과 일반 소년 사이에 전자오락실과 다방 출입 및 포르노잡지 구독 유무를 비교한 연구의 결과(참조:內山栂子,1985)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국민학생과 중학생 등 저연령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비행집단과 일반 집단간에는 오락실 출입이나 포르노잡지를 본 유해환경의 체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반해,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 집단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터해 우찌야마(1985:15-16)는 유해환경이 직접적인 비행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연령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며, 비행의 우려가 있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맺는 장이 된다든지, 비행장소나 기회의 제공이라는 간접적인 영향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해환경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유해환경의 분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유해환경을 존재형태별로 분류하는 후지모토의 분류를 변용한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유해환경의 이론적 분류작업에 직접적인 일차적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되고 있는 유해환경이란 무엇이며, 그 환경들의 유해성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또한 유해환경과 비행간의 상관은 어떠한지 등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을 나누는 사회적 존재 상태에 기준을 두고 분류하여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유해행위 등으로 영역화하되 대중매체등의 정보환경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정보환경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환경이 다른 존재형태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온 영역이며, 이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의 임의로 분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 (1) 유해시설 및 장소;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 우려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의 유해환경.

이러한 시설이나 장소로서의 유해환경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해시설이나 장소가 아니라 앞에서 유해환경의 개념적 특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는 관점이나 상황 조건에 따라 상대적 의미에서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다.

공원,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성인오락실, 당구장, 롤라스케이트장, 디스코장, 성인디스코장, 퇴폐이발소, 경양식집(레스토랑), 카페(술도 파는 곳), DJ있는 커피숍, 만화가게, 심야만화가게, 사설독서실,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사창가, 소극장

(2) 유해물품 ;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불량장난감, 불량학용품, 담배자판기, 불량식품,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3) 유해행동 ; 성인들의 관여나 간접형태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유발하는 각종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야간배회, 무단결석, 도박, 절도, 집단패싸움, 흉기소지, 폭행, 가출, 반항(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 음란낙서, 이성과 성관계, 성폭행

(4) 유해한 정보환경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해.

1) TV영역

쇼·코메디 프로, 연속극 및 수사물,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외국영화 및 연속물,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만화영화, AFKN, 일본방송, 유선방송

2) 신문, 잡지, 소셜 영역

각종 스포츠신문, 여성대상 월간지, 청소년 대상 월간지, 일반 성인용 주간지, 월간오락잡지, 사건 및 야담잡지, 외국음란잡지, 성인만화, 어린이 월간지,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3) 광고 영역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옥외광고(길거리 광고)

4)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음란 비디오테이프,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환경을 생활영역별로 구분하여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볼 때, 세 가지 각각의 환경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유해시설·장소, 유해물품,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 영역에서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식구들의 잦은 싸움,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식구들의 무관심 등 많은 행위 등이 상황 조건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에 관계있는 학교나 작업장의 생활영역과 관련된 유해환경으로는 학교(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근로시간),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 선배나 친구의 강요, 친구들간의 과다 경쟁, 학교(직장)주변 폭력배, 잦은 시험 및 입시위주 교육,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등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과 학교환경을 제외한 일반 사회적 환경으로는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장난전화, 정치불안,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 데모, 민생치안 부재, 과소비 풍조 등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은 청소년의 발달 차이와 상황 조건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은 그것이 구조적이나 과정적 환경으로서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유해성 정도에서 논자에 따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은 청소

년의 유해환경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병리나 문제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은 물론,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Ⅲ. 유 해 환 경 점 촉 실 태

Ⅲ. 유해환경 접촉실태

1.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

이제부터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유해환경이 어떻게 유해한가, 청소년들은 이러한 환경에 얼마나 접촉하고 있으며 얼마나 유해하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앞서 유해환경의 분류에서 언급한대로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대중매체, 유해상황의 순서로 각각의 이용 또는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해행위는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이므로 유해환경 자체로 보기 보다는 유해환경과의 관련성을 보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와 그런 업소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업소나 시설의 이용경험은 5점 척도(일주일에 1~2회이상, 한달에 1~2회정도, 두세달 1~2회정도, 1년에 1~2회정도, 해본적이 없다)를 사용하여 지난 일년 동안의 이용경험 여부 및 빈도를 파악 하였으며 환경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도 5점 척도(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에 의해 응답되었다.

〈표 Ⅲ-1-1〉는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용율은 지난 일년간에 이용한 응답자의 전체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유해도는 각각의 업소나 시설에 대해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을 뜻한다. 이용율과 유해도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전체’란에 제시된 숫자는 전체 응답자 집단에서의 이용율과 유해성 평가결과이고 ‘남고’란은 남자고등학교생 집단에서의 이용율과 유해성 평가결과이다. 남자고등학교생 집단의 결과를 함께 제시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가 남자고등학교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아도 학생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시설 및 장소 이용율과 유해도

〈표 Ⅲ-1-1〉

(단위 : %)

시 설 및 장 소	이 용 율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공원	80.0	82.6	4.6	4.0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22.9	25.6	56.8	47.2
전자오락실	64.1	92.5	49.1	30.1
성인오락실*	6.7	10.2	86.2	81.9
당구장	17.4	43.2	68.4	46.9
롤러스케이트장	59.0	61.2	22.3	20.6
디스코장	18.4	17.1	66.8	55.7
성인디스코장*	12.6	7.0	81.0	78.1
퇴폐이발소*	4.0	4.2	89.3	90.1
경양식집*	71.0	78.2	12.7	6.7
카페(술도 파는 곳)*	32.0	43.0	55.8	43.9
일일찻집*	27.5	27.6	32.9	33.4
DJ커피숍*	31.5	29.2	31.7	26.3
포장마차*	39.8	46.6	25.5	20.4
음악감상실*	34.7	26.9	6.5	5.9
만화가게	56.6	78.2	39.4	25.9
심야만화가게*	10.0	17.4	84.1	79.4
사설독서실	26.4	63.1	15.8	10.5
제과점	91.1	89.9	2.2	1.3
분식점	92.5	94.5	5.2	2.0
페스트푸드(햄버거집 등)	69.8	71.6	8.2	5.7
비디오가게	50.6	62.7	41.4	36.4
입시 및 각종학원	61.6	62.1	9.2	9.0
음란 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9.5	26.0	88.4	81.2
문방구	97.1	97.4	2.5	2.6
사창가*	7.8	10.8	82.9	81.8
유흥가*	15.1	25.3	84.7	81.3
소극장*	62.1	72.7	30.5	27.1

*는 국민학생용 질문자에게 제외된 문항임.

청소년중 유해환경 접촉이 가장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일년간 이용율이 높은 업소나 장소는 문방구(97.1% : 전체응답자 중 이용자의 비율), 분식점(92.5%), 제과점(91.1%), 공원(80.0%) 등 이었다. 이들 장소나 업소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여(문방구 2.5%, 분식점 5.2%, 제과점 2.2%, 공원 4.6%) 청소년 자신들은 유해하다고 평가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장소나 업소는 경양식집(71.0%), 패스트푸드(69.8%), 전자오락실(64.1%), 소극장(62.1%), 입시 및 각종학원(61.6%), 롤라스케이트장(59.0%), 만화가게(56.6%), 비디오가게(50.6%)였다. 이들 중 전자오락실(49.1%), 비디오가게(41.4%), 만화가게(39.4%), 소극장(30.5%)은 유해하다고 평가된 반면에 경양식집(12.7%), 패스트푸드(8.2%), 입시 및 각종학원(9.2%)은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롤라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22.3%의 응답자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그간의 신문보도와는 달리 청소년 자신들은 아주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은 포장마차(39.8%), 음악감상실(34.7%), 카페(32.0%), DJ있는 커피숍(31.5%), 일일찻집(27.5%), 사설독서실(26.4%),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22.9%), 디스코장(18.4%), 당구장(17.4%) 등의 업소이었다. 이들 중 카페(55.8%),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56.8%), 디스코장(66.8%), 당구장(68.4%)은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포장마차(25.5%), DJ있는 커피숍(31.7%), 일일찻집(32.9%)은 유해한 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사설독서실(15.8%)은 별로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밖에 디스코장(18.4%), 당구장(17%), 유흥가(15.1%), 성인디스코장(12.6%), 심야만화가게(10.0%), 음란출판물 노점상(9.5%), 사창가(7.8%), 성인오락실(6.7%), 퇴폐이발소(4.0%)는 비교적 소수의 청소년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 업소가 유해하다고 한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 유흥가 84.7%, 성인디스코장 81.1%, 심야만화가게 84.1%, 음란출판물 노점상 88.4%, 사창가 82.9%, 성인오락실 86.2%, 퇴폐이발소 89.3%로 청소년 자신들에 의해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업소 또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고등학생의 이용율은 대체적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으며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소 덜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부터는 업소나 장소 중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거나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에 대하여 집단별로 이용율 및 유해성 평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는 본래의 목적인 숙박보다도 각종 탈선 및 윤락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일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퇴폐향락에 사용되는 유해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숙박업소에서의 유해행위로는 윤락녀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알선 하는가 하면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하며 청소년들의 혼숙행위를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 환각제 사용 등 유해행위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숙박업소

〈표 Ⅲ-1-2〉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3983)	1.4	2.3	2.4	16.8	76.2	1.0	22.9	1.1	3.1	36.6	25.8	31.0	2.5	56.8
중	학														
생	남 (763)	1.8	2.4	1.7	14.9	78.6	.5	20.8	1.0	3.7	37.0	25.2	30.8	2.4	56.0
	여 (829)	.7	.4	.5	10.5	87.2	.7	12.1	.6	2.2	28.3	24.8	42.3	1.7	67.1
소	계 (1592)	1.3	1.3	1.1	12.6	83.1	.6	16.3	.8	2.9	32.5	25.0	36.8	2.0	61.8
고	동														
학	생														
	남 (696)	1.6	1.9	4.0	18.1	74.1	.3	25.6	2.0	4.2	44.8	29.0	18.2	1.7	47.2
	여 (701)	.0	.9	.7	7.6	90.2	.7	9.1	.1	1.7	32.0	28.2	35.8	2.1	64.0
소	계 (1397)	.8	1.4	2.4	12.8	82.2	.5	17.3	1.1	2.9	38.4	28.6	27.1	1.9	54.7
근로	청소년														
	남 (334)	4.5	9.3	10.2	26.3	48.2	1.5	50.3	2.7	5.4	43.1	20.7	25.7	2.4	46.4
	여 (660)	1.2	3.0	1.7	30.8	60.9	2.4	36.7	.9	3.0	39.2	24.4	27.7	4.7	52.1
소	계 (994)	2.3	5.1	4.5	29.3	56.6	2.1	41.3	1.5	3.8	40.5	23.1	27.1	3.9	50.2

〈표 Ⅲ-1-2〉은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를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22.9%가 지난 일년동안에 숙박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청소년의 경우 남자고등학생의 25.6%, 남자중학생의 20.8%, 여자고등학생의 9.1%, 여자중학생의 12.1%가 지난 일년동안에 숙박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일년에 1~2회정도 이용해 본 사람은 여

행 등의 전전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월 1~2회 또는 두세달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숙박업소가 비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두세달에 1~2회 또는 더 자주 숙박업소를 이용한 상습적 숙박업소 이용자는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7.5%, 남자중학생의 5.9%, 여자고등학생의 1.6%, 여자중학생의 1.6%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자중고등학생의 1.6%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50.3%, 여자의 36.7%가 지난 일년동안에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었으며, 두세달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남자 24.0%, 여자 11.9%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인 경우 주 1~2회 이상 이용자도 4.5%에 달했다. 근로청소년의 이용율이 높은 것은 이들은 학교나 직장의 통제를 안 받으며 숙박업소 등 유해환경 접촉이 사회적으로 크게 제지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상 응답자 전체의 56.8%가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보고 있으며 36.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숙박업소는 청소년 자신들이 건전성장에 유해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이용율이 높았던 남자 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의 46.4%와 47.2%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낮다. 이는 많이 이용하는 집단일 수록 덜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용경험과 유해도 평가와의 상관관계는 비행이론 중 중화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유해업소를 사용하거나 유해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자체를 정당하거나 유해하지 않다고 이미 합리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해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유해행위를 당연시하는 하위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스스로도 유해하다고 생각하나 소수의 청소년들에 의해 상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숙박업소에 대한 미성년자의 통제 및 단속이 미흡하며, 숙박업소가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전자오락실과 성인오락실

청소년들을 위한 오락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중의 하나로 전자오락실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오락실이 전전한 놀이시설로 인식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비행동기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오락실이 유해하다고 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락의 내용이 때리고 폭발하고 부수고 잡아먹고 하는 것으로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며 단순한 기계조작으로 사고가 단순화되기도 하고 어둡고 지저분하며 시끄러운 가운데 흡연, 도박 등 각종 비행이 행해지며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들고 비용마련을 위해 도박, 절도 등 비행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전자오락실

〈표 Ⅲ-1-3〉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운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19.8	14.4	11.3	18.6	35.2	.6	64.1	2.4	7.2	39.8	23.6	25.5	1.4	49.1
남	(496)	16.1	16.1	13.7	26.0	27.4	.6	71.9	2.0	2.2	17.5	34.1	42.7	1.4	76.8
여	(486)	1.2	1.6	2.1	11.3	83.1	.6	16.2	1.0	.8	3.7	22.4	71.4	.6	93.8
소 계	(982)	8.8	9.0	7.9	18.7	55.0	.6	44.4	1.5	1.5	10.7	28.3	56.9	1.0	75.2
중 학생															
남	(763)	43.8	21.4	12.6	13.0	9.3	.0	90.7	4.6	9.6	48.5	22.9	13.6	.8	36.5
여	(829)	8.9	8.6	6.3	19.4	56.5	.4	43.2	1.2	4.5	32.1	27.0	34.5	.7	61.5
소 계	(1592)	25.6	14.7	9.3	16.3	33.9	.2	66.0	2.8	6.9	39.9	25.1	24.5	.8	49.6
고 등 학 생															
남	(696)	33.9	28.6	17.5	12.5	7.2	.3	92.5	3.6	11.9	53.6	21.3	8.8	.9	30.1
여	(701)	11.4	10.4	12.8	25.5	39.4	.4	60.2	1.3	8.6	53.1	22.3	14.0	.9	36.3
소 계	(1397)	22.6	19.5	15.2	19.0	23.3	.4	76.3	2.4	10.2	53.3	21.8	11.4	.9	33.2
소 로 청 소 년															
남	(334)	39.5	19.2	17.1	14.4	9.0	.9	90.1	3.3	14.4	57.2	15.0	8.1	2.1	23.1
여	(660)	6.1	8.9	9.8	25.3	47.6	2.3	50.2	2.0	6.5	45.5	21.7	20.0	4.4	41.7
소 계	(994)	17.3	12.4	12.3	21.6	34.6	1.8	63.6	2.4	9.2	49.4	19.4	16.0	3.6	35.4

〈표 Ⅲ-1-3〉는 전자오락실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92.5%, 남자중학생의 90.7%, 남자국민학생의 71.9%, 여자고등학생의 60.2%, 여자중학생의 43.2%, 여자국민학생의 16.2%가 지난 일년 동안에 전자오락실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교급별로 볼 때 상급학교일 수록 이용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자들의 이용율이 여자보다 훨씬 높으며 심지어 남자국민학생의 이용율이 여자고등학생의 이용율 보다 높았다. 이는 여자의 전자오락실 출입에 대해 비허용적인 관습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주 1~2회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남자중학생의 43.8%, 남자고등학생의 33.9%, 남자국민학생의 16.1%에 달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90.1%, 여자의 50.2%가 지난 1년동안에 전자오락실을 이용해 보았으며 남자의 39.5%, 여자의 6.1%가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했다.

전자오락실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1%가 전자오락실은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응답한 반면 9.6%는 이롭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스스로도 전자오락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여자국민학생(93.8%), 남자국민학생(76.8%)과 여자중학생들(61.5%)이 전자오락실이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전자오락실을 많이 이용하는 남자근로청소년(23.1%)이나 남자고등학생들(30.1%)은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은 전자오락실이 유해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여가활동 방법이 별로 없는 현실과 이용의 편리성 및 전자오락이 주는 순간적인 재미 때문에 전자오락실을 중요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오락실이 청소년의 중요한 여가시설로 자리잡고 있느니 만큼 폭력성 위주의 오락내용 개선과 불법적인 사행성 오락기기 설치단속과 전자오락실의 시설, 분위기 등을 개선하여 건전한 놀이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표 Ⅲ-1-4〉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이용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성인오락실은 도박 및 사행성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로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중심으로 출입을 하며 업소에서는 묵인하는 실정에 있다. 지난 일년간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보면 중학생이상 응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성인오락실

〈표 III-1-4〉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1.0	1.0	1.2	3.5	92.1	1.2	6.7	.7	.9	9.3	22.7	63.5	2.8	86.2
중학생															
남	(763)	1.3	.3	.5	2.5	94.4	1.0	4.6	.5	.8	4.8	17.7	73.4	2.8	91.1
여	(829)	.2	.1	.1	.6	98.3	.6	1.1	.4	.2	2.9	15.1	79.6	1.8	94.7
소계	(1592)	.8	.2	.3	1.5	96.4	.8	2.8	.4	.5	3.8	16.3	76.6	2.3	92.9
고등학생															
남	(696)	1.4	1.6	1.4	5.7	89.5	.3	10.2	1.0	.6	14.2	29.7	52.2	2.3	81.9
여	(701)	.3	.3	.1	1.4	97.1	.7	2.1	.0	.3	8.4	26.4	63.6	1.3	89.9
소계	(1397)	.9	.9	.8	3.6	93.3	.5	6.2	.5	.4	11.3	28.1	57.9	1.8	86.0
근로청소년															
남	(334)	3.3	3.9	6.9	9.6	72.8	3.6	23.7	1.8	42.	15.6	23.4	52.1	3.0	75.5
여	(660)	.9	1.4	1.1	5.3	88.8	2.6	8.6	1.4	1.4	14.8	26.7	49.4	6.4	76.1
소계	(994)	1.7	2.2	3.0	6.7	83.4	2.9	13.7	1.5	2.3	15.1	25.6	50.3	5.2	75.9

답자의 6.7%로서 전자오락실(64.1%)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이 10.2%, 남자중학생이 4.6%이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2.1% 이하였다. 남자근로청소년은 23.7%, 여자근로청소년은 8.6%로 근로청소년의 이용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남자고등학생의 1.4%, 남자중학생의 1.3%이며 남자근로청소년은 3.3%이었다.

성인오락실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86.2%가 해롭다고 보고 있어 전자오락실(49.1%)보다 훨씬 더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덜 유해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오락실의 미성년자 및 학생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기관의 단속보다는 업자들의 자주적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3) 당구장

당구장은 유기장으로서 미성년자와 학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 미성

년자 및 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이 묵인되고 있으며, 당구장에서는 흡연, 음주, 도박 등 각종 비행이 행해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문제학생(남자)들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당구장

〈표 Ⅲ-1-5〉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3.7	3.7	2.9	7.0	81.3	1.2	17.4	1.3	3.0	24.7	23.2	45.2	2.6	68.4
국 민 학 생															
남	(496)	.2	.6	.2	1.8	95.6	1.6	2.8	.2	.8	7.1	18.1	71.0	2.8	89.1
여	(486)	.0	.2	1.0	1.4	95.9	1.4	2.7	.6	.8	11.5	17.3	68.7	1.0	86.0
소 계	(982)	.1	.4	.6	1.6	95.7	1.5	2.7	.4	.8	9.3	17.7	69.9	1.9	87.6
중 학 생															
남	(763)	3.0	1.3	1.7	3.8	89.5	.7	9.8	.9	2.0	18.6	23.9	52.4	2.2	76.3
여	(829)	.5	.4	.8	1.1	96.4	.8	2.8	.1	.5	13.5	21.5	62.5	1.9	84.0
소 계	(1592)	1.7	.8	1.3	2.4	93.1	.8	6.2	.5	1.2	16.0	22.6	57.7	2.1	80.3
고 등 학 생															
남	(696)	12.2	10.9	6.6	13.5	56.3	.4	43.2	3.7	7.9	39.7	29.2	17.8	1.7	46.9
여	(701)	.1	.1	.7	4.0	94.2	.9	5.0	.1	1.0	27.2	31.5	38.4	1.7	69.9
소 계	(1397)	6.2	5.5	3.7	8.7	75.3	.6	24.1	1.9	4.4	33.4	30.4	28.1	1.7	58.5
근로청소년															
남	(334)	18.0	21.6	12.9	15.0	30.5	2.1	67.4	5.1	12.6	50.9	11.7	15.9	3.9	27.6
여	(660)	1.8	2.4	3.9	18.8	70.2	2.9	27.0	1.1	2.7	37.3	23.8	29.4	5.8	53.2
소 계	(994)	7.2	8.9	6.9	17.5	56.8	2.6	40.5	2.4	6.0	41.9	19.7	24.8	5.1	44.5

청소년들의 당구장 이용정도가 〈표 Ⅲ-1-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7.4%의 청소년들이 지난 일년동안에 당구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성별, 교급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 43.2%, 남자중학생 9.8%가 이용해 본 적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5.0%, 중학생 2.8%로 이용율이 높지 않았다.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청소년은 고등학생의 12.0%, 중학생의 3.0%에 달하며, 당구장내에서 흡연, 도박 등 각종 비행이 행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구장 상습이용자들이 비행청소년이거나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67.4%, 여자의 27.0%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남자의 18.0%, 여자의 1.8%는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출입한다고 하였다.

당구장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민학생(87.6%)과 중학생들(80.3%)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 반면에 이용경험이 많은 집단인 남자근로청소년과 남자 고등학생은 각각 37.6%와 46.9%만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용을 많이 할 수록 유해하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롤라스케이트장

롤라스케이트장은 다른 업소에 비해 등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으며 다수의 청소년이 자주 이용할 만큼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해 롤라스케이트장이 흡연, 음주 등 각종 비행에 사용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장을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롤라스케이트장

〈표 Ⅲ-1-6〉

구 분	사태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3.6	7.8	10.1	37.5	40.3	.8	59.0	4.9	15.3	55.4	11.4	10.9	2.0	22.3	
	남	(496)	5.8	12.9	14.9	27.4	36.9	2.0	61.1	4.4	14.1	56.0	9.7	12.9	2.8	22.6
국 민 학 생	여	(486)	5.6	9.1	12.1	34.6	37.4	1.2	61.3	3.9	9.3	58.0	11.7	14.4	2.7	26.1
	소 계	(982)	5.7	11.0	13.5	31.0	37.2	1.6	61.2	4.2	11.7	57.0	10.7	13.6	2.7	24.3
중 학 생	남	(763)	3.9	9.8	13.5	37.5	35.3	.0	64.8	5.5	16.6	57.0	10.4	9.6	.9	20.0
	여	(829)	2.8	5.4	6.4	36.1	49.1	.2	50.7	1.7	8.1	52.1	17.5	19.1	1.6	36.6
소 계	(1592)	3.3	7.5	9.8	36.7	42.5	.1	57.4	3.5	12.2	54.5	14.1	14.5	1.3	28.6	
고 등 학 생	남	(696)	2.3	6.3	9.3	43.2	38.4	.4	61.2	4.9	21.1	52.3	13.1	7.5	1.1	20.6
	여	(701)	.7	3.1	7.6	40.1	47.9	.6	51.5	2.3	11.4	60.5	14.7	10.0	1.1	24.7
소 계	(1397)	1.5	4.7	8.4	41.7	43.2	.5	56.3	3.6	16.2	56.4	13.9	8.7	1.1	22.6	
근로청소년	남	(334)	8.1	11.7	12.3	38.6	28.1	1.2	70.7	13.5	20.4	51.5	4.5	7.2	3.0	11.7
	여	(660)	3.3	8.2	7.9	39.5	39.7	1.4	58.9	8.0	23.8	55.5	4.4	4.5	3.8	8.9
소 계	(994)	4.9	9.4	9.4	39.2	35.8	1.3	62.9	9.9	22.6	54.1	4.4	5.4	3.5	9.9	

제공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 납치 등의 범죄가 행해진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입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1-6〉에는 청소년의 볼라스케이트장의 이용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59.0%가 볼라스케이트장을 출입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국민학생 61.1%, 여자국민학생 61.3%, 남자중학생 64.8%, 여자중학생 50.7%, 남자고등학생 61.2%, 여자고등학생 51.5%가 볼라스케이트장을 출입해 본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용경험자의 반이상이 일년에 1~2회 가본적이 있는 정도이며 주 1~2회 이상 또는 월 1~2회 정도 이용자를 보면 국민학생과 중학생이 많아 이들이 주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들 중에는 남자의 70.7%, 여자의 58.9%가 지난 1년내에 볼라스케이트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주 1~2회 이상 또는 월 1~2회 정도의 상습이용자는 남자는 19.8%, 여자는 11.5%에 달해 국민학생과 함께 가장 자주 이용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볼라스케이트장이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3%가 ‘유해하다’고 한 반면 20.2%는 ‘유익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55.4%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어 볼라스케이트장을 유해환경이라고 규정짓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중학생(20.0%), 남자고등학생(20.6%)과 근로청소년(9.9%)들이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낮은 편이며 이들 집단에서는 오히려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가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소수의 유해한 업소가 실제로 있으나 볼라스케이트장 전체가 유해환경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운영을 건전하게 잘하면 청소년의 중요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디스코장

디스코장은 현란한 조명과 강한 비트의 음악이 있는 가운데 선정적인 육체적 움직임을 반복하므로 성충동을 자극하여 각종 성비행과 유흥비 조달을 위한 각종 범

최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나 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전용디스크장을 개장하여 전전한 놀이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디스크장

〈표 Ⅲ-1-7〉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0	2.4	4.5	10.4	80.7	1.0	18.4	1.7	5.5	23.7	20.6	46.2	2.3	66.8
국 민 학 생															
남	(496)	.0	.2	.4	1.4	95.2	2.8	2.0	1.0	.6	2.2	7.9	83.9	4.4	91.8
여	(486)	.2	.0	.4	1.9	95.5	2.1	2.5	1.4	.6	4.9	14.8	76.1	2.1	90.9
소 계	(982)	.1	.1	.4	1.6	95.3	2.4	2.2	1.2	.6	3.6	11.3	80.0	3.3	91.3
중 학 생															
남	(763)	.9	.9	1.3	2.8	93.8	.3	5.9	.3	2.6	13.1	23.3	58.3	1.8	81.6
여	(829)	.4	.4	.2	.6	97.8	.6	1.6	.7	2.7	13.9	20.5	60.6	1.7	81.1
소 계	(1592)	.6	.6	.8	1.6	95.9	.4	3.7	.8	2.6	13.5	21.9	59.5	1.8	81.4
고 등 학 생															
남	(696)	1.1	3.0	3.7	9.2	82.9	.0	17.1	2.9	7.2	32.6	28.4	27.3	1.6	55.7
여	(701)	.6	1.3	1.4	4.1	92.4	.1	7.4	.6	3.6	30.1	29.8	34.4	1.6	64.2
소 계	(1397)	.9	2.1	2.6	6.7	87.7	.1	12.2	1.7	5.4	31.4	29.1	30.9	1.6	60.0
근로청소년															
남	(334)	5.4	10.8	14.4	21.9	45.8	1.8	52.4	3.9	15.9	35.0	20.1	21.0	4.2	41.1
여	(660)	1.7	6.1	18.9	46.8	24.8	1.7	73.5	3.3	15.0	56.7	13.3	9.1	2.6	22.4
소 계	(994)	2.9	7.5	17.4	38.4	31.9	1.7	66.4	3.5	15.3	49.4	15.6	13.1	3.1	28.6

디스크장의 이용정도는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18.4%가 지난 1년내에 디스크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은 17.1%, 여자고등학생은 7.4%, 남자중학생 5.9%, 여자중학생 1.6%이며, 국민학생도 2.2%정도가 지난 1년내에 디스크장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1~2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고등학생 4.1%, 여자고등학생 및 남자중학생이 각각 1.9%, 0.8%였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지난 일년간 출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52.4%, 여자

가 73.5%로 나타나 여자의 이용 경험율이 더 높으나 월 1~2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가 16.2%, 여자가 7.8%로 오히려 남자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디스코장은 연령이 많은 청소년들이 주 이용자로 근로청소년의 이용율이 학생청소년보다 월등히 높고 학생 중에서는 고등학생이 주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디스코장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8%가 유해하다고 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국민학생의 91.8%, 중학생의 81.4%가 유해하다고 한 반면 고등학생은 60.0%, 근로청소년은 28.6%가 유해하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낮다. 특히 여자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22.4%가 유해하다고 했으나 18.8%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볼 때 근로청소년들은 별로 유해하다고 보지 않는 반면에 학생청소년들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디스코장 출입이 지위비행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성인디스코장

〈표 Ⅲ-1-8〉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중 학 생	계 (3983)	.6	1.1	3.2	7.7	86.4	1.0	12.6	.9	1.8	13.7	18.9	62.1	2.6	81.0
	남 (763)	.7	.0	.4	1.7	96.6	.7	2.8	.5	.7	3.4	13.0	80.3	2.1	93.3
	여 (829)	.0	.2	.1	.2	98.8	.6	0.6	.4	.2	3.6	11.9	82.0	1.8	93.9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3	.1	.3	.9	97.7	.6	1.6	.4	.4	3.5	12.4	81.2	1.9	93.6
	남 (696)	.9	1.0	1.4	3.7	92.7	.3	7.0	1.7	2.2	16.2	24.1	54.0	1.7	78.1
	여 (701)	.1	.1	.6	1.7	97.1	.3	2.6	.1	.3	8.7	24.0	64.9	2.0	84.9
소 근 로 청 소 년	계 (1397)	.5	.6	1.0	2.7	94.9	.3	4.8	.9	1.2	12.5	24.1	59.5	1.9	83.6
	남 (334)	2.1	5.1	10.5	13.5	67.4	1.5	31.1	1.8	6.6	21.6	21.9	44.6	3.6	66.5
	여 (660)	.9	2.4	11.2	31.8	50.8	2.9	46.4	1.7	4.1	37.0	21.8	30.5	5.0	52.3
소 계	(994)	1.3	3.3	11.0	25.7	56.3	2.4	41.2	1.7	4.9	31.8	21.8	35.2	4.5	57.0

성인디스코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음주가 보편화되고 각종 퇴폐적인 공연이

행해지고 있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업주의 특인 내지 조장 아래 소수의 청소년들이 성인디스코장을 출입하고 있다. <표 Ⅲ-1-8>에 제시된 성인디스코장 출입경험을 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12.6%가 지난 일년동안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7.7%는 일년에 1~2회 출입했다고 하나 나머지 4.9%는 여러 차례 내지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은 7.0%, 남자중학생은 2.8%, 여자고등학생은 2.6%, 여자중학생은 0.6%가 일년에 출입한 경험이 있었다. 근로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의 31.1%가 가본 적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46.4%가 가본 적이 있어 더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그러나 월 1~2회 이상 출입자는 남자근로청소년(7.2%)이 여자근로청소년(3.3%)보다 많고, 남자고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1.9%와 0.7%에 달했다.

성인디스코장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81.0%가 유해하다고 하여 디스코장(66.8%)보다 더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집단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 수록, 경험율이 높을 수록 덜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퇴폐이발소

퇴폐이발소에서의 퇴폐조장시설 및 종업원의 퇴폐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표 Ⅲ-1-9>에 제시된 청소년의 퇴폐이발소 출입경험을 보면 지난 일년 동안에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4.0%가 출입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남자고등학생의 4.2%, 남자중학생의 6.4%가 경험이 있으며 남자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14.1%에 달했다. 이들 중 두세달에 1~2회 이상 출입한 청소년들은 남자고등학생이 2.0%, 남자중학생이 3.9%, 남자고등학생이 8.1%에 달했다.

퇴폐이발소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89.3%가 유해하다고 하여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카페 및 경양식집

근년에 들어 카페나 경양식집의 청소년들에 의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장소에서의 흡연, 음주 등 비행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청소년 전용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퇴폐이발소

〈표 Ⅲ-1-9〉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3983)	.5	.6	1.2	1.8	94.3	1.7	4.0	.7	.7	5.7	12.6	76.7	3.7	89.3
중	학 (763)	.9	1.3	1.7	2.5	92.5	1.0	6.4	.8	1.3	6.8	13.2	74.8	3.0	88.0
학	생 (829)	.4	.1	.1	.6	97.7	1.1	1.2	.5	.5	3.5	11.1	82.0	2.4	93.1
소	계 (1592)	.6	.7	.9	1.5	95.2	1.1	3.7	.6	.9	5.1	12.1	78.6	2.7	90.7
고	등 (696)	.3	.7	1.0	2.2	95.4	.4	4.2	1.0	.6	6.2	15.2	74.9	2.2	90.1
학	생 (701)	.1	.0	.0	.6	98.7	.6	0.7	.3	.0	4.3	11.3	81.9	2.3	93.2
소	계 (1397)	.2	.4	.5	1.4	97.1	.5	2.4	.6	.3	5.2	13.2	78.4	2.2	91.6
근로	청소년 (334)	.9	1.2	6.0	6.0	83.8	2.1	14.1	1.2	1.5	11.7	13.8	67.1	4.8	80.9
남	자 (660)	.3	.3	1.2	1.1	91.4	5.8	2.9	.6	.9	5.0	11.5	73.5	8.5	85.0
소	계 (994)	.5	.6	2.8	2.7	88.8	4.5	6.6	.8	1.1	7.2	12.3	71.3	7.2	83.6

카페가 늘어나면서 사치성 업소화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이들 카페는 청소년 고객의 취향에 맞는 실내장식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하고 청소년 취향에 맞는 연예인의 비디오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장소는 어른들의 간섭과 제재가 없이 담배, 술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며 미팅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Ⅲ-1-10〉에는 카페의 이용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중학교 이상 청소년의 32.0%가 지난 일년내 카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의 43.8%, 여자고등학생의 22.0%, 남자중학생의 10.9%, 여자중학생 6.6%가 지난 1년내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출입하는 청소년이 남자고등학생의 4.3%, 남자중학생의 1.4%에 이르고 있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월 1~2회 이상 이용자는 16.1%에 이르고 있다. 전자오락실의 이용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카페의 이용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갈 곳이 없는’ 청소년 사이에 ‘갈만한 곳’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65.0%, 여자의 69.7%가 1년내에 이용한 경험이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카페

〈표 Ⅲ-1-10〉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은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계	(3983)	2.9	7.2	8.9	13.0	67.3	.7	32.0	1.8	4.4	36.1	24.3	31.5	2.0	55.8
중 학 생															
남	(763)	1.4	1.8	1.3	6.3	88.9	.3	10.9	1.2	2.1	24.5	28.2	42.1	2.0	70.3
여	(829)	.4	1.1	1.1	4.1	92.5	.8	6.6	.6	1.3	18.3	22.1	55.5	2.2	77.6
소 계	(1592)	.9	1.4	1.2	5.2	90.8	.6	8.7	.9	1.7	21.3	25.0	49.1	2.1	74.1
고 등 학 생															
남	(696)	4.3	11.8	12.1	15.7	56.0	.1	43.8	3.3	6.8	45.1	27.3	16.7	.9	43.9
여	(701)	.7	3.1	4.6	13.6	77.6	.4	22.0	.1	3.7	36.2	30.4	28.0	1.6	58.4
소 계	(1397)	2.5	7.4	8.3	14.6	66.9	.3	32.8	1.7	5.2	40.7	28.8	22.3	1.2	51.1
근로청소년															
남	(334)	9.9	16.5	21.0	17.7	33.2	1.8	65.0	3.6	8.7	46.1	18.0	20.1	3.6	38.1
여	(660)	5.2	15.8	22.7	26.1	29.1	1.2	69.7	3.0	7.0	57.3	15.9	14.2	2.6	30.1
소 계	(994)	6.7	16.0	22.1	23.2	30.5	1.4	68.1	3.2	7.5	53.5	16.6	16.2	2.9	32.8

있으며 월 1~2회 이상 이용자는 남자 26.4%, 여자 21.0%에 이르고 있어 생활속의 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페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상 청소년의 55.8%가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학생들은 74.1%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근로청소년(32.8%)과 남자고등학생(43.9%)들은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해롭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카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곳은 못되지만 소수의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1〉에 제시된 경양식집의 이용율을 보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71.0%가 지난 일년 동안에 경양식집을 이용했다고 하며 카페(32.0%)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7.7%, 중학생이 55.0%, 근로청소년이 87.6%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간에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12.7%가 유해하다고 한 반면 28.3%는 유익하며 56.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경양식집

〈표 Ⅲ-1-11〉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4.9	17.2	21.5	27.4	28.2	.8	71.0	5.8	22.5	56.9	5.3	7.4	2.1	12.7
중학생	(763)	3.4	10.7	13.8	24.5	46.7	.9	52.4	6.2	18.3	49.1	10.7	13.6	2.0	24.3
남	(829)	2.4	7.7	14.8	32.3	42.2	.5	57.3	3.4	14.6	58.5	6.4	14.6	2.5	21.0
여	(1592)	2.9	9.2	14.3	28.6	44.3	.7	55.0	4.7	16.4	54.0	8.5	14.1	2.3	22.6
고등학생	(696)	6.2	20.4	23.3	28.3	21.4	.4	78.2	7.2	27.0	57.8	3.7	3.0	1.3	6.7
남	(701)	3.7	14.6	19.7	37.5	22.4	.4	77.2	4.1	26.4	62.6	2.7	3.0	1.1	5.7
여	(1397)	4.9	18.3	21.5	32.9	21.9	.4	77.7	5.7	26.7	60.2	3.2	3.0	1.2	6.2
소년	(334)	12.3	25.4	28.4	18.3	14.7	.9	84.4	7.2	23.4	59.6	4.2	2.1	3.6	6.3
소녀	(660)	5.9	30.0	35.6	17.7	9.2	1.5	89.2	8.3	28.0	55.6	2.4	3.0	2.6	5.4
소년소녀	(994)	8.0	28.5	33.2	17.9	11.1	1.3	87.6	7.9	26.5	56.9	3.0	2.7	2.9	5.7

9%는 보통이다라고 하여 별로 유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는 중학생(22.6%)들 중에서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양식집은 카페와 달리 별로 유해하지 않으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주점에서와 같이 흡연이 행해지고 있어 미성년자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하나 포장마차는 공식적인 허가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허가업소의 경우 보다도 규제가 더 힘든 상황이다. 포장마차의 이용실태를 〈표 Ⅲ-1-12〉에서 살펴보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39.8%가 지난 일년 동안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46.6%, 남자중학생의 32.0%, 여자고등학생의 24.8%, 여자중학생이 17.9%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높은 이용율을 보면 주류는 팔지 않고 간식류(예,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도 포함하여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포장마차

〈표 III-1-12〉

구 분	사래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음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3983)	3.0	6.0	8.2	22.6	59.6	.6	39.8	2.6	9.3	61.1	15.5	10.0	1.6	25.5
중 학 생															
남	(763)	2.4	3.1	4.8	21.6	67.9	.1	32.0	2.0	10.4	58.7	16.6	11.5	.8	28.1
여	(829)	.7	1.9	2.1	13.1	81.4	.7	17.9	1.0	4.3	54.2	20.3	18.5	1.8	38.8
소 계	(1592)	1.5	2.5	3.4	17.2	74.9	.4	24.6	1.4	7.2	56.3	18.5	15.1	1.3	33.6
고 등 학 생															
남	(696)	3.2	8.9	10.6	23.9	53.3	.1	46.6	3.7	13.5	61.5	15.2	5.2	.9	20.4
여	(701)	2.1	2.4	3.4	16.8	74.8	.4	24.8	1.9	7.6	68.3	13.3	7.4	1.6	20.7
소 계	(1397)	2.6	5.7	7.0	20.3	64.1	.3	35.6	2.8	10.5	64.9	14.2	6.3	1.2	20.5
근로청소년															
남	(334)	11.4	18.0	13.0	22.2	29.0	1.5	69.5	5.7	11.1	54.8	16.2	9.9	2.4	26.1
여	(660)	3.0	9.2	17.6	40.5	28.8	.9	70.3	3.6	10.8	67.4	10.3	5.3	2.6	15.6
소 계	(994)	5.8	12.2	17.7	34.3	28.9	1.1	70.0	4.3	10.9	63.2	12.3	6.8	2.5	19.1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 큰 차이없이 70.0%가 지난 일년동안에 포장마차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마차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25.5%가 유해하다고 보고있으며 11.9%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고 61.1%는 보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 다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일일찻집 및 DJ있는 커피숍

다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흡연 등의 비행과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장소로 사용되며 때로는 선정적 비디오 등의 불량 비디오를 보여 주며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일찻집의 경우에는 자선활동 등의 명목으로 시작하나 이익금을 유흥비나 휴가비 등에 쓰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기도 하고 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하며 자정이 넘어서는 디스코 타임, 외박으로 연결되기까지 한다.

먼저 일일찻집을 출입한 경험을 〈표 III-1-13〉에서 살펴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27.5%가 지난 일년동안에 출입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일일치집

〈표 Ⅲ-1-13〉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중학생	(3983)	1.2	2.3	4.5	19.6	71.7	.8	27.5	4.5	14.0	46.4	15.5	17.4	2.1	32.9
	(763)	.7	1.2	2.5	8.8	86.5	.4	13.1	4.2	7.6	45.1	17.7	23.6	1.8	41.3
	(829)	.0	.5	1.0	4.7	93.1	.7	6.2	1.6	8.8	36.3	19.9	31.5	1.9	51.4
고등학생	(1592)	.3	.8	1.7	6.7	89.9	.6	9.5	2.8	8.2	40.5	18.8	27.7	1.9	46.5
	(696)	1.3	1.7	4.7	19.8	72.1	.3	27.6	5.5	13.5	46.8	19.3	14.1	.9	33.4
	(701)	.3	.7	2.4	20.0	76.2	.4	23.4	2.0	11.3	56.6	15.4	12.7	2.0	28.1
소계	(1397)	.8	1.2	3.6	19.9	74.2	.4	25.5	3.7	12.4	51.8	17.3	13.4	1.4	30.7
근로청소년	(334)	2.7	7.5	10.5	25.7	52.1	1.5	46.4	6.9	17.4	48.2	12.0	12.6	3.0	24.6
	(660)	3.6	5.3	10.0	46.8	32.6	1.7	65.8	9.2	29.4	48.5	5.6	3.5	3.8	9.1
	(994)	3.3	6.0	10.2	39.7	39.1	1.6	59.3	8.5	25.4	48.4	7.7	6.5	3.5	14.2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27.6%, 여자고등학생의 23.4%, 남자중학생의 13.1%, 여자중학생의 6.2%가 출입경험이 있었다. 근로청소년중에서는 여자의 65.8%, 남자의 46.4%가 출입경험이 있어 여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일치집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32.9%가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46.4%는 보통이다 라고 보고 있어 다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J있는 커피숍의 이용경험을 〈표 Ⅲ-1-14〉에서 살펴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31.5%가 지난 일년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29.2%, 여자고등학생의 24.1%, 남자중학생의 10.1%, 여자중학생의 5.5%가 출입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근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자의 82.0%, 남자의 65.0%가 출입한 경험이 있었다.

DJ있는 커피숍에 대해 31.7%는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51.3%는 보통이라고 보고 있어 약간 유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학생은 50.5%, 고등학생은 24.2%, 근로청소년은 12.2%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나이가 많을 수록 덜 유해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DJ 커피숍

〈표 Ⅲ-1-14〉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증 화 생	제 (3983)	2.4	6.9	9.0	13.2	68.1	.4	31.5	3.8	11.8	51.3	15.3	16.4	1.3	31.7
	남 (763)	1.0	1.3	3.1	4.6	89.6	.3	10.1	1.2	5.2	43.8	22.0	26.1	1.7	48.1
	여 (829)	.2	.6	.8	3.9	94.0	.5	5.5	1.4	4.5	40.3	20.9	31.8	1.1	52.7
소 고 등 학 생	제 (1592)	.6	.9	1.9	4.2	91.9	.4	7.7	1.3	4.8	42.0	21.4	29.1	1.4	50.5
	남 (696)	2.2	4.5	8.6	13.9	70.7	.1	29.2	3.6	11.6	57.6	17.2	9.1	.9	26.3
	여 (701)	.7	4.0	3.9	15.5	75.7	.1	24.1	1.9	12.4	62.6	11.7	10.3	1.1	22.0
소 계	(1397)	1.4	4.2	6.2	14.7	73.2	.1	26.6	2.7	12.0	60.1	14.5	9.7	1.0	24.2
근 로 청 소 년	남 (334)	6.9	16.2	20.7	21.3	33.8	1.2	65.0	10.2	19.2	51.2	9.6	7.8	2.1	17.4
	여 (660)	6.4	22.0	26.2	27.4	17.3	.8	82.0	8.9	24.5	55.3	5.5	4.2	1.5	9.7
	소 계 (994)	6.5	20.0	24.3	25.4	22.8	.9	76.3	9.4	22.7	53.9	6.8	5.4	1.7	12.2

(10) 만화가게

만화는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화는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에 의해 외국의 저질만화를 그대로 베낀 불법 만화의 형태로 판매, 열람되고 있다. 만화가게 역시 주로 영세민에 의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불량 비디오 상영, 싸구려 숙식처 제공 등의 유해환경을 이루고 있다.

〈표 Ⅲ-1-15〉에 제시된 만화가게의 이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6%가 지난 일년동안에 만화가게를 이용해 본 경험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78.2%, 여자고등학생이 70.6%, 남자중학생의 61.1%, 여자중학생이 52.7%, 남자국민학생의 31.1%, 여자국민학생이 19.6%가 지난 1년내에 만화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고등학생이 11.8%, 남자중학생이 9.4%, 여자고등학생이 6.6%이며, 월 1~2회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고등학생이 29.5%, 남자중학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만화가게

〈표 Ⅲ-1-15〉

구분	사레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인주인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국민학생	(4965)	6.6	9.6	12.2	28.1	42.5	.9	56.6	2.3	7.9	48.4	24.3	15.1	2.0	39.4
남	(496)	3.2	4.2	5.4	18.1	67.5	1.4	31.1	2.0	2.6	24.8	34.7	32.1	3.8	66.8
여	(486)	1.4	2.1	2.5	13.6	79.4	1.0	19.6	.8	2.5	22.8	36.0	36.6	1.2	72.6
중학생	(982)	2.3	3.2	4.0	15.9	73.4	1.2	25.4	1.4	2.5	23.8	35.3	34.3	2.5	69.6
남	(763)	9.4	10.1	11.9	29.6	38.4	.5	61.1	2.4	7.3	46.0	29.5	13.2	1.6	42.7
여	(829)	4.5	7.1	12.2	29.0	46.7	.6	52.7	.8	5.9	49.7	26.1	15.3	2.2	41.4
고등학생	(1592)	6.8	8.5	12.1	29.3	42.7	.6	56.7	1.6	6.6	47.9	27.7	14.3	1.9	42.0
남	(696)	11.8	17.7	18.0	30.7	21.7	.1	78.2	3.6	13.4	56.6	20.0	5.9	.6	25.9
여	(701)	6.6	10.6	15.1	38.4	29.0	.4	70.6	1.9	10.7	65.5	16.3	4.6	1.1	20.9
소년	(1397)	9.2	14.1	16.5	34.6	25.3	.3	74.9	2.7	12.0	61.1	18.1	5.2	.9	23.3
근로청소년	(334)	15.0	20.4	17.7	26.6	18.9	1.5	79.6	5.1	12.3	57.2	14.7	8.4	2.4	23.1
여	(660)	2.7	7.1	13.0	30.3	44.5	2.3	53.2	3.2	8.0	54.5	17.7	12.7	3.8	30.4
소계	(994)	6.8	11.6	14.6	29.1	35.9	2.0	62.1	3.8	9.5	55.4	16.7	11.3	3.3	28.0

생이 19.5%, 여자고등학생 17.2%, 여자중학생이 11.6%에 이르고 있어 만화가게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자들에 접근하는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어 중고등학생에게 있어 남녀 관계없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년내 이용율은 남자가 79.6%, 여자가 53.2%이며 월 1~2회 이상 이용율은 남자가 35.4%, 여자가 9.8%에 이르렀다.

만화가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9.4%가 유해하다고 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국민학생은 69.6%, 중학생은 42.0%가 유해하다고 한 반면, 고등학생은 23.3%, 근로청소년은 28.0%가 해롭다고 하였으나 50%이상이 유해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만화가게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학

생 이외의 집단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며 중고등학생의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인만화 및 외설·폭력성 만화에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만화의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1968년에 제정된 만화심의 기준의 개선, 만화심의 기능의 강화 및 효율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1) 심야만화가게

철야운영되는 심야만화가게는 불량비디오 상영, 불량출판물 및 만화 열람 등 보통 만화가게에 비해 훨씬 더 유해한 업소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Ⅲ-1-16〉은 심야만화가게의 이용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중학생 이상 청소년의 10.0%가 지난 일년내에 심야만화가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 만화가게의 이용율이 60.0%를 상회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청소년에게 더 자극적이고 유해하며 각종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심야만화가게 이용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심야만화가게

〈표 Ⅲ-1-16〉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월말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내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중 학 생	(3983)	.7	1.3	2.0	6.1	88.3	1.7	10.0	1.1	1.3	10.1	29.0	55.1	3.4	84.1
	남 (763)	.8	1.2	2.0	3.9	91.0	1.2	7.9	1.0	.9	9.0	26.5	59.8	2.8	86.3
	여 (829)	.1	.5	.3	.8	96.9	1.4	1.7	.7	.5	5.2	21.8	68.8	3.0	90.6
소 고 등 학 생	(1592)	.4	.8	1.1	2.3	94.0	1.3	4.7	.9	.7	7.0	24.1	64.4	2.9	88.5
	남 (696)	1.0	2.0	3.2	11.2	81.5	1.1	17.4	1.7	2.4	14.4	36.6	42.8	2.0	79.4
	여 (701)	.3	.4	.7	2.3	95.4	.9	3.7	.0	1.1	7.1	31.7	57.3	2.7	90.0
소 근 토 청 소 년	(1397)	.6	1.2	1.9	6.7	88.5	1.0	10.5	.9	1.8	10.7	34.1	50.1	2.4	84.2
	남 (334)	2.4	5.1	9.3	21.6	60.2	1.5	38.3	3.6	1.5	20.1	32.3	38.3	4.2	70.6
	여 (660)	.3	.5	.8	5.8	88.5	4.1	7.4	.6	1.7	11.4	28.2	51.7	6.5	79.9
소 계	(994)	1.0	2.1	3.6	11.1	79.0	3.2	17.8	1.6	1.6	14.3	29.6	47.2	5.7	76.8

집단별로 볼 때 남자고등학생의 17.4%, 남자중학생이 7.9%, 여자고등학생의 3.7%, 여자중학생이 1.7%가 지난 1년내에 심야만화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용빈도를 보면 1년에 1~2회 가본 적이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월 1~2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은 남자고등학생이 3.0% 남자중학생이 2.0% 정도였다. 근로청소년의 일년내 이용경험은 남자가 38.3%, 여자가 7.4% 였으며 월 1~2회이상 이용자는 남자의 경우 7.5%에 달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심야만화가게는 소수의 근로청소년과 남자중고등학생이 주 이용자이며 청소년비행과 많이 관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심야만화 가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중학생이상 청소년의 84.1%가 유해하다고 평가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남녀 중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은 86.0%이상이 유해하다고 하였고 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은 70~80%가 유해하다고 하여 일반 만화가계와는 달리 심야만화가게에 대해서는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심야만화가게에서 음란비디오 상영, 혼숙 등 각종 유해행위 및 비행이 조장되거나 허용되는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알고 있으며 이용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야만화가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 비디오가게

비디오가게는 비디오테이프의 대여를 주업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업소 내에서 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하며 각종 저질 비디오의 광고등을 부착하여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Ⅲ-1-17〉에는 비디오 가게의 이용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지난 일년동안에 비디오가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국민학생 59.7%, 여자국민학생 48.6%, 남자중학생 57.0%, 여자중학생 43.9%, 남자고등학생 62.9%, 여자고등학생 44.8%, 남자근로청소년 69.8%, 여자근로청소년 30.0%가 비디오가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자근로청소년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비디오가게

〈표 Ⅲ-1-17〉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분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6.6	11.4	14.0	18.5	48.1	1.3	50.6	2.6	7.0	46.4	22.3	19.1	2.6	41.4
국 민 학 생															
남	(496)	12.7	18.8	15.7	12.5	39.1	1.2	59.7	3.4	7.5	44.6	23.4	18.8	2.4	42.2
여	(486)	7.4	12.6	12.6	16.0	49.2	2.3	48.6	1.9	5.1	40.5	27.4	24.1	1.0	51.5
소 계	(982)	10.1	15.7	14.2	14.3	44.1	1.7	54.2	2.6	6.3	42.6	25.4	21.4	1.7	46.8
중 학 생															
남	(763)	7.7	14.2	16.0	19.1	42.1	.9	57.0	2.8	6.8	45.6	23.5	19.1	2.2	42.6
여	(829)	4.2	9.2	11.3	19.2	54.6	1.4	43.9	1.7	5.8	46.0	22.6	21.5	2.5	44.1
소 계	(1592)	5.9	11.6	13.6	19.2	48.6	1.2	50.2	2.2	6.3	45.8	23.0	20.4	2.4	43.4
고 등 학 생															
남	(696)	6.6	13.1	21.3	21.7	36.6	.7	62.7	3.9	10.2	48.0	22.6	13.8	1.6	36.4
여	(701)	3.3	8.3	13.0	20.3	54.8	.4	44.8	1.7	6.4	53.6	20.7	15.8	1.7	36.5
소 계	(1397)	4.9	10.7	17.1	21.0	45.7	.6	53.7	2.8	8.3	50.8	21.6	14.8	1.6	36.4
소 근로청소년															
남	(334)	15.6	16.2	16.5	21.6	28.7	1.5	69.8	5.1	11.4	48.2	16.5	15.6	3.3	32.1
여	(660)	2.1	4.1	7.3	16.5	67.3	2.7	30.0	1.8	5.0	43.2	20.8	23.5	5.8	44.3
소 계	(994)	6.6	8.1	10.4	18.2	54.3	2.3	43.4	2.9	7.1	44.9	19.3	20.8	4.9	40.1

(69.8%)이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며, 여자근로청소년의 경우(30.0%)는 가장 낮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국·중고등학교·근로청소년의 모든 집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더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남녀의 차(39.8%)가 두드러져 남자의 이용경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비디오가게를 출입하고 있다고 반응한 경우도 국민학생 남녀 각각 12.7%, 7.4%, 중학교 남녀 각각 7.7%, 4.2%, 고등학교 남녀 각각 6.6%, 3.3%, 근로청소년 남녀 각각 15.6%, 2.1%로 나타나 비디오 시청이 청소년 여가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디오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디오가게 이용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41.4%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46.4%는 유해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 수록 더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자 보다는 여자가 더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평가와 이용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비디오가게 출입자체가 음란, 폭력 등 유해비디오 시청과 직결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해도가 강한 장소일 수록 나이가 많은 집단의 이용율이 나이 적은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3)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불량출판물, 음란출판물의 주판매원은 환락가 부근 또는 세운상가 등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노점상, 가판대 등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가판대가 확산되고 있다.

〈표 Ⅲ-1-18〉에는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의 이용정도가 제시되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노점상

〈표 Ⅲ-1-18〉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연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 민 학 생	체 (4965)	1.4	.8	1.6	5.7	89.0	1.5	9.5	1.8	1.4	5.5	11.2	77.2	2.9	83.4
	남 (496)	.4	.6	1.2	2.2	92.7	2.8	4.4	1.2	1.4	2.4	4.8	85.3	4.8	90.1
소 중 학 생	여 (486)	1.6	.2	.0	.6	95.1	2.5	2.5	1.6	.8	1.4	3.7	90.3	2.1	94.0
	계 (982)	1.0	.4	.6	1.4	93.9	2.6	3.5	1.4	1.1	1.9	4.3	87.8	3.5	92.1
소 고 등 학 생	남 (763)	2.4	.9	1.7	5.9	88.1	1.0	10.9	3.0	1.4	5.6	12.6	74.8	2.5	87.4
	여 (829)	.6	.1	.5	1.4	96.4	1.0	2.7	.7	.7	3.7	8.8	84.0	2.1	92.8
소 근 로 청 소 년	계 (1592)	1.4	.5	1.1	3.6	92.4	1.0	6.6	1.8	1.1	4.6	10.6	79.6	2.3	90.2
	남 (696)	2.2	1.4	4.9	17.5	73.6	.4	26.0	2.6	3.2	11.5	20.1	61.1	1.6	81.2
소 계	여 (701)	.4	.1	.4	1.9	96.9	.3	2.9	1.0	.4	3.6	10.3	83.0	1.7	93.3
	계 (1397)	1.3	.8	2.6	9.7	85.3	.4	14.4	1.8	1.8	7.5	15.2	72.1	1.6	87.3
소 계	남 (334)	4.8	3.3	4.5	18.6	66.8	2.1	31.1	3.3	3.6	12.3	16.5	60.8	3.6	77.3
	여 (660)	.5	.8	.6	2.3	93.0	2.9	4.1	1.5	.9	5.2	12.0	74.8	5.6	86.8
소 계	(994)	1.9	1.6	1.9	7.7	84.2	2.6	13.2	2.1	1.8	7.5	13.5	70.1	4.9	83.6

어 있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응답자의 9.5%가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26.0%, 남자중학생의 10.9%가 지난 일년내에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2.5%~2.9%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남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월 1~2회 이상 이용자도 3.0%를 넘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일년내 이용경험율은 남자가 31.1%, 여자가 4.1%이며 남자의 경우 월 1~2회 이상 이용자가 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77.2%가 ‘아주 해롭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해롭다’고 반응한 11.2%까지 합치면 88.4%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유해하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남자근로청소년도 77.3%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집단에서 더 유해하다고 보고있다.

이용율 및 유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볼 때 이러한 노점상은 심야만화가게와 함께 소수의 문제청소년에 의해 이용되며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비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4) 사창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각종 성적 자극이 늘어나고 성도덕이 문란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욕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은 사창가 출입이다.

〈표 Ⅲ-1-19〉를 보면 사창가를 출입하는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7.8%가 지난 일년내에 사창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10.8%, 남자중학생의 5.4%가 지난 일년내에 사창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월 1~2회 이상 이용자는 남자고등학생의 2.7%, 남자중학생의 2.4%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26.6%가 지난 1년내 이용경험이 있으며 월 1~2회 이상 경험자는 5.4%에 달했다. 여자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9.8%가 지난 일년내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사창가

〈표 III-1-19〉

구분	사태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중학생	(3983)	1.1	.9	1.6	4.2	89.4	2.8	7.8	1.5	1.4	9.7	11.1	71.8	4.4	82.9
	(763)	1.7	.7	1.6	1.4	93.3	1.3	5.4	1.6	1.6	10.7	10.4	73.0	2.8	83.4
	(829)	.1	.5	.5	1.0	91.1	6.9	2.1	.7	.7	5.8	7.1	77.6	8.1	84.7
소계 고등학생	(1592)	.9	.6	1.3	1.2	92.1	4.2	3.6	1.1	1.1	8.2	8.7	75.4	5.5	84.1
	(696)	1.3	1.4	1.7	6.3	88.5	.7	10.8	3.0	1.9	11.4	15.7	66.1	2.0	81.8
	(701)	.9	.3	1.1	1.1	95.9	.7	3.4	1.0	.6	6.0	9.7	80.7	2.0	90.4
소계 근로청소년	(1397)	1.1	.9	1.4	3.7	92.2	.7	7.1	2.0	1.2	8.7	12.7	73.4	2.0	86.1
	(334)	2.4	3.0	5.1	16.2	70.4	3.0	26.6	2.1	3.0	14.1	18.9	58.7	3.3	77.6
	(660)	.9	.9	1.4	6.7	86.4	3.8	9.8	1.1	1.8	13.3	10.0	66.4	7.4	76.4
소계	(994)	1.4	1.6	2.6	9.9	81.0	3.5	13.5	1.4	2.2	13.6	13.0	63.8	6.0	76.8

이용경험이 있다고 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험률 2.1%, 3.4%와 함께 다소의 아쉬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창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71.8%가 ‘아주해롭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82.9%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도 77%정도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해성에 대한 평가와 실제 이용율을 비교할 때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용자의 비율(남자중학생 5.4%, 남자고등학생 10.8%)보다 사창가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고 보는 청소년의 비율(남자중학생 13.9%, 남자고등학생 16.3%)이 더 높아 기회가 닿으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이용자가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해, 유해환경으로 작용하는 사창가 정비 및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 및 운동 등의 대체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5) 유흥가

유흥가는 각종 술집, 디스코장, 오락실 등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유흥지역을 이루고 있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흥도 평가-유흥가

〈표 Ⅲ-1-20〉

구 분	사레수	이 용 경 험							유 헥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흥도
		%	%	%	%	%	%	%	%	%	%	%	%	%	%
전 체	(3983)	1.1	2.2	3.4	8.5	82.4	2.4	15.1	.9	1.2	9.3	16.8	67.9	3.9	84.7
중 학 생	(763)	1.0	1.8	2.2	4.5	89.6	.8	9.6	.9	.9	8.7	13.4	73.8	2.4	87.2
남	(829)	.0	.1	.6	1.6	91.4	6.3	2.3	.1	.4	3.4	8.7	80.5	7.0	89.2
여	(1592)	.5	.9	1.4	3.0	90.6	3.6	5.8	.5	.6	5.9	10.9	77.3	4.8	88.2
소 계	(1592)	.5	.9	1.4	3.0	90.6	3.6	5.8	.5	.6	5.9	10.9	77.3	4.8	88.2
고 등 학 생	(696)	1.6	4.2	6.9	12.6	74.0	.7	25.3	1.4	2.3	13.2	27.7	53.6	1.7	81.3
남	(701)	.4	1.3	2.4	5.3	90.2	.4	9.4	.4	.4	5.1	18.4	73.9	1.7	92.3
여	(1397)	1.0	2.7	4.7	8.9	82.1	.6	17.3	.9	1.4	9.2	23.0	63.8	1.7	86.8
소 계	(1397)	1.0	2.7	4.7	8.9	82.1	.6	17.3	.9	1.4	9.2	23.0	63.8	1.7	86.8
근로청소년	(334)	3.9	5.4	9.0	18.6	61.1	2.1	36.8	1.8	2.4	19.2	20.4	53.3	3.0	73.7
남	(660)	1.1	2.7	2.7	15.6	74.2	3.6	22.1	1.2	1.5	12.7	16.2	61.4	7.0	77.6
여	(994)	2.0	3.6	4.8	16.6	69.8	3.1	27.1	1.4	1.8	14.9	17.6	58.7	5.6	76.3
소 계	(994)	2.0	3.6	4.8	16.6	69.8	3.1	27.1	1.4	1.8	14.9	17.6	58.7	5.6	76.3

〈표 Ⅲ-1-20〉는 유흥가의 출입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15.1%가 지난 일년내에 유흥가를 출입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의 25.3%, 남자중학생의 9.6%, 여자고등학생의 9.4%, 여자중학생의 2.3%가 지난 일년내에 유흥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남자고등학생의 5.8%와 남자중학생의 2.8%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36.8%, 여자의 22.1%가 지난 일년내에 출입한 적이 있으며 월 1~2회 이상 이용자는 남자의 9.3%, 여자의 3.8% 이었다.

유흥가의 유흥성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67.9%가 '아주 해롭다'고 보고 있으며 '해롭다'고 보는 것까지 합치면 84.7%가 유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의 많은 집단일 수록 유흥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타났다. 그러나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남자근로청소년들도 73.7%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유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유흥가 출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들이 주 이용자인 것으로 보인다.

(16) 소극장

소극장은 소규모의 객석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단속의 사각지대이다. 업주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자극적, 선정적인 영화 상영 경쟁을 하고 있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경향이 크다.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소극장

〈표 Ⅲ-1-21〉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기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3983)	2.1	8.8	17.2	34.0	37.1	.8	62.1	4.2	13.8	49.7	15.2	15.3	1.8	30.5
중 학 생															
남	(763)	1.7	6.7	13.6	28.0	49.5	.4	50.1	1.8	10.1	45.0	19.4	22.8	.9	42.2
여	(829)	.7	4.5	7.6	36.6	49.6	1.1	49.3	1.7	7.4	49.3	16.6	23.0	1.9	39.6
소 계	(1592)	1.2	5.5	10.5	32.5	49.6	.8	49.7	1.8	8.7	47.2	18.0	22.9	1.4	40.9
고 등 학 생															
남	(696)	3.3	13.4	25.7	30.3	27.0	.3	72.7	4.0	17.5	50.6	15.5	11.6	.7	27.1
여	(701)	.3	7.1	13.7	41.7	36.9	.3	62.8	3.6	15.0	56.9	12.7	10.8	1.0	23.5
소 계	(1397)	1.8	10.2	19.7	36.0	32.0	.3	67.7	3.8	16.2	53.8	14.1	11.2	.9	25.3
근로청소년															
남	(334)	7.5	15.9	29.6	24.9	21.3	.9	77.9	6.6	19.5	50.9	11.4	9.3	2.4	20.7
여	(660)	2.3	10.2	21.8	38.2	25.9	1.7	72.4	10.0	18.0	46.5	12.6	8.6	4.2	21.2
소 계	(994)	4.0	12.1	24.4	33.7	24.3	1.4	74.3	8.9	18.5	48.0	12.2	8.9	3.6	21.1

〈표 Ⅲ-1-21〉를 보면 소극장의 출입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62.1%가 지난 일년내에 소극장을 출입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의 72.7%, 여자고등학생의 62.9%, 남녀 중학생은 각기 50.1%, 49.3% 정도가 지난 일년내에 소극장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 고등학생의 이용율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두세달에 1~2회 이상 비교적 정기적으로 소극장을 이용한 청소년은 남자고등학생이 42.4%, 남자중학생 22.0%, 여자고등학생의 21.1%, 여자중학생이 12.8% 정도였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77.9%, 여자의 72.4%가 지난 일년내에 이용한 적이 있었으며 두세달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층은 남자의 53.0%, 여자의 34.3%에 달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소극장은 비교적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하나라고 보겠다.

소극장이 유해한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30.5%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18.0%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으며 49.7%는 유해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줄고 있다. 이용율 및 유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볼 때 소극장 역시 만화가게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여가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극장의 상영물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물품 사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

다음은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이용정도 및 유해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 <표 Ⅲ-2-1>는 연구에 포함되었던 열 가지의 물품들을 지난 일년동안의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과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물품 중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지난 일년내에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을 해 보았다고 하여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뒤이어 인기인사진(60.6%), 불량식품(60.2%), 불량학용품(44.3%), 잡상인(40.6%), 불량장난감(28.7%) 등의 물품이 비교적 높은 이용율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물품 이용율과 유해도

〈표 Ⅲ-2-1〉

(단위 : %)

물 품	이 용 율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불량장난감	28.7	34.1	84.9	79.0
불량학용품	44.3	56.9	88.5	85.4
담배자판기*	11.7	23.3	85.3	77.1
불량식품	60.2	56.9	87.0	86.5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6.2	4.1	95.0	95.4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	1.0	1.1	96.8	96.6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11.4	16.4	91.0	87.8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	70.6	88.6	35.8	21.3
잡상인	40.6	49.9	62.0	53.1
인기인사진	60.7	70.5	29.3	19.5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는 담배자판기(11.7%), 안정제·수면제 등 각성제(11.4%),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6.2%), 히로뽕·마약·마리화나 등 약물류(1.0%)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소년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품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히로뽕·마리화나 등 약물류(96.8%),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95.0%), 안정제·수면제 등 각성제(91.0%) 등이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불량학용품(88.5%), 불량식품(87.0%), 담배자판기(85.3%), 불량장난감(84.9%) 등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잡상인(62.0%)에 대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자오락 및 컴퓨터게임(35.8%)과 인기인사진(29.3%)에 대해서는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대체로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덜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유해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물품들의 사용율 및 유해도 평가결과를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담배자판기

각종 연구들은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흡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배자판기는 무인판매대이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담배자판기

〈표 Ⅲ-2-2〉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중 학 생	총 (3983)	4.3	1.7	1.9	3.9	87.4	.9	11.7	1.4	2.0	9.0	15.0	70.3	2.2	85.3
	남 (763)	2.1	1.2	2.0	4.3	89.9	.5	9.6	1.0	1.3	6.3	17.4	72.1	1.8	89.5
	여 (829)	.1	.2	.4	1.2	97.5	.6	1.9	.5	.5	4.0	8.7	85.2	1.2	93.9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1.1	.7	1.1	2.7	93.8	.6	5.6	.8	.9	5.1	12.9	78.9	1.5	91.8
	남 (696)	9.8	3.2	3.6	6.8	76.3	.4	23.3	3.3	3.0	15.4	19.8	57.3	1.1	77.1
	여 (701)	.7	.7	.1	1.6	96.7	.1	3.1	.1	1.3	6.0	13.6	77.6	1.4	91.2
소 근로 청소년	계 (1397)	5.2	1.9	1.9	4.2	86.5	.3	10.9	1.7	2.1	10.7	16.7	67.5	1.3	84.2
남	(334)	20.1	7.8	6.9	10.2	54.5	.6	44.9	4.2	7.5	23.4	19.5	43.7	1.8	63.2
	여 (660)	2.0	.6	1.1	3.0	90.3	3.0	6.7	.8	1.5	7.9	14.5	69.2	6.1	83.7
소 계	(994)	8.0	3.0	3.0	5.4	78.3	2.2	19.5	1.9	3.5	13.1	16.2	60.7	4.6	76.9

〈표 Ⅲ-2-2〉에는 담배자판기의 이용율이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11.7%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흡연을 위해 지난 일년동안에 담배자판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 23.3%, 남자중학생이 9.6%, 여자고등학생과 중학생도 각각 3.1%와 1.9%가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도 남자고등학생이 9.8%, 남자중학생이 2.1%에 달했으며 여자고등학생도 0.7%가 있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44.9%, 여자의 6.7%가 지난 일년내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주 1~2회 이상 상습이용자가 남자의 20.1%, 여자의 2.0%에 달했다.

담배자판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보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70.3%가 ‘아

주 해롭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롭다'고 본 비율까지 합하면 85.3%나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담배자판기의 이용율이 높은 남자 근로청소년(63.2%)과 남자 고등학생(77.1%)도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담배자판기가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아 이용하지 않으나 주로 남자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고 이용하는 공간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본드 등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사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사고 보도가 자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다. 비행청소년 집단에 의한 환각상태에서의 각종 강력범죄 및 성범죄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환각제

〈표 Ⅲ-2-3〉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한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7	.7	1.3	3.4	92.5	1.3	6.2	.6	.4	1.9	4.7	90.3	2.1	95.0
남	(496)	1.4	2.4	4.0	5.8	84.5	1.8	13.7	1.0	.4	3.2	6.9	86.5	2.0	93.4
여	(486)	.8	1.6	3.3	8.8	84.2	1.2	14.6	.0	.0	3.5	8.6	86.6	1.2	95.2
소 중 학 생	(982)	1.1	2.0	3.7	7.3	84.3	1.5	14.2	.5	.2	3.4	7.7	86.6	1.6	94.3
남	(763)	1.2	.5	1.0	1.7	95.0	.5	4.5	.9	.3	1.7	3.9	91.5	1.7	95.4
여	(829)	.4	.5	.2	1.2	96.7	1.0	2.3	.1	.4	.8	2.2	94.8	1.7	97.0
소 고 등 학 생	(1592)	.8	.5	.6	1.4	95.9	.8	3.3	.5	.3	1.3	3.0	93.2	1.7	96.2
남	(696)	.4	.1	.9	2.7	94.8	1.0	4.1	1.1	.6	1.6	4.3	91.1	1.3	95.4
여	(701)	.4	.0	.1	.9	98.1	.4	1.4	.0	.4	.7	2.9	94.6	1.4	97.5
소 근로청소년	(1397)	.4	.1	.5	1.8	96.5	.7	2.8	.6	.5	1.1	3.6	92.8	1.4	96.4
남	(334)	.9	1.5	2.7	7.2	85.0	2.7	12.3	1.5	.9	5.1	6.9	82.9	2.7	89.8
여	(660)	.8	.2	.8	3.6	91.8	2.9	5.3	.9	.2	.9	5.6	87.3	5.2	93.9
소 계	(994)	.8	.6	1.4	4.8	89.5	2.8	7.7	1.1	.4	2.3	6.0	85.8	4.3	91.8

〈표 Ⅲ-2-3〉에는 본드, 부탄가스 등의 환각제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접해 보았는지의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2%가 본드·부탄가스 등의 환각제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볼 때 국민학생의 경우 13.7%정도가 지난 일년내에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라는 질문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착제로서 본드를 사용한 것도 포함되어 비교적 높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때 전체 청소년의 이용경험율 6.2%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학생은 그 응답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를 분석해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외에 남자중고등학생의 4.5%~4.1% 여자중고등학생이 2.3%~1.4%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1~2회 이상 상습적인 이용자는 남자중학생이 1.2%이고 그밖에는 1%미만이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12.3%, 여자의 1.4%가 일년내 이용경험이 있으며 주 1~2회 이상 상습적인 이용자는 남녀 각각 0.9%, 0.8%정도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본드·부탄가스 등을 환각제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전체 청소년의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각제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90.3%가 ‘아주 해롭다’고 보고있으며 ‘해롭다’고 보는 사람을 포함하면 95.0%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집단별로도 남자근로청소년(89.8%)을 제외하고는 모두 93% 이상이 ‘해롭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는 아직은 소수의 청소년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

근년에 들어 히로뽕 등 마약류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의 구입도 매우 용이해지고 있다고 한다. 마약에 의한 환각상태에서의 각종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표 Ⅲ-2-4〉는 청소년의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의 사용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0%가 지난 일년내에 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약물류

〈표 III-2-4〉

구분	사례수	이용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왔다	무응답	이용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4	.2	.1	.3	98.2	.8	1.0	.5	.2	.7	1.7	95.1	1.8	96.8
중·고·대학생															
남	(496)	.0	.0	.2	.0	98.6	1.2	0.2	.8	.2	.0	.6	96.8	1.6	97.4
여	(486)	.0	.0	.0	.2	99.2	.5	0.2	.0	.0	.2	1.2	98.1	.4	99.3
중학생	(982)	.0	.0	.1	.1	99.1	.7	0.2	.4	.1	.1	.9	97.5	1.0	98.4
남	(763)	.9	.0	.1	.4	98.0	.5	1.4	.8	.3	1.0	1.7	94.2	2.0	95.9
여	(829)	.2	.1	.0	.0	99.2	.5	0.4	.1	.1	.5	.3	97.3	1.1	98.1
고등학교생	(1592)	.6	.1	.1	.2	98.6	.5	0.9	.4	.2	.8	1.3	95.9	1.5	97.2
남	(696)	.6	.3	.1	.1	98.6	.3	1.1	1.0	.1	1.1	2.2	94.4	1.1	96.6
여	(701)	.1	.1	.0	.0	99.6	.1	0.3	.1	.3	.4	1.7	96.4	1.4	97.7
소·근로청소년	(1397)	.4	.2	.1	.1	99.1	.2	0.7	.6	.2	.8	1.7	95.4	1.3	97.1
남	(334)	1.2	1.2	.0	1.8	94.9	.9	4.2	1.2	.3	2.4	3.6	90.4	2.1	93.9
여	(660)	.5	.2	.3	.5	96.1	2.6	1.4	.5	.0	.5	2.9	91.4	4.8	94.3
소계	(994)	.7	.5	.2	.9	95.7	2.0	2.3	.7	.1	1.1	3.1	91.0	3.9	94.1

집단별로 보면 남자중고등학생의 1.1%정도가 지난 일년내에 이러한 습관성 약물류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 이외의 학생청소년 집단에서는 예외적인 극소수의 이용경험자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1~2회 이상 상습이용자가 남자중고등학생중에서는 각기 0.9%, 0.6% 정도로 적기는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은 남자의 4.2%, 여자의 1.4%정도가 지난 일년내에 이용경험이 있으며, 남자의 1.2%나 여자의 0.5%는 주 1~2회 이상 상습적인 이용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마약류의 사용이 아직까지는 남자근로청소년, 남자중고등학생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으나 습관성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용범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의 유해성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95.1%가 ‘아주 해롭다’라고

보고 있으며 ‘해롭다’고 보는 사람까지 합하면 96.8%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는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해하다고 받아들여지며 이용자도 소수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많은 청소년들이 각성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성제 사용이 습관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각성제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각성제 사용이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각성제

〈표 Ⅲ-2-5〉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9	1.0	1.8	7.7	87.6	1.0	11.4	.6	.8	5.3	18.1	73.0	2.2	91.0
국 민 학 생															
남	(496)	.0	.6	.8	2.2	95.2	1.2	3.6	.8	.2	3.6	13.3	80.0	2.0	93.3
여	(486)	.6	.0	1.0	2.3	94.9	1.2	3.9	.2	.2	2.1	16.3	79.8	1.4	96.1
소 계	(982)	.3	.3	.9	2.2	95.0	1.2	3.8	.5	.2	2.9	14.8	79.9	1.7	94.7
중 학 생															
남	(763)	1.6	1.4	1.8	4.2	90.2	.8	9.1	1.2	1.0	4.6	17.7	73.0	2.5	90.7
여	(829)	.4	1.0	1.1	4.7	92.2	.7	7.1	.2	.7	3.1	15.9	78.4	1.6	94.3
소 계	(1592)	.9	1.2	1.4	4.5	91.2	.8	8.0	.7	.9	3.8	16.8	75.8	2.0	92.6
고 등 학 생															
남	(696)	1.9	1.1	2.3	11.1	83.2	.4	16.4	1.1	1.1	8.9	22.0	65.8	1.0	87.8
여	(701)	.4	.7	1.4	11.6	85.4	.4	14.1	.0	.7	5.4	21.0	71.0	1.9	92.0
소 계	(1397)	1.1	.9	1.9	11.3	84.3	.4	15.3	.6	.9	7.2	21.5	68.4	1.4	89.9
근로청소년															
남	(334)	.9	2.7	6.0	11.1	77.8	1.5	20.7	.9	1.8	9.0	18.3	67.4	2.7	85.7
여	(660)	.9	.9	2.0	14.1	79.7	2.4	17.9	.2	.9	6.5	19.4	68.5	4.5	87.9
소 계	(994)	.9	1.5	3.3	13.1	79.1	2.1	18.8	.4	1.2	7.3	19.0	68.1	3.9	87.1

〈표 Ⅲ-2-5〉에는 안정제, 수면제 등의 각성제 사용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1.4%가 지난 일년내에 이들 각성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청소년 중

남자고등학생의 16.4%, 여자고등학생의 14.1%, 남자중학생의 9.1%, 여자중학생의 7.1%와 남녀 국민학생의 각기 3.6%, 3.9%정도가 지난 일년내에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은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록 이들 약물의 사용경험이 높아지고 있어 입시, 각종 시험 등 스트레스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월 1~2회 이상 습관적으로 각성제를 사용하는 청소년도 0.4%~1.9%에 이르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사용경험은 고등학생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어 남자의 20.7%, 여자의 17.9%가 일년내에 이용경험이 있으며 월 1~2회 이상 습관적 이용자는 3.6%, 1.8%였다.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0%가 '아주 해롭다'고 보고 있으며 '해롭다'고 보는 18.1%를 합하면 91.0%가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질 수록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줄어들고 성별로는 남자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제의 이용경험이 많은 남자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이 유해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10.0%를 상회하며, 이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각성제의 유해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와 각종 인쇄물, 영상물 등은 다수의 대상에게 각종 정보를 일시에 전달하여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과 어린이 등 모든 현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비디오 기기의 보급과 함께 각종 비디오테이프의 제작과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어 오락 및 정보전달 양상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대중매체와 인쇄물, 영상물 들은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유익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내

용에 따라서는 사회,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근년에 들어 활발한 제기되고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방송 매체의 프로그램과 광고물, 각종 인쇄물과 비디오테이프가 성적 충동과 난폭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 주요한 유해환경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서는 TV의 각종 프로그램, 각종 신문·잡지·소설, 각종 광고,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접하며 얼마나 유해하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3-1>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TV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난 일년내에 시청한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 연구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이 90%정도 이상의 청소년에 의해 시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간혹 문제시 되고 있는 AFKN(미군방송), 일본방송과 유선방송의 시청경험을 보면 AFKN은 39.4%, 일본방송은 11.6%, 유선방송은 47.2%의 청소년들이 지난 일년 동안에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들 방송의 시청율은 한국 공공방송의 프로그램보다 낮지만 유해도는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방송에 대해서는 55.6%의 응답자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청율이 11.6%인 점을 고려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시청경험은 없으나 각종 보도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유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39.6%가, AFKN에 대해서는 35.0%의 응답자가 유해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문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잡지·소설 등 각종 인쇄매체의 접촉경험을 살펴보면 각종 스포츠 신문은 81.2%의 응답자가 지난 일년동안에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잡지나 소설보다 높은 접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월간지(74.1%), 여학생 등 청소년 월간지(66.5%), 주부생활 등 여성월간지(53.5%), 건강다이제스트, 명랑 등 월간오락지(49.8%), 실화, 추적 등 사건 및 야담잡지(47.5%),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등 일반주간지(44.9%), 기타 음란물 및 소설(38.9%) 등의 순서로 높은 접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성인만화(28.4%)와 외국음란잡지(19.6%)가 다른 매체들 보다는

낮지만 역시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해 읽혀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특기할만한 것은 주간지, 월간 오락지, 성인만화, 음란잡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대중매체 접촉률과 유해도

〈표 Ⅲ-3-1〉

(단위 : %)

대 중 매 체	접 촉 률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1. TV				
쇼·코메디 프로	92.4	94.5	6.1	4.5
연속극 및 수사물	94.0	97.0	11.4	6.5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93.1	98.0	14.8	4.8
외국영화 및 연속물	88.4	98.0	22.5	8.9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96.3	97.7	2.5	1.4
만화영화	93.7	93.2	7.9	8.8
AFKN(미군방송)	39.4	45.6	35.0	27.2
일본방송	11.6	13.9	55.6	55.3
유선방송	47.2	47.1	39.6	37.5
2. 신문, 잡지, 소설				
스포츠신문	81.2	95.3	13.8	18.0
여성대상 월간지	53.5	64.4	33.8	28.5
청소년대상 월간지	66.5	78.3	26.2	19.1
일반주간지	44.9	76.0	59.6	59.2
월간오락지*	49.8	74.9	47.9	53.5
실화·야담잡지*	47.5	66.2	46.1	44.4
외국 음란잡지	19.6	52.3	87.7	79.6
성인만화	28.4	60.5	84.6	77.2
어린이 월간지	74.1	66.5	11.5	13.4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38.9	72.8	74.0	69.4
3. 광 고				
TV광고	95.0	97.8	12.1	11.9
라디오광고	87.3	96.3	10.4	7.1
신문광고	90.2	96.4	12.8	9.4
잡지광고	76.5	92.5	33.5	26.3
옥외광고(길거리 광고)	79.2	92.1	53.3	41.4
4.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음란 비디오테이프	24.5	55.0	87.3	77.4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34.2	60.5	82.8	70.5
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64.2	89.5	59.8	37.5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지 등 통념적으로 아주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를 접해본 비율이 전체 응답자 평균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인쇄매체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외국음란잡지와 성인만화가 각각 87.7%와 84.6%의 응답자에 의해 유해하다고 평가되어 청소년들도 아주 유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74.0%)도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반주간지(59.6%), 월간오락지(47.9%), 실화·야담잡지(46.1%) 등도 유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성월간지(33.8%)와 청소년 월간지(26.2%)도 다소 유해하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신문(13.8%)은 최근의 보도나 논의와는 달리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스포츠신문에 대한 비판이 연재되고 있는 성인만화 등 선정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스포츠 관계보도를 포함한 스포츠신문 전반에 관한 평가로 이해되었던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어린이 월간지에 대해서는 11.5%의 응답자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별로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광고를 접한 경험을 보면 TV광고를 95.0%의 청소년들이 지난 일년내에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거의 모든 청소년이 TV광고를 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광고(90.2%)와 라디오광고(87.3%)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었다. 이밖에 옥외광고(79.2%)와 잡지광고(76.5%)도 대다수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광고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TV광고(12.1%), 라디오 광고(10.4%), 신문광고(12.8%)에 대해서는 별로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옥외광고(53.3%)와 잡지광고(33.5%)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에 들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각종 불량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접촉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일년동안에 폭력영화 및 비디오를 본적이 있다고 하여 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런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32.4%)와 음란비디오(24.5%)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접해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자고등학생들의 접촉경

험을 보면 폭력영화 및 비디오는 89.5%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는 60.5%가,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55.0%가 지난 일년동안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이들이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영상물에 대한 유해도 평가를 보면 음란비디오는 87.3%가, 성인영화는 82.8%가, 폭력영화 및 비디오는 59.8%가 유해하다고 하고 있어, 청소년 자신들도 유해한 줄 알면서 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매체에 대한 접촉경험 및 유해도 평가결과를 개략적으로 보았으나,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거나 본 연구결과 문제시되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쇼·코메디 프로

〈표 Ⅲ-3-2〉에는 쇼·코메디 프로의 시청률이 제시되어 있다. 지난 일년내 시청경험율은 9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쇼·코메디 등 방송프로는 거의 매일 방송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간 시청율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쇼·코메디프로를 시청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녀 국민학생이 각기 81.0%, 80.7% 남자중학생 78.0%, 여자중학생 75.6%, 남자고등학생 73.4%, 여자고등학생 71.6%, 남자근로청소년 64.1%, 여자근로청소년 59.1%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쇼·코메디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나이가 어릴 수록 시청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근로청소년인 경우가 가장 낮은 시청율을 보이고 있었다.

쇼·코메디프로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1%만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52.1%는 ‘보통이다’, 36.1%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단별로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쇼·코메디프로 자체는 유해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이미 성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유해성 평가기준에 둔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쇼·코메디프로

〈표 Ⅲ-3-2〉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부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년 적없다	무응답	접촉할 아주 이롭다	아주 이롭다	보통 이다	꽤 이롭다	아주 꽤 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전체	(4965)	73.2	13.6	3.8	1.9	2.0	5.5	92.4	10.6	25.5	52.1	4.2	1.9	5.8	6.1	
	남	(496)	81.0	9.5	3.6	2.8	2.0	1.0	97.0	10.7	22.4	57.9	5.6	2.4	1.0	7.9
소계	(486)	80.7	10.3	4.7	2.3	2.1	.0	97.9	4.1	18.7	67.1	7.6	2.5	.0	10.1	
	여	(982)	80.9	9.9	4.2	2.5	2.0	.5	97.5	7.4	20.6	62.4	6.6	2.4	.5	9.0
중학생	남	(763)	78.0	6.7	1.3	.9	2.8	10.4	86.9	15.1	30.0	38.3	2.8	3.0	10.9	5.8
	여	(829)	75.6	9.5	2.4	1.4	2.2	8.8	89.0	7.2	21.6	56.5	3.9	1.7	9.2	5.6
고등학생	(1592)	76.8	8.2	1.9	1.2	2.4	9.5	88.0	11.0	25.6	47.7	3.3	2.3	10.0	5.6	
소년	남	(696)	73.4	16.5	3.4	1.1	1.3	4.2	94.5	13.4	34.1	43.7	3.9	.6	4.5	4.5
	여	(701)	71.6	18.0	3.1	1.9	1.3	4.1	94.6	6.4	21.4	60.1	6.7	1.3	4.1	8.0
소계	(1397)	72.5	17.3	3.3	1.5	1.3	4.2	94.6	9.9	27.7	51.9	5.3	.9	4.3	6.2	
청소년	남	(334)	64.1	18.0	6.3	2.1	2.1	7.5	90.4	20.7	30.8	38.0	1.2	.9	8.4	2.1
	여	(660)	59.1	22.0	7.7	3.5	2.4	5.3	92.3	10.5	24.8	54.7	2.1	2.3	5.6	4.4
소계	(994)	60.8	20.6	7.2	3.0	2.3	6.0	91.6	13.9	26.9	49.1	1.8	1.8	6.5	3.6	

(2) 외국영화 및 연속물

〈표 Ⅲ-3-3〉은 외국 영화 및 연속물의 시청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연간 시청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88.4%가 시청경험이 있다. 주간 시청율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2회 이상 외국영화 및 연속물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의 34.6%, 남고생 32.6%, 남중생의 33.8%, 여중생의 27.4%가 주 1~2회 이상 TV에서 방송되는 외국영화나 연속물을 시청한다고 하였다. 국민학생의 경우에는 남자의 15.3%, 여자의 9.9%가 시청하고 있어 중고등학생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30.5%, 여자는 34.5%가 외국영화나 연속물을 주 1~2회 이상 시청한다고 하였다. 앞서의 쇼·코메디프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영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외국영화 및 연속물

〈표 III-3-3〉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물	아주 아름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27.4	26.9	19.8	14.4	10.6	1.0	83.4	5.6	12.7	57.7	13.5	9.0	1.5	22.5
국민학생															
남	(496)	15.3	19.6	18.8	19.0	26.2	1.2	72.6	2.0	2.8	44.4	27.0	22.0	1.8	49.0
여	(486)	9.9	17.9	17.5	26.5	28.0	.2	71.8	1.4	2.3	39.7	30.0	26.3	.2	56.3
중학생															
남	(829)	12.6	18.7	18.1	22.7	27.1	.7	72.2	1.7	2.5	42.1	28.5	24.1	1.0	52.6
여	(763)	33.8	25.6	17.3	12.7	10.1	.5	89.4	5.8	8.8	60.7	15.5	8.5	.8	24.0
고등학생															
남	(829)	27.4	22.3	18.8	17.5	12.7	1.3	86.0	2.8	9.8	60.8	14.0	10.7	1.9	24.7
여	(1592)	30.5	23.9	18.1	15.2	11.4	.9	87.6	4.2	9.3	60.7	14.7	9.7	1.4	24.4
근로청소년															
남	(696)	32.6	34.8	21.6	8.9	1.9	.3	98.0	9.8	20.0	60.6	7.0	1.9	.7	8.9
여	(701)	34.5	31.2	19.7	9.8	4.0	.7	95.3	4.4	18.8	67.0	6.1	2.4	1.1	8.5
소년	(1397)	33.6	33.0	20.6	9.4	2.9	.5	96.6	7.1	19.4	63.9	6.6	2.1	.9	8.7
소녀															
남	(334)	30.5	28.4	24.6	11.4	4.2	.9	94.9	12.9	15.3	55.4	11.1	3.3	2.1	14.4
여	(660)	27.1	32.6	22.0	12.0	3.3	3.0	93.6	7.9	20.3	61.8	4.1	2.4	3.5	6.5
소년	(994)	28.3	31.2	22.8	11.8	3.6	2.3	94.1	9.6	18.6	59.7	6.4	2.7	3.0	9.1

화 및 연속물의 시청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지 않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률이 월등히 높았던 유해업소나 물품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사용과는 달리 외국영화 및 연속물은 연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공개된 대상이라는 점과 근로청소년의 바쁜 일과, 다양한 여가활동 방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영화 및 연속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22.5%가 ‘유해하다’고 보는 반면 18.3%는 ‘유익하다’, 57.7%는 유해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국민학생들은 50%정도가 유해하다고 보는 반면 중학생 이상에서는 25%이하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 중에서는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 수록 유해성 평가기준이 완화됨을 볼 수 있다.

(3) AFKN

〈표 Ⅲ-3-4〉에는 AFKN의 시청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 일 년 동안에 AFKN을 시청해 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AFKN

〈표 Ⅲ-3-4〉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8.9	8.7	8.2	13.6	59.8	.8	39.4	2.7	7.2	52.3	16.8	18.2	2.8	35.0
국민학생															
남	(496)	15.1	12.9	10.5	14.3	45.4	1.8	52.8	4.0	6.3	46.2	20.2	20.4	3.0	40.6
여	(486)	3.1	7.8	11.1	15.6	60.9	1.4	37.7	2.3	5.8	44.0	25.8	20.8	1.9	46.1
중학생															
남	(763)	16.8	13.5	6.4	10.6	52.6	.1	47.3	4.1	7.1	53.2	16.6	17.0	2.0	33.6
여	(829)	6.9	5.3	6.2	11.2	69.7	.7	29.6	.7	4.9	52.8	17.1	21.8	2.5	38.9
고등학생															
남	(696)	12.1	11.1	8.6	13.8	54.2	.3	45.6	4.2	10.9	56.2	11.8	15.4	1.6	27.2
여	(701)	5.6	8.4	7.7	15.8	62.3	.1	37.5	1.3	8.3	57.9	15.5	15.5	1.4	31.0
소계	(1397)	8.8	9.7	8.2	14.8	58.3	.2	41.5	2.7	9.6	57.1	13.7	15.5	1.5	29.2
근로청소년															
남	(334)	8.7	9.0	12.6	18.9	50.3	.6	49.1	2.7	9.9	55.7	11.1	18.3	2.4	29.4
여	(660)	2.0	2.9	6.7	12.7	73.8	2.0	24.2	2.9	5.2	49.8	17.0	17.4	7.7	34.4
소계	(994)	4.2	4.9	8.7	14.8	65.9	1.5	32.6	2.8	6.7	51.8	15.0	17.7	5.9	32.7

이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국민학생 52.8%, 여자국민학생 37.7%, 남자중학생 47.3%, 여자중학생 29.6%, 남자고등학생 45.6%, 여자고등학생 37.5%, 남자근로청소년 49.1%, 여자근로청소년 24.2%가 지난 일년 내에 AFKN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두드러진 것은 성별로 남자의 시청율이 여자보다 10~25% 정도씩 높았다는 점과 남자국민학생의 AFKN 시청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일

주일에 1~2회 이상 빈번히 AFKN을 시청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국민학생 15.1%, 여자국민학생 3.1%, 남자중학생 16.8%, 여자중학생 6.9%, 남자고등학생 12.1%, 여자고등학생 5.6%, 남자근로청소년 8.7%, 여자근로청소년이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일주일에 1~2회 이상 빈번히 시청하고 있는 경우도 남자들이 더 많으며, 학생청소년 특히 국민학생과 중학생에서 시청율이 높았다.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미군방송을 자주 시청한다는 것은 관심을 요하는 점이다.

AFKN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35.0%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고 52.3%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국민학생들이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이 제일 강했으며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은 다소 약했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유해한 편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일본방송

〈표 Ⅲ-3-5〉는 일본방송의 시청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1.6%가 일본방송을 지난 일년내에 시청해 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국민학생 13.7%, 여자국민학생 17.9%, 남자중학생 11%, 여자중학생 7%, 남자고등학생 14%, 여자고등학생 9%, 남자근로청소년 18.6%, 여자근로청소년 10.5%가 일본방송을 시청해보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시청한다는 청소년도 각 집단별로 1~2%에 이르고 있다. 다른 TV프로와 비교해 볼 때 국민학생의 시청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근로청소년의 시청율이 학생청소년보다 낮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방송에 대한 유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5.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학생 중에서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 58.3%로 다소 높고 근로청소년이 48.3%로 낮은 편이다. 앞에서의 미군방송과 비교할 때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자신들의 유해성 평가와 일본 TV방송의 외설, 폭력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나이 어린 청소년에 의한 시청을 가정내에서 억제토록 하며, 흥미위주로 업소 등에서 시청하게 하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일본방송

〈표 Ⅲ-3-5〉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절대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국민학생	(4965)	1.3	1.6	2.7	6.0	87.0	1.4	11.6	1.4	3.1	36.1	21.8	33.8	3.8	55.6
남	(496)	.8	1.8	4.4	6.7	83.9	2.4	13.7	2.0	3.2	29.6	23.2	38.5	3.4	61.7
여	(486)	2.3	3.1	3.7	8.8	80.7	1.4	17.9	1.9	3.1	38.5	23.7	31.3	1.6	55.0
중학생	(982)	1.5	2.4	4.1	7.7	82.3	1.9	15.8	1.9	3.2	34.0	23.4	34.9	2.5	58.3
남	(763)	2.0	1.6	2.6	4.3	88.7	.8	10.5	1.8	2.8	33.2	23.7	35.6	2.9	59.3
여	(829)	1.0	1.0	1.3	2.9	92.3	1.6	6.2	.4	3.1	35.3	22.0	35.5	3.7	57.5
고등학생	(1592)	1.4	1.3	1.9	3.6	90.6	1.2	8.2	1.1	3.0	34.3	22.8	35.6	3.3	58.4
남	(696)	1.6	2.3	2.6	7.5	85.3	.7	13.9	2.0	3.2	37.1	21.7	33.6	2.4	55.3
여	(701)	.7	1.0	1.7	5.1	90.9	.6	8.6	.0	3.1	38.4	21.3	34.8	2.3	56.1
근로청소년	(1397)	1.1	1.6	2.1	6.3	88.1	.6	11.2	1.1	3.1	37.7	21.5	34.2	2.4	55.7
남	(334)	1.5	2.1	5.7	9.3	79.9	1.5	18.6	1.8	3.6	37.1	19.2	34.1	4.2	53.3
여	(660)	.8	.5	2.4	6.8	86.8	2.7	10.5	1.7	3.3	39.8	19.1	26.7	9.4	45.8
소계	(994)	1.0	1.0	3.5	7.6	84.5	2.3	13.2	1.7	3.4	38.9	19.1	29.2	7.6	48.3

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유선방송

〈표 Ⅲ-3-6〉은 유선방송의 시청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난 일년내에 유선방송을 시청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 중에서 남녀 국민학생이 각 53.0%, 53.5% 정도로 가장 높았고 남자고등학생이 47.1%, 여자고등학생이 41.7%, 남자중학생 44.0%, 여자중학생 42.8%로 45% 안팎의 시청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60.2%, 여자가 46.5%이었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국민학생이 17.3%~17.9%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밖의 학생집단에서는 6.6%~10.5%였으며 남자근로청소년은 14.7%였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유선방송

〈표 III-3-6〉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불 가능하다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10.6	8.4	10.7	17.5	51.8	1.0	47.2	2.7	6.4	48.5	19.6	20.0	2.8	39.6
국 민 학 생															
남	(496)	17.9	9.7	11.5	13.9	45.0	2.0	53.0	4.6	9.1	46.6	17.5	19.8	2.4	37.3
여	(486)	17.3	9.9	9.9	16.5	44.9	1.6	53.5	3.5	5.6	55.8	17.7	16.3	1.2	34.0
소 제	(982)	17.6	9.8	10.7	15.2	44.9	1.8	53.3	4.1	7.3	51.1	17.6	18.0	1.8	35.0
중 학 생															
남	(763)	10.2	8.9	8.1	16.8	55.0	.9	44.0	2.9	5.6	43.1	21.5	24.4	2.5	45.9
여	(829)	9.8	8.4	11.3	13.3	56.5	.7	42.8	1.7	6.2	50.1	18.3	21.1	2.7	39.4
소 제	(1592)	10.0	8.7	9.8	14.9	55.8	.8	43.4	2.3	5.9	46.7	19.8	22.7	2.6	42.5
고 등 학 생															
남	(696)	10.5	9.1	10.6	17.0	52.3	.6	47.1	4.2	8.8	47.7	18.4	19.1	1.9	37.5
여	(701)	6.6	6.8	9.1	19.1	58.2	.1	41.7	.7	3.7	50.2	24.3	19.1	2.0	43.4
소 제	(1397)	8.5	7.9	9.9	18.0	55.3	.4	44.4	2.4	6.2	49.0	21.3	19.1	1.9	40.4
근로청소년															
남	(334)	14.7	9.6	16.5	19.5	38.9	.9	60.2	5.1	7.2	45.2	18.0	21.0	3.6	39.0
여	(660)	3.6	5.9	12.0	25.0	51.5	2.0	46.5	1.4	6.1	49.5	19.1	17.9	6.1	37.0
소 제	(994)	7.3	7.1	13.5	23.1	47.3	1.6	51.1	2.6	6.4	48.1	18.7	18.9	5.2	37.6
도시규모별															
대 도 시	(3000)	5.5	5.7	8.9	17.3	61.6	1.0	37.4	1.9	4.8	43.5	22.2	25.1	2.6	47.3
중 소 도 시	(800)	15.1	9.8	14.3	20.1	39.3	1.5	59.3	3.0	7.1	54.5	19.3	12.0	4.1	31.3
읍 면	(1200)	20.3	14.3	12.8	15.9	35.6	1.0	63.4	4.8	9.8	56.9	13.5	12.5	2.5	26.0

일본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학생등 어린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시청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율을 보여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나이 어린 청소년에 의한 시청억제, 업소 동지에서의 방송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의 경우 지금까지의 결과와 다른 점은 대도시에서 보다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서의 시청율이 월등히 높은 점이다. 연간 시청율은 22%이상, 주간시청율도 9%이상 높은 시청율을 보이고 있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의 유선방송에 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의 유해성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9.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9.1%임을 감안할 때 유선방송이 다소 유해한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는 시청율이 높은 국민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약간 낮았다.

(6) 각종 스포츠 신문

〈표 Ⅲ-3-7〉은 각종 스포츠 신문의 구독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스포츠신문

〈표 Ⅲ-3-7〉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절대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24.5	22.7	15.5	18.5	18.2	.6	81.2	12.5	27.2	44.8	8.0	5.8	1.4	13.8
국민학생															
남	(496)	26.0	19.8	11.3	13.1	28.2	1.6	70.2	12.3	27.2	41.9	7.3	9.3	2.0	16.6
여	(486)	16.5	19.3	12.3	20.6	30.9	.4	68.7	11.1	23.7	47.3	10.3	7.0	.6	17.0
소계	(982)	21.3	19.6	11.8	16.8	29.5	1.0	69.5	11.7	25.5	44.6	8.8	8.1	1.3	16.9
중학생															
남	(763)	21.8	20.7	16.0	19.3	22.0	.3	77.7	10.4	24.5	41.7	13.2	9.3	.9	22.5
여	(829)	16.0	14.8	14.6	27.0	26.8	.7	72.5	6.4	22.1	55.6	7.2	6.6	2.1	13.8
소계	(1592)	18.8	17.7	15.3	23.3	24.5	.5	75.0	8.3	23.2	48.9	10.1	7.9	1.5	18.0
고등학생															
남	(696)	36.5	32.2	15.9	10.6	4.6	.1	95.3	17.5	30.2	40.2	8.5	2.9	.7	11.4
여	(701)	14.3	23.3	17.4	25.5	19.3	.3	80.5	6.6	27.2	51.9	7.8	5.3	1.1	13.1
소계	(1397)	25.3	27.7	16.7	18.1	12.0	.2	87.8	12.0	28.7	46.1	8.2	4.1	.9	12.3
근로청소년															
남	(334)	57.2	23.7	12.0	4.5	2.4	.3	97.3	28.7	36.8	28.1	2.4	2.7	1.2	5.1
여	(660)	24.7	28.2	20.9	17.7	7.6	.9	91.5	17.0	32.9	40.9	4.5	2.3	2.4	6.8
소계	(994)	35.6	26.7	17.9	13.3	5.8	.7	93.5	20.9	34.2	36.6	3.8	2.4	2.0	6.2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신문을 지난 일년 동안에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81.2%에 달했으며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시청율이 더 높았다. 남자근로청소년의 97.3%, 남자고등학생의 95.3%, 여자근로청소년의 91.5%가

본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자고등학생은 80.5%가 본적이 있었다. 이에 비해 남자중학생은 77.7%, 여자중학생은 72.5%, 국민학생은 남자 70.2%, 여자 68.7% 정도에 이르고 있다. 주 1~2회 이상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자국민학생 26.0%, 여자국민학생 16.5%, 남자중학생 21.8%, 여자중학생 16.0%, 남자고등학생 36.5%, 여자고등학생 14.3%, 남자근로청소년 57.2%, 여자근로청소년 24.7%가 주 1~2회 이상 스포츠 신문을 읽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를 볼 때 남자근로청소년이 스포츠 신문을 접한 경험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남자고등학생, 남자중학생 순이며 여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구독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스포츠 신문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신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13.8%가 유해하다고 보는 반면에 39.9%가 유익하다고 하고 있어 오히려 유익하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 중에서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간 스포츠 신문의 성인만화나 각종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유익하다는 평가는 스포츠신문 전반에 대한 평가이거나 호기심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분별력이 약한대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7) 주간경향 등 일반주간지

주간지는 수영복 차림의 미녀사진, 각종 퇴폐음란행위 보도, 인기인 스캔들, 피기한 사건, 폭력배 세계의 동향 등 각종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며 폭력을 조장하고 값싼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서점, 가판대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심각한 유해출판물이 되고 있다.

〈표 Ⅲ-3-8〉은 선데이 서울, 주간경향 등 일반 주간지의 접촉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4.9%가 지난 일년동안에 이러한 주간지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76.0%, 여자고등학생의 42.4%, 남자중학생의 33.3%, 여자중학생이 23.4%, 여자국민학생의 21.8%,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일반주간지

〈표 Ⅲ-3-8〉

구 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2.5	5.3	10.8	26.2	54.1	1.0	44.9	1.6	3.6	32.8	28.6	31.0	2.5	59.6
국민학생															
남	(496)	2.0	1.8	6.5	9.5	78.0	2.2	19.8	1.2	2.2	25.8	21.8	45.4	3.6	67.2
여	(486)	.2	1.9	6.2	13.6	76.3	1.9	21.8	.4	2.3	30.9	29.0	34.8	2.7	63.8
중학생															
계	(982)	1.1	1.8	6.3	11.5	77.2	2.0	20.8	.8	2.2	28.3	25.4	40.1	3.2	65.5
남	(763)	1.8	4.1	8.0	19.4	65.8	.9	33.3	1.6	2.4	22.5	26.9	44.2	2.5	74.1
여	(829)	1.1	2.1	4.5	15.8	75.3	1.3	23.4	.6	2.1	30.9	24.2	38.8	3.4	63.0
고등학생															
계	(1592)	1.4	3.0	6.2	17.5	70.7	1.1	28.1	1.1	2.2	26.9	25.5	41.4	3.0	66.9
남	(696)	4.5	12.1	19.8	39.7	23.7	.3	76.0	2.6	5.9	31.9	40.8	18.4	.4	59.2
여	(701)	.7	2.7	5.7	33.2	57.3	.3	42.4	.0	1.7	32.0	34.8	29.8	1.7	64.6
소계	(1397)	2.6	7.4	12.7	36.4	40.6	.3	59.1	1.3	3.8	31.9	37.8	24.1	1.1	61.9
근로청소년															
남	(334)	9.9	15.0	24.6	32.6	17.4	.6	82.0	3.6	6.9	47.0	25.1	15.6	1.8	40.7
여	(660)	3.0	6.8	17.9	44.4	26.7	1.2	72.1	3.3	6.8	48.6	22.9	14.8	3.5	37.7
소계	(994)	5.3	9.6	20.1	40.4	23.5	1.0	75.5	3.4	6.8	48.1	23.6	15.1	2.9	38.7

남자국민학생의 19.8%가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의 82.0%, 여자의 72.1%가 본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월 1~2회 이상 자주 보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남자근로청소년이 24.9%, 남자고등학생이 16.6%, 여자근로청소년이 9.8%, 남자중학생이 5.9%에 달했다.

근로청소년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많이 보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간지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59.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나 집단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 수록 덜 유해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 살펴볼 월간 오락지, 야담잡지, 성인만화 등은 퇴폐, 음란, 폭력물로 가득차 있으며 서점 뿐 아니라 역이나 터미널 가판대 등에서 싼 가격에 쉽게 구할수 있으며 이렇게 구입된 불량출판물들은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돌려가며 읽히므로 아주 유해성이 높은 것들이다.

(8) 월간 오락지

〈표 Ⅲ-3-9〉에는 명랑 등 월간 오락지를 접해본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49.8%가 명랑 등 월간 오락지를 지난 일년내에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의 74.9%, 여자고등학생의 37.7%, 남자중학생의 33.6%, 여자중학생의 26.5%가 일년간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 중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이 주요 구독집단이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72.0%~74.3%의 높은 접촉경험을 보였다.

특히 주 1~2회 이상 혹은 월 1~2회 정도로 빈번히 이 잡지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근로청소년 23.1%, 남자고등학생 14.5%, 남자중학생 7.5%, 여자근로청소년 13.3%으로 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이 이 잡지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부류의 잡지가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반가량이 유해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접촉률이 높은 근로청소년들도 30%가량이 유해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잡지는 유해성이 높으며 청소년 스스로도 유해하다고 인정하나 청소년들에게 유인력이 큰 선정적인 화보 및 내용으로 인해 일부에 의해 계속 읽히고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월간오락지

〈표 Ⅲ-3-9〉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학생	(3983)	3.2	6.4	11.6	28.7	49.3	.9	49.8	3.3	6.9	39.5	22.7	25.2	2.4	47.9
	(763)	3.4	4.1	8.5	17.6	65.8	.7	33.6	2.5	4.2	29.1	22.4	39.4	2.4	61.8
	(829)	1.3	2.9	5.7	16.6	72.1	1.3	26.5	1.8	4.5	38.8	19.9	31.4	3.6	51.3
소계	(1592)	2.3	3.5	7.0	17.1	69.1	1.0	29.9	2.1	4.3	34.2	21.1	35.2	3.0	56.3
	(696)	4.2	10.3	17.7	42.7	24.7	.4	74.9	3.6	5.3	36.9	30.7	22.6	.9	53.3
	(701)	1.0	2.1	6.7	27.8	61.8	.6	37.7	1.9	5.6	42.5	24.0	24.1	2.0	48.1
소계	(1397)	2.6	6.2	12.2	35.2	43.3	.5	56.2	2.7	5.4	39.7	27.3	23.3	1.4	50.6
	(334)	9.0	14.1	20.7	30.5	24.3	1.5	74.3	6.6	11.1	43.4	21.6	14.7	2.7	36.3
	(660)	3.5	9.8	16.8	41.8	26.8	1.2	72.0	5.6	13.8	50.2	17.3	10.3	2.9	27.6
소계	(994)	5.3	11.3	18.1	38.0	26.0	1.3	72.7	5.9	12.9	47.9	18.7	11.8	2.8	30.5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패, 추적 등 사건 및 야담잡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연간 접촉률, 주간 접촉률 및 유해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건강다이제스트, 명랑 등 월간 오락지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9) 외국음란잡지

〈표 Ⅲ-3-10〉에는 외국음란잡지를 본 경험이 있는지의 경험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외국음란잡지

〈표 Ⅲ-3-10〉

구 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1.3	1.7	3.0	13.6	79.3	1.1	19.6	.9	1.3	7.4	17.1	70.6	2.7	87.7
국민학생															
남	(496)	.6	1.0	1.2	3.0	92.3	1.8	5.8	.6	.6	2.4	7.5	85.7	3.2	93.2
여	(486)	.6	.4	.0	3.5	94.2	1.2	4.5	.6	.8	2.3	7.4	87.4	1.4	94.8
소계	(982)	.6	.7	.6	3.3	93.3	1.5	5.2	.6	.7	2.3	7.4	86.6	2.3	94.0
중학생															
남	(763)	1.8	1.7	3.3	15.7	76.7	.8	22.5	1.2	1.7	7.3	15.9	71.4	2.5	87.3
여	(829)	.7	.2	.6	5.4	91.4	1.6	7.0	.2	.5	4.5	13.8	77.2	3.9	91.0
소계	(1592)	1.3	.9	1.9	10.4	84.4	1.2	14.4	.7	1.1	5.8	14.8	74.4	3.2	89.2
고등학생															
남	(696)	2.3	5.0	8.2	36.8	47.3	.4	52.3	2.2	3.2	14.4	26.0	53.6	.7	79.6
여	(701)	.3	.3	.3	7.4	91.4	.3	8.3	.1	.0	4.4	17.1	76.9	1.4	94.0
소계	(1397)	1.3	2.6	4.2	22.0	69.4	.4	30.2	1.1	1.6	9.4	21.5	65.3	1.1	86.8
근로청소년															
남	(334)	3.9	2.1	12.0	26.6	50.6	1.8	47.6	1.8	4.2	15.6	24.3	50.6	3.6	74.9
여	(660)	1.2	.9	2.4	12.1	81.8	1.5	16.7	.6	.9	10.3	24.2	59.2	4.7	83.4
소계	(994)	2.1	2.3	5.6	17.0	71.3	1.6	27.1	1.0	2.0	12.1	24.2	56.3	4.3	80.5

이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9.6%가 지난 일년내에 외국음란잡지를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이 52.3%로 가장 높고 남자근로청소년이 47.6%이며 남자중학생이 22.5%였다. 여자근로청소년은 16.7%

로 여자들 중 가장 높았으며 여자고등학생과 여자중학생은 각각 8.3%, 7.0%였다. 국민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자 5.8%, 여자 4.5% 정도가 지난 일년 사이에 외국음란잡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월 1~2회이상 외국음란잡지를 보는 청소년이 남자근로청소년의 9.0%, 남자고등학생의 7.3%, 남자중학생의 3.5% 정도에 달했다.

이 결과를 볼 때 남자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이 외국음란잡지를 많이 보며, 남자중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류의 잡지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볼 때 전체적으로 90% 가량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자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 자신들도 반이상이 '아주 해롭다'고 응답하면서도 외국음란잡지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음란잡지의 유통에 관한 강한 규제를 통해 배포자채를 봉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성인만화

〈표 Ⅲ-3-11〉에는 성인만화를 본 경험이 있는지의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체의 28.4%가 지난 일년내에 성인만화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의 60.5%, 남자근로청소년의 58.7%가 지난 1년내에 성인만화를 본 적이 있다고 하여 가장 높은 접촉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남자중학생이 32.3%, 여자근로청소년이 31.4%의 접촉률을 보였고 여자고등학생이 15.8%, 남녀국민학생이 각기 14.5%, 15.2%정도, 여자중학생의 10.1%가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인쇄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접촉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중 남자고등학생과 남자근로청소년이 제일 높았다.

월 1~2회 이상 접촉률은 남자근로청소년과 고등학생이 11.4%와 9.9%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중학생은 3.8%이었다. 국민학생의 연간 접촉률은 낮은 편이었으나 월 1~2회 이상 접촉률은 남녀 각기 3.2%, 2.7%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학생의 경우에도 성인만화의 접촉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고정 또는 습관적인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성인만화

〈표 Ⅲ-3-11〉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2.0	2.3	5.2	18.9	70.5	1.1	28.4	1.1	1.6	10.1	20.1	64.5	2.7	84.6
국민학생															
남	(496)	3.2	2.2	2.4	6.5	84.3	1.4	14.3	1.8	2.0	6.0	14.9	73.0	2.2	87.9
여	(486)	2.7	1.9	3.9	6.8	83.3	1.4	15.2	.6	1.4	7.4	17.9	69.5	3.1	87.4
중학생	(982)	3.0	2.0	3.2	6.6	83.8	1.4	14.8	1.2	1.7	6.7	16.4	71.3	2.6	87.7
남	(763)	2.0	1.8	6.7	21.8	67.1	.7	32.3	1.7	1.7	7.3	17.0	70.1	2.1	87.1
여	(829)	.4	.6	1.2	8.0	88.4	1.4	10.1	.4	.5	4.8	11.5	79.4	3.5	90.9
고등학생	(1592)	1.1	1.2	3.8	14.6	78.2	1.1	20.7	1.0	1.1	6.0	14.1	74.9	2.8	89.0
남	(696)	4.0	5.9	11.5	39.1	38.6	.9	60.5	2.0	3.3	16.4	30.2	47.0	1.1	77.2
여	(701)	.3	.6	.4	14.6	83.9	.3	15.8	.1	.6	4.6	21.1	72.5	1.1	93.6
청소년	(1397)	2.1	3.2	5.9	26.8	61.3	.6	38.1	1.1	1.9	10.5	25.6	59.8	1.1	85.4
소년															
남	(334)	4.5	6.9	15.0	32.3	39.2	2.1	58.7	1.8	3.3	21.0	26.9	43.1	3.9	70.0
여	(660)	1.2	1.1	5.3	23.3	67.0	1.7	31.4	.8	.9	18.6	25.2	49.7	4.8	74.9
소년	(994)	2.3	3.0	8.6	26.7	57.6	1.8	40.6	1.1	1.7	19.4	25.3	47.5	4.5	73.2

성인만화가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4.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70%이상 이 해롭다고 보고 있어 기존의 연구나 보도와 마찬가지로 유해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 해롭다고 하면서도 많은 청소년이 접하고 있으며 5~10%의 고정 독자층, 특히 국민학생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읽는 층이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성인만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저질 성인만화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요청된다.

(11)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지금까지 살펴 본 잡지나 인쇄물들 외에도 많은 종류의 저자도 출판사도 알 수 없는 음란잡지나 소설들이 가판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들을 접해 본 경험을 〈표 Ⅲ-3-12〉에서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38.9%가 지난 일년 동안에

이러한 음란잡지나 소설을 접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72.8%, 남자중학생의 40.2%, 여자고등학생의 34.4%, 여자중학생의 29.6%가 음란잡지 및 소설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의 66.2%, 여자의 48.8%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결과를 보면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음란잡지나 소설이 아주 보편화 됐으며, 특히 고등학생 이상에게는 아주 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음란잡지나 소설의 유해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74.0%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표 Ⅲ-3-12〉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3.1	4.3	8.0	23.5	58.6	2.6	38.9	1.6	2.7	17.4	20.9	53.1	4.2	74.0
국 민 학 생															
남	(496)	1.4	1.6	1.2	4.2	88.9	2.6	8.5	.8	.8	3.2	7.5	84.3	3.4	91.8
여	(486)	2.5	1.0	1.6	3.9	88.5	2.5	9.1	.8	.8	4.5	5.6	85.6	2.7	91.2
중 학 생	(982)	1.9	1.3	1.4	4.1	88.7	2.5	8.8	.8	.8	3.9	6.5	84.9	3.1	91.4
남	(763)	4.5	3.3	8.0	24.5	56.4	3.4	40.2	1.6	3.0	19.9	21.5	49.0	5.0	70.5
여	(829)	2.1	4.1	6.3	17.1	66.7	3.7	29.6	1.0	2.8	17.4	19.2	53.6	6.2	72.8
고 등 학 생	(1592)	3.2	3.7	7.1	20.7	61.7	3.6	34.7	1.3	2.9	18.6	20.3	51.4	5.6	71.7
남	(696)	5.3	6.6	14.2	46.7	26.3	.9	72.8	3.7	3.0	22.7	35.3	34.1	1.1	69.4
여	(701)	1.7	3.0	5.7	24.0	64.5	1.1	34.4	.1	2.9	14.7	23.5	56.1	2.7	79.6
소 계	(1397)	3.5	4.8	9.9	35.3	45.5	1.0	53.5	1.9	2.9	18.7	29.4	45.1	1.9	74.5
근로청소년															
남	(334)	5.1	8.4	15.9	36.8	29.0	4.8	66.2	3.3	3.3	30.5	24.9	30.8	7.2	55.7
여	(660)	2.6	7.3	11.5	27.4	48.8	2.4	48.8	2.0	4.4	25.3	23.8	38.3	6.2	62.1
소 계	(994)	3.4	7.6	13.0	30.6	42.2	3.2	54.6	2.4	4.0	27.1	24.1	35.8	6.5	59.9

이제부터는 각종 광고물을 접촉한 정도와 그 유해도 평가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2) TV광고

〈표 Ⅲ-3-1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지난 일년동안에 TV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5.0%이며, 주 1~2회 이상 접한 비율은 전체의 78.0%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주 1~2회 이상 빈번히 시청하는 경우가 여자 고등학생의 86.6%, 남자고등학생의 85.9%, 여자중학생의 82.3%, 남자중학생이 81.3%로 나타났다. 이와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여자근로청소년은 70.8%, 남자근로청소년은 69.8%, 국민학생은 남여 각기 67.9%, 67.5%가 매주 1~2회 이상 TV광고를 본다고 응답했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TV광고

〈표 Ⅲ-3-13〉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78.0	7.5	5.2	4.4	4.4	.6	95.0	6.4	17.6	62.6	8.8	3.3	1.3	12.1
국 민 학 생															
남	(496)	67.9	9.3	7.9	5.6	7.9	1.4	90.7	7.9	14.3	61.9	8.7	5.4	1.8	14.1
여	(486)	67.5	12.1	6.0	7.8	6.4	.2	93.4	6.0	13.8	67.1	7.8	5.1	.2	12.9
소 계	(982)	67.7	10.7	6.9	6.7	7.1	.8	92.1	6.9	14.1	64.5	8.2	5.3	1.0	13.5
중 학 생															
남	(763)	81.3	4.8	5.0	3.8	4.5	.7	94.9	5.0	16.3	60.9	12.1	4.7	1.0	16.8
여	(829)	82.3	4.6	3.6	4.7	4.3	.5	95.2	5.1	14.1	65.9	10.5	2.8	1.7	13.3
소 계	(1592)	81.8	4.7	4.3	4.3	4.4	.6	95.0	5.0	15.1	63.5	11.2	3.7	1.4	14.9
고 등 학 생															
남	(696)	85.9	5.3	3.2	3.4	1.7	.4	97.8	7.9	20.8	58.8	9.3	2.6	.6	11.9
여	(701)	86.6	5.8	2.6	2.3	2.1	.6	97.3	4.3	18.4	67.9	6.8	1.6	1.0	8.4
소 계	(1397)	86.3	5.6	2.9	2.9	1.9	.5	97.6	6.1	19.6	63.4	8.1	2.1	.8	10.2
근로청소년															
남	(334)	69.8	12.6	8.7	3.6	5.1	.3	94.6	9.9	22.5	58.1	6.9	2.1	.6	9.0
여	(660)	70.8	10.8	7.9	4.7	4.8	1.1	94.1	7.9	22.3	58.0	6.4	2.7	2.7	9.1
소 계	(994)	70.4	11.4	8.1	4.3	4.9	.8	94.3	8.6	22.3	58.0	6.5	2.5	2.0	9.0

집단별로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며,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국민학생이나 근로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나 보고에 의하면 TV

광고의 유해성이 많이 지적되었으나 청소년들의 TV광고 전반에 대한 평가는 유해하다(12.1%)고 보는 것 보다는 중립적(62.6%)이거나 이롭다 혹은 아주 이롭다(23.9%)고 보는 쪽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의 질문이 TV광고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특정 광고물이나 광고내용의 유해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정보전달 등 순기능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유해한 광고에 이미 익숙해져서 유해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표 Ⅲ-3-14>에서 살펴보면 연간 접촉률은 전체의 87.3%이나 주간접촉은 46.1%로 TV광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집단별로는 고등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라디오광고

<표 Ⅲ-3-14>

구분	사레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46.1	20.7	11.9	8.6	11.7	1.0	87.3	5.3	16.0	66.7	6.3	4.1	1.7	10.4
국민학생															
남	(496)	20.6	22.4	14.1	15.1	25.6	2.2	72.2	5.6	12.7	62.7	8.1	8.9	2.0	17.0
여	(486)	15.6	29.4	18.5	15.6	20.4	.4	79.2	4.1	14.6	68.3	6.8	5.8	.4	12.6
중학생	(982)	18.1	25.9	16.3	15.4	23.0	1.3	75.7	4.9	13.6	65.5	7.4	7.3	1.2	14.7
남	(763)	43.5	21.1	13.1	6.8	14.4	1.0	84.5	3.3	16.1	63.4	8.9	5.8	2.0	14.7
여	(829)	43.4	20.9	11.7	9.0	13.9	1.1	85.1	3.6	12.3	70.6	6.4	4.9	2.2	11.3
고등학생	(1592)	43.5	21.0	12.4	8.0	14.1	1.1	84.8	3.7	14.1	67.1	7.6	5.3	2.1	12.9
남	(696)	60.6	20.4	9.8	5.5	3.3	.4	96.3	7.3	18.4	66.7	5.5	1.6	.6	7.1
여	(701)	59.3	18.1	9.4	6.4	6.0	.7	93.3	2.6	14.4	76.0	4.0	1.9	1.1	5.9
소년	(1397)	60.0	19.3	9.6	5.9	4.7	.6	94.8	4.9	16.4	71.4	4.7	1.7	.9	6.4
소년															
남	(334)	53.3	18.3	13.5	7.8	6.0	1.2	92.8	8.7	20.1	61.7	6.0	2.7	.9	8.7
여	(660)	60.8	16.8	8.3	5.8	6.8	1.5	91.7	8.6	20.9	60.0	5.0	2.1	3.3	7.1
소년	(994)	58.2	17.3	10.1	6.4	6.5	1.4	92.1	8.7	20.6	60.6	5.3	2.3	2.5	7.6

학생(60.0%)과 근로청소년(58.2%)의 라디오 광고 청취율이 가장 높으며 국민학생(18.1%)의 청취율이 가장 낮다. 성별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다.

유해성에 관한 평가는 2/3정도가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해롭다’기 보다는 ‘이롭다’고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잡지광고

잡지광고의 연간 접촉경험율 <표 Ⅲ-3-15>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6.5%가 접해본 적이 있으며 월 1~2회 이상 접하는 청소년은 37.2%에 이르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고등학생(91.4%)과 근로청소년(86.3%)의 잡지광고 접촉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은 70.4%, 국민학생은 55.3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은 월 1~2회이상 접하는 비율도 5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잡지광고의 유해도 평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잡지광고

<표 Ⅲ-3-15>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9.0	18.2	19.5	19.8	21.6	1.9	76.5	2.4	6.5	54.9	20.3	13.2	2.6	33.5
국 민 학 생															
남	(496)	9.9	8.9	15.3	18.8	45.2	2.0	52.8	3.0	4.6	41.1	22.0	27.0	2.2	49.0
여	(486)	5.8	11.3	13.8	27.0	40.7	1.4	57.8	1.0	3.7	44.2	29.2	20.8	1.0	50.0
소 계	(982)	7.8	10.1	14.6	22.8	43.0	1.7	55.3	2.0	4.2	42.7	25.6	23.9	1.6	49.5
중 학 생															
남	(763)	16.5	11.4	18.0	22.3	30.3	1.6	68.2	1.8	4.8	45.3	25.3	19.5	3.1	44.8
여	(829)	15.9	16.2	16.2	24.2	25.1	2.4	72.5	1.0	4.6	55.9	19.8	15.4	3.4	35.2
소 계	(1592)	16.2	13.9	17.0	23.3	27.6	2.0	70.4	1.4	4.7	50.8	22.4	17.4	3.3	39.8
고 등 학 생															
남	(696)	26.0	26.1	22.4	18.0	6.5	1.0	92.5	3.6	9.5	59.2	20.1	6.2	1.4	26.3
여	(701)	21.1	25.8	25.1	18.3	8.6	1.1	90.3	1.4	6.0	70.0	16.3	4.3	2.0	20.5
소 계	(1397)	23.6	26.0	23.8	18.1	7.5	1.1	91.4	2.5	7.7	64.6	18.2	5.2	1.7	23.4
근로청소년															
남	(334)	27.2	23.7	23.4	12.3	11.1	2.4	86.5	5.4	8.7	55.4	20.7	8.1	1.8	28.8
여	(660)	28.6	21.5	21.5	14.5	10.5	3.3	86.2	3.8	10.6	62.3	11.7	6.8	4.8	18.5
소 계	(994)	28.2	22.2	22.1	13.8	10.7	3.0	86.3	4.3	10.0	60.0	14.7	7.2	3.8	21.9

가를 보면 33.5%가 유해하다고 하여 TV(12.1%), 라디오(10.4%), 신문광고(12.8%) 보다는 유해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옥외광고

옥외광고를 접한 경험을 <표 Ⅲ-3-16>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9.2%가 지난 일년동안에 접해본 경험이 있으며 39.8%가 주 1~2회 이상 접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별로 보면 고등학생(89.7%)과 근로청소년(85.0%)의 옥외광고 접촉률이 높고 중학생은 74.2%, 국민학생은 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53.3%가 유해하다고 하고 있어 옥외광고의 유해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국민학생(69.4%)과 중학생(60.1%)이 고등학생(41.6%)이나 근로청소년(43.1%)보다 더 유해하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옥외광고

<표 Ⅲ-3-16>

구분	사례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39.8	14.0	12.3	13.1	19.0	1.8	79.2	1.5	3.4	39.3	29.7	23.6	2.4	53.3
국민학생	(496)	20.6	12.7	13.5	16.3	35.5	1.4	63.1	1.0	3.2	27.6	28.8	37.7	1.6	66.5
남	(486)	16.5	9.9	11.5	27.0	34.8	.4	64.8	.8	1.6	24.7	31.3	41.2	.4	72.5
여	(982)	18.5	11.3	12.5	21.6	35.1	.9	64.0	.9	2.4	26.2	30.0	39.4	1.0	69.4
중학생	(763)	44.2	13.1	12.2	9.6	19.3	1.7	79.0	1.0	2.1	34.1	32.4	28.2	2.2	60.6
남	(829)	29.9	15.7	12.3	14.8	25.0	2.3	72.7	.8	2.1	33.7	30.4	29.3	3.7	59.7
여	(1592)	36.7	14.4	12.2	12.3	22.2	2.0	74.2	.9	2.1	33.9	31.3	28.8	3.0	60.1
고등학생	(696)	57.8	15.8	11.2	7.3	6.5	1.4	92.1	3.0	4.9	49.3	30.5	10.9	1.4	41.4
남	(701)	50.2	14.0	12.8	10.3	10.8	1.9	87.3	.4	3.1	52.1	29.8	12.1	2.4	41.9
여	(1397)	54.0	14.9	12.0	8.8	8.7	1.6	89.7	1.7	4.0	50.7	30.1	11.5	1.9	41.6
근로청소년	(334)	44.0	17.7	12.6	12.0	11.4	2.4	86.2	2.1	6.6	42.8	27.5	18.6	2.4	46.4
남	(660)	46.5	13.3	12.3	12.3	12.7	2.9	84.4	3.2	5.2	46.1	25.5	16.1	4.1	41.6
여	(994)	45.7	14.8	12.4	12.2	12.3	2.7	85.0	2.8	5.6	45.0	26.2	16.9	3.5	43.1

고 보고 있다.

이제부터는 최근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란비디오,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폭력영화 및 비디오 등 저질 불량비디오의 접촉실태와 유해도 평가를 보겠다. 이들은 성충동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정보를 제공하여 성의 상품화와 성비행을 자극, 유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며 청소년의 정서를 거칠고 비뚤어지게 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과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 음란 비디오테이프

〈표 Ⅲ-3-17〉은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본 경험이 있는지의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음란 비디오테이프

〈표 Ⅲ-3-17〉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5	2.3	4.3	16.4	74.4	1.1	24.5	1.0	1.0	7.8	16.3	71.0	2.8	87.3
국 민 학 생															
남	(496)	.6	1.8	.4	6.3	89.5	1.4	9.0	.6	.2	1.2	6.7	88.9	2.4	95.4
여	(486)	.4	1.2	.8	6.8	90.1	.6	9.3	.2	.0	1.6	8.6	88.1	1.4	96.7
소 계	(982)	.5	1.5	.6	6.5	89.8	1.0	9.2	.4	.1	1.4	7.6	88.5	1.9	96.1
중 학 생															
남	(763)	2.1	2.2	5.6	19.8	69.3	.9	29.8	1.4	.9	6.3	14.8	74.0	2.5	88.8
여	(829)	.7	.2	1.3	6.4	90.0	1.3	8.7	.1	.4	4.0	10.6	80.6	4.3	91.2
소 계	(1592)	1.4	1.2	3.4	12.8	80.1	1.1	18.8	.8	.6	5.1	12.6	77.4	3.5	90.0
고 등 학 생															
남	(696)	3.3	5.9	11.4	34.5	44.4	.6	55.0	2.9	3.0	15.5	27.3	50.1	1.1	77.4
여	(701)	.7	.9	1.4	11.6	84.6	.9	14.6	.3	.4	6.3	17.0	73.6	2.4	90.6
소 계	(1397)	2.0	3.4	6.4	23.0	64.6	.7	34.7	1.6	1.7	10.9	22.1	61.9	1.8	84.0
근로청소년															
남	(334)	4.2	8.1	14.7	34.7	37.1	1.2	61.7	2.1	3.3	20.4	23.1	48.8	2.4	71.9
여	(660)	.9	1.2	2.4	16.2	77.6	1.7	20.8	.8	.9	11.2	22.6	59.8	4.7	82.4
소 계	(994)	2.0	3.5	6.5	22.4	64.0	1.5	34.5	1.2	1.7	14.3	22.7	56.1	3.9	78.8

이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4.5%가 지난 일년동안에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집단별로는 남자근로청소년의 61.7%, 남자고등학생의 5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남자중학생이 29.8%, 여자근로청소년이 20.8%, 여자고등학생이 14.6%의 연간 접촉률을 기록했고 여자중학생과 남녀 국민학생은 9.0%정도가 지난 일년동안에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월 1~2회 이상의 상습적 이용자는 남자근로청소년이 12.3%, 남자고등학생이 9.2%이며 남자중학생이 4.3%이며 그밖의 집단은 1~2%정도였다.

앞서 보았던 다른 유해환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 특히 근로청소년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음란 비디오테이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7.3% 가량이 해롭다고 보고 있으며 남자근로청소년과 고등학생도 70.0% 이상이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란 비디오테이프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7) 성인영화

〈표 Ⅲ-3-18〉은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를 본 경험이 있는지의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전체의 32.4%가 지난 일년동안에 성인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집단별로는 남자고등학생이 60.5%로, 학생청소년 중 가장 높으며 남자중학생이 31.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여자고등학생은 21.4%, 남자국민학생은 16.3% 이었고 여자중학생과 국민학생은 각기 11.8%, 11.7%가 지난 1년 동안에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두세달에 1~2회이상(주 1~2회 이상, 월 1~2회 정도 포함) 빈번히 성인영화를 보았다는 청소년도 전체의 11.5%에 이르며,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이 25.0%, 남자중학생이 12.0%이며 여자고등학생과 남자국민학생이 각각 4.4%, 5.6%, 여자중학생과 여자국민학생이 각각 2.7%, 2.6%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성인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연간 관람율이 남자 69.5%, 여자 49.4%이며 두세달에 1~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성인영화

〈표 Ⅲ-3-18〉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물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4	3.0	7.1	20.8	66.4	1.2	32.4	1.1	1.5	12.0	18.9	63.9	2.7	82.8
국 민 학 생															
남	(496)	.8	1.4	3.4	10.7	81.9	1.8	16.3	.2	.8	2.8	12.1	81.3	2.8	93.4
여	(486)	.4	.6	1.6	9.1	87.4	.8	11.7	.2	.2	2.5	10.5	84.8	1.9	95.3
소 계	(982)	.6	1.0	2.5	9.9	84.6	1.3	14.1	.2	.5	2.6	11.3	83.0	2.3	94.3
중 학 생															
남	(763)	1.8	2.9	7.3	19.7	67.5	.8	31.7	1.8	1.2	8.8	14.5	71.4	2.2	86.9
여	(829)	.5	.4	1.8	9.2	86.7	1.4	11.8	.2	.8	4.1	10.0	80.3	4.5	90.3
소 계	(1592)	1.1	1.6	4.5	14.2	77.5	1.1	21.4	1.0	1.0	6.3	12.2	76.1	3.4	88.3
고 등 학 생															
남	(696)	2.7	6.6	15.7	35.5	38.6	.9	60.5	2.9	3.4	21.4	29.0	41.5	1.7	70.5
여	(701)	.3	1.0	3.1	17.0	78.0	.6	21.4	.3	.6	10.1	23.0	64.2	1.9	87.2
소 계	(1397)	1.5	3.8	9.4	26.2	58.4	.7	40.9	1.6	2.0	15.7	26.0	52.9	1.8	78.9
근로청소년															
남	(334)	5.4	12.6	18.6	32.9	29.0	1.5	69.5	2.1	4.5	27.5	24.0	40.7	1.2	64.7
여	(660)	1.2	2.9	9.5	35.8	48.5	2.1	49.4	1.1	1.5	23.9	28.5	40.9	4.1	69.4
소 계	(994)	2.6	6.1	12.6	34.8	42.0	1.9	56.1	1.4	2.5	25.2	27.0	40.8	3.1	67.8

2회 이상 관람율도 남자 36.6%, 여자 13.6%이나 이들의 경우 연령 미달의 일부 근로청소년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관람이며 학생청소년과는 달리 조직적인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청소년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성인영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2.8%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자고등학생의 70.5%, 남자근로청소년의 64.7%도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18) 폭력영화

〈표 Ⅲ-3-19〉는 폭력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를 본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일년동안에 폭력영화 또는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이 89.5%, 남자근로청소년이 88.0%, 남자중학생이 76.3%로 남자들이 폭력영화

또는 비디오를 더 많이 보았다. 다음으로는 여자고등학생이 60.8%, 남자국민학생이 56.9%, 여자근로청소년이 56.2%, 여자중학생이 48.3%, 여자국민학생이 42.8% 인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표 III-3-19〉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6.0	12.7	19.3	26.3	34.7	1.2	64.2	2.0	4.1	31.6	24.5	35.3	2.4	59.8
국 민 학 생															
남	(496)	5.6	13.9	14.1	23.2	41.5	1.6	56.9	1.0	2.4	19.6	27.2	47.0	2.8	74.2
여	(486)	2.1	5.1	10.5	25.1	56.4	.8	42.8	.6	.8	14.6	20.4	61.7	1.9	82.1
소 계	(982)	3.9	9.6	12.3	24.1	48.9	1.2	49.9	.8	1.6	17.1	23.8	54.3	2.3	78.1
중 학 생															
남	(763)	8.4	20.4	23.2	24.2	22.8	.9	76.3	3.5	3.5	35.6	26.1	29.4	1.8	55.5
여	(829)	2.3	5.8	13.5	26.7	50.5	1.2	48.3	.6	2.5	23.4	22.2	48.5	2.8	70.7
소 계	(1592)	5.2	12.8	18.2	25.5	37.2	1.1	61.7	2.0	3.0	29.3	24.1	39.3	2.3	63.4
고 등 학 생															
남	(696)	11.1	22.6	30.3	25.6	9.3	1.1	89.5	4.6	9.3	47.1	24.4	13.1	1.4	37.5
여	(701)	2.1	8.3	18.8	31.5	38.4	.9	60.8	.3	2.3	34.5	27.7	33.4	1.9	61.1
소 계	(1397)	6.6	15.4	24.6	28.6	23.9	1.0	75.1	2.4	5.8	40.8	26.1	23.3	1.6	49.4
근로청소년															
남	(334)	18.9	22.8	27.8	18.6	10.5	1.5	88.0	4.8	9.6	52.1	15.6	15.6	2.4	31.0
여	(660)	3.2	6.1	16.7	30.3	42.3	1.5	56.2	1.4	3.9	29.2	28.0	33.2	4.2	61.2
소 계	(994)	8.5	11.7	20.4	26.4	31.6	1.5	66.9	2.5	5.8	36.9	23.8	27.3	3.6	51.1

월 1~2회 이상 폭력영화 및 비디오를 보는 청소년의 비율도 역시 남자가 높아 남자인 경우 근로청소년이 41.7%, 고등학생이 33.7%, 중학생이 28.8%, 국민학생이 19.5%를 나타내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10.4% 이하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앞서의 음란비디오와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청소년이 폭력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점이다.

유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59.8% 정도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나 남자고등학생과 남자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7.

5%,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음란비디오나 성인영화에 비해서는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적다. 이 결과를 보면 폭력에 대해서는 외설물에 비해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더 많이 접하거나 아니면 더 자주 접하게 되어 감각이 무디어지게 되어 폭력물은 덜 유해하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폭력물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역시 제작과 유통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유해상황이 자신에게 문제되는 정도와 유해도 평가

지금까지는 기존의 연구나 언론기관의 보도 등을 통해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물품, 대중매체와 출판물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 또는 접촉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신들은 이들 주위환경이 얼마나 유해하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들은 성인들에 의해 유해하거나 유해가능성이 있다고 규정된 것들이며, 가정과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 볼 수 있는 유해환경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간과하고 있으나 청소년 스스로는 자신들의 전전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및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다. 청소년 업무담당자와 일선교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는 상황들을 수집하여 질문지에 포함,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유해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가정과 관련된 상황을 <표 Ⅲ-4-1>에서 살펴보면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89.3%)’, ‘식구들의 잦은 싸움’(85.4%), ‘식구들의 무관심’(83.9%),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83.1%),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80.4%)에 대해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64.6%)에 대해서도 유해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가정과 관련된 유해상황이 청소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많이 해당된다, 조금 해당된다, 그저 그렇다, 별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다)를 사용하여 알아 보았다.

자기 가정이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은 전체의 26.8% 이었으며 ‘식구들의 잦은 싸움’이 문제가 된다는 청소년은 40.0%였고, ‘식구들의 무관심’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30.1%였다.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는 비율은 34.9%이고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는 33.8%의 청소년의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청소년은 41.9%에 달했다.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유해상황이
자신에게 문제되는 정도와 유해도(가정)

〈표 Ⅲ-4-1〉 (단위 : %)

가 정	문 제 정 도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식구들의 잦은 음주 흡연	34.9	40.5	83.1	78.0
부모님의 늦은 귀가	33.8	34.4	80.4	79.7
식구들의 잦은 싸움	40.0	44.4	85.4	85.4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41.9	49.9	64.6	62.5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25.8	30.7	89.3	90.8
식구들의 무관심	30.1	28.9	83.9	81.9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가정에서 ‘식구들의 잦은 싸움’,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등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식구들의 무관심’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또다른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모범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과잉보호를 피하며 가정이 가족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실의 역할을 다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Ⅲ-4-2〉에서와 같이 학교나 직장과 관련된 상황으로는 ‘학교주변 폭력배’(89.6%),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82.1%), ‘학교(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74.0%),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근로시간)’(70.9%), ‘선배나 친구의 강요’(66.1%),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59.5%), ‘잦은 시험 및 입시위주의 교육’

(62.8%) 등이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20.9%)보다는 유익하다고 보는 청소년(40.8%)이 더 많았으며 ‘친구들간의 경쟁’과 ‘여러가지 학원 다니기’에 대해서는 36.6%와 42.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나 21.2%와 16.1%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38.7%와 39.0%는 유해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는 유해하다고 보는 편이지만 앞서 거론된 다른 문제들보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50%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율학습’과 ‘친구들간의 경쟁’이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유익하다고 보는 청소년도 많으며 친구들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관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입시 및 경쟁의 강조 때문에 친구들을 협조상대로 보다는 경쟁상대로 간주하는데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앞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았던 상황 중에서 ‘жат은 시험 및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60.8%의 청소년들이 이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유해상황이
자신에게 문제되는 정도와 유해도(학교·직장)

〈표 Ⅲ-4-2〉

(단위 : %)

학 교	문 제 정 도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학교(직장)의 부족한 시설	51.9	57.2	74.0	78.2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근로시간)	51.4	62.8	70.9	76.5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	36.8	41.8	59.5	58.1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	41.6	46.4	82.1	86.9
선배나 친구의 강요	29.8	35.4	66.1	66.7
친구들간의 경쟁	48.1	49.8	36.6	38.1
학교(직장)주변 폭력배	29.7	37.8	89.6	91.2
자율학습*	57.4	54.3	20.9	32.3
жат은시험 및 입시위주 교육*	60.8	63.4	62.8	67.1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37.2	35.3	42.6	42.6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

‘학교(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은 51.9%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근로 시간)’은 51.4%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 때문에 41.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36.8%는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이, 29.7%는 ‘학교(직장)주변 폭력배’가, 29.8%는 ‘선배나 친구의 강요’가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나 직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찾은 시험 및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나 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 또는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선생님이나 직장상사의 지나친 차별이나 간섭’, ‘학교나 직장 주변의 폭력배’, ‘선배나 친구의 강요’와 같은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러가지 학원다니기’나 ‘친구간의 관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환경과 관련된 상황을 <표 Ⅲ-4-3>에서 살펴보면 유종가 불량배(90.6%), 과소비 풍조(90.2%), 물가폭등 등 사회혼란(87.5%), 정치불안(84.7%), 황금만능주의(82.3%), 민생치안 부재(79.5%)에 대해서 아주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데모에 대해서도 64.6%의 조사대상자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정도를 묻은 결과 51.1%의 응답자들이 ‘물가폭등 등 사회혼란’이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응답하여 가장 피부로 느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유해상황이
자신에게 문제되는 정도와 유해도(사회)

<표 Ⅲ-4-3>

(단위: %)

사 회	문 제 정 도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36.0	43.8	82.3	87.5
정치불안*	37.6	41.8	84.7	86.7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	28.7	52.6	87.5	90.1
데 모*	26.1	28.6	64.6	57.0
유종가 불량배*	28.9	31.2	90.6	92.5
민생치안 부재*	28.9	34.8	79.5	82.9
과소비 풍조*	30.4	32.7	90.2	90.6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

끼는 유해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치불안(37.6%)’과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36.0%)’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으며 ‘과소비 풍조(30.4%)’, ‘민생치안 부재(28.9%)’, ‘데모(28.7%)’, ‘유흥가 불량배(26.1%)’ 등의 문제들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사회상황 중 ‘물가폭등 등 사회혼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불안,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과소비 풍조, 민생치안 부재, 유흥가 불량배, 데모 등에 대해서도 시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몇가지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표 Ⅲ-4-4>에서 살펴보면 89.2%의 응답자들이 ‘어른들의 술주정’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로운 요소라고 하였으며 ‘장난전화(69.0%)’,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66.6%)’, ‘흥미위주의 유행어(43.1%)’가 해롭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민학생들에게만 질문했던 ‘자동차 횡포(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93.1%의 국민학생들이 유해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장난전화’는 34.5%의 청소년이 해당된다고 했고 ‘흥미위주의 유행어’는 34.0%가, ‘어른들의 술주정’은 26.4%가,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은 22.4%가 자신에게 문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의 횡포’에 대해서는 22.9%의 국민학생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유해상황이
자신에게 문제되는 정도와 유해도(기타)

<표 Ⅲ-4-4>

(단위 : %)

기 타	문 제 정 도		유 해 도	
	전 체	남 고	전 체	남 고
장난전화	34.5	32.1	69.0	64.7
어른들의 술주정	26.4	22.8	89.2	86.0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22.4	24.9	66.6	54.5
유행어	34.0	35.9	43.1	35.8
자동차 횡포***	22.9		93.1	
어린이 만화집***	44.0**		24.0	

**는 일년내 이용률

***는 국민학생용 질문자에만 있는 문항임

IV.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의 연관성

IV. 청소년비행과 유해환경의 연관성

최근들어 각종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한 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각종 유해환경에의 접촉이 비행을 유발시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비행의 경험정도와 청소년 자신이 비행을 보는 시각,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과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1. 청소년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

각종 청소년 비행을 실제로 경험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런 비행을 하는지, 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비행경험에 관해서는 유해환경 접촉경험에 관한 질문과 같이 5점 척도(일주일에 1~2회 이상, 한달에 1~2회 정도, 두세달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해 본적이 없다)를 사용하여 지난 일년간의 경험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비행의 유해도에 대한 평가도 유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5점 척도(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V-1-1〉는 연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질문지에 포함된 비행의 종류는 기존의 연구에서 취급되었던 것들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하여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정, 포함하였다. 기존의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에서 사용한 청소년비행의 분류를 참고하여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과 가출에 관한 비행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위비행으로는 켄닝, 야간배회, 도박, 흡연, 음주,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반항(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에 대한)을 포함시켰다. 재산비행으로는 절도가 포함되었고

전체집단과 남자고등학생집단의 비행 경험율과 유해도

〈표 IV-1-1〉

(단위 : %)

비행	경험비		유해도	
	전체	남고	전체	남고
친남**	53.5	69.4	73.2	55.6
야간배회	47.2	67.0	54.4	44.9
무단결석(무단결근)	13.4	13.6	87.3	87.5
도박	22.4	60.0	87.0	75.3
절도	5.1	9.9	93.8	94.0
집단패싸움	9.7	13.4	93.0	91.8
흥기소지	9.6	15.5	92.6	89.8
흡연	14.2	40.0	89.5	81.6
음주	32.3	70.7	77.7	53.0
위협	9.5	18.1	92.6	91.0
폭행	11.6	19.8	92.7	90.7
가출	6.6	9.8	90.0	87.6
유혹업소 아르바이트*	6.5	9.5	80.5	78.0
반항(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	57.4	62.5	73.4	74.9
음란낙서	18.2	35.1	87.9	80.6
이성과 성관계*	14.0	19.4	75.1	65.2
가벼운 성추행*	11.4	24.4	85.9	77.4
성폭행	2.8	4.7	91.7	90.9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는 근로청소년 집단이 제외된 문항임.

폭력비행으로는 집단패싸움, 흥기소지, 위협, 폭행이 연구되었고, 성비행에는 음란낙서, 이성과 성관계, 가벼운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되었다. 가출에 관한 비행으로는 가출과 무단결석(무단결근)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비행을 지난 일년간에 경험한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경험 정도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비행에 대해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을 유해도로 제시하였다. 경험정도와 유해도를 두가지로 제시하였는바, ‘전체’는 전체 응답자 집단에서의 경험정도와 유해도 평가 결과이고 ‘남고’는 남자고등학생 집단에서의 경험정도와 유해도 평가 결과이다.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결과를 함께 제시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가 남자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본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학생청소년중 유해환경 접촉이나 비행경험이 가장 많

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위비행을 살펴보면 부모, 선생, 직장상사에 대한 반항, 컨닝, 야간배회의 지난 일년간 경험률이 각각 57.4%, 53.5%, 47.2%로 높았다. 그러나 이들 비행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른 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비행에 대해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73.4%, 73.2%, 64.4%로 다른 비행에 대해 유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훨씬 상회한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꿔 말하면 윗사람에 대한 반항, 컨닝, 야간배회 같은 행동은 다른 비행에 비해서는 죄의식을 덜 갖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음주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일년간 전체응답자 중 음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2.3%로 다른 비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유해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77.7%의 응답자가 유해하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고등학생 중에서는 70.7%나 지난 일년 동안에 음주경험이 있으며 53.0%만이 음주가 유해하다고 보고있어 앞서 논의한 윗사람에 대한 반항, 컨닝, 야간배회 보다는 다소 무거우나 여타의 비행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밖의 지위비행에 대한 지난 일년간 경험율을 보면 도박이 22.4%, 흡연이 14.2%, 유흥업소 아르바이트가 6.5% 이었다.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지난 일년내 비행경험 정도를 보면 음주가 70.7%, 컨닝 69.4%, 야간배회 67.0%, 윗사람에 대한 반항 62.5%, 도박 60.0%, 흡연 40.0%,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9.5%로 남자고등학생들의 비행경험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자고등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보다 덜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남자고등학생들은 이런 비행을 죄의식이나 거리낌을 덜 느끼며 더 많이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비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9%이상에 이르고 있어 한두번 호기심 때문에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청소년 비행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응답자의 많은

정도가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자고등학생을 포함한 비행경험이 많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비행억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재산비행인 절도의 경우에는 5.1%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내에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93.8%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폭력비행을 보면 11.6%가 지난 일년내에 폭행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집단패싸움, 위협, 흥기소지는 각각 9.7%, 9.5%, 6.3%가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비행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하고 있다. 이들 폭력비행이 남자고등학생 집단에서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13.4%~19.8%가 지난 일년내에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역시 높은 비행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성비행을 보면, 18.2%의 전체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내에 음란낙서를 해 본적이 있으며, 11.4%는 가벼운 성추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은 14.0%의 응답자들이 갖고 있으며, 2.8%는 성폭행을 해 보았다고 하고 있어 성문제 및 성범죄가 공식집계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고등학생 집단에서의 성비행 경험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에 관련된 비행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13.4%가 지난 일년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근을 한 경험이 있으며,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행에 대해서는 90%정도의 청소년들이 해롭다고 보고 있었다. 남자고등학생 집단에서의 비행경험은 무단결석(무단결근)의 경우 13.6%이며 가출경험은 9.8%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은 남자고등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들 비행 중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비행들에 대하여 비행경험을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컨닝

지난 일년동안에 컨닝한 경험을 <표 IV-1-2>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3.5%가 해 본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 중 33.7%는 일년에 1~2회 해 본 적이 있으

나 19.8%는 두세달에 1~2회 정도씩 했다고 하여 컨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69.4%, 남자중학생의 58.6%, 남자국민학생의 58.4%가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국민학생이 50.2%로 제일 많고, 여자중학생이 45.8%, 여자고등학생이 39.5%로 나타났다. 우선 남자고등학생의 컨닝경험이 제일 높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컨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컨닝

〈표 IV-1-2〉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71)	1.8	6.5	11.5	33.7	44.9	1.8	53.5	1.9	3.0	19.2	34.7	38.5	2.7	73.2
국민학생															
남	(496)	3.6	9.1	16.3	29.4	39.9	1.6	58.4	1.0	1.2	8.1	38.1	48.8	2.8	86.9
여	(486)	.8	6.8	7.0	35.6	49.2	.6	50.2	.2	.4	9.5	32.3	56.6	1.0	88.9
중학생	(982)	2.2	7.9	11.7	32.5	44.5	1.1	54.3	.6	.8	8.8	35.2	52.6	1.9	87.8
남	(696)	2.2	8.8	13.4	34.2	38.8	2.6	58.6	2.6	3.9	21.4	32.9	35.8	3.4	68.7
여	(701)	1.9	4.9	7.5	31.5	51.3	2.9	45.8	1.3	2.5	15.4	32.1	44.5	4.1	76.6
고등학생	(1397)	2.1	6.8	10.3	32.8	45.3	2.8	52.0	1.9	3.2	18.3	32.5	40.3	3.8	72.8
남	(696)	2.2	7.9	20.0	39.2	29.3	1.4	69.4	4.9	5.7	31.6	35.1	20.5	2.2	55.6
여	(701)	.1	2.3	5.3	31.8	59.8	.7	39.5	.6	2.7	23.7	38.4	32.5	2.1	70.9
소계	(1397)	1.1	5.1	12.6	35.5	44.6	1.1	54.3	2.7	4.2	27.6	36.7	26.6	2.1	63.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컨닝이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이 73.2%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컨닝 경험율이 높아 컨닝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퇴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음 주

지난 일년동안에 음주한 경험을 〈표 IV-1-3〉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2.3%가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생집단 중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은 70.7%가 지난 일년내에 음주한 경험이 있으며 여자고등학생들도 30.4%가 음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남자중학생들의 21.1%가 음주경험이 있었고 그밖의 집단들도 7.5%~4.7%의 경험율을 보였다. 남자고등학생들 중에서는 한달에 1~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21.7%에 달해(음주가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 비율도 45.6%에 달해) 음주를 비행으로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고등학생들도 연간 음주경험율이 30%에 달해, 음주를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연간 음주경험율이 77.6%에 이르고 여자의 경우에도 54.3%에 이르러 비행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음주

〈표 IV-1-3〉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율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3.0	5.6	6.7	17.0	65.5	2.2	32.3	.9	3.0	15.1	17.6	60.1	3.3	77.7
남	(496)	.2	1.2	.2	5.4	91.7	1.2	7.1	.4	.2	.8	5.6	91.1	1.8	96.7
여	(486)	.0	.4	.0	4.3	94.9	.4	4.7	.2	.0	.2	4.9	93.8	.8	98.8
소 중 학생	(982)	.1	.8	.1	4.9	93.3	.8	5.9	.3	.1	.5	5.3	92.5	1.3	97.8
남	(763)	1.8	2.9	3.4	13.0	75.8	3.1	21.1	.8	1.6	5.9	18.2	69.3	4.2	87.5
여	(829)	.2	.1	.7	6.4	90.1	2.4	7.5	.4	.2	4.0	11.7	79.1	4.6	90.8
소 고 등 학 생	(1592)	1.0	1.4	2.0	9.5	83.2	2.8	14.0	.6	.9	4.9	14.8	74.4	4.4	89.2
남	(696)	7.0	14.7	17.0	32.0	28.6	.7	70.7	2.9	7.8	34.9	26.3	26.7	1.4	53.0
여	(701)	1.3	2.0	3.6	23.5	69.3	.3	30.4	.3	1.9	19.0	22.7	54.4	1.9	77.1
소 근로청소년	(1397)	4.2	8.3	10.2	27.8	49.0	.5	50.5	1.6	4.8	26.9	24.5	40.6	1.6	65.1
남	(334)	19.8	22.5	17.1	18.3	19.8	2.7	77.6	1.5	10.2	33.5	25.7	25.7	3.3	51.4
여	(660)	1.4	8.8	14.8	29.2	39.5	6.2	54.3	.8	4.7	27.1	23.9	36.2	7.3	60.1
소 계	(994)	7.5	13.4	15.6	25.6	32.9	5.0	62.1	1.0	6.5	29.3	24.5	32.7	5.9	57.2

(3) 흡 연

흡연은 음주와 함께 청소년 지위비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IV-1-4>를 보면, 지난 일년내에 흡연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2%였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흡연

<표 IV-1-4>

구 분	사례수	비 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내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6.2	1.2	1.7	5.1	83.3	2.5	14.2	1.0	.7	5.1	13.5	76.0	3.8	89.5
국 민 학 생															
남	(496)	.0	.2	.2	2.2	96.2	1.2	2.6	.2	.2	.4	4.0	93.1	2.0	97.1
여	(486)	.0	.0	.0	.8	98.6	.6	0.8	.2	.2	.4	4.9	93.4	.8	98.3
소 제	(982)	.0	.1	.1	1.5	97.4	.9	1.7	.2	.2	.4	4.5	93.3	1.4	97.8
중 학 생															
남	(763)	4.7	.3	1.8	6.9	82.6	3.7	13.8	1.2	.1	3.3	14.2	76.1	5.1	99.3
여	(829)	.1	.1	.1	1.9	94.7	3.0	2.3	.1	.1	1.7	8.7	84.2	5.2	92.9
소 계	(1592)	2.3	.2	.9	4.3	88.9	3.3	7.8	.6	.1	2.4	11.3	80.3	5.2	91.6
고 등 학 생															
남	(696)	19.4	3.7	4.6	12.2	59.2	.9	40.0	2.9	1.7	12.5	24.6	57.0	1.3	81.6
여	(701)	1.6	.3	.9	1.6	95.6	.1	4.3	.1	.1	3.4	12.8	82.0	1.4	94.8
소 계	(1397)	10.5	2.0	2.7	6.9	77.5	.5	22.1	1.5	.9	7.9	18.7	69.6	1.4	88.3
근로청소년															
남	(334)	32.9	6.9	6.9	11.4	38.3	3.6	58.1	3.3	3.6	20.1	24.0	44.9	4.2	68.9
여	(660)	2.1	.6	1.2	5.2	84.1	6.8	9.1	.6	.8	4.8	15.8	69.1	8.9	84.9
소 계	(994)	12.5	2.7	3.1	7.2	68.7	5.7	25.6	1.5	1.7	10.0	18.5	61.0	7.3	79.5

학생 중에서도 남자고등학생의 40.0%가 지난 일년내에 흡연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19.4%는 일주일에 1~2회이상 흡연한다고 하여 흡연이 습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중학생의 연간 흡연 경험율은 13.8%이며 4.7%는 상습적인 흡연자로 나타났다. 여자고등학생은 4.3%가 일년내에 흡연해 본 적이 있으며 1.6%는 상습 흡연자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흡연은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문제학생권 정도에 국한되나 남자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크게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근로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의 58.1%가 일년동안에 흡연한 경험이 있으며 32.9%는 상습흡연자

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9.1%가 일년동안에 흡연한 경험이 있었고 2.1%는 상습흡연자였다.

(4) 도 박

사회적으로 황금만능주의의 만연과 더불어 복권, 즉석복권, 도박 등 사행성 행위가 증가되고 있음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의 도박경험을 <표 IV-1-5>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2.4%가 지난 일년 내에 도박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도박

<표 IV-1-5>

구 분	사례수	비 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계	(4965)	1.2	2.1	4.0	15.0	75.2	2.4	22.4	.5	.7	8.2	17.9	69.1	3.5	87.0
국 민 학 생															
남	(496)	.6	.0	.6	6.9	90.5	1.4	8.1	.2	.0	1.0	6.3	90.3	2.2	96.6
여	(486)	.2	.8	.6	.8	97.3	.2	0.2	.0	.2	1.0	3.7	94.4	.6	98.1
소 계	(982)	.4	.4	.6	3.9	93.9	.8	5.3	.1	.1	1.0	5.0	92.4	1.4	97.4
중 학 생															
남	(763)	2.2	4.6	6.6	24.2	59.1	3.3	37.6	.9	1.2	9.6	23.3	60.8	4.2	84.1
여	(829)	.2	.1	1.3	5.5	89.9	2.9	7.2	.4	.4	4.2	10.7	79.5	4.8	90.2
소 계	(1592)	1.2	2.3	3.8	14.5	75.1	3.1	21.8	.6	.8	6.8	16.8	70.5	4.5	87.3
고 등 학 생															
남	(696)	3.0	6.0	12.1	34.8	43.1	1.0	60.0	1.0	1.4	20.4	36.5	38.8	1.9	75.3
여	(701)	.3	.7	.6	11.8	86.4	.1	13.4	.0	.4	7.0	18.4	72.9	1.3	91.3
소 계	(1397)	1.6	3.4	6.3	23.3	64.9	.6	34.6	.5	.9	13.7	27.4	55.9	1.6	83.3
근로청소년															
남	(334)	3.6	4.8	12.0	31.4	45.2	3.0	51.8	.6	2.7	18.3	29.6	45.2	3.6	74.8
여	(660)	.6	.5	.6	6.8	85.0	6.5	8.5	.9	.3	5.3	13.9	71.2	8.3	85.1
소 계	(994)	1.6	1.9	4.4	15.1	71.6	5.3	23.0	.8	1.1	9.7	19.2	62.5	6.7	81.7

학생집단을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60.0%가 일년내에 도박한 경험이 있으며 남자중학생은 37.6%가 도박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여고생은 13.4%, 남자국민학생은 8.1%, 여자중학생은 7.2%가 지난 일년내에 도박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일년에 1~2회 한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남자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한달에 1~2회 이상 한 비율이 6.8%와 9.0%에 달해 도박을 자주하는 학생청소년들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의 51.8%가 일년내에 도박한 경험이 있으며 8.4%는 한달에 1~2회 이상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근로청소년은 8.5%가 일년내에 도박을 한 경험이 있었다.

(5)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회 전반적인 퇴폐 향락풍조의 만연으로 각종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유흥업소 고객들의 왜곡된 기호에 따라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증가되어 왔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직업소개, 인신매매 등 각종 합법·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청소년을 취업시키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하였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표 IV-1-6〉

구 분	사례수	비 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꽤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8	.6	1.5	3.6	90.6	2.9	6.3	.9	1.7	12.1	18.6	61.9	4.8	80.5
중학생	(763)	.9	.3	.7	2.4	91.7	4.1	4.2	1.3	2.5	11.3	15.2	64.1	5.6	79.3
남	(829)	.1	.2	.4	1.0	95.9	2.4	1.7	.2	.8	8.6	12.9	72.4	5.1	85.3
소계	(1592)	.5	.3	.5	1.6	93.9	3.2	2.9	.8	1.6	9.9	14.0	68.4	5.3	82.4
고등학생	(696)	1.3	.6	2.0	5.6	89.4	1.1	9.5	1.0	2.3	16.5	25.0	53.0	2.2	78.0
남	(701)	.0	.1	.6	2.4	96.1	.7	3.1	.3	.9	8.3	19.3	68.9	2.4	88.2
소계	(1397)	.6	.4	1.3	4.0	92.8	.9	6.3	.6	1.6	12.4	22.1	61.0	2.3	83.1
근로청소년	(334)	3.3	2.1	8.4	12.0	71.9	2.4	25.7	3.0	3.0	21.6	21.9	46.1	4.5	68.0
남	(660)	.5	.9	.9	3.5	87.4	6.8	5.8	.6	1.7	12.0	20.5	56.2	9.1	76.7
소계	(994)	1.4	1.3	3.4	6.3	82.2	5.3	12.5	1.4	2.1	15.2	20.9	52.8	7.5	73.7

〈표 IV-1-6〉에서 지난 일년동안에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6.5%에 달했다. 학생 중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의 9.5%, 남자중학생의 4.2%, 여자고등학생의 3.1%, 여자중학생의 1.7%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근로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의 25.7%, 여자의 5.8%가 지난 일년동안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해서 용돈을 마련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으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가 퇴폐행위 중사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부업활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6) 폭 행

〈표 IV-1-7〉을 보면 지난 일년동안에 폭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1.6%로 나타났다. 집단별 응답결과를 그대로 보면 남자국민학생이 28.0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폭행

〈표 IV-1-7〉

구 분	사례수	비 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두응답	경험없음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두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1	1.1	2.0	7.3	86.0	2.4	11.6	.4	.3	2.8	12.8	79.9	3.7	92.7
국 민 학 생															
남	(496)	3.2	4.2	5.2	15.3	70.8	1.2	28.0	.6	.0	2.2	11.5	84.5	1.2	96.0
여	(486)	1.2	1.9	2.9	6.8	87.0	.2	12.8	.4	.4	1.9	7.4	89.3	.6	96.7
중 학 생	계 (982)	2.2	3.1	4.1	11.1	78.8	.7	20.5	.5	.2	2.0	9.5	86.9	.9	96.4
남	(763)	1.0	.8	1.3	8.8	84.4	3.7	11.9	.5	.4	2.8	15.9	75.4	5.1	91.3
여	(829)	.4	.4	.1	1.2	95.3	2.7	2.1	.1	.0	1.3	6.5	87.3	4.7	93.8
소 계	(1592)	.7	.6	.7	4.8	90.1	3.1	6.8	.3	.2	2.0	11.0	81.6	4.9	92.6
고 등 학 생															
남	(696)	1.6	1.0	3.0	14.2	79.2	1.0	19.8	.6	.3	6.9	21.6	69.1	1.6	90.7
여	(701)	.4	.1	.3	2.4	96.4	.3	3.3	.0	.0	1.4	9.1	87.6	1.9	96.7
소 계	(1397)	1.0	.6	1.6	8.3	87.8	.6	11.5	.3	.1	4.2	15.3	78.4	1.7	93.7
근로청소년															
남	(334)	2.4	2.4	6.0	15.9	70.4	3.0	26.7	1.2	2.1	6.6	25.1	60.8	4.2	85.9
여	(660)	.2	.3	.8	1.4	90.8	6.7	2.6	.6	.2	1.1	10.8	78.3	9.1	89.1
소 계	(994)	.9	1.0	2.5	6.2	83.9	5.4	10.7	.8	.8	2.9	15.6	72.4	7.4	88.0

%, 여자국민학생이 12.8%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국민학생 사이에서는 ‘애들은 싸워야 크다’는 말처럼 싸우고 때리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순화되지 않은 원초적 감정에 따라 행해지고 뒷끝도 남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학생 이상이 되면 남을 때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치고 받고 때리는 일 자체가 줄어들며 ‘폭행’하면 심하게 때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될 정도의 완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국민학생과는 달리 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학생을 제외하고 보면 남자고등학생은 19.8%, 남자중학생은 11.9%, 남자근로청소년은 26.7%가 지난 일년내에 폭행한 경험이 있었다. 여자들은 중학생부터 근로청소년까지 모두 2-3%정도가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7) 흥기소지

최근에 청소년에 의한 흥기 사용과 같은 강력범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표 IV-1-8>을 보면 응답대상자 중 지난 일년동안에 흥기를 소지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6.3%에 달했다. 집단별로 보면 학생 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15.5%, 남자중학생의 9.6%가 일년 동안에 흥기를 소지한 경험이 있었다. 여학생들과 남자국민학생은 2.6% 이하의 비율을 나타냈다. 근로청소년 중에서 남자는 21.0%가 흥기소지 경험이 있었고 여자는 2.6%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일년에 1~2회 정도 흥기를 소지해본 경험이 있는 정도이다. 이보다 더 자주 흥기를 소지해본 경험은 근로청소년의 8.7%, 남자고등학생의 4.5%, 남자중학생의 2.4%, 남자국민학생의 1.0%가 갖고 있었다.

(8) 가 출

가출은 최근에 들어 청소년문제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자칫하면 범죄조직이나 악덕업주들에 의해 각종 범죄나 퇴폐행위에 이용되기도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에 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흥기소지

〈표 IV-1-8〉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은 없다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6	.4	1.0	4.2	91.3	2.4	6.3	.6	.5	2.6	10.5	82.1	3.8	92.6
국민학생															
남	(496)	.2	.4	.4	1.6	96.2	1.2	2.6	.4	.0	.8	4.2	92.7	1.8	96.9
여	(486)	.2	.0	.2	.0	99.4	.2	0.4	.2	.0	.0	3.7	95.5	.6	99.2
소계	(982)	.2	.2	.3	.8	97.8	.7	1.5	.3	.0	.4	4.0	94.1	1.2	98.1
중학생															
남	(763)	.8	.4	1.2	7.2	87.0	3.4	9.6	.9	.3	2.5	12.2	79.3	4.8	91.5
여	(829)	.2	.0	.4	1.0	95.8	2.7	1.6	.4	.5	.6	6.8	87.0	4.8	93.8
소계	(1592)	.5	.2	.8	4.0	91.6	3.0	5.4	.6	.4	1.5	9.4	83.3	4.8	92.7
고등학생															
남	(696)	1.1	.7	2.7	10.9	83.5	1.0	15.5	1.0	.9	6.5	19.0	70.8	1.9	89.8
여	(701)	.0	.1	.1	2.1	97.3	.3	2.4	.0	.3	2.9	10.6	84.9	1.4	95.5
소계	(1397)	.6	.4	1.4	6.5	90.4	.6	9.0	.5	.6	4.7	14.7	77.9	1.6	92.6
근로청소년															
남	(334)	2.7	2.4	3.6	12.3	76.0	3.0	21.0	1.2	1.5	8.1	17.7	66.5	5.1	84.2
여	(660)	.6	.5	.6	.9	90.3	7.1	2.6	.8	.6	1.2	10.0	78.0	9.4	88.0
소계	(994)	1.3	1.1	1.6	4.7	85.5	5.7	8.8	.9	.9	3.5	12.6	74.1	7.9	86.7

응답결과를 〈표 IV-1-9〉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의 6.6%가 지난 일년내에 가출한 경험이 있어 가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중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은 9.8%, 남자중학생은 6.0%, 여자고등학생은 4.0%, 남자국민학생은 3.2%가 지난 일년 동안에 집을 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여자중학생과 여자국민학생들은 각각 1.8%와 1.4%의 가출경험이 있었다.

근로청소년은 남자의 26.9%가 여자의 8.6%가 가출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가출이 상당히 보편화된 불만 또는 문제해결 수단으로 간주되며, 가출하여 각종 유해업소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9) 이성과 성관계

십대의 임신, 성폭행 등 각종 성문제 및 성범죄의 증가가 많은 우려의 대상이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가출

〈표 IV-1-9〉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없다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5	.4	.6	5.1	90.9	2.5	6.6	.5	.6	4.9	16.0	74.0	3.9	90.0
국민학생															
남	(496)	.6	.4	.2	2.0	95.4	2.4	3.2	.2	.2	1.6	6.9	88.7	2.4	95.6
여	(486)	.0	.2	.0	1.2	98.4	.2	1.4	.4	.2	1.2	7.4	90.7	.0	98.1
소계	(982)	.3	.3	.1	1.6	96.8	.8	2.3	.3	.2	1.4	7.1	89.7	1.2	96.8
중학생															
남	(763)	.8	.3	.4	4.6	90.0	3.9	6.1	.4	.7	3.7	15.7	74.4	5.1	90.3
여	(829)	.1	.0	.1	1.6	95.5	2.7	1.8	.5	.8	5.1	10.5	78.2	4.9	88.7
소계	(1592)	.4	.1	.3	3.0	92.9	3.3	3.8	.4	.8	4.4	13.0	76.4	5.0	89.4
고등학생															
남	(696)	1.3	.4	.9	7.2	88.9	1.3	9.8	7.0	.9	8.5	22.4	65.2	2.3	87.6
여	(701)	.0	.3	.0	3.7	95.9	.1	4.0	.0	.3	6.3	20.3	71.5	1.7	91.8
소계	(1397)	.6	.4	.4	5.4	92.4	.7	6.9	.4	.6	7.4	21.3	68.4	2.0	80.7
근로청소년															
남	(334)	.9	2.4	4.2	19.5	70.1	3.0	26.9	1.5	1.5	9.6	23.7	60.5	3.3	84.2
여	(660)	.6	.5	.6	7.0	84.7	6.7	8.6	1.1	.5	3.9	21.4	63.9	9.2	85.3
소계	(994)	.7	1.1	1.8	11.2	79.8	5.4	14.8	1.2	.8	5.8	22.1	62.8	7.2	84.9

되고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표 IV-1-10〉에서 살펴보면, 중학생 이상 응답자의 14.0%가 지난 일년동안에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남자고등학생의 19.4%, 남자중학생의 17.9%가 지난 일년동안에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여자중학생은 6.3%, 여자고등학생은 5.3%가 일년내에 성경험이 있다고 했다. 남자근로청소년은 무려 43.8%가 지난 일년내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여자근로청소년들은 7.3%의 경험율을 보였다. 이렇게 많은 비율의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혼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관습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성풍속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남녀간의 차이가 큰 사실로 볼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윤락여성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달에 1~2회 이상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청소년이 남자근로청소년의 12.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이성과 성관계

〈표 IV-1-10〉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없음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1.5	1.8	2.8	7.9	82.8	3.3	14.0	1.6	2.8	14.8	16.4	59.7	4.6	75.1
중학생															
남	(763)	1.6	1.7	4.6	10.0	78.2	3.9	17.9	.9	3.4	15.2	18.2	56.7	5.5	74.9
여	(829)	.7	.2	1.4	4.0	90.0	3.6	6.3	.5	1.3	10.4	12.4	69.8	5.5	82.2
소계	(1592)	1.1	.9	3.0	6.8	84.4	3.8	11.8	.7	2.3	12.7	15.2	63.6	5.5	78.8
고등학생															
남	(696)	2.7	2.9	3.0	10.8	79.2	1.4	19.4	4.6	5.0	23.1	20.7	44.5	2.0	65.2
여	(701)	.0	1.1	.6	3.6	94.6	.1	5.3	.3	.9	9.3	13.4	74.8	1.4	88.2
소계	(1397)	1.4	2.0	1.8	7.2	86.9	.8	12.4	2.4	2.9	16.2	17.0	59.7	1.7	76.7
근로청소년															
남	(334)	5.7	6.6	9.6	21.9	53.3	3.0	43.8	4.8	8.1	26.0	21.0	36.8	3.3	57.8
여	(660)	.5	.9	1.1	4.8	85.3	7.4	7.3	.5	1.2	11.4	15.8	61.8	9.4	77.6
소계	(994)	2.2	2.8	3.9	10.6	74.5	5.9	19.5	1.9	3.5	16.3	17.5	53.4	7.3	70.9

3%, 남자고등학생의 5.6%, 남자중학생의 3.3%에 달하고 있어 성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0) 가벼운 성추행

성폭행에는 미치지 않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이 많은 연구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표 IV-1-11〉을 보면 지난 일년동안에 성추행을 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11.4%에 달했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학생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24.4%, 남자중학생의 9.6%가 추행경험이 있다고 했다. 남자근로청소년은 그 비율이 32.9%에 달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고등학생의 6.4%, 여자근로청소년의 5.8%, 여자중학생의 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의 경우에 두세달에 1~2회 이상 반복해서 성추행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남자고등학생의 11.2%, 남자중학생의 3.9%, 근로청소년의 17.4%에 달했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가벼운 성추행

〈표 IV-1-11〉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없다	아주 아름다	아름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1.2	1.6	2.1	6.6	85.3	3.3	11.4	1.0	1.1	7.4	16.2	69.7	4.7	85.7
중학생															
남	(763)	1.0	1.6	1.3	5.6	86.1	4.3	9.6	.8	1.2	8.1	15.6	68.9	5.4	84.5
여	(829)	.1	.2	.6	1.4	94.3	3.3	2.4	.5	.2	1.9	8.9	82.6	5.8	91.5
소계	(1592)	.6	.9	.9	3.5	90.4	3.8	5.8	.6	.7	4.9	12.1	76.1	5.6	88.2
고등학생															
남	(696)	2.9	4.0	4.3	13.2	74.0	1.6	24.4	2.9	2.0	15.5	26.3	51.1	2.2	77.4
여	(701)	.4	.1	1.0	4.9	93.2	.4	6.4	.0	.3	2.6	11.8	83.9	1.4	95.7
소계	(1397)	1.6	2.1	2.6	9.0	83.6	1.0	15.4	1.4	1.1	9.0	19.0	67.6	1.8	86.6
근로청소년															
남	(334)	3.9	5.4	8.1	15.6	63.8	3.3	32.9	2.4	3.9	18.6	23.1	47.9	4.2	71.0
여	(660)	.2	.2	.9	4.5	87.4	6.8	5.8	.5	.3	4.2	16.4	69.7	8.9	86.1
소계	(994)	1.4	1.9	3.3	8.2	79.5	5.6	14.9	1.1	1.5	9.1	18.6	62.4	7.3	81.0

(11) 성폭행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표 IV-1-12〉를 살펴보면 지난 일년동안에 성폭행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본 조사 응답자 중에서도 2.8%에 달했다. 집단별로 보면 학생 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4.7%, 남자중학생의 2.8%가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여자국민학생의 2.7%가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이밖에 남자국민학생은 1.6%, 여자고등학생은 1.1%, 여자중학생은 0.5%가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근로청소년은 남자의 11.7%, 여자의 1.7%가 지난 일년동안에 성폭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근로청소년과 남자 중고등학생의 이렇게 높은 성폭행 비율은 이 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성도덕을 반영하고 있다. 각종 외설물과 자극적인 사회환경 등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올바른 성의식과 성도덕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성폭행

〈표 IV-1-12〉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않는다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6	.4	.5	1.2	93.0	4.3	2.8	.6	.5	1.7	6.2	85.5	5.4	91.7
국민학생															
남	(496)	.6	.6	.0	.4	95.8	2.6	1.6	.6	.2	.6	2.8	92.9	2.8	95.7
여	(486)	.2	1.2	.2	1.0	95.3	2.1	2.7	.4	.0	.6	2.7	94.7	1.6	97.4
소계	(982)	.4	.9	.1	.7	95.5	2.3	2.1	.5	.1	.6	2.7	93.8	2.2	96.5
중학생															
남	(763)	.9	.7	.4	.8	92.0	5.2	2.8	.7	1.4	2.0	7.7	81.8	6.4	89.5
여	(829)	.1	.1	.0	.2	94.6	4.9	.5	.2	.2	.2	2.7	89.3	7.4	92.0
소계	(1592)	.5	.4	.2	.5	93.3	5.1	1.6	.4	.8	1.1	5.1	85.7	6.9	90.8
고등학생															
남	(696)	1.4	.1	1.1	2.0	92.0	3.3	4.7	1.6	.4	2.9	11.2	79.7	4.2	90.9
여	(701)	.1	.0	.0	1.0	97.7	1.1	1.1	.0	.0	1.3	4.1	92.4	2.1	96.5
소계	(1397)	.8	.1	.6	1.5	94.8	2.2	2.9	.8	.2	2.1	7.7	86.1	3.1	93.8
근로청소년															
남	(334)	1.8	.9	4.2	4.8	83.8	4.5	11.7	1.2	1.8	8.4	13.5	69.2	6.0	82.7
여	(660)	.3	.3	.2	.9	88.8	9.5	1.7	.3	.6	.6	7.4	80.0	11.1	87.4
소계	(994)	.8	.5	1.5	2.2	87.1	7.8	5.0	.6	1.0	3.2	9.5	76.4	9.4	85.9

2.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과의 연관

지금까지 유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시설·장소, 물품, 대중매체, 상황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이용경험과 각종 청소년 비행경험, 그리고 유해환경 및 비행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유해환경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이 정말 유해한가, 그들 간에 유사점 또는 차이점들은 어떠한가, 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본 접촉경험, 비행경험, 유해성 평가 외에 유해환경 접촉 또는 이용경험은 청소년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논의된 유해환경 접촉 또는 이용경험과 비행경험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표 IV-2-1〉에서 〈표 IV-2-4〉까지의 표는 이들간의 관계를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r)를 해석하는 데에는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의 유무 및 강약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본 조사는 규모가 큰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상관계수의 해석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관계수가 0.200 이상인 경우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1) 장소와 비행과의 관계

먼저 숙박업소 이용경험과 비행경험의 관계를 <표 IV-2-1>에서 살펴보면, 숙박업소 이용경험과 음주(.390), 흡연(.366), 무단결석(.339), 집단폐싸움(.333), 가출(.325), 이성과 성관계(.320), 폭행(.308), 위협(.307),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72), 흥기소지(.260), 야간배회(.247), 도박(.237), 절도(.219), 성추행(.218), 성폭행(.217), 음란낙서(.205) 등 각종 비행을 한 경험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숙박업소 이용을 많이 하면 비행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그 반대로 비행을 많이 하면 숙박업소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박업소를 자주 이용한 사람이 비행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또는 역으로 비행을 자주하는 사람이 숙박업소를 자주 이용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전자오락실 이용경험은 도박(.327), 음주(.300), 흡연(.293)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천냥(.233), 음란낙서(.225), 성폭행(.223), 야간배회(.209) 등의 비행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오락실 이용과 도박, 음주, 흡연 등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전자오락실의 게임내용이 도박성인 것이 많고 어두컴컴하고 담배연기가 자욱한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오락실 이용경험은 집단폐싸움(.342), 음주(.331), 흡연(.329), 위협(.320), 폭행(.320),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05) 등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무단결석(.284), 가출(.281), 이성과 성관계(.280), 도박(.269), 흥기소지(.255), 절도(.244),

비행	권	아	무면적	도	절	검	합	음	위	폭	가	유	반	음	이	가	성
소	행	간	면적	박	도	단	연	주	협	행	출	호업	향	단	정	변	폭
소	행	회	(절근)	박	도	단	연	주	협	행	출	호업	향	단	정	변	폭
공	0.094	0.211	0.121	0.076	0.060	0.114	0.087	0.135	0.184	0.091	0.077	0.088	0.119	0.053	0.059	0.155	0.039
*숙	0.186	0.247	0.339	0.237	0.219	0.333	0.260	0.366	0.390	0.307	0.308	0.325	0.272	0.123	0.205	0.320	0.218
전	0.233	0.209	0.120	0.327	0.117	0.112	0.151	0.293	0.300	0.185	0.118	0.126	0.106	0.112	0.225	0.180	0.223
*성	0.144	0.224	0.284	0.269	0.244	0.342	0.255	0.329	0.331	0.320	0.320	0.281	0.305	0.131	0.206	0.280	0.225
당	0.201	0.286	0.281	0.351	0.181	0.245	0.252	0.613	0.562	0.310	0.210	0.258	0.260	0.131	0.260	0.363	0.314
틀	0.170	0.175	0.120	0.133	0.112	0.167	0.124	0.124	0.121	0.143	0.129	0.123	0.160	0.101	0.133	0.177	0.112
디	0.111	0.246	0.358	0.208	0.169	0.214	0.187	0.400	0.485	0.250	0.161	0.276	0.283	0.106	0.163	0.305	0.231
*성	0.095	0.232	0.286	0.160	0.200	0.277	0.192	0.290	0.377	0.252	0.270	0.250	0.320	0.082	0.139	0.283	0.188
*퇴	0.110	0.099	0.183	0.163	0.272	0.266	0.250	0.151	0.124	0.212	0.230	0.233	0.196	0.075	0.163	0.205	0.190
*경	0.127	0.307	0.212	0.171	0.104	0.206	0.149	0.289	0.415	0.155	0.179	0.163	0.184	0.166	0.116	0.198	0.180
*카	0.186	0.362	0.317	0.255	0.199	0.305	0.221	0.476	0.587	0.270	0.267	0.255	0.285	0.165	0.194	0.299	0.283
*일	0.144	0.216	0.281	0.148	0.166	0.290	0.214	0.253	0.331	0.237	0.220	0.254	0.260	0.126	0.200	0.256	0.220
*DJ	0.117	0.297	0.297	0.142	0.126	0.245	0.171	0.328	0.457	0.195	0.192	0.231	0.249	0.129	0.143	0.233	0.203
*포	0.172	0.303	0.286	0.251	0.187	0.314	0.219	0.415	0.488	0.261	0.264	0.229	0.263	0.128	0.190	0.292	0.258
*음	0.109	0.191	0.179	0.076	0.083	0.157	0.139	0.133	0.242	0.126	0.108	0.133	0.178	0.074	0.077	0.191	0.122
만	0.145	0.218	0.184	0.275	0.125	0.143	0.167	0.302	0.300	0.187	0.095	0.180	0.166	0.168	0.213	0.190	0.174
*삼	0.169	0.224	0.233	0.250	0.279	0.335	0.302	0.362	0.308	0.304	0.266	0.277	0.312	0.117	0.265	0.307	0.304
사	0.063	0.109	0.051	0.116	0.059	0.060	0.083	0.065	0.112	0.048	0.048	0.069	0.074	0.098	0.087	0.104	0.114
계	0.102	0.124	0.010	0.010	0.015	0.081	0.029	0.009	0.046	0.019	0.048	0.046	0.059	0.105	0.044	0.081	0.079
분	0.094	0.185	0.056	0.072	0.024	0.066	0.052	0.112	0.183	0.059	0.041	0.060	0.057	0.143	0.064	0.079	0.089
페	0.083	0.144	0.064	0.063	0.045	0.080	0.074	0.067	0.116	0.079	0.061	0.064	0.097	0.125	0.083	0.107	0.123
비	0.150	0.197	0.083	0.194	0.117	0.143	0.146	0.205	0.155	0.129	0.139	0.118	0.162	0.109	0.155	0.215	0.175
임	0.025	0.037	-0.096	-0.044	0.002	0.033	-0.016	-0.113	-0.135	-0.043	0.044	-0.041	-0.008	0.074	-0.036	-0.004	-0.001
음	0.141	0.153	0.190	0.277	0.200	0.238	0.277	0.249	0.254	0.261	0.193	0.225	0.244	0.119	0.265	0.275	0.292
문	-0.007	-0.020	-0.181	-0.070	-0.092	-0.065	-0.093	-0.143	-0.185	-0.098	-0.024	-0.100	-0.079	0.053	-0.062	-0.095	-0.064
*사	0.122	0.166	0.221	0.209	0.255	0.302	0.305	0.262	0.257	0.261	0.283	0.260	0.286	0.100	0.245	0.316	0.286
*유	0.154	0.313	0.271	0.305	0.237	0.340	0.273	0.434	0.428	0.282	0.338	0.260	0.334	0.159	0.246	0.352	0.313
*소	0.154	0.262	0.179	0.172	0.119	0.189	0.181	0.259	0.319	0.169	0.185	0.160	0.179	0.126	0.185	0.207	0.215

*는 국민학생을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r>0.04면 p≤0.001

성폭행(.230), 성추행(.225), 야간배회(.224), 음란낙서(.206)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전자오락실과 비교해 볼 때 성인오락실이 비행과의 상관관계가 더 강하며 더 유해한 것으로 보인다.

당구장 이용경험은 흡연(.613)과 음주(.562)경험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성과 성관계(.363), 도박(.351), 성폭행(.314), 위협(.310) 등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야간배회(.286), 무단결석(.281), 음란낙서(.260),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60), 가출(.258), 흥기소지(.252), 집단패싸움(.245), 폭행(.210), 컨닝(.201) 등 각종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구장 이용자체가 비행(흡연)등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당구장 이용자는 비행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당구장 이용이 비행집단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구장 이용 후 음주, 폭력, 성비행 등 다른 비행으로 연결되며 비행에 대해 당면시하는 나름대로의 하위문화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디스코장 이용경험은 음주(.485), 흡연(.400)과 많은 관계가 있으며 무단결석(.358), 이성과 성관계(.305)와 상당한 관계가 있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83), 가출(.276), 위협(.250), 야간배회(.246), 성추행(.231), 패싸움(.214), 도박(.208)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디스코(춤) 자체는 유해환경이 되거나 비행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디스코장은 내부에서 음주나 흡연이 행해지고 비행집단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거나 비행집단과 접촉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그 밖의 여러 비행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디스코장은 소수의 청소년에 의해서만 이용되나 성인디스코장 이용경험은 음주(.377),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20) 등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흡연(.290), 무단결석(.286), 이성과 성관계(.283), 패싸움(.277), 폭행(.270), 위협(.252), 가출(.250), 야간배회(.232), 절도(.200)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디스코장 이용도 디스코장 이용과 마찬가지로 각종 비행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폐이발소 이용경험은 절도(.272), 성폭행(.270), 패싸움(.266), 흥기소지(.250), 가출(.233), 폭행(.230), 위협(.212), 이성과 성관계(.205)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폐이발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퇴폐행위는 비행과 연관될 소지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퇴폐이발소 이용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4.0%) 상관관계수가 낮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근년에 카페의 유해성에 관한 보도가 많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카페의 출입이 각종 비행과 많은 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이용경험은 음주(.587)와 흡연(.476)과 큰 관계가 있으며 야간배회(.362), 무단결석(.317), 패싸움(.305)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이성과 성관계(.299), 성추행(.28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85), 위협(.270), 폭행(.267), 가출(.255), 도박(.255), 흥기소지(.221) 등의 비행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양식집 출입은 카페 출입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비행과의 상관관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음주(.415)와 큰 관계가 있으며 야간배회(.307), 흡연(.289), 무단결석(.212), 패싸움(.206)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J있는 커피숍 이용경험은 음주(.457)와 큰 관계가 있으며 흡연(.328), 야간배회(.297), 무단결석(.297),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49), 패싸움(.245), 이성과 성관계(.233), 가출(.231), 성추행(.203)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찻집 이용경험은 음주(.331), 패싸움(.290), 무단결석(.281),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60), 이성과 성관계(.256), 가출(.254), 흡연(.253), 위협(.237), 폭행(.220), 성추행(.220), 야간배회(.216), 흥기소지(.214), 음란낙서(.200), 성폭행(.200)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도 많지 않고 강도는 높지 않지만 대부분의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마차 이용은 음주(.488), 흡연(.415)과 큰 관계가 있고 집단패싸움(.314), 야간배회(.303), 이성과 성관계(.292), 무단결석(.286), 폭행(.264),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63), 위협(.261), 성추행(.258), 도박(.251), 가출(.229), 흥기소지(.219) 등의 비행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유해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가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하나이지만 흡연(.302), 음주(.300), 도박(.275), 야간배회(.218), 음란낙서(.213) 등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 심야만화가게는 일반 만화가게에 비해 훨씬 더 유해한 장소로 알려졌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심야만화가게 이용경험은 흡연(.362), 패싸움(.335), 음주(.308), 이성과 성관계(.307), 성추행(.304), 위협(.304), 흥기소지(.302) 등의 비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절도(.279), 가출(.277), 성폭행(.273), 폭행(.266), 음란낙서(.265), 도박(.250), 무단결석(.233), 야간배회(.224) 등의 비행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이용경험은 성추행(.292), 도박(.277), 흥기소지(.277), 이성과 성관계(.275), 성폭행(.273), 음란낙서(.265), 위협(.261), 음주(.254), 흡연(.249),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44), 집단패싸움(.238), 가출(.225), 절도(.200) 등의 비행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성비행과 관계있음이 드러났다.

사창가 출입경험은 이성과 성관계(.316), 흥기소지(.305), 패싸움(.302)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성폭행(.28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86), 폭행(.283), 성추행(.272), 흡연(.262), 위협(.261), 가출(.260), 음주(.257), 절도(.255), 음란낙서(.245), 무단결석(.221), 도박(.209)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창가 출입은 연구에 포함된 각종 비행중 야간배회, 켄닝과 반항을 제외한 모든 비행과 관계가 있어 비행과 관련이 높은 유해환경임을 알 수 있다.

유흥가 출입은 흡연(.434), 음주(.428)와 큰 관련이 있으며 이성과 성관계(.352), 패싸움(.340), 폭행(.338),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34), 성추행(.313), 야간배회(.313), 도박(.305)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위협(.282), 흥기소지(.273), 무단결석(.271), 가출(.260), 음란낙서(.246), 절도(.237), 성폭행(.223)과 관련이 있어 비행과 관련이 많은 유해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장 출입은 음주(.319), 야간배회(.262), 흡연(.259), 성추행(.215), 이성과 성관계(.207)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

면 소극장 출입은 유흥가, 사창가, 카페, 심야만화가게, 디스코장 보다는 덜 유해한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가게 이용경험은 이성과 성관계(.215), 흡연(.205) 등과 관계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아 비디오가게 이용자체가 크게 유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음악감상실 이용은 음주(.242)와 관계가 있으나 다른 비행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구에 포함되었던 업소, 장소, 시설 중에서 롤라스케이팅장, 공원, 분식점은 비행과 관련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에 이용될 소지는 있으나 비행과 관련되어 이용하는 청소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실, 제과점, 패스트 푸드, 학원, 문방구들은 비행과 별 관련이 없는 장소로서 과소비 풍조와 관련되어 문제요소일 수 있으며 소수의 유해한 사례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유해물품과 비행과의 관계

유해물품 이용경험과 비행경험의 관계가 <표 IV-2-2>에 제시되어 있다.

담배자판기 이용경험은 흡연(.731)과 강한 관계가 있고 음주(.507), 패싸움(.407)과 큰 관계가 있으며 이성과 성관계(.398), 성추행(.383), 위협(.349), 가출(.346), 폭행(.338), 도박(.33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27), 무단결석(.327), 야간배회(.320), 흡기소지(.316), 음란낙서(.306)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절도(.256), 성폭행(.254), 컨닝(.225)과도 관계가 있어 반항을 제외한 모든 비행과 관련이 있는 유해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 사용경험은 흡기소지(.289), 성폭행(.282), 절도(.26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61), 패싸움(.259), 성추행(.226), 가출(.226), 이성과 성관계(.20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자체는 적지만 비행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품임을 알 수 있다.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 이용경험은 흡기소지(.237), 이성과의 성관계(.226), 패싸움(.220),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10), 성추행(.200)과 관련이 있어 역시 이용자 자체는 적지만 비행과 관련이 있다.

물품과 비행과의 상관

(표 IV-2-2)

비행 물품	컨닝	야간 배회	무단결석 (결근)	도박	절도	집단 패싸움	흥기 소지	흡연
불량장난감	0.204	0.187	0.067	0.180	0.157	0.225	0.181	0.050
불량학용품	0.155	0.170	0.041	0.118	0.080	0.140	0.107	0.055
*담배자판기	0.225	0.320	0.327	0.336	0.256	0.407	0.316	0.731
불량식품	0.150	0.164	-0.004	0.085	0.072	0.132	0.065	0.001
환각제	0.089	0.106	0.124	0.102	0.195	0.220	0.237	0.112
약물류	0.091	0.056	0.183	0.158	0.266	0.259	0.289	0.145
각성제	0.124	0.142	0.221	0.181	0.186	0.201	0.263	0.190
전자오락·컴퓨터게임	0.188	0.195	0.049	0.270	0.089	0.117	0.118	0.202
잡상인	0.134	0.194	0.078	0.151	0.113	0.129	0.102	0.121
인기인사진	0.144	0.155	0.079	0.156	0.080	0.067	0.118	0.116

*는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물품과 비행과의 상관

음주	위협	폭행	가출	유·호·업·소·아·르·바이트	반항	음란 낙서	이성과 성관계	가벼운 성추행	성폭행
0.043	0.119	0.181	0.117	0.154	0.084	0.173	0.171	0.201	0.133
0.060	0.104	0.111	0.045	0.067	0.129	0.127	0.095	0.133	0.078
0.507	0.349	0.338	0.346	0.327	0.173	0.306	0.398	0.383	0.254
-0.045	0.066	0.157	0.011	0.048	0.124	0.081	0.100	0.083	0.033
0.064	0.153	0.187	0.175	0.210	0.090	0.124	0.226	0.200	0.185
0.114	0.191	0.168	0.226	0.261	0.064	0.146	0.205	0.226	0.282
0.218	0.199	0.168	0.248	0.212	0.168	0.192	0.190	0.170	0.165
0.192	0.133	0.119	0.082	0.091	0.136	0.159	0.155	0.158	0.034
0.175	0.134	0.129	0.107	0.153	0.159	0.173	0.156	0.145	0.109
0.134	0.123	0.074	0.101	0.088	0.159	0.166	0.125	0.088	0.057

$r > 0.04$ 면 $p \leq 0.001$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사용은 흥기소지(.263), 가출(.248), 무단결석(.221), 음주(.218), 유종업소 아르바이트(.212), 패싸움(.201)과 관련이 있어 역시 유해물 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불량장난감 사용은 패싸움(.225), 컨닝(.204), 성추행(.207)과 관련이 있고 전자 오락 및 컴퓨터 게임 경험은 도박(.270), 흡연(.20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불량학용품, 불량식품, 잡상인과 인기인사진 이용 자체는 비행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중매체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비행경험의 관계는 <표 IV-2-3>에서 살펴보면 TV프로 시청경험과 비행과의 관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각종 광고 접촉경험도 잡지광고를 제외하고는 비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잡지광고 접촉경험은 음주(.270), 야간배회(.206)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인쇄물들과 영상물들은 각종 비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간지 구독경험은 음주(.462), 흡연(.403)과 큰 관계가 있고 음란낙서(.329), 도박(.328), 야간배회(.321), 이성과 성관계(.321), 성추행(.311)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도박(.276), 유종업소 아르바이트(.255), 흥기소지(.255), 위협(.242), 가출(.240), 패싸움(.223), 컨닝(.218), 절도(.214)와 관계가 있어 대부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음란잡지 접촉경험은 흡연(.420), 음주(.402), 도박(.393), 음란낙서(.375), 성추행(.369), 이성과 성관계(.360), 흥기소지(.327), 위협(.325)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절도(.294), 패싸움(.294), 가출(.283), 유종업소 아르바이트(.278), 성폭행(.262), 야간배회(.260), 무단결석(.245), 폭행(.240), 컨닝(.231)과 관계가 있어 반항을 제외한 모든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만화책을 읽어 본 경험은 음주(.405), 흡연(.396), 도박(.379), 음란낙서(.363), 이성과 성관계(.362), 성추행(.343), 위협(.303)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흥기소지(.303)

〈표 IV -

매 체
1. TV
쇼·코
연속극
국 내
외 국
뉴스등
만 화
A F
일 본
유 선
2. 신문
스 포
여 성
청 소
일 반
*월 간
*실 화
외 국
성 인
어 린
음 란
3. 광
TV
라 디
신 청
잡 지
육 상
4. 바
음 란
성 인
폭 력

*는

284), 패싸움(.282), 가출(.266), 절도(.265), 무단결석(.265), 야간배회(.256), 성폭행(.25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40), 폭행(.243), 컨닝(.219)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많은 유해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간오락지(명랑 등)를 읽는 것도 음주(.421), 흡연(.352), 야간배회(.333), 이성과 성관계(.305)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음란낙서(.294), 성추행(.276), 도박(.276), 패싸움(.256), 무단결석(.24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30), 위협(.230), 컨닝(.228), 가출(.225), 폭행(.217), 흥기소지(.211)와 관련이 있어 월간오락지가 유해인쇄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실화, 야담잡지 등을 읽는 것은 음주(.361), 흡연(.313), 야간배회(.308), 음란낙서(.280), 이성과 성관계(.277), 성추행(.271), 도박(.271), 폭행(.261), 패싸움(.257), 무단결석(.243), 위협(.242), 흥기소지(.221),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15), 가출(.214)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유해출판물임을 알 수 있다.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을 읽는 것도 음주(.359), 음란낙서(.313), 흡연(.308), 도박(.280), 이성과 성관계(.275), 성추행(.270), 무단결석(.239), 흥기소지(.236), 위협(.230), 성추행(.216),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12), 가출(.210)과 관련이 있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음주(.500), 흡연(.475)과 큰 관계가 있고 도박(.378), 성추행(.371), 이성과 성관계(.367), 음란낙서(.347),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14), 무단결석(.314), 야간배회(.313), 위협(.313), 흥기소지(.308), 패싸움(.305)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절도(.244), 폭행(.242), 컨닝(.240), 성폭행(.223), 반항(.220)과 관련이 있어 모든 비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인다.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것은 흡연(.493), 음주(.478), 이성과 성관계(.427) 도박(.424)과 큰 관계가 있으며, 성추행(.390), 음란낙서(.387), 흥기소지(.357), 위협(.357), 유흥업소 아르바이트(.339), 패싸움(.316), 야간배회(.315), 가출(.312)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무단결석(.296), 절도(.287), 폭행(.273), 컨닝(.242), 성폭행(.23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계, 성추행, 음란낙서, 성폭행 등

각종 성비행과의 관련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주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영화 및 비디오를 보는 것은 음주(.373), 도박(.371), 흡연(.355), 야간배회(.333)와 상당한 관계가 있고, 음란낙서(.270), 이성과 성관계(.262), 성추행(.249), 패싸움(.241), 위협(.239), 컨닝(.226), 흥기소지(.226), 폭행(.207), 반항(.201)과 관계가 있어 유해영상몰입을 알 수 있다.

(4) 유해상황과 비행과의 관계

앞서 살펴 본 각종 유해상황과 비행과의 관계를 <표 IV-2-4>에서 살펴보면, 먼저 식구들의 잦은 음주, 흡연은 청소년의 음주(.251)와 흡연(.22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폭력배는 절도(.206)와 관계가 있고 유흥가 불량배는 성폭행(.249), 가출(.247), 절도(.217), 흡연(.211),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11), 패싸움(.208)과 관계가 있으며, 어른들의 술주정은 가출(.214), 성추행(.206)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은 음주(.247), 흡연(.243), 야간배회(.241), 이성과 성관계(.230), 성추행(.229), 유흥업소 아르바이트(.208), 도박(.201)과 관련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행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위주의 유행어를 많이 쓰는 것은 컨닝(.218) 및 음주(.208)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유해상황과 비행과의 상관

유해 상황	비행	권	닝	야	간	무	단	도	박	절	도	집	단	합	기	합	연	음	주	위	협	폭	행	가	출	*유	*반	음	관	*이	*가	성	폭				
				매	회	결	색	(결근)				페	싸	소	거										업	하	항	음	서	성	관	개	성	주	행		
1. 가 경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0.140	0.140	0.189	0.177	0.158	0.117	0.135	0.229	0.251	0.147	0.080	0.161	0.135	0.095	0.143	0.159	0.145	0.141																		
	부모님의 잦은 늦은 귀가	0.112	0.111	0.108	0.151	0.126	0.110	0.109	0.131	0.134	0.114	0.106	0.103	0.094	0.091	0.129	0.130	0.126	0.094																		
	식구들의 잦은 싸움	0.126	0.100	0.128	0.119	0.141	0.116	0.113	0.106	0.108	0.133	0.089	0.123	0.084	0.104	0.128	0.104	0.128	0.104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0.051	0.063	0.062	0.093	0.074	0.063	0.041	0.056	0.070	0.069	0.055	0.048	0.021	0.034	0.046	0.029	0.042	0.010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0.095	0.053	0.105	0.118	0.159	0.103	0.091	0.107	0.078	0.106	0.102	0.131	0.082	0.068	0.094	0.116	0.092	0.066																		
	식구들의 무관심	0.128	0.110	0.153	0.136	0.152	0.149	0.124	0.149	0.156	0.152	0.119	0.161	0.122	0.093	0.135	0.128	0.139	0.137																		
2. 학 교 (격장)	학교(격장)의 부족한 시설	0.033	0.048	0.090	0.028	0.064	0.054	0.036	0.041	0.050	0.036	0.044	0.093	0.052	-0.018	0.008	0.061	0.039	0.056																		
	지나치게 많은 수업(근로)시간	0.009	-0.009	0.051	0.006	0.030	0.056	0.015	-0.015	-0.035	0.027	0.033	0.044	0.064	-0.016	-0.022	0.015	0.016	0.036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간섭	0.036	0.036	0.021	0.055	0.026	0.020	0.015	0.017	0.008	0.032	0.043	0.033	0.016	0.037	0.025	0.017	0.026	0.006																		
	선생님(상사)의 지나친 차별	0.038	0.034	0.075	0.068	0.086	0.071	0.038	0.038	0.047	0.052	0.060	0.076	0.060	0.009	0.053	0.060	0.064	0.063																		
	선배나 친구의 강요	0.056	0.103	0.094	0.088	0.062	0.05	0.062	0.088	0.116	0.063	0.054	0.079	0.048	0.067	0.068	0.080	0.084	0.047																		
	친구들간의 경쟁	-0.008	0.026	0.040	0.067	0.016	0.013	0.030	0.030	0.048	0.022	0.025	0.023	0.008	0.018	0.002	0.004	0.001	-0.030																		
	학교(격장)주변 폭력배	0.089	0.116	0.181	0.157	0.206	0.183	0.173	0.170	0.151	0.159	0.131	0.195	0.157	0.096	0.149	0.167	0.164	0.179																		
	*자율학습	-0.110	-0.140	-0.057	-0.123	-0.100	-0.084	-0.072	-0.187	-0.187	-0.115	-0.103	-0.108	-0.121	-0.082	-0.117	-0.109	-0.123	-0.112																		
	*찾은시험 및 입학위주교육	0.024	-0.030	0.088	-0.012	0.042	0.049	0.051	0.017	0.003	0.014	0.020	0.029	0.046	-0.028	0.026	0.041	0.024	0.033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0.005	0.023	0.017	-0.015	0.021	0.032	0.012	-0.011	-0.012	0.013	0.053	0.013	0.011	0.043	0.024	0.021	0.020	-0.009																		
3. 사 회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0.091	0.100	0.168	0.124	0.158	0.184	0.160	0.120	0.132	0.130	0.106	0.178	0.160	0.046	0.135	0.171	0.128	0.147																		
	*정직불안	0.104	0.082	0.144	0.118	0.146	0.164	0.141	0.136	0.130	0.145	0.123	0.151	0.154	0.045	0.121	0.155	0.144	0.171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	0.109	0.056	0.118	0.110	0.152	0.151	0.118	0.110	0.090	0.142	0.134	0.156	0.119	0.053	0.088	0.115	0.105	0.146																		
	*레 모	0.062	0.168	0.104	0.107	0.089	0.085	0.118	0.112	0.183	0.092	0.107	0.104	0.095	0.156	0.106	0.057	0.106	0.072																		
	*유형가블랑베	0.126	0.147	0.196	0.150	0.217	0.208	0.187	0.211	0.196	0.196	0.195	0.247	0.211	0.116	0.177	0.181	0.182	0.249																		
*민생치안 부재	0.098	0.094	0.129	0.135	0.115	0.152	0.120	0.135	0.134	0.106	0.124	0.127	0.116	0.047	0.077	0.098	0.121	0.087																			
*라소비 풍조	0.108	0.090	0.129	0.146	0.154	0.153	0.141	0.128	0.125	0.150	0.105	0.145	0.144	0.070	0.124	0.125	0.131	0.156																			
4. 기 타	강난전화	0.138	0.120	0.099	0.148	0.110	0.129	0.121	0.115	0.140	0.123	0.112	0.124	0.153	0.135	0.171	0.155	0.155	0.117																		
	어른들의 술주정	0.119	0.117	0.178	0.190	0.170	0.164	0.188	0.198	0.196	0.193	0.131	0.214	0.184	0.108	0.178	0.175	0.206	0.174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0.167	0.241	0.152	0.201	0.149	0.186	0.166	0.243	0.247	0.181	0.179	0.180	0.208	0.150	0.196	0.230	0.229	0.137																		
	유형어(홍미위주의)	0.218	0.152	0.096	0.172	0.114	0.112	0.126	0.180	0.208	0.134	0.115	0.116	0.124	0.170	0.173	0.148	0.191	0.124																		
	*이런이 만화집	0.149	0.156	0.054	0.044	0.021	0.065	0.046	0.090	0.103	0.073	0.121	0.051	.	.	0.064	.	.	-0.056																		
	**자동차 정포	0.065	0.088	-0.000	0.050	0.118	0.037	0.020	-0.008	0.013	0.037	0.078	0.006	.	.	0.001	.	.	0.030																		

r>0.04이면 p≤0.001

*는 국민학생을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는 국민학생을 질문지에만 있는 문항임.

V. 청소년 유해 환경의 규제 현황과 대책

V.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현황과 대책

1. 유해환경 규제의 기본전제와 방향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커다란 혼란 없이 단일한 가치를 유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어느 일각에서 어떠한 사실, 현상이나 형태를 도덕적인 가치면에서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전체 사회구성원들에 전파되어 별다른 사회적 저항없이 부정적 가치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그 이유나 원인이 어디에 있건간에, 도덕적인 가치문제에 관한한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해환경의 경우, 앞장에서의 개념적 특성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의미 자체가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유해환경의 판정여부나 규제가 가치관련 문제이므로 지금까지 각종 풍속환경이나 유해환경, 특히 정보환경 등에 있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시비나 논란없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풍속환경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관리, 통제의 수립이나 제재에도 커다란 사회적 저항없이 집행되어오곤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산업화, 도시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집행됨에 따라 사회적, 도덕적 가치 또한 다양화되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관리의 형태나 집행이 지금과 같이 획일적으로 별다른 사회적 저항없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전망에 근거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에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할 사항과 규제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유해성의 판단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해소하고 그 유해성을 척결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그 환경의 어떤 요인이나 성격이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이다. 앞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적 특성에서 살펴 보았듯이, 유해성의 의미 자체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유해성의 규제 효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유해환경의 유해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규제에 있어서도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해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어떤 집단의 어느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들의 일상 생활체험과 가치 판단에 기초하여 대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유해환경으로 합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유해성의 판단이 엄밀한 학문적, 과학적인 논증에 의해 규정될 수만은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성인들의 가치 기준에 그 여부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유해성의 판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특정 유해환경의 유해성 정도가 엄밀한 과학적 논증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통념적인 판단에 기초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있을 때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각종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환경의 경우에는 유해성의 판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노골적인 성묘사, 지나친 노출 장면이나 폭력장면 등은 쉽게 유해하다고 판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며, 어느 정도를 유해하다고 해야 할런지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만화나 잡지의 경우 그것이 갖는 흥미위주의 오락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 성격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유해성의 판정기준의 설정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사회적 통념상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각 가정의 유해성 여부판단이 사회적 기준 보다 우선하거나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해환경과의 접촉이나 유해행위에 따른 도덕적, 사회

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가정에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규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가족이나 부모의 허락이나 보호, 지도 하에서 각종 행위, 시설이나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해환경의 규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유해판정 기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구성원들간에 객관적으로 유해성이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유해성 판정의 남용을 전제하기 위해서 가정의 판정 기준이 우선되고 부모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

두번째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유해환경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들에게도 동일한 유해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때, 그러한 풍속환경의 접촉이 성인들에게는 개방적이면서 청소년들에게만 패쇄적인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조: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114-115). 즉, 어떤 특정 부류의 환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유해성을 가지는데 반해, 청소년들에게만 유해성을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곧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그 유해성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물론 어떤 특정 유해환경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성인들 보다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신에 걸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논증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해성은 그 영향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청소년들에게 패쇄적인 이유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

또한 어떤 환경들은 성인에게는 접촉이나 사용에 있어서 스스로 적절한 절제나 통제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에게는 그러한 자기 절제력이 보충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환경에의 접촉이나 사용기회가 패쇄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카페나 레스토랑, 디스코장, 롤라스케이이트장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시설이나 장소들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해성을 갖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절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준다면 어느 정

도 유해성을 해소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유해환경들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대처는 오히려 청소년이 출입이나 접촉을 음성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특히 성인 연령층에 근접해 있는 고등학생 이상이나 근로청소년 등 한계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런 유형의 유해환경과의 접촉빈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해환경의 접촉률에 있어서도 남자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접촉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여러 국가와 같이 한계 연령층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부모와 후견인의 동반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접촉을 허가하여 스스로 자기 판단력과 억제력을 발휘하고 신장시킬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일정 환경에 대해서 한계 연령 청소년들은 환경을 제공하는 측의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참조: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115).

(2)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와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나 통제의 근거와 정도의 문제는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에 의한 강권적인 간섭이 필요한 반면 어떤 유해환경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나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같은 가벼운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구분의 준거는 무엇이며 그 정도의 차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등의 문제는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 못지 않게,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보호라는 추상적인 명목하에서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음주나 일정한 풍속환경에의 출입이나 일정 지역의 출입제한(참고: 청소년비행방지구역 등) 등이 그 법리적 근거나 정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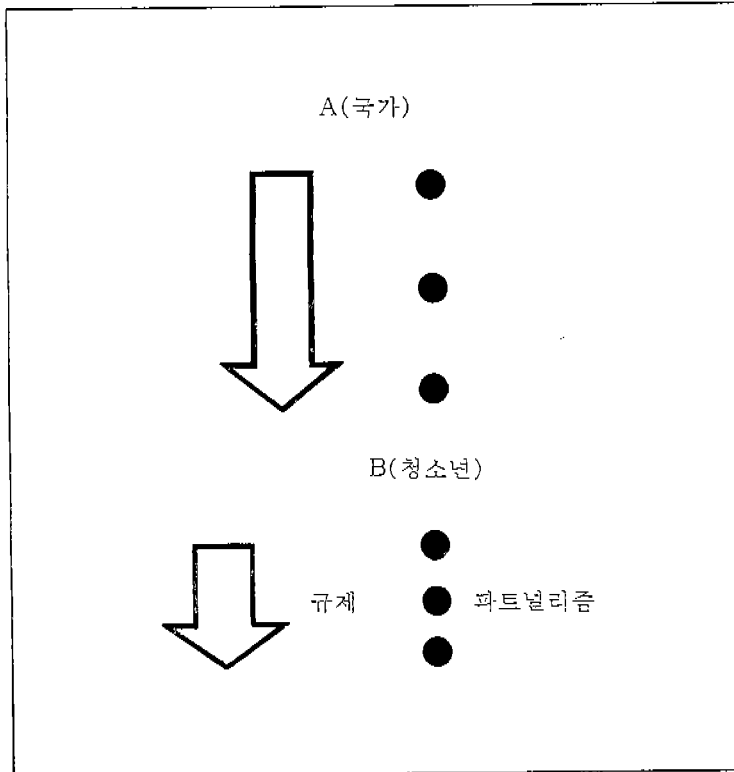
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후지모토(藤本哲也,1987)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사회의 행동 규제의 근거가 되는 침해의 원리(harm principle: 어떤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규제하는 원리), 도덕원리(moralism: 국가 사회의 도덕의 유지를 위해 반윤리적 행위를 규제하는 원리) 및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paternalism) 중에서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를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가부장적 간섭 또는 간섭주의으로 불릴 수 있는 파트넬리즘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개입이나 간섭을 정당화하는 원리로서 예를 들면, 어떤 A가 타자 B에 대해 침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B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 혹은 단체(예를 들어 국가)가 A에 대해서 무엇인가의 개입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지모토는 파트넬리즘을 유해환경의 정당화 원리로 설명하면서,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 있어 파트넬리즘은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서 이중의 의미를 갖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참조: 藤本哲也,1987: 10-11).

첫째, 파트넬리즘 일반의 정당화 문제이다. 이는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관계를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청소년 간섭주의(child-paternalism)의 정당화 문제로서, 성인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규제도 청소년들에게는 허용할 것인가 하는 형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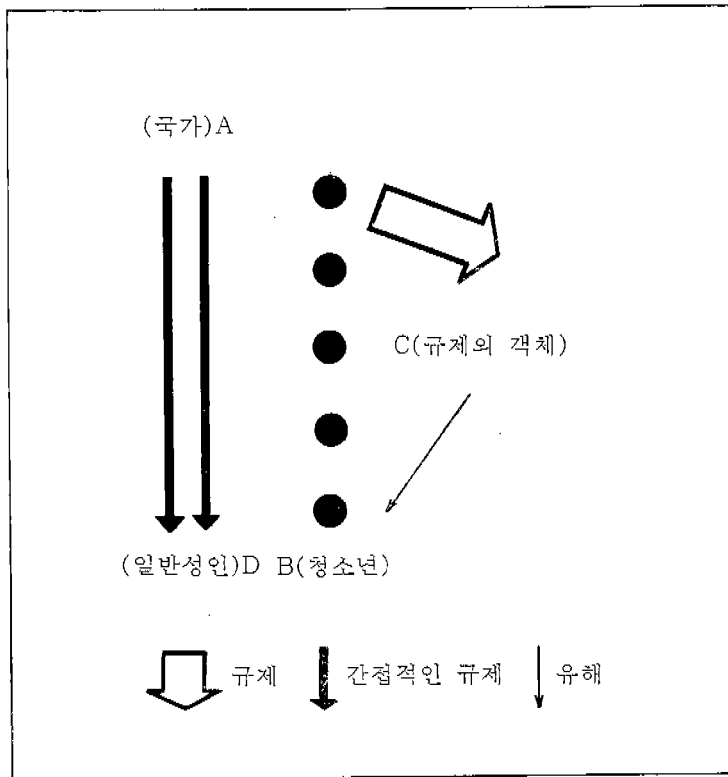
유해환경의 규제의 근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파트넬리즘이 본래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적 관계를 국가의 개인에 대한 보호적 관계로 비유해 놓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후지모토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대한 파트넬리즘을 두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파트넬리즘의 원칙적인 유형으로 국가(A)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청소년(B)에 미치는 것이다. 이 간섭 유형은 간섭·개입을 받는 사람과 보호(이익)를 받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순수형 파트넬리즘으로도 불리워 질 수 있다.

〈그림 V-1-1〉 파트널리즘의 원칙유형



예를 들면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흡연, 음주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점착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에 출입하는 행위나 숙박업소, 야외 막사와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2조: 금지사항)하는 규제 유형은 순수형 파트널리즘의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원칙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파트널리즘의 확장유형으로서 청소년(B)은 국가(A)가 규제의 객체(C)에 대해 행하는 행위를 승락하거나 혹은 나아가 객체(C)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기 조차 하는 것이다. 이 간접 유형은 간접·개입을 받는 사람과 보호(이익)를 받는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순수형 파트널리즘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림 V-1-2〉 파트널리즘의 확장유형



이러한 확장 유형에는 음란 서적이나 비디오 등 각종 정보환경의 유해성이나 풍속영업과 관련된 규제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한편, 후지모토는 확장 유형에서 ‘유해’(C→B)를 일종의 ‘침해’로 간주하여 C에 대한 규제를 침해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파트널리즘의 개념은 본래 넓은 의미에서는 피개입자에게 ‘선량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며, 좁은 의미에서는 피개입자를 ‘나쁜 영향, 즉 해(害)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파트널리즘에서는 침해의 원리로 설명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침해의 원리로만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즉,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곧 후지모토가 유해환경의 규

제근거를 침해원리 보다는 파트널리즘에서 찾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반해 유재천(1987:11-17)은 매스매디어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에서 파트널리즘의 문제점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파트널리즘은 국가가 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적 공익 혹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주려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주며,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파트널리즘은 첫째, 일정한 지배의 목적을 위해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쉽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사상의 자유시장, 예술의 자유시장을 목적성에 따라 통제함으로써 편향되고 획일화된 사상과 예술만 공급하게 된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파트널리즘의 간섭이나 개입의 주체가 국가나 소수 지배계층임으로 인해 차칫 원칙적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거나 문화 사용자의 문화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고, 여흥이나 오락성을 하등의 가치없는 것으로 멸시하는 정보의 귀족주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파트널리즘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간섭이나 개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의 성격을 지니면서 대량의 정보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선정적인 성묘사나 도색잡지 등이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파트널리즘은 그 유효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널리즘의 원리만을 고집한다면 지하 문화나 정보시장만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문화나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정작용(自淨作用)만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해환경 특히, 정보환경에 대한 규제로서 파트널리즘의 문제에 대한 유재천의 지적은 후지모토가 주장하는 규제의 법리적 근거로서 파트널리즘에 대한 원리와 다소 논의의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유해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판정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볼 때, 앞으로 유해환경의 규제 근거와 방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파트널리즘이 환경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유재천의 지적은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앞서의 논의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대응이 주로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오히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법리적 근거나 그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유해환경의 규제 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각종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속박되는 부담의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입법 예고)」 등에서 일정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각종 유흥장과 같은 풍속환경에서의 입장이나 특정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입장의 불허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출입을 금하게 하고 입장할 때에는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이 봉쇄됨으로 인해 판매량의 감소 등의 부담을 안게 되고 청소년은 보거나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업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부담의 총량이 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되고, 출입하는 청소년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의 총량이 지나치게 과중할 수 있다(참조: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117-118).

따라서 규제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거두고 공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부담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해환경의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환경측의 부담을 주로 부과한 점으로 미루어 일반 대중이나 고객들에게도 부담을 공유시키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과 규제근거와 방법과 관련된 몇가지의 고려

사항과 전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밖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및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해환경 규제의 주된 목적이 소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선량한 행위를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상황과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성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유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유해성을 척결하고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장 조건을 형성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무교육적, 탈교육적, 비교육적인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인간생존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며 과정이어야 한다(참조 : 한준상,1989).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결과로 빚어진 각종 공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공해에 대해서 인간생존의 위협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고 이루어지고 있듯이, 심화되는 유해행위, 유해시설 및 각종의 유해한 정보환경 등에 대한 대응 역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교육적인 공해(公害) 차원에서 이해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 각종 사회적 환경을 학습의 장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회의 교육적인 장으로서의 역할이 포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유해환경의 척결작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여가선용이나 낭만적인 자선적 행위의 과정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대응이나 가정, 학교 등 개별적 단위기관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은 더더욱 명백하다. 유해환경 개선의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 사회의 환경개선 주체들은 사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성과 전망을 가져야 한다. 유해환경을 비롯한 사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총체적인 역사성의 바탕 위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과 해소 노력이 막연하게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주관적 경험에 의해 인지되는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척결하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문제해결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을 방해할 뿐이다. 적어도 인간생존을 위한 바람직한 삶의 터전으로서 사회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역사성에 바탕을 둔 총체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 문제제기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에 대한 지나치게 평면적인 용단폭격적 고발이나 자학적인 언어공격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 개선의 총체적인 전망에 기초한 구조화된 문제제기만이 인간의 삶의 실현을 위한 유해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환경 개선은 전문가들의 현학적 처방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 등 모든 시민이 인간생존을 위해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인간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다는 성인적, 향락, 퇴폐적 특권을 버려야 한다. 청소년들 또한 어른들은 항상 자기들의 모범적 존재로 행동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사회일부에서 번져가고 있는 나의 실폐나 부적응 등을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몰주체적 인식에서도 탈피하여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무균지대(無菌地帶)에서 살아갈 수 없다. 특히 청소년들을 무공해(無公害)와 무균지대에서 살아가도록 시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한 철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전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리가 원칙적으로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도로 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대응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해성으로 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자칫 그들을 어느 특정 장소나 환경에 묶어 두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는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생활의 장을 축소시키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교육적인 환경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관심거리와 할거리를 제공(giving youth a better chance)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유해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대응이 일시적인 유행식의 구호나 일부 유관단체들의 과시적 행사나 유사 전문가 집단의 수사학적 고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유해환경을 공동체적 삶의 터전인 이 사회로부터 해소해 내고자 하는 환경개선의 노력은 비교육적인 환경을 사회적 공해의 차원에서 적절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의 각성과 인간생존적 차원의 자구적인 시민의식 함양적인 성격을 요구하고 있다(참조:한준상,1989:10).

그런데 유해환경은 그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매우 복합적 기능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청소년과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현실에 대한 나약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나 대중의 식적 고려는 자칫 유해성에 대한 무감각함이나 면역만을 만들고 강화시켜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해환경 개선의 사회적 규제나 관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자각과 비판의식을 자극하고, 그것을 시민의 공동체적 문화운동으로서 계속성을 지닌 사회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해환경의 판단이나 이해를 자극하는 통로와 그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적절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들이 정교한 제도적 통로로서 보장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강권적인 규제와 금지 수단 및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의 규제는 청소년을 사회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 형태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도 사회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사회적, 교육적 노력들과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유해환경에 대한 행정적

인 처벌이나 벌금 위주의 강권적 규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선호될 수 있지만, 유해성 판정에 대한 논란과 논증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사회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규제의 집행이 보류되거나 미미해지는 등의 실질적인 규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규제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시민운동이나 풍속환경과 관련된 업주들의 자율적 통제 관리형태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할거리나 관심거리를 가능한한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대한 자각과 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치료적 차원의 처방이라면 간접적 규제는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적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형태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 형태들의 실태와 그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형태는 크게 각종 법규를 통한 법적 규제와 풍속환경과 관련된 영업을 주로하는 업계의 자주적 규제 및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시민의 자율적 규제운동 등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적 규제 부문

1) 법적 규제의 현황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그 규제의 법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매우 다양한 법규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관련조항에서 부터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의 사회복지법류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열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들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법적 규제의 주된 근거라 할 수 있는 파트널리즘의 유형 분류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원칙유형의 규제와 규제의 객체를 규제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에게 간접적인 규제를 취하는 확장유형의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파트널리즘의 유형을 차용한 분류는 일종의 규제 방법을 기준으로하여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참조: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48-49). 즉,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성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와 청소년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법규로 대별된다. 물론 모든 법규들이 이러한 분류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법규의 조항에는 한 법규 내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도 있지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성인 행위나 객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 첫째, 유해물을 매개로 해서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들은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조장한다든지, 음란성과 폭력성으로 대변되는 정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규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공연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등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둘째는 유해시설이나 장소를 매개로하여 청소년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각종 풍속영업 장소나 시설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묵인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와같은 종류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들로

는 「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들이 포함된다. 또한 1990년에 치안본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어 있는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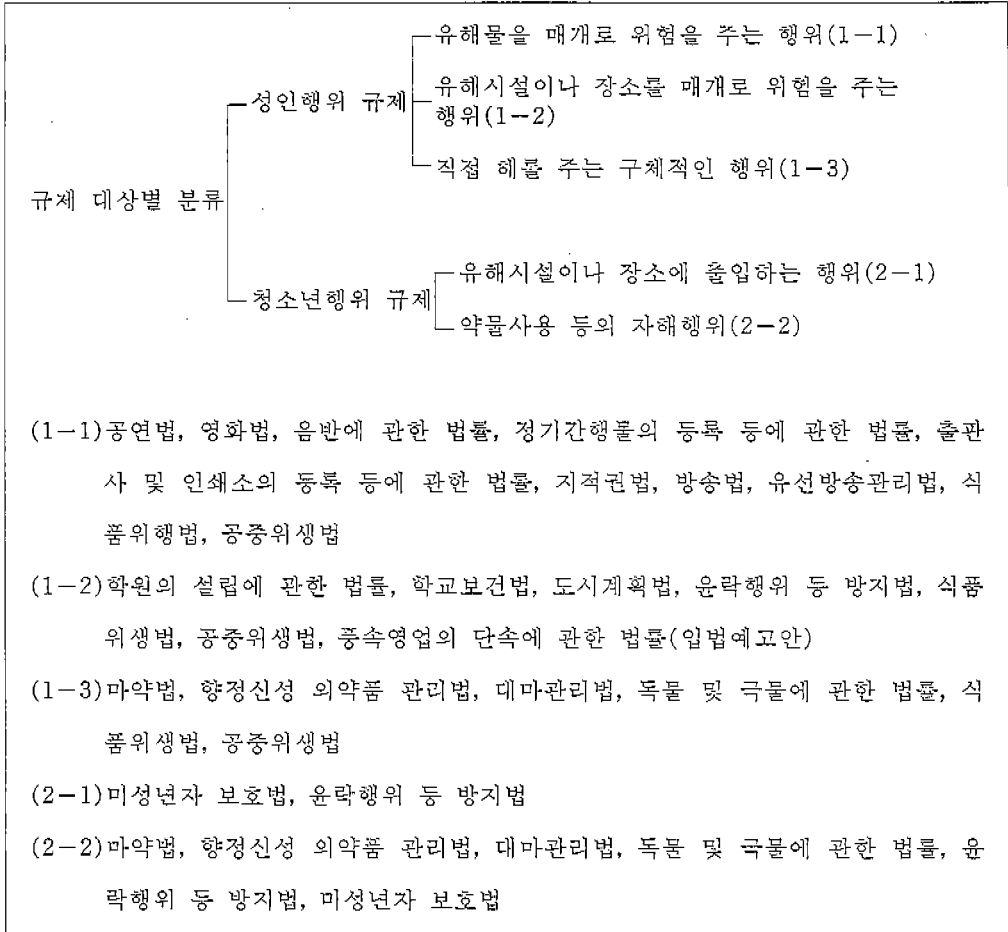
셋째, 매체나 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인 성폭력이나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약물을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학대나 폭사 행위를 가하거나 절도 행위를 강요하는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를 미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로는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형법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성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 형태로서 첫째, 청소년들이 특정 유해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한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윤락행위 방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약물사용이나 흡입과 같은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자해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이에선 청소년의 흡연, 음주나 각종 풍속환경에 출입하는 행위 및 성도덕 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비롯하여 성인의 행위를 직접 규제한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규제 대상별로 나눌수 있는 각종 법적 규제들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 규제의 대상별 분류

〈표 V-2-1〉



(1-1) 공연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지적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1-2) 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증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안)

(1-3)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2-1) 미성년자 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2-2)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이상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한 단속이나 처리의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단지 대상별로 볼 때 성인의 행위를 규제한 단속 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복지사범」으로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들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남녀 혼숙을 조장·묵인하는 행위, 유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이들의 흡사, 학대 및 배후에서 중간 착취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 청소년 복

지를 침해하는 범죄를 청소년 복지사범으로 분류한다. 청소년 복지사범을 단속하는 근거 법규는 「교육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연법」, 「식품위생법」, 「음반에 관한」, 기타 특별법 등이 있다(청소년대책위원회, 1986 : 214-215).

청소년 복지사범과 함께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나 장소와 출입을 묵인하거나 직접적인 해를 주는 성인의 행위를 단속, 처리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단속, 처리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단속)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 범죄신고용으로 사용해오던 112신고전화를 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여 1985년 2월 16일 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청소년대책위원회, 1986 : 216).

따라서 청소년 복지사범 단속과 유해환경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결과의 추이를 통해 성인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상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소년 복지사범 단속과 처리의 상황을 보면 <표 V-2-2>과 같다.

청소년 복지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표 V-2-2>

구분	계	단										속				치 리				행 정 처 분
		한대 및 혹사 행위	주류 연초 제공	홍행장 출입 묵인	유용 업소 출입 묵인	사 행위장 출입 묵인	남녀 혼숙 묵인	유해유기장 및 불법 전자유기장 출입묵인	인신 매매 행위	환자 몰질 판매	기 타	입 건	즉 심	훈 방						
1979	6,282 (100)	37 (0.6)	1,013 (16.13)	333 (5.3)	342 (5.4)	147 (2.3)	148 (2.4)	454 (7.2)	60 (0.9)	19 (0.3)	3,729 (59.4)	845 (13.5)	2,785 (44.3)	2,652 (42.2)						380
1981	4,671 (100)	273 (5.8)	915 (19.6)	359 (7.7)	461 (9.9)	90 (1.9)	144 (3.1)	395 (8.5)	57 (1.2)	7 (0.2)	1,970 (42.2)	895 (19.2)	1,432 (30.7)	2,344 (50.2)						734
1983	11,943 (100)	74 (0.6)	1,486 (12.4)	256 (2.1)	1,003 (8.4)	212 (1.8)	207 (1.7)	5,686 (47.6)	91 (0.8)	37 (0.3)	2,891 (24.2)	6,248 (52.3)	4,500 (37.7)	1,195 (10.0)						3,417
1985	5,220 (100)	33 (0.6)	570 (10.9)	115 (2.2)	1,074 (20.6)	61 (1.2)	189 (3.6)	706 (13.5)	86 (1.6)	4 (0.1)	2,382 (45.6)	2,805 (53.7)	1,501 (28.8)	914 (17.5)						2,864
1987	5,363 (100)	26 (0.5)	500 (9.3)	165 (3.1)	372 (6.9)	63 (1.2)	161 (3.0)	1,752 (32.7)	57 (1.1)	29 (0.5)	2,238 (41.7)	3,693 (68.9)	638 (11.9)	1,032 (19.2)						2,418
1989	21,063 (100)	106 (0.5)	811 (3.9)	288 (1.4)	1,705 (8.1)	279 (1.3)	212 (1.0)	14,892 (70.7)	281 (1.3)	14 (0.1)	2,475 (11.8)	18,461 (87.6)	915 (4.3)	1,687 (8.0)						14,218

자료 : 체육부 (1990), 청소년백서, 서울 : 체육부, p. 117.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단속처리된 상황의 집계는 다음 <표 V-2-3>와 같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 처리실적

<표 V-2-3>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단								속					처					행 정 처 리 분
		학대 후사 행위	주류 연초 제공	남녀 혼속 목인	유흥업 소출입 목인	유해유 기장출 입목인	인신 매매 행위	유해성 접착제 판매	분광도서 유통대 판	기 타	구 속	분 구 속	즉 심	훈 방	허 위					
1985	2,032	38 (1.9)	238 (11.7)	80 (3.9)	703 (34.6)	388 (19.1)	39 (1.9)	2 (0.1)	58 (2.9)	487 (24.0)	32 (1.6)	371 (18.3)	249 (12.3)	176 (8.7)	1,204 (59.3)	406				
1987	2,644	56 (2.1)	494 (18.7)	98 (3.7)	345 (13.1)	459 (17.4)	9 (0.3)	54 (2.0)	107 (4.1)	1,022 (38.7)	87 (3.3)	756 (28.6)	206 (7.8)	604 (22.8)	991 (37.5)	456				
1989	5,771	79 (1.4)	467 (8.1)	153 (2.7)	624 (10.8)	1,317 (22.8)	35 (0.6)	27 (0.5)	446 (7.7)	2,623 (45.5)	116 (2.0)	2,206 (38.2)	409 (7.1)	1,506 (26.1)	1,534 (26.6)	1,779				

자료: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서울:체육부, p. 115.

이와 같은 성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단속이나 처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복지사범의 총 단속 건수를 1970년대 말부터 볼 때, 1983년경에 일만천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배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 후에는 다시 반이상으로 감소하였고, 1989년 당시에는 21,000여건으로 1987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의 단속실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단속실적 건수의 통계적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즉 청소년 복지사범에 대한 집계치에 있어서 특정 년도에 따라 심한 증감을 보여주는 것은 단속실적의 통계수치가 부정확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으로 그 급격한 증감 현상을 설명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단속 건수의 증감은 당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와 정부의 단속의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1983년과 1988-1989년 당시 각종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았던 관계로 복지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연도에 단속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단속내용의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주류 연초 제공이나 유흥업소 출입목인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 비율은 매년 감소한데 비해 유해유기장 및 불법 전자유기

장 출입목인에 의한 단속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단속내용별에서 유해 유기장과 전자유기장 출입 목인은 1979년 7.2%에서 1989년에는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 내용의 변화 역시 특정 연도에 특정 복지범죄가 실제로 급격히 증가한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속의 비중이 사회여론이나 실정에 따라 흥행장이나 유흥업소 출입목인 행위 등에서 유해유기장 및 불법 전자유기장 출입목인 행위로 옮겨진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속내용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유해환경 신고센터 처리실적의 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유해환경의 신고에 의한 단속에서도 유해유기장 출입목인 단속이 1985년 19.1%에서 1989년 22.8%의 증가를 보여 다른 단속내용 보다도 다소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복지사범 단속에서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불량도서 음란 테이프판매 단속이 신고센터 처리에서는 1985년 현재 2.9%에서 1989년 7.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사범의 단속에 의한 처리내용에서 입건, 즉심, 훈방 별로 보면 즉심, 훈방과 같은 가벼운 법적 처벌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입건 등의 형사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V-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9년 당시 입건이 13.5%, 즉심이 44.3%, 훈방이 42.2%를 차지하고 있던 처리내용이 매년 변화하여 1989년 현재 각각 87.6%, 4.3%, 8.0%로 나타나 입건 처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배 가량 증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청소년 복지사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처벌량에서 매우 무거워지고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성인 행위규제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과 같은 성인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법적 단속, 처리의 통계를 복지사범과 유해환경의 신고센터를 통한 단속, 처리 결과를 통해 대체로 법적 규제의 연도별 추이와 경향성 등은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크게 보아 성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대상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이 다소 다른, 각종 출판물 및 대중 매체 등의 유해한 정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의 처리결과를 앞서의 유해시설이나 장소 및 행위 중심의 복지사범 단속과 달리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방송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모든 방송물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심의 소위원회’, ‘영화심의 소위원회’, ‘광고심의 소위원회’, ‘언어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를 통해 각종 제재, 시정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TV 외국영화 및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한 방영가부 결정 등을 행하고 있다(체육부, 1990 : 98-99).

이때 방송심의 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장의 내용으로, 즉 어린이 청소년 방송이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선린, 우애 정신을 배양하도록 할 것
-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래문물을 무분별하게 선호하게 해서는 안됨
-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방송위원회가 1989년 일년동안 청소년에 관한 방송내용을 심의한 현황〈표 V-2-4〉을 보면 불건전한 내용 및 외설적 언어 구사가 28.4%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광고가 25.3%, 비교육적 내용이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불건전한 내용이나 비교육적 내용의 대부분은 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비윤리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참조: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 1989).

한편 청소년 대상 도서와 만화 등 각종 출판물 등의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의, 경고 등의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영화, 무대공연물, 비디오 등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적으로 심의, 규제하고 있는데 1989년 한해동안 사유별 공연물 심의실적 〈표 V-2-5〉를 보면 비디오 부문이 제한합격, 불합격에서 외설 249건 폭력 157건 등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방송내용 심의현황

〈표 V-2-4〉

(’89. 1-12. 31)

제 재 내 용	심의의결건수(%)
미성년 피해자 및 피의장 인적사항 공개	12.6
어린이 및 청소년에 부적합하거나 비교육적 내용	17.9
위법 행위 조장	2.1
인간의 존엄성 손상	2.1
청소년에 약물 악용의 우려	1.0
불건전한 내용 및 외설적 언어구사	28.4
살상장면 과다묘사 및 희화화	2.1
선정, 퇴폐적인 내용	5.3
방송금지가요 및 부적가사 방송	3.2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광고	25.3

자료 : 체육부(1990), 청소년 백서, 서울 : 체육부, p. 99

사유별 공연물 심의실적

〈표 V-2-5〉

[1989, 단위 : 편]

사유 종목	계	합격	제 한 합 격 불 합 격									
			소계	외설	저속	폭력	불온	표절	퇴폐	황당 무계	무단 복제	기타
영화(극영화)	374	180	194	115	1	63	-	-	1	7	·	7
무대 공연물	1,502	1,502										
비 디 오	24,991	24,537	454	249	15	157	·	·	21	·	1	11

자료 : 체육부(1990), 청소년 백서, 서울 : 체육부, p. 107.

이상과 같은 방송, 인쇄매체, 공연물 등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음반 및 비디오건과 관련하여서는 1989년에 총 8,754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1,235건 행정조치 7,519등으로 직접적인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보환경

자체에 대한 금지, 중지, 불합격 등의 제재조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조장행위의 규제 이외에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각종 유해행위를 통제하는 법적 규제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행위를 규제한 법적 조치나 단속의 결과는 소년풍기사범단속상황으로 집계분석되고 있다. 미성년자 풍기사범은 「미성년자 보호법」상의 각종 금지행위를 범한 불량행위 소년으로 음주, 짝연,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지칭한다(체육부, 1990 : 377).

연도별 소년 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 상황을 다음 <표 V-2-6>과 같다.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표 V-2-6>

구분 연도	계	단									속				처			
		홍행장 출 입	음주	깍연	싸움	불량 교우	남녀 혼숙	유흥 소지	불량집 단가입	환각물 질소지	기타	입진	즉심	몽보	훈방			
1977	208,543 (100)	6,475 (3.1)	52,214 (25.0)	30,706 (14.7)	10,918 (5.2)	16,362 (7.8)	11,979 (5.7)	794 (0.4)	1,428 (0.7)	— —	77,667 (37.2)	— —	51,477 (24.7)	44,689 (21.4)	112,377 (53.9)			
1979	207,767 (100)	6,642 (3.2)	42,698 (20.6)	38,175 (18.4)	14,761 (7.1)	19,602 (9.4)	3,133 (1.5)	1,424 (0.7)	1,299 (0.6)	152 (0.1)	79,881 (38.4)	4,151 (2.0)	33,840 (16.3)	35,526 (17.1)	134,250 (64.6)			
1981	217,373 (100)	3,529 (1.6)	38,923 (17.9)	43,811 (20.2)	26,371 (12.1)	21,685 (10.0)	795 (0.4)	2,055 (0.9)	425 (0.2)	357 (0.2)	79,422 (36.5)	11,577 (5.3)	43,531 (20.2)	30,928 (14.2)	172,031 (79.1)			
1983	282,604 (100)	4,678 (1.7)	53,797 (19.0)	69,137 (24.5)	33,791 (12.0)	29,761 (10.5)	1,117 (0.4)	1,842 (0.7)	530 (0.2)	328 (0.1)	87,623 (31.0)	11,046 (3.9)	18,346 (6.5)	45,199 (16.0)	208,013 (73.6)			
1985	254,477 (100)	575 (0.2)	44,329 (17.4)	72,046 (28.3)	24,852 (9.8)	18,051 (7.1)	1,118 (0.4)	1,673 (0.7)	— —	349 (0.1)	94,484 (37.1)	— —	14,039 (5.5)	14,045 (5.5)	226,393 (89.0)			
1987	116,784 (100)	626 (0.5)	21,712 (18.6)	33,713 (28.9)	13,668 (11.7)	— —	524 (0.4)	1,077 (0.9)	— —	598 (0.5)	45,366 (38.8)	— —	5,869 (5.0)	4,944 (4.2)	105,971 (90.7)			
1989	130,982 (100)	5,334 (4.1)	20,424 (15.6)	40,538 (30.9)	22,643 (17.3)	— —	578 (0.4)	1,316 (1.0)	— —	596 (0.5)	39,553 (30.2)	— —	4,681 (3.6)	5,346 (4.1)	120,955 (92.3)			

자료 :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서울 : 체육부, p. 378.

<표 V-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소년 풍기사범의 총 건수는 1983년에 282,6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는 점점 감소하여 1989년 현재 130,982건으로 1983년에 비해 거의 반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청소년 복지사범의 단속 처리의 경향과 매우 대조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1983년에 가장 많은 단속 건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복지사범 단속 건수가 1983년에 매우 높았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

년 풍기단속 실적의 경향성은, 복지사범 단속의 통계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상의 신빙성 여부나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일시적인 급격한 증대로 해석되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여론과 분위기에 의해 각종 청소년과 성인의 풍기나 복지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한 것 같다. 특히 1983년에는 중고생에 대한 교복자율화 등의 조치로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팽배한 시기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소년 풍기나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복지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989년에 들어 복지사범의 단속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소년 풍기단속은 역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지 본 연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근년에 들어 사회가 개방화, 민주화되어가면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단속이 의미를 잃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거나, 정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과 부담이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성인들의 복지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짐작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다른 각종 관련 연구들과 비교해서 분명하게 판단되는 것은 이것이 근년에 들어 청소년의 풍기사범에 의한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둘째, 소년 풍기단속의 내용상에 있어서의 각 항목별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단속의 전체 비율에서는 꺾연, 싸움, 음주의 순으로 1989년에 각각 30.9%, 17.3%, 15.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싸움의 경우 1977년 5.2%에서 1989년에 17.3%로 증가하고 있는 정도가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년 풍기단속에 의한 처리 결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입건, 즉심, 통보 및 훈방 별로 볼 때 1970년대 말까지는 입건과 즉심의 비율이 1977년대는 24.7%, 1979년에는 18.3%, 1981년 25.5%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그 비율은 1987년에 5.0%, 1989년 3.6% 등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곧 소년 풍기에 대한 훈방 조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훈방 처리가 1970년 후

반에 50-60%의 비율을 차지하였던 데 비해 1980년 중반 이후에는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년 풍기단속의 처리는 성인에 대한 복지사범의 단속 처리가 입건 등의 처벌강화 쪽으로 비중이 두어지는 것과는 대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년 풍기단속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소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관련된 단속으로서 근년에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다. <표 V-2-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86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87년 226%, 1988년 794%, 1989년에는 406%로 1989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약류의 내용별로 볼 때 향정사범(속칭 히로뽕사범)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마사범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현황

<표 V-2-7>

(단위 : 명)

구분 \ 마약	'86	'87	'88	'89
마 약	.	.	.	.
대 마	24	29	51	127
향 정	10	48	219	11
	24	77	270	138
			(794%)	(406%)

되거나 혼방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적 규제의 문제점 및 보완책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현재 한국 사회의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들의 실태와 현상에 기초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법적 규제 실태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의 첫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복지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따른 단속이나 그 단속내용이 지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성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복지사범의 단속상황(참조:〈표 V-2-2〉)에서 단속내용의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특정 연도에 총 단속 건수가 급증하거나 유해유기장 및 불법 전자유기장 출입목인과 같은 특정내용의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들은 이러한 복지사범에 대한 단속이 일관성이 없거나 지속성이 결여되었던데 따른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총 단속 건수나 특정 내용의 건수의 증가가 그러한 특정 복지사범이 당해에 그렇게 급증했거나 특정 내용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 복지사범에 대한 법적 단속이 특정의 사건이나 정책적 고려와 같은 사회, 정치적 여건과 여론 형성에 따라 특정의 내용이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행정적 편의나 이해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단속에 의한 처리결과도 즉심이나 혼방 중심에서 입건과 행정처분 등으로 매우 강화되어 왔다. 복지사범 단속 결과의 중별처리는 복지사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통제해 보고자 하는 사회,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지사범 단속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법적 규제의 효과와 본래 처벌강화를 통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환경 특히 각종 흥행 및 풍속환경에 대한 행정적, 법적 관리와 단속에 의한 처벌의 강화는 필요한 조치이며 대응이기도 하다.

그런데 처벌의 강화가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사범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행될 때라야만이 복지사범의 단속에 의한 처벌에 대해 모든 대상들의 암묵적 저항이나 요행에 의한 회피 등의 의식을 척결할 수 있고 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각종 관계법령을 재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풍속환경이나 기타 유해성과 관련된 법령의 재정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필요한 것이며, 적어도 재정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① 현재 청소년 복지관련 법령들은 대부분이 보호나 단속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18세나 20세 등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경우, 실제로 법의 취지와 다소 달리 학교주변 풍속환경에 대한 규제 의미를 갖고 있어 법적 의미나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구역과 대상 학교의 범위가 교육법상의 학교기관인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차등이나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발달의 정도가 매우 급격할 뿐만 아니라 발달시기나 정도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적응의 정도와 양태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규제 정도와 양태를 적용하여서는 법적 규제에 의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적 규제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결국 「학교보건법」의 경우 학교 범위나 정화구역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비교적 통학거리와 청소년 자신의 행동 반경이 짧은 뿐 아니라 유해환경에 의한 영향의 정도가 보다 심각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며 그러한 조처의 검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 및 각종 학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의 동일화 확대는 규제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미미하고 규제의 효율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칫 법적 제재가 임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거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현재의 개정 움직임 역시 적절한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급 학교별로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차등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오락실과 같이 현재 청소년의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 특정 환경의 금지시설 및 행위 범위로의 삼입 등은 전문적인 고려와 신중을 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가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닐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자오락실의 위치와 시설 및 오락실의 이용이나 행위 실태로 보아 학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비행 유발의 매개체가 될 소지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쓰레기 하치장 등과 같이 공해적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의 환경공해를 야기하는 시설이나 행위 등은 정화구역의 금지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쓰레기 하치장과 전자오락실과 같은 환경의 비교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유해환경이라도 그 성격과 정도 및 양태에 따라 법적 규제의 정도와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법적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제 범위나 정도 및 양태 역시 전문화 할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유발될 소지가 있는 법적 규제에 따른 사회적 저항이나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세분화, 구체화 및 전문화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상과 금지범위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별로 문화적, 사회적 여건과 현

실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에 기초를 두고 지방자치의 형태에 따라, 일본의 경우와 같은 각종의 「청소년 보호 조례(가칭)」를 통해 전 문화, 차등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 지방정부는 「청소년 보호 조례」와 같은 규정을 통해 지방여건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유해 환경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결과에 터하여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편의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담배자판기’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4.3% 정도가 일주일에 1~2회 이상씩 거의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의 9.8%, 여자의 0.7%, 근로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20.1%, 여자의 2% 등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청소년의 85% 정도가 담배자판기가 유해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담배자판기는 청소년 인구 중 상습 흡연자들에게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서 「조례」 제정시에 담배자판기를 성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시로 출입하는 공공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종 서적이나 잡지 및 각종 풍속환경의 유해성의 억제 또한 지방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매우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요청된다.

②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한 관련법령을 재정비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다양한 유해환경이나 풍속환경을 단일 법적 체계나 규정으로 통합하고 규제하려는 의도나 유혹은 회피되어야 한다. 즉, 유해환경의 척결에 지나치게 의욕을 가진 나머지 다양하게 산재해 있고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많은 유해환경들을 단속이나 억제의 효율성만 고려하여 단일법규로 통합 규제하려는 의도는 자칫 규제의 부정적인 역기능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1990년 치안본부에서 풍속관련 사항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 실효성이 미흡하여 단행법으로 처벌법을 제정,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범인성 환경정화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치안본부, 1990)하고자 제정을 입법예고한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그 제안 이유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풍속환경을 통합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풍속환경과 관련된 법규가 없었던 관계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풍속환경의 정화를 위한 기본법의 취지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치안본부에서 일본의 풍속영업법과의 비교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참조:〈표 V-2-8〉) 유흥음식점에서 숙박업, 이용업, 성인용·청소년용 전자유기장, 기타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등 많은 업종을 풍속영업의 범주로 단일화해 놓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풍속영업 관련법 대상업종의 비교

〈표 V-2-8〉

	한 국	일 본
대상업종	○ 풍속영업으로 단일화 ○ 유흥음식점 :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극장식당, 바아, 비어홀, 룸싸롱, 요정 등 ○ 대중음식점 중 카페영업 ○ 숙박업(호텔, 콘도, 여관, 여인 숙) ○ 목욕장 중 특수목욕장 (사우나, 터키탕, 복합목욕탕) ○ 유기장영업 중 전자유기장 (성인, 청소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극장) ○ 의료법에 의한 안마시술소 ○ 기타(비디오가게, 만화가게, 무도 강습소 및 사설무도장)	○ 풍속영업 : 카바레, 대합, 요리점, 카페, 나이트 클럽, 다방, 빠, 빠정꼬, 스랏트 머션 ○ 풍속관련 영업 목욕장, 흥행장, 숙박시설, 점포 를 설치하고, 성적 호기심을 일 으키는 사진, 물품 등 판매업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방, 빠 등과 같은 풍속영업과 흥행장, 숙박시설 등과 같은 풍속관련 영업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업종도 한국 보다는 적은데 반해,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만화가게 및 청소년 전자유기장까지 대상업종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속영업 단속의 대상업종을 단일 범규에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은 단속이나 처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유해환경 규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즉, 단속이 풍속환경의 정화 이외의 임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으며, 단속이나 규제의 법리적 근거나 정당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아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없지 않다. 특히 다양한 성격의 환경들을 단일 규제로 묶음으로써 규제의 효과와 기능을 실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풍속과 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할 때 단속의 효율성을 제일의 가치로 전제하여 각종 환경의 규제를 망라하고자 하는 유혹과 의식은 매우 위험하다.

법적 규제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단속이나 규제의 효율성의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유형과 양태의 환경에 개별적인 성격에 맞고 규제 자체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의 재정비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중앙 입법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각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 등에 많은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법적 규제의 입법과 재정비 및 각 지방 조례의 제정에 앞서 이들 규제에 대한 법리적, 사회적, 도덕적 근거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반드시 요청된다. 이러한 근거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때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규제나 단속에 의한 일종의 사회적 저항을 방지하거나 유해성 판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해환경의 척결과 저지를 위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 규제에 따른 각종 부담을 현행의 업주나 성인 중심에서 관련 청소년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는 등, 부담의 분배가 형평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입법예고된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이나 「미성년자 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 위생법」 등과 청소년 복지사업 단속을 위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부담들이 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주류, 연초제공 또는 남녀혼숙 등을 묵인하는 업주나 성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처벌위주의 단속이나 부담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의 부담을 나누어 분배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적 규제에서 업주나 유해환경의 제공자의 각종 원인행위나 묵인 방조를 처벌함을 물론 서구의 국가에서와 같이 출입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의 제시나 휴대를 의무화 하는 등의 규제를 삽입하여 부담을 분배시켜야 할 것이다(참조: 靑少年育成國民會, 1985: 117).

셋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처리가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형사적 처벌이나 벌칙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년에 들어 향락문화의 번창과 과소비 풍조의 만연 및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의 저하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사회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의 기회나 원인을 제공할 위험성이 있는 각종 풍속환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처벌량이나 벌칙량의 확대 강화는 실질적인 실효 보다는, 처벌의 강화에 따른 상징적인 예방 기대효과에서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벌의 강화와 같은 일종의 충격적 요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실효를 기대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처벌의 강화와 병행하여 지도, 감독의 강화 및 긍정적인 보상과 같은 사회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상의 위반업소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업소의 적극적인 이전과 통제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금지되지 않는 업종으로의 전환시에 정화구역 내의 해당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특소세부와 대상 판정기준 강화’나 「과세특례의 범위」의 활용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식점, 다방, 술집 등 각종 풍속관련 환경이나 유흥접객업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시에 처벌량을 강화하는 정도에서 규제를 멈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실제 적용, 운용하여 정규적인 근로감독이나 지도 강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1991년 1월 16일 노동부에서 「유흥업소 여성, 연소근로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실시해온 정규 근로감독을 유흥서비스업에까지 확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 근로금지와 미성년자의 술자리 접객 행위금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7월 부터 10월 까지 집중 실시(참조: 한겨레신문, 1991.1.17)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근로감독과 지도 강화는 곧 풍속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요한 법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는 단속에 의한 처벌의 확대,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나 사찰 및 근로지도 감독의 강화와 같은 측면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복지사범이나 소년 풍기사범의 단속 및 처리 결과가 현재에는 단속 행위별로만 통계치가 공개되고 있다. 단속 행위별 집계치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치는 성인들의 복지관련 행위가 무엇인지 또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는 유해행위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단속법규별 통계치도 집계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속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의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수치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가 집계·공개되면 어떤 법규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규는 실제 규제 효과를 상실하고 있는지 등의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은 법규의 재정보나 개정에 효과적인 정보

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의 수치가 공개됨으로써 유해환경의 법적 규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민기본권의 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단속의 법규별로 수치가 집계되고 공개됨으로써 단속의 법리적 근거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규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자칫 국민생활의 기본권이나 민권의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억제할 수 있게 된다.

(2) 민간자율 및 업계의 자주규제 부문

이 장에서는 법적 규제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주요한 사회적 통제 형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민간단체나 주민의 자율활동에 의한 유해환경 추방운동과 풍속영업 관련 업소 및 각종 업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주적 통제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민간 및 업계 자주규제의 실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각종 유해환경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통제가 정부차원의 간섭 및 보호 행위라고 한다면, 민간 및 업계의 자주적인 규제는 사회환경의 유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운동 차원의 규제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근년에 들어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매우 활성화된 청소년 유해환경과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시민운동의 실태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오히려 최소한의 법적 규제에 민간부문의 시민운동이나 지역주민의 자율규제가 보다 조직화, 제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 실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향락문화나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들을 나쁜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각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단히 활발해졌다. 이러한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 및 각종 시민 모임들은 작게는 지역주민의 소모임에서부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활동의 실태 역시 대중출판물이나 과소비 등 향락문화 추방운동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민간 자율부문의 활동을 총망라할 수는 없으므로 편의상 근년의 몇몇 대표적인 단체나 모임의 활동과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¹⁾. 한국 사회에서 1988년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와 관련된 민간 또는 시민단체의 자율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종 유해환경 및 향락문화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나 연구조사 중심의 활동이다. 둘째는 각종 단체들이 실제 각 분야에서 유해환경과 관련한 향락문화의 추방 캠페인을 주도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활동 방향이다. 셋째는 앞서의 두 가지 활동이 간접적인 대응 형태의 활동인데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유해환경 추방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각종 유해환경의 영향이나 유해성을 모니터링하고 고발 하기도하고 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구조사나 세미나 중심의 활동은 지금까지 많은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영역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조사나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유해환경의 내용 및 형태 역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YMCA에서 음란도서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비디오테이프의 접촉정도와 유해성, 봉천동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한 향락문화 환경의 실태조사, 향락문화 추방운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 및 공동대처 방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한 활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가 1988년 5월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락산업의 실태, 원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향락문화 추방을 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범국민운동의 전개(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 1990 :

1) 단체나 모임의 활동과 실태는 서울YMCA시민자구운동 본부(1990)에서 펴낸 향락문화추방운동 보고서에 수록된 향락문화추방일지(1988.5-1989.12)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그밖에 신문자료나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것이다.

201)를 모색하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위한 민간자율의 규제 노력과 연구는 증폭되었던 것이다.

1990년 4월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가 발행한 향락문화 추방 시민운동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과 운동의 좋은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YWCA에서는 ‘학생보호 운동 세미나’를 통해 비인간적 입시교육 문제, 청소년 유해도서, 잡지 추방 등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YWCA의 세미나 내용은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가 펴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보고서(1989)와 함께 유해환경의 범주를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와 풍조, 정보환경 및 향락산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록제가 되었다.

그외에 크리스찬 문화연구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전국 주부클럽 연합회, 서울YWCA 및 한국부인회 등 여성 및 주부모임과 종교단체 등에서 인신매매, 성폭행, 잡지, 약물과 마약, 비디오, 불량 출판물과 향락조장 대중잡지, 영화 포스터와 광고, 대중매체 및 향락사회의 풍조와 윤리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다양한 유해환경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 실태를 조사 또는 논의하였다. 특히 1989년 5월 서울YMCA 등 청소년 및 교육과 관련있는 30여단체 관계자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시민지도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결의는 주목할만 하다.

둘째,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캠페인 중심의 시민홍보 활동 역시 서울YMCA,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서울YMCA, 한국어린이 보호회의 으뜸벗 모임, 광주YMCA,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그레이트비전 청소년 선교회, 참교육실현 학부모회 등 많은 관련 단체나 모임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및 향락조장 대중잡지 추방, 음란, 외설광고 포스터 등으로 인한 나쁜 교육환경에 대하여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인신매매 추방, 불법음반 추방 캠페인을 통해 각종 사회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한 환경조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유해환경 척결을 위한 연구나 캠페인 등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고발센타를 운영하거나 직접 환경대응의 주체로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은 그렇

게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강좌를 개최하거나, 서울YMCA 강남지회와 같이 ‘청소년 유해출판물 고발상담실’을 개설하고 유해출판물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특히 한국소비자 생활교육연구소가 주부회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공연물 어머니 감시단’을 발족하여 퇴폐공연물을 단속하려는 운동 등은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YMCA와 YWCA 등 관련 사회단체가 정부에 음란퇴폐 간행물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 역시 주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각종 주부 및 어머니 단체, 시민, 사회단체나 모임과 종교단체 등에서 1980년 말부터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기 위한 민간자율활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최근 각종 스포츠신문의 만화나 특정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심화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서울YMCA, CCC, ESF, GCF, SFC, 겨자씨 형제단, 경제정의실천 기독교청년학생협의회, 그레이트비전 청소년선교회, 기독교리 실천운동, 복음주의 협의회, 예수 전도단, 장로회 연합회, 전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 한국 기독교신도 연맹,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 한국 평신도지도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돈 보스크 청소년센터 등 총 18개 단체가 연합하여 ‘스포츠신문 음란폭력 조장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락폭력조장 스포츠신문의 건강성 회복과 전전화화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한 것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사회, 종교단체들에 의한 유해환경의 자율규제 시민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조직되고 진행되었던데 반해 지역사회 단위로 주민 스스로 인근 주거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시민운동적 차원의 활동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서울YMCA에서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유해업소 중심의 환경조사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의 주택가를 대상으로 향락문화 환경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제주도 지역과 같은 관광지 등 특수 여건에 있는 지역단위에서 매춘이나 성적 관련 환경의 추방운동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 역시 한국교회여성 연합회 등과 같은 종교,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유해환경이나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업계의 자주규제는 매우 주요한 자율

규제의 한 부분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각종 유흥업이나 출판 및 기타 청소년의 풍속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업거나 업주들의 각종 이익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협회나 연합체 등의 이익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수도 있는 각종 유해성을 척결하기 위해 자주적인 규제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국서점상 연합회’에서 ‘불량도서 추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초·중고등학교앞과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 등에서 ‘불량도서는 사지도 보지도 말자’는 전단과 함께 시민들에게 양서목록 배포 활동을 벌인다거나, 한국음반협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불법음반추방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요식업중앙회와 유흥업중앙회 등 식품위생 관련 단체들이 전국의 회원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변태와 퇴폐 행위 추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나, 만화가계 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도서류 서비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불량도서 추방결의대회를 갖고 음란만화 및 소설을 수집 소각하는 등의 활동은 업계의 자주규제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종 사회적 유해환경에 대한 업계의 자주적인 규제 노력은 일부 업주들의 비협조와 관계 행정당국에 의한 규제와의 연계 결여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산의 만화대본 업주들이 연합회를 결성하여, 불량저절만화 추방운동을 벌였으나 일부 업주들의 비협조와 관계 당국의 무성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참조: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1990:210)는 평가는 업주 자주규제 현황의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 및 업계 자주규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이외의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자율규제 노력이나 관련 업계의 자율정화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1980년 말부터 정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고, 아울러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자율규제 노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환경에 대한 민간과 업계의 자율규제 현황은 초보단계에

불과하며, 규제 노력은 아직 사회적 운동차원으로 조직되고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민간자율 부분의 규제 노력이 체계화되어 사회적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민간 자율규제의 노력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규제가 주로 특정 시민이나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됐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조직적, 사회적 시민운동 차원에게 여러가지 한계를 띠고 있다.

첫째, 현재 민간자율 부분의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 노력들은 대단히 비체계적이며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앞의 실태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의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의 적극적인 주체 역할을 하기 보다는 캠페인이나 홍보와 같은 간접적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민간부분의 규제 노력이 경험적으로 축적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청소년이나 사회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나 노력에 걸맞지 않게 캠페인이나 홍보에 주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해, 그들의 역할이나 활동은 특정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일회적으로 끝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적인 행사위주의 활동이 되기 쉬웠던 것이다.

한편 각종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유해환경 정화 대상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특정 유해환경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캠페인 활동의 경우 막연히 추상적으로 광범위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 관심을 홍보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인신매매, 각종 대중매체의 유해성 등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이나 유해 물품,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재 시민단체들의 활동 내용과 성격은 민간자율의 규제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시민단체가 모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부터 홍보활동 및 직접적

인 규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관리 노력들을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각종 시민 및 종교단체들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 노력들은 보다 정교하게 조직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조해온 바와 같이, 여러가지 유형과 성격의 유해환경들은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규제 노력이나 활동에 의해 척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유해환경의 존재 형태는 단순히 기능적인 성격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은 자본주의적이고도 상업적인 입장에서 청소년을 소비자로 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주의의 시장구조나 관계 논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적 생존구조와 기술을 축적하고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존재의 그물망을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이다(참조: 한준상, 1991).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사회적 인과성은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 노력 역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단체의 자율규제의 조직화와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단체의 규제 노력과 관심은 각 단체별로 전문화와 분업화되어 운용될 수록 효율적이다. 즉, 각 시민단체나 모임별로 단체의 특성과 구성원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 유해환경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그 정화를 위해 직접 척결의 주체로 전문화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해환경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존재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구조적 인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② 각 시민단체나 모임이 규제 및 사회적 관리는 지역주민의 관리와 법적인 규제 및 업계의 자주규제 노력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체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의 조사 및 모니터링의 결과나 유해환경에 대한 척결의 의지와 노

력들이 사법권적 조치나 행정적 처리 등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행정적 조치나 법적 규제가 뒷받침 되더라도 그러한 환경의 유해성을 근원적이고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제재나 관리가 수반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시민단체들의 규제 관리의 의욕을 고취하고 범시민운동 차원이 정화 노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유해환경신고센터 등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설치하여 각종 민간 자율 부문의 유해환경 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제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실질적인 행정적, 사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신속하게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대리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유해환경 척결 노력을 뒷받침하고 주도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 단위의 '유해환경 신고센터'에서 민간자율 부문의 정화, 대응 노력들의 전문화, 분업화, 체계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환경의 사법적 처리를 주도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의 역할을 주도하는 경찰 조직과 연계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규제 부문들 간의 연계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의체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각종 시민단체의 유해환경에 대한 활동은 지나치게 대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대도시 중심의 활동은 아직 사회·시민운동으로서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접측 실태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유해환경은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관리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및 그 이하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조직되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청소년 보호 조례(가칭)」에 의한 적극적인 시민단체 주민의 시민운동적 차원의 정화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별로 시민단체의 조직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의 유해환경 정화운동이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대도시와 같이 지역의 핵분열화 내지는 익명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규제와 상호 견제노력이 유해환경 적결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 단체 등 비교적 나이 많은 유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화하여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지역주민의 정화 노력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실정에서 노인 조직을 중심으로한 지역단위의 사회운동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는 주민 자율활동과 함께 업계의 자주적인 규제 노력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풍속환경 관련 업계나 만화가계, 대중잡지나 서적상 등 몇몇 업계가 유해도서나 정보 및 환경의 정화를 위해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유해환경으로 분류·고려될 수 있는 시설, 용품, 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많은 업주들이 스스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협의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각종 협의체나 이익집합체들이 스스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량하고 건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유해환경 정화에 자율적인 정화 노력과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어야 한다.

관련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은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율정화회의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해환경이나 풍속관련영업 종사자나 업주들은 이윤을 목적하는 상(商)행위를 위주로 하는 상업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연하게 교육자적 역할이나 혹은 도덕적 대부나 대형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참조: 한준상, 1991). 그러므로 이들 관련 업계의 조직체나 협의회의 정관이나 사업활동에 일정 부분 자주적으로 환경보호나 정화노력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시민단체의 자율적 규제 노력과

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관련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체에는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여 스스로 자율규제 노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종합 논의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형태를 법적 규제와 민간 및 주민 자율규제 및 업체의 자주규제로 나누어 그 현황과 문제 및 개선방안을 일반적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통제의 일반적 수준에서의 진술에서 논의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유해시설이나 장소와 물품등에 대한 사회적 관리 차원의 대응이나 규제안을, 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조사한 각종 실태와 현황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경험적으로 조사 분석한 청소년 스스로 기존의 유해환경의 법적, 사회적 대책에 관한 평가 및 각종 유해시설이나 장소와 물품 및 정보환경의 접촉실태와 비행(유해행위)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유해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규제안을 논의한다.

가정과 학교, 정부와 사회는 유해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 대책에 따라 유해환경문제에 대처해 왔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친척들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을 삼가하도록 간섭, 권유 때로는 강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내외 생활지도, 학칙의 적용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고, 정부와 사회는 각종 법규 또는 행정지시를 집행하므로써 또는 각종 시민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들의 유해환경 대책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평가하고 있는지를 몇가지 질문을 통해 간단히 파악해 보았다.

먼저 <표 V-3-1>을 보면 유해환경 접촉 또는 유해행위에 대한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의 간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학생이나 응답자들의 53.6%가 '보통이다'라고 하였으며 26.7%는 '지나치다', 11.5%는 '매우 지나치다'고

응답한 반면 ‘무관심하다’ 혹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7.0%이었다. 대체로 보아 부모님들이나 주위 어른들의 간섭이 보통이다 내지는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간섭에 대한 견해

〈표 V-3-1〉

구 분	사례수	매우지 나치다	지나 치다	보통 이다	무관심 하 다	너무무 관심함	무응답
		%	%	%	%	%	%
전 체	(3,983)	11.5	26.7	53.6	5.4	1.6	1.0
중 학 생							
남	(763)	11.1	28.6	53.2	4.2	2.4	0.5
여	(829)	19.2	26.2	48.5	3.1	1.4	1.6
소 계	(1,592)	15.3	27.3	50.8	3.6	1.9	1.1
고 등 학 생							
남	(696)	10.5	29.6	51.0	6.3	1.9	0.7
여	(701)	11.1	29.1	53.5	4.1	1.4	0.7
소 계	(1,397)	10.8	29.3	52.3	5.2	1.6	0.7
근로 청소년							
남	(334)	5.4	19.2	64.1	10.8	0.3	0.3
여	(660)	7.0	23.6	58.2	7.6	1.7	2.0
소 계	(994)	6.4	22.1	60.2	8.7	1.2	1.4

다음으로 〈표 V-3-2〉을 보면 건전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46.7%가 ‘불만스럽다’, 25.3%가 ‘매우 불만스럽다’고 하여 72.0%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의 간섭은 약간 지나친 것으로 보나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대한 만족정도

〈표 V-3-2〉

구 분	사례수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스럽다	매우불만이다	무응답
		%	%	%	%	%	%
전 체	(3,983)	1.3	3.7	22.4	46.7	25.3	0.6
중 학 생							
남	(763)	2.5	7.2	25.8	42.5	21.6	0.4
여	(829)	1.6	4.0	27.3	45.5	21.1	1.6
소 계	(1,592)	2.0	5.5	26.6	44.0	21.4	0.5
고 등 학 생							
남	(696)	1.0	2.7	13.5	46.0	36.5	0.3
여	(701)	0.3	1.4	16.0	51.5	30.4	0.4
소 계	(1,397)	0.6	2.1	14.7	48.7	33.4	0.4
근로 청소년							
남	(334)	0.6	5.1	29.6	46.1	18.6	0.0
여	(660)	1.2	2.3	25.0	49.1	21.1	1.4
소 계	(994)	1.0	3.2	26.6	48.1	20.2	0.9

〈표 V-3-3〉을 살펴보면 가정, 학교, 살고 있는 동네와 일반 어른의 세계 및 사회 중에서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 하나만 고르라는 질문에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62.2%가 어른의 세계 및 사회를 들고 있어 가정, 학교나 살고 있는 동네와 같은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주위환경 보다는 어른의 세계 및 사회라는 보다 일반적인 성인 세계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해서는 9.9%가 지적하였으며 특히 남자고등학생(19.7%), 남자중학생(13.6%) 사이에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의 결과를 보면 유해환경 접촉 및 유해행위를 할 때 제일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64.5%가 부모님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선생님(6.5%), 친구 및 동료(6.0%), 친척 및 친지(2.5%), 선택 및 후배(2.3%) 등을 꼽았다. 그러나 10.0%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어른들의 무관심함을 지적하였다. 유해환경 접촉 및 유해행위를 했을 때 누구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V-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39.0%가 부모님, 13.7%가 선생님, 11.1%가 친구 및 동료를 들였고 5.0

건전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표 V-3-3〉

구 분	사례수	가 정	학 교	살고있 는동네	어른 세 계·사회	기 타	무응답
		%	%	%	%	%	%
전 체	(3,983)	5.3	9.9	7.1	62.2	14.4	1.1
중 학 생							
남	(763)	3.1	13.6	9.6	54.3	19.1	0.3
여	(829)	5.2	7.8	7.5	65.7	12.4	1.3
소 계	(1,592)	4.2	10.6	8.5	60.2	15.6	0.8
고 등 학 생							
남	(696)	4.0	19.7	4.9	57.2	13.4	0.9
여	(701)	5.3	6.4	4.6	71.2	10.6	1.4
소 계	(1,397)	4.7	13.0	4.7	64.5	12.0	1.1
근로청소년							
남	(334)	8.1	9.3	14.1	49.4	18.6	0.6
여	(660)	8.2	1.7	5.5	68.6	14.2	1.8
소 계	(994)	8.1	4.2	8.4	62.2	15.7	1.4

%는 경찰을, 4.2%는 친척 및 친지를 들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3.8%가 ‘없다’고 답하여 어른들의 간섭이나 훈계에 개입치 않는 집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섭하는 사람

〈표 V-3-4〉

구 분	사례수	부모님	선생님	친척및 친	동네 어른	낮선 어른	친구및 동	선배및 후	경 찰	없 음	기 타	무응답
		%	%	%	%	%	%	%	%	%	%	%
전 체	(3,983)	64.5	6.5	2.5	1.4	1.3	6.0	2.3	0.6	10.0	1.4	3.6
중 학 생												
남	(763)	59.0	8.1	2.8	2.1	1.4	5.0	2.8	0.5	14.4	1.4	2.5
여	(829)	71.1	7.1	1.8	1.3	0.6	3.0	1.4	0.1	8.0	1.2	3.7
소 계	(1,592)	65.5	7.6	2.3	1.7	1.0	4.0	2.1	0.3	11.1	1.3	3.1
고 등 학 생												
남	(696)	65.5	8.2	2.0	1.1	1.7	6.8	1.9	1.4	8.5	1.3	1.6
여	(701)	74.2	7.0	1.3	0.6	0.7	4.1	0.6	0.1	7.4	0.9	3.1
소 계	(1,397)	69.9	7.6	1.6	0.9	1.2	5.4	1.2	0.8	7.9	1.1	2.4
근로청소년												
남	(334)	53.3	4.2	3.3	1.8	3.3	3.6	8.7	1.2	14.4	1.8	4.5
여	(660)	56.2	2.9	1.6	1.4	1.1	13.3	1.7	0.6	9.5	1.8	7.0
소 계	(994)	55.2	3.3	4.1	1.5	1.8	10.1	4.0	0.8	11.2	1.8	6.1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표 V-3-5〉

구 분	사례수	부모님	선생님	친척 친지	동네 어른	낯선 어른	친구 및 동료	선배 및 배	경 찰	없 음	기 타	무응답
		%	%	%	%	%	%	%	%	%	%	%
전 체	(3,983)	39.0	13.7	4.2	2.6	1.0	11.1	2.8	5.0	13.8	2.6	4.2
중 학 생												
남	(763)	33.7	12.3	3.5	1.8	1.8	11.8	3.8	5.8	19.0	3.4	3.0
여	(829)	30.3	16.3	5.1	2.5	1.2	13.6	2.4	3.3	18.6	2.5	4.2
소 계	(1,592)	31.9	14.4	4.3	2.2	1.5	12.8	3.1	4.5	18.8	3.0	3.6
고 등 학 생												
남	(696)	53.2	8.9	4.3	3.0	0.4	8.3	2.2	6.6	9.3	1.9	1.9
여	(701)	44.9	24.3	2.0	2.3	0.7	8.6	1.4	1.4	8.8	1.9	3.7
소 계	(1,397)	49.0	16.6	3.1	2.6	0.6	8.4	1.8	4.0	9.1	1.9	2.8
근로청소년												
남	(334)	32.9	7.5	5.1	4.5	1.8	5.7	6.6	14.1	12.9	3.9	5.1
여	(660)	37.9	8.8	5.8	2.7	0.3	15.6	2.3	3.8	12.3	2.7	7.9
소 계	(994)	36.2	8.4	5.5	3.3	0.8	12.3	3.7	7.2	12.5	3.1	6.9

마지막으로 유해환경을 없애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대책에 대해서는 〈표 V-3-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8.4%나 ‘어른들이 청소년의 환경이나 행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27.9%는 ‘법적인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4.0%는 ‘카페나 비디오 제작 등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9%는 ‘동네어른이나 지역주민이 유해환경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8.4%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주변의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인들의 관심과 노력, 법적 조치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볼 때 부모님의 제재나 노력이 유해환경 접촉이나 유해 행위 억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들에 의해서도 잘 인식이 되고 있으나, 정부나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성인사회 및 사회전반이 유해환경을 이루고 있거나 유해환경 대책 미흡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유해환경 대책으로서도 성인들의 관심과 노력, 정부에 의한 법적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유해환경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견해

〈표 V-3-6〉

구 분	사례수	법적조 치강화	관련업 계노력	동네이 른노력	어른들 의노력	선생님 의노력	무응답
		%	%	%	%	%	
전 체	(3,983)	27.9	14.4	9.9	38.4	8.4	1.4
중 학 생							
남	(763)	29.9	14.3	12.7	29.8	13.0	0.4
여	(829)	25.1	10.9	9.2	42.0	11.5	1.4
소 계	(1,592)	27.4	12.5	10.9	36.1	12.2	0.9
고 등 학 생							
남	(696)	30.9	16.5	9.9	34.5	7.0	1.1
여	(701)	25.7	17.3	6.3	44.9	4.3	1.6
소 계	(1,397)	28.3	16.9	8.1	39.7	5.7	1.4
근로 청소년							
남	(334)	26.9	8.1	14.1	40.4	9.9	0.6
여	(660)	28.6	14.7	9.2	39.8	4.4	3.2
소 계	(994)	28.1	12.5	10.9	40.0	6.2	2.3

한편, 각종 유해시설이나 장소와 물품 및 방춤과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환경의 유해성과 비행과의 관련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형태별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연구가 유해시설이나 장소면에서 고려한 유해환경을 접촉한 실태와 비행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와 당구장, 디스코장, 카페와 DJ가 있는 커피숍 등과 같은 유흥업소, 심야만화가게, 음란출판 노점상 및 유흥가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설과 장소들은 앞서의 실태분석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이용율은 대개 20% 전후로서 많지 않은 수가 이용하거나 접촉하고 있지만 접촉과 비행과의 상관은 매우 높고, 많은 비행들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러한 시설이나 장소들은 일부 한정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면서 여러가지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숙박업소나 심야만화가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봉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비교적싼 값으로 출입할 수 있고 규제가 소홀한 하급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 있어서 청소년의 출입목인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의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점찰합동단속반과 위생감시원들에 의한 법적 규제와 통제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시민운동적 차원의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율규제와 관심, 업주의 자주규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청소년들을 이들의 유해성으로부터 차단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카페나 DJ가 있는 커피숍은 전체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30%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면서 비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사회적 관리와 관심을 요구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환경은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환경은 주로 도심이나 번화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에 의한 규제보다는 청소년 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나 규제 및 업주에 자주적 규제 노력에 의존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당구장과 유흥가는 전체 청소년의 출입 이용율은 17.4%와 15.1%에 머물고 있으나, 남자고등학생의 이용율은 43.2%와 25.3% 정도로 이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과의 관련성도 매우 높아 주요한 관심과 규제를 요한다. 당구장은 고등학생이상의 청소년들이 빈번히 출입하면서 비행기회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특별한 법적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등 규정을 마련할 때 당구장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목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강화는 물론 출입 청소년들의 신분증 소지 및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회적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흥가 역시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인들의 유흥오락장이 밀접해 있는 특정 유흥가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흥가에로의 청소년 접근기회의 봉쇄는 각 지방단체별로 성인들의 유흥오락장이나 시설을 밀접시켜 관리 운영도록 추진하는 등의 용도구역제를 실시하는 편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60%이상을 상회하여 이용과 접촉경험이 보편화되어 있으면서도 비행과의 상관성이 있는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및 소극장등에 대해서

는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규제보다는 이러한 시설이나 장소를 양성화시키고 유해성이 있는 내용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규제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전자오락실이나 만화가게의 경우 공간을 엄격히 규정하여 시설의 내부가 바깥에서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공개하며, 업주의 자주적인 규제 노력의 일환으로 실내에서 금연운동을 벌이고 지켜나가는 시민운동적 자구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극장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 전용극장과 같은 공간의 확보 및 소형분산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유해물품의 영역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담배자판기와 안정제와 수면제 등 각성제의 유해성과 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담배자판기의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율은 12% 남짓에 머물러 있으나 많은 비행이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도 유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실태는 담배자판기 자체에 대한 유해도 평가나 상관성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의 공부압력과 과다경쟁으로부터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각성제 등의 이용의 급증과 함께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시민단체들에 의한 청소년 약물오남용 금지 캠페인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고등학생이상의 경우 약물사용이나 흡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담배자판기는 무인판매대라는 특성상 일반 담배소매상과 달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를 성인이 출입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국한하거나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방송매체나 인쇄매체등의 정보환경 영역에서의 실태분석에서 살펴 볼 때, 청소년들이 일반 방송이나 신문매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유해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비행과의 상관성도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전체

청소년들이 이들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해 자율적인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률이 매우 높으며, 영향력 또는 심대하다는 사실에 미루어 현재와 같은 법적 규제와 사회적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들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나 홍보체제는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종 인쇄매체나 영화 및 비디오의 정보환경 영역에서 두가지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각종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의 신문·잡지가판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일반 주간지, 월간오락지, 실화 및 야담잡지 및 성인만화등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특정 인쇄매체는 청소년의 이용율이 5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그 접촉 경험도가 매우 높은데 반해, 그 내용이 지니고 있는 선정성이나 폭력성(참조 : YMCA,1989)에도 불구하고 성인만화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에 의한 유해도의 평가는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현행의 법적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처를 일정 장소나 특정구역으로 한정하거나 유통통로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들 매체에 대한 내용분석이나 사회적 관리 차원의 관심 등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부당국에서는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비디오테이프와 성인영화들이 포함하고 있는 선정성이나 음란성 및 폭력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70%이상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율이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매체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 관심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법 음란비디오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규제의 마련과 강화 경향은 사회적 주목과 지지를 획득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별 유해환경 형태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 차원의 대응과 규제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자체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청소년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생활이나 행동반경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청소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 ① 청소년들의 각종 접촉실태와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고
- ② 청소년 비행 경험율을 파악하며
- ③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경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 ④ 기존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을 검토하여
- ⑤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①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

기존의 연구결과, 각종 보도기사, 법규 및 단속결과, 각 부분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각종 관련 문헌과 청소년 문제 및 유해환경 관계 실무담당자와 일선교사들을 면접하였다.

② 질문지 조사

유해환경 접촉실태, 유해도 평가, 비행경험,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9-10월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주, 마산, 이리, 이천, 양산, 곡성 등의 지역에서 남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근로청소년(24세 미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에 의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환경과 청소년간의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의 분류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존재형태에 따라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유해한 정보 환경(대중매체), 유해상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해행동은 청소년 비행으로 별도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의 접촉실태, 유해도 평가결과, 비행과의 연관성을 유해환경의 유형별로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대중매체, 유해상황 등의 순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유해시설 및 장소의 이용경험 및 유해도

연구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장소 중에서 청소년의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문방구(97.1%:전체 응답자중 이용자의 비율), 분식점(92.5%), 제과점(91.1%), 공원(80.0%)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장소나 업소들은 청소년 자신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나 장소들을 유해하다고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패스트푸드(69.8%)와 입시 및 각종학원(61.6%)도 이용율은 높으나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들 업소나 장소들 중에서 일부는 비행과 관련되기도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유해하다고 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장소나 업소는 경양식집(71.0%), 전자오락실(64.1%), 소극장(62.1%), 롤라스케이트장(59.0%), 만화가게(56.6%), 비디오가게(50.6%)이며, 이들 중 전자오락실, 소극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는 유해하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롤라스케이트장과 경양식집에 대해서는 별로 유해하지 않다고 보거나 유익하다고 보는 경향이였다.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을 보아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유해환경이지만 이용율이 높은 점을 보면 청소년들이 갈 만한 여가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여가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규제나 영업금지 보다는 건전한 오락프로그램과 출판물의 비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양식집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볼라스케이트장은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나 비행과의 연관성을 볼 때 크게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사실과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비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전한 놀이 및 여가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포장마차(39.8%), 음악감상실(34.7%), 카페(32.0%), DJ있는 커피숍(31.5%), 일일찻집(27.5%), 사설독서실(26.4%),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22.9%), 디스코장(18.4%), 당구장(17.4%) 등의 업소이었다. 이들 중 카페, 숙박업소, 디스코장, 당구장은 청소년 자신들이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비행과의 연관성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출입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카페나 디스코장은 최근 일부 청소년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건전공간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흥가(15.1%), 성인디스코장(12.6%), 심야만화가게(10.0%), 음란출판물 노점상(9.5%), 사창가(7.8%), 성인오락실(6.7%), 퇴폐이발소(4.0%)는 비교적 소수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나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나 비행과의 연관성을 볼 때 아주 유해한 업소나 장소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유해물품 사용경험 및 유해도

본 조사에 포함된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이용율이 높은 것들은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70.6%), 인기인사진(60.7%), 불량식품(60.2%), 불량학용품(44.3%), 잡상인(40.6%) 등으로 이 중에서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과 인기인사진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불량

식품, 불량학용품, 잡상인은 청소년 비행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불량장난감의 이용율(28.7%)은 다소 떨어지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가장 문제시되는 유해물품은 담배자판기, 본드·부탄가스 등의 환각제, 마약류, 안정제·수면제 등의 각성제 등이었다. 이들 유해물품의 이용율 자체는 다른 것에 비해 높지 않지만(담배자판기 11.7%, 각성제 11.4%, 환각제 6.2%, 마약류 1.0%) 청소년 스스로 아주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청소년 비행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아주 유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담배자판기(23.3%)와 각성제(16.4%)는 남자고등학생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어 이들 물품의 판매 및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한 규제, 유해성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1) TV

청소년의 건전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매체로 TV, 신문·잡지·소설, 광고, 비디오테이프와 성인영화 등을 선정하여 이들 매체에 대한 지난 일년동안의 접촉경험과 청소년 자신의 유해도 평가, 비행과의 관련정도 등을 연구하였다. 먼저 TV의 각종 프로그램 시청율을 보면 쇼·코메디프로, 연속극 및 수사물,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외국영화 및 연속물,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만화영화 등에서 모두 88% 이상의 청소년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프로그램이 유해하다고 보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여 유해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TV프로그램과 함께 AFKN, 일본방송, 유선방송의 접촉정도도 연구하였는데 AFKN(39.4%)과 유선방송(47.2%)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일본방송도 11.6%가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방송의 경우 국민학생들의 시청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상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들 방송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방송에 대해서는 55.6%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었

다. 그러나 국내 TV의 프로그램이나 외국 방송 및 유선방송 접촉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의 경우 중·소도시 및 읍면에서의 시청율이 대도시보다 높아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규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신문·잡지·소설

신문·잡지·소설 등 각종 인쇄물의 접촉경험을 보면 스포츠신문(81.2%), 어린이 월간지(74.1%), 청소년 대상 월간지(66.5%), 여성 대상 월간지(53.5%), 월간 오락지(49.8%), 야담잡지(47.5%), 일반 주간지(44.9%), 기타 음란물 및 소설(38.9%) 등의 순서로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성인만화(28.4%)와 외국음란잡지(19.6%)가 다른 것들 보다는 낮지만 상당수의 청소년이 읽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유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국음란잡지(87.7%), 성인만화(84.6%),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74.0%)은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간지(59.6%), 월간 오락지(47.9%), 실화·야담잡지(46.1%) 등도 유해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인쇄물은 친구들간에 돌려보게 되어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며, 남자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거나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쇄물은 비행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제작·유통·판매 등을 통제하고 유해한 내용을 실지 못하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신문은 최근의 보도와는 달리 별로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행과의 연관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스포츠신문에 대한 비판이 성인만화 등 일부 연재물의 선정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스포츠 관계 보도를 포함한 스포츠 신문 기사 전반에 관한 평가로 이해되었던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광고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접한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TV광고(95.0%), 신문광고(90.2%), 라디오광고(87.3%)를 접하고 있으며 옥외광고(79.2%)와

잡지광고(76.5%)도 많은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TV 광고, 라디오광고,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옥외광고와 잡지광고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의 연관성을 보면 잡지광고와 음주, 야간배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의 비행과는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각종 불량 비디오 및 영화 등 저질 영상물에 대한 접촉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일년동안에 폭력영화 및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32.4%)와 음란비디오(24.5%)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폭력영화 및 비디오는 89.5%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는 60.5%가,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55.0%가 지난 일년동안에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심각한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영상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신들도 아주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저질영상물의 시청이 음주, 흡연, 성비행 등 각종 비행과 상당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란 및 폭력 비디오와 성인영화의 제작, 배포, 상영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유해상황에 대한 평가와 문제되는 정도

본 연구는 유해업소 및 시설, 유해물품, 대중매체 등 사회환경 중에서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유해한 요소들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공해와 같은 자연환경 속의 유해요인도 있으며 가정과 학교 등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공간에서의 유해요인도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유해요인들을 가정, 학교 또는 직장, 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유해상황에 대한 유해도 평가와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가정에서 '식구들의 잦은 싸움',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등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식구들의 무관심’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또다른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먼저 모범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청소년들을 적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며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 및 직장

학교나 직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는 ‘잦은 시험 및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나 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 또는 근로시간’ 등이 있으며,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지나친 차별이나 간섭’, ‘학교나 직장주변의 폭력배’, ‘선배나 친구의 강요’와 같은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러가지 학원다니기’나 ‘친구간의 관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

청소년들은 제반 사회 상황 중에서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불안’, ‘황금만능주의 풍조’, ‘과소비 풍조’, ‘민생치안 부재’, ‘유흥가 불량배’, ‘데모’ 등에 대해서도 시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장난전화’, ‘흥미위주의 유행어’, ‘어른들의 술주정’,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자동차의 횡포’ 등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생활에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5) 청소년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

청소년 비행은 본인 및 다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유해행위로서 그 자체가 유해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유해환경 접촉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행위로서 경험율과 유해도 평가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유해행위를 제외한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유해행위)의 상관관계도 검토하였다. 유해환

경 접촉과의 연관성은 앞에서 논의되었기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으며, 청소년 비행의 경험율과 유해도 평가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을 살펴보면, 부모·선생·직장상사에 대한 반항, 권닝, 야간배회를 지난 일년동안에 경험한 청소년들이 각각 57.4%, 53.3%, 47.2%에 달했다. 이밖에 음주경험자는 32.3%, 도박은 22.4%, 흡연은 14.2%,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는 6.5%가 해본 적이 있었다. 이들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도박과 흡연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스스로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재산비행인 절도는 5.1%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동안에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아주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폭력비행을 보면, 11.6%가 지난 일년동안에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집단패싸움, 위협, 흥기소지는 각각 9.7%, 9.5%, 6.3%가 해본 경험이 있으며 아주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성비행을 보면 18.2%의 응답자들이 지난 일년동안에 음란낙서를 한 적이 있으며, 11.4%는 가벼운 성추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14.0%의 응답자들이 갖고 있으며, 2.8%는 성폭행을 해 보았다고 하여 성문제 및 성범죄가 공식 집계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에 관련된 비행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13.4%가 지난 일년동안에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근을 한 경험이 있으며, 6.6%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유해환경 접촉 및 비행경험을 집단별로 보면 근로청소년이 접촉 또는 비행경험이 높은데, 이는 이들이 학교나 직장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으로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중에서는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유해환경 접촉 및 비행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해도가 심각할 수록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자중학생 집단의 접촉 및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하여는 보수적이나 남성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관습

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간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유해환경의 문제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6) 유해환경의 규제 현황과 대책

1) 유해환경 규제의 기본전제와 방향

청소년 유해환경은 상대적 개념이며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및 국제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다양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요인이나 성격이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각 가정의 유해성 판단이 사회적 기준보다 우선하거나 존중되어야 하며 가정의 교육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는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지배목적을 위해 오용될 가능성과 정보선별의 곤란함 때문에 설득력이 희박하고 환경 스스로의 정화능력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각종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부담은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성과 전망의 바탕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교육적인 환경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할거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제도화되어 지속되어야 하며 시민의식의 각성과 자구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권적인 규제나 금지수단과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시민이나 업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우리나라의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규제대상별로 분류하면 크게 성인행위

규제와 청소년행위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성인행위 규제는 유해물을 매개로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유해시설이나 장소를 매개한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학교보건법, 공중위생법 등), 직접 해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마약법, 식품위생법 등)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해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미성년자 보호법 등)와 약물사용 등의 자해행위에 대한 규제(마약법 등)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한 단속이나 처리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성인의 행위를 규제한 단속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복지사범으로 분류 집계되며, 청소년에 대한 단속결과는 소년 풍기사범 단속상황으로 집계 분석되고 있다. 성인에 대한 복지사범 단속결과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결과를 보면 단속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소년 풍기사범 단속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방송심외, 간행물심외, 공연물심외 등의 규제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와 단속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종 관계법령을 재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비의 방향은 단속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단일 법적 체계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제에 따른 부담을 업주나 성인중심에서 이용청소년에게도 분담시켜야 한다. 셋째 형사적 처벌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경향에 치중하지 말고 이와 병행하여 지도, 감독의 강화 및 긍정적인 보상과 같은 형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속행위별 통계와 함께 단속법규별 통계도 집계 발표되어야 한다.

3)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자율 및 업계의 자주규제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활동은 세미나 등의 연구조사 활동,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유해환경 고발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나 고발센터운영 등 직접 대응활동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활동은 각종 사회, 종교 단체 중심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위 활동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 활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업주들의 자주규제 활동도 일부

업주들의 비협조와 다른 부문의 규제와 연계가 결여되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활동이 단체별로 전문화, 분업화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관리, 법적규제, 업주의 자주규제 등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도시 편중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운동 및 활동이 조직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업계의 자주적인 규제 노력이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는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바라거나 이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이나 비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이용하거나 해보고 싶어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욕구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동시에 유해한 시설 및 장소, 물품, 출판물, 영상물을 만들고 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본질상 유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여서 유해환경의 유해성을 여과시킬 수 있으므로 유해환경은 접하고 이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오늘날 청소년 문제 전반 또는 유해환경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의 반영이며 사회전체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정화노력은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건전한 기풍의 수립을 필요로 하며, 청소년 자신들의 유해환경 불이용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해환경을 조성한

장본인인 어른들의 반성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어른들의 유해환경 정화노력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스스로 청소년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며 청소년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어른들은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무관심하거나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녀가 무엇을 원하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모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의 장임을 명심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면서 유해환경을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해업소나 그 근처를 지나게 되며 음란잡지나 소설들을 읽거나 읽는 것을 보게 되며 선정적인 방송이나 기사도 접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유해환경의 유혹과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를 통한 올바른 교육과 그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 부모와 선생님, 주위 어른들의 올바른 생활을 본받는 노력이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정화 노력은 규제의 편의 때문에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할거리와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할 것이 없으며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운동장과 운동시설,

휴게실, 음악감상실, 독서실 등과 같은 여가 및 생활공간이 집이나 학교 근처의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소극장 등의 장소는 현재 유해한 환경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 조명과 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이나 읽을 거리를 건전하게 전환시키며 건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유해환경은 유해성 정화를 위한 단속과 함께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클라스케이트장과 디스코장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전용의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의 장소나 시설들은 운영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유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나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현실성있게 제도화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현행 법규나 규제, 단속 실태 등을 검토하면 그때 그때 사회분위기에 따라 규제의 폭이 정도가 변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단속대상들도 단속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령의 정비도 단속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단일 법적 체계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제방향도 대상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높은 유흥가, 사창가, 성인디스코장 등의 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용도구역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음란비디오, 폭력비디오, 성인영화, 음란잡지 및 소설 등은 제작, 배포, 상영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담배자판기의 설치나 각성제, 마약류, 환각제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이러한 물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해성을 해소하고 건전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해환경의 처벌이나 단속같은 강권적인 규제는 보상이나 권장과 같은 설득적인 규제 수단과 적절히 조화되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해환경의 적극적인 이전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업종전환이나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으로부터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섯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관리는 시민의식의 각성에 입각한 각종 단체나 지역주민 자치조직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업주의 자주규제나 청소년의 유해환경 불이용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자율규제 활동은 단체별로 전문화, 분업화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관리, 법적 규제, 업계의 자주규제 등이 상호연계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활동과 업주의 자주규제 노력이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해성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용주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유해성의 개념, 판단기준, 규제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이며 현실성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해환경 규제와 관리를 현실성있게 제도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유형별 심층적인 연구나 유해환경 접촉경험자의 체험이나 인식변화 등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유해환경에 탐닉한 청소년을 교정하는 방안이나 사폐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들이 시도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 7집.
-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환경개선방안」, 서울:교육개혁심의회.
- 김준호(1987), “청소년 주변 유해환경과 비행선도 방안”,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주최 제52회 청소년논단 발표논문.
- 대한교육연합회(1981),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33집, 서울:대한교육연합회.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향락조장 대중잡지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90), 「향락문화 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 서울YMCA 건전 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89), 「공포 비디오물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 서울YMCA 건전 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89), 「여름방학동안 어린이들의 비디오 시청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대상 만화 모니터 결과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로맨스 소설 모니터 결과 보고서」.
- 서울YMCA 사회개발부(1989), 「청소년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2차)」.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TV광고의 외국인 출연실태 및 설문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TV광고의 외국인 출연실태 및 설문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영화가 향락문화에 끼치는 영향과 대책」.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주요수입상품 및 추석선물용 수입식품 가격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1989), 「향락산업과 과소비 - 향락업소 가격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
- 서울YMCA 시민증계실(1989), 「주요 외식산업(패스트 푸드)가격 및 청소년 이용도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상담센터(1989), 「청소년 성교육상담센터 5주년 보고서」.
- 서울YMCA(1990),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 유수현(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지도 대책”, 청협, 제13권, 4호.
- 유재천(1989), “청소년 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 주최 제1회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
- 유희경(1986),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환(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매체”,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 전병재(1986), “청소년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 보고서」, 제8집.
- 정진홍(1989),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 청소년대책위원회(1986), 청소년백서, 서울:청소년대책위원회.
- 청소년교육선교회(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 II, III, IV.
-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서울:체육부.
- 최지운(1984), 「대학환경과 정의적 특성」, 서울:예지각.
- 치안본부(1990), 「풍속영업의 단속에 대한 법률(안)」.
- 한겨레신문(1991. 1. 1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90), 「만화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90 만화발전 심포지움.
- 한국걸스카우트연맹(1990), 「걸스카우트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 운영 사례자료집」,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1988),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
'88 도서잡지윤리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준상(1989), “교육환경 개선 운동론”, 서울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한준상(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한준상(1991),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정책”,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심포지움 발표 원고.

황정규(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藤本哲也(1985), “有害環境 と 有害性 概念”, 法律時報, 제57권, 7호.

藤本哲也(1987), “有害環境の 規制 と ハダーナリズム”, 法學新報, 제93권 제6·7·8호.

矢島正見(1987), “有害環境とは”, 少年輔導, 제32권, 4호.

靑少年育成國民會議(1985), 靑少年と 有害環境 歐美 諸國に おける 各種規制と わが國の 現状, 課題, 環境問題專門委員會の 報告書.

부록

- (Ⅰ) 국민학생용 설문지
- (Ⅱ) 중·고·근로청소년용 설문지
- (Ⅲ) 부 록 표

(I) 국민학생용 설문지

□	—	□	□	□	—	□	□	□	□
---	---	---	---	---	---	---	---	---	---

청 소 년 주 변 환 경 실 태 조 사

인 사 발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을 건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를
삼고자 합니다.

이 검사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검사지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응답내용은 컴퓨터
로 통계처리되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 9월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주 소 : 157 - 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5동 산 218번지)

TEL 695 - 3856~7, 695 - 3561~3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소와 시설물, 대중매체, 물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교자 합니다.

I. 다음의 장소와 시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시오.

	(이용 정도)	(생각 정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가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이 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공 원	1-1-2-2-3-4-5	1-1-2-2-3-4-5
2. 전자오락실	1-1-2-2-3-4-5	1-1-2-2-3-4-5
3. 당구장	1-1-2-2-3-4-5	1-1-2-2-3-4-5
4. 롤러스케이트장	1-1-2-2-3-4-5	1-1-2-2-3-4-5
5. 디스크장	1-1-2-2-3-4-5	1-1-2-2-3-4-5
6. 반화가게	1-1-2-2-3-4-5	1-1-2-2-3-4-5
7. 사설독서실	1-1-2-2-3-4-5	1-1-2-2-3-4-5
8. 채과점	1-1-2-2-3-4-5	1-1-2-2-3-4-5
9. 분식점	1-1-2-2-3-4-5	1-1-2-2-3-4-5
10. 패스트 푸드(햄버거점 등)	1-1-2-2-3-4-5	1-1-2-2-3-4-5
11. 비디오 가게	1-1-2-2-3-4-5	1-1-2-2-3-4-5
12. 각종학원	1-1-2-2-3-4-5	1-1-2-2-3-4-5
13. 야한책을 파는 곳	1-1-2-2-3-4-5	1-1-2-2-3-4-5
14. 문방구	1-1-2-2-3-4-5	1-1-2-2-3-4-5

Ⅱ.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빈도에 ○표 하십시오.

	〈이용 정도〉	〈생각 정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아홉해 1-2회 1-2회 1-2회 1-2회 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불량장난감	1-----2-----3-----4-----5	1-----2-----3-----4-----5
2. 불량학용품	1-----2-----3-----4-----5	1-----2-----3-----4-----5
3. 연예인 사진	1-----2-----3-----4-----5	1-----2-----3-----4-----5
4. 불량식품	1-----2-----3-----4-----5	1-----2-----3-----4-----5
5.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1-----2-----3-----4-----5	1-----2-----3-----4-----5
6. 히로뽕, 마약, 바리화나 등 약물류	1-----2-----3-----4-----5	1-----2-----3-----4-----5
7.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1-----2-----3-----4-----5	1-----2-----3-----4-----5
8.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	1-----2-----3-----4-----5	1-----2-----3-----4-----5
9. 잡상인	1-----2-----3-----4-----5	1-----2-----3-----4-----5

Ⅲ. 다음과 같은 대중매체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보았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빈도에 ○표 하십시오.

	〈집 속 정도〉	〈생각 정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침 해 1-2회 1-2회 1-2회 1-2회 본 적 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TV		
1) 쇼·코메디 프로그램	1-----2-----3-----4-----5	1-----2-----3-----4-----5
2) 연속극 및 수사극	1-----2-----3-----4-----5	1-----2-----3-----4-----5
3) 국내영화 및 버니시리즈	1-----2-----3-----4-----5	1-----2-----3-----4-----5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정 해 1-2회 1-2회 1-2회 1-2회 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4) 외국영화 및 연속물	1 2 3 4 5	1 2 3 4 5
5)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1 2 3 4 5	1 2 3 4 5
6) 만화영화	1 2 3 4 5	1 2 3 4 5
7) AFKN(미국방송)	1 2 3 4 5	1 2 3 4 5
8) 일본방송	1 2 3 4 5	1 2 3 4 5
9) 유선방송	1 2 3 4 5	1 2 3 4 5
2. 신문, 잡지, 소설		
1) 각종 스포츠 신문	1 2 3 4 5	1 2 3 4 5
2) 주부생활 등 여성월간지	1 2 3 4 5	1 2 3 4 5
3) 여학생, 하이틴 등 청소년월간지	1 2 3 4 5	1 2 3 4 5
4)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등 일반주간지	1 2 3 4 5	1 2 3 4 5
5) 외국의 야한 잡지 및 야한 소설	1 2 3 4 5	1 2 3 4 5
6) 성인만화집	1 2 3 4 5	1 2 3 4 5
7) 어린이 월간지(소년중앙 등)	1 2 3 4 5	1 2 3 4 5
8) 어린이 만화집	1 2 3 4 5	1 2 3 4 5
9) 기타 야한 잡지 및 야한 소설	1 2 3 4 5	1 2 3 4 5
3. 광 고		
1) TV 광고	1 2 3 4 5	1 2 3 4 5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해 1-2회 1-2회 1-2회 1-2회 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2) 라디오광고	1-----1-----2-----3-----4-----5-----	1-----2-----3-----4-----5-----
3) 신문광고	1-----1-----2-----3-----4-----5-----	1-----2-----3-----4-----5-----
4) 잡지광고	1-----1-----2-----3-----4-----5-----	1-----2-----3-----4-----5-----
5) 옥외광고(길거리 광고)	1-----1-----2-----3-----4-----5-----	1-----2-----3-----4-----5-----
4. 비디오테이프 및 성인영화		
1) 야한 비디오테이프	1-----1-----2-----3-----4-----5-----	1-----2-----3-----4-----5-----
2)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1-----1-----2-----3-----4-----5-----	1-----2-----3-----4-----5-----
3) 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1-----1-----2-----3-----4-----5-----	1-----2-----3-----4-----5-----

IV. 아래의 행동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했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경 험 정 도〉	〈생 각 정 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해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권 닮	1-----1-----2-----3-----4-----5-----	1-----2-----3-----4-----5-----
2. 야간 배 회	1-----1-----2-----3-----4-----5-----	1-----2-----3-----4-----5-----
3. 무단 결석(몰래 학교 안가기)	1-----1-----2-----3-----4-----5-----	1-----2-----3-----4-----5-----
4. 돈내기 도박	1-----1-----2-----3-----4-----5-----	1-----2-----3-----4-----5-----
5. 도둑질	1-----1-----2-----3-----4-----5-----	1-----2-----3-----4-----5-----
6. 패싸움	1-----1-----2-----3-----4-----5-----	1-----2-----3-----4-----5-----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해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7. 흥기 소지(질 등) -----	1 2 3 4 5	1 2 3 4 5
8. 흡 연 -----	1 2 3 4 5	1 2 3 4 5
9. 음 주 -----	1 2 3 4 5	1 2 3 4 5
10. 위 험 -----	1 2 3 4 5	1 2 3 4 5
11. 폭행(때리기) -----	1 2 3 4 5	1 2 3 4 5
12. 가 출 -----	1 2 3 4 5	1 2 3 4 5
13. 야한 낙서 -----	1 2 3 4 5	1 2 3 4 5
14. 성 폭 행 -----	1 2 3 4 5	1 2 3 4 5
15.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V.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해당되는지 맞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생 각 정 도〉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정도〉
1. 가 정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많 이 조 금 그 저 별 상 전 히 해 당 해 당 관 이 상 관 원 다 된 다 그 랐다 없 다 없 다
1)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	1 2 3 4 5	1 2 3 4 5
2)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	1 2 3 4 5	1 2 3 4 5
3) 식구들의 잦은 싸움 -----	1 2 3 4 5	1 2 3 4 5
4)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	1 2 3 4 5	1 2 3 4 5
5)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	1 2 3 4 5	1 2 3 4 5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많 이 조 큼 그 저 별 상 적 허				
	이 롭 다	이 다	해 롭 다	해 당 해 당 된 다	조 금 다 그 렇 다	적 허 다 없 다				
6) 석구들의 무관심	1	2	3	4	5	1	2	3	4	5
학교 (직장)										
1) 학교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1	2	3	4	5	1	2	3	4	5
2)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	1	2	3	4	5	1	2	3	4	5
3) 선생님의 지나친 간섭	1	2	3	4	5	1	2	3	4	5
4) 선생님의 지나친 차별	1	2	3	4	5	1	2	3	4	5
5) 선배나 친구의 강요	1	2	3	4	5	1	2	3	4	5
6) 친구들간의 경쟁	1	2	3	4	5	1	2	3	4	5
7) 학교 주변 폭력배	1	2	3	4	5	1	2	3	4	5
8)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1	2	3	4	5	1	2	3	4	5
기 타										
1) 장난전화	1	2	3	4	5	1	2	3	4	5
2) 어른들의 술주정	1	2	3	4	5	1	2	3	4	5
3) 친구들의 화려한 복장	1	2	3	4	5	1	2	3	4	5
4) 유행어(홍미위주의)	1	2	3	4	5	1	2	3	4	5
5) 자동차 형포(과속, 신호위반 등)	1	2	3	4	5	1	2	3	4	5
6) 과 소 비	1	2	3	4	5	1	2	3	4	5

7. 다음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내역입니다. 해당되는 단위에 V 표시하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1) 남 자 2) 여 자
2. 당신의 학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 일니까?
1) 상위권이다 2) 중위권이다 3) 하위권이다
 3) 80-90만원 4) 50-70만원
 5) 70-100만원 7) 130만원 이상
3. 당신 가정의 한달 총수입은?
1) 20만원 미만 2) 20-30만원 3) 30-50만원
 3) 100-130만원 7) 130만원 이상
4. 당신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1) 자기집 2) 전세집 3) 전세방
4) 월세방 5) 친척집 6) 기숙사
7) 하 숙 8) 자 취
5. 당신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위는 어떤 곳입니까?
1) 상업이나 점포가 많은곳 2) 논이나 밭이 많은곳 3) 아파트 단지
4) 일반주택이 많은곳 5) 공장이 모여 있는곳 6)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많은곳
5. 부모님의 학력에 해당되는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아버지 빈 2) 어머니 빈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

7.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아버지 _____ 번 2) 어머니 _____ 번

(1) 농림어업자 (농업, 어업, 양업, 축산, 수산양식, 원예) (2) 자영업 (상점, 음식점, 공장, 운송업 등에서 종업원 9인 이하의 경영자) (3) 판매·서비스 (상점, 음식점 등의 종업원, 이발소·미장원 종업원, 스튜디언스, 가정부) (4) 기능직·작업직 (공원, 기계조작원, 목공, 운전기사, 건축공사 작업원 등) (5) 사무직·기술직 (사무·기술관계 사원, 조종사, 항해사, 교사, 보조, 간호원, 군인, 경찰 등) (6) 관리직·경영자 (회사, 은행의 부장급 이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 10-49인의 기업 경영자) (7)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목사 등) (8) 주 부 (9) 직업이 없는 사람	(보 기)
---	--------------

8. 당신의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2)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 3) 중간 정도이다.
4)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다.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9. 당신의 가족구조는?

- 1) 어머니 + 아버지 + 자녀 2) 아버지 + 자녀 3) 어머니 + 자녀
4) 할아버지나 할머니 + 부모 + 자녀 5) 할아버지나 할머니 + 자녀 6) 형, 오빠, 동생
7) 누나, 언니, 동생 8) 혼자 있음
9) 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직접 쓰시오. _____

10.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 1) 서울
- 4) 대구
- 7) 광주

- 2) 충주시
- 5) 파주시
- 8) 이리시

- 3) 이천군
- 6) 양산군
- 7) 곡성군

수고하셨습니다.

(II) 중·고·근로청소년용 설문지

청소년 주변환경 실태조사

인 사 발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을 건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를
삼고자 합니다.

이 조사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검사지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응답내용은 컴퓨터
로 통계처리되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 9월

한국청소년연구원

(주 소 : 157 - 0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5동 산 218번지)

TEL 695 - 3856 - 7, 695 - 3561 - 3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소와 시설물, 대중매체, 물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교자 합니다.

I. 다음의 장소와 시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하시오.			
		〈이 용 정 도〉	〈생 각 정 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가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공 원		1-----2-----3-----4-----5	1-----2-----3-----4-----5
2.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1-----2-----3-----4-----5	1-----2-----3-----4-----5
3. 전자오락실		1-----2-----3-----4-----5	1-----2-----3-----4-----5
4. 성인오락실		1-----2-----3-----4-----5	1-----2-----3-----4-----5
5. 랑구장		1-----2-----3-----4-----5	1-----2-----3-----4-----5
6. 불리스케이트장		1-----2-----3-----4-----5	1-----2-----3-----4-----5
7. 너스코장		1-----2-----3-----4-----5	1-----2-----3-----4-----5
8. 성인디스크로장		1-----2-----3-----4-----5	1-----2-----3-----4-----5
9. 퇴페이반소		1-----2-----3-----4-----5	1-----2-----3-----4-----5
10. 정향석집 (레스토랑)		1-----2-----3-----4-----5	1-----2-----3-----4-----5
11. 카페 (술도 파는 곳)		1-----2-----3-----4-----5	1-----2-----3-----4-----5
12. 일일샷집		1-----2-----3-----4-----5	1-----2-----3-----4-----5
13. DJ있는 커피숍		1-----2-----3-----4-----5	1-----2-----3-----4-----5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가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4. 포장마차	1-2-3-4-5	1-2-3-4-5
15. 음악감상실	1-2-3-4-5	1-2-3-4-5
16. 만화가게	1-2-3-4-5	1-2-3-4-5
17. 심야만화가게	1-2-3-4-5	1-2-3-4-5
18. 사설독서실	1-2-3-4-5	1-2-3-4-5
19. 제과점	1-2-3-4-5	1-2-3-4-5
20. 분식점	1-2-3-4-5	1-2-3-4-5
21.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등)	1-2-3-4-5	1-2-3-4-5
22. 비디오가게	1-2-3-4-5	1-2-3-4-5
23. 임시 및 각종학원	1-2-3-4-5	1-2-3-4-5
24. 성 도구나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1-2-3-4-5	1-2-3-4-5
25. 문방구	1-2-3-4-5	1-2-3-4-5
26. 사창가	1-2-3-4-5	1-2-3-4-5
27. 유흥가	1-2-3-4-5	1-2-3-4-5
28. 소극장	1-2-3-4-5	1-2-3-4-5

Ⅱ.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이용 정도〉	〈생각 정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이용해 1-2회 1-2회 1-2회 1-2회 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있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불량장난감	1-2-3-4-5	1-2-3-4-5
2. 불량학용품	1-2-3-4-5	1-2-3-4-5
3. 담배자판기 (본인의 흡연을 위한 이용)	1-2-3-4-5	1-2-3-4-5
4. 불량식품	1-2-3-4-5	1-2-3-4-5
5.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1-2-3-4-5	1-2-3-4-5
6.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	1-2-3-4-5	1-2-3-4-5
7. 안정제, 수면제 등 각성제	1-2-3-4-5	1-2-3-4-5
8. 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	1-2-3-4-5	1-2-3-4-5
9. 잠장인	1-2-3-4-5	1-2-3-4-5
10. 인기인사전	1-2-3-4-5	1-2-3-4-5

Ⅲ. 다음과 같은 대중매체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보았으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접촉 정도〉	〈생각 정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집 해 1-2회 1-2회 1-2회 1-2회 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있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1. TV		
1) 쇼·코메디 프로	1-2-3-4-5	1-2-3-4-5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걸쳐 1-2회 1-2회 1-2회 1-2회 분 적 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불해롭다 아 주 이롭다 아 나 해롭다
2) 연속극 및 수사물	1-1-2-2-3-4-5	1-2-3-4-5
3)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1-1-2-3-4-5	1-2-3-4-5
4) 외국영화 및 연속물	1-1-2-3-4-5	1-2-3-4-5
5) 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1-1-2-3-4-5	1-2-3-4-5
6) 만화영화	1-1-2-3-4-5	1-2-3-4-5
7) AFKN (비군방송)	1-1-2-3-4-5	1-2-3-4-5
8) 일본방송	1-1-2-3-4-5	1-2-3-4-5
9) 유선방송	1-1-2-3-4-5	1-2-3-4-5
2. 신문, 잡지, 소설		
1) 각종 스포츠 신문	1-1-2-3-4-5	1-2-3-4-5
2) 주부생활 등 여성월간지	1-1-2-3-4-5	1-2-3-4-5
3) 여학생, 하이틴 등 청소년월간지	1-1-2-3-4-5	1-2-3-4-5
4)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등 일반주간지	1-1-2-3-4-5	1-2-3-4-5
5) 건강다이제스트, 명당 등 월간오락지	1-1-2-3-4-5	1-2-3-4-5
6) 실화, 추적 등 사건 및 야담잡지	1-1-2-3-4-5	1-2-3-4-5
7) 외국음란 잡지	1-1-2-3-4-5	1-2-3-4-5
8) 성인만화	1-1-2-3-4-5	1-2-3-4-5
9) 어린이 월간지(소년중앙 등)	1-1-2-3-4-5	1-2-3-4-5

10) 기타 음란잡지 및 소설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접 해 1-2회 1-2회 1-2회 1-2회 문 적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3. 광 고		
1) TV광고	1 2 3 4 5	1 2 3 4 5
2) 라디오광고	1 2 3 4 5	1 2 3 4 5
3) 신문광고	1 2 3 4 5	1 2 3 4 5
4) 잡지광고	1 2 3 4 5	1 2 3 4 5
5) 옥화광고(길거리광고)	1 2 3 4 5	1 2 3 4 5
4. 비디오 테이프 및 성인영화		
1) 음란 비디오테이프	1 2 3 4 5	1 2 3 4 5
2) 미성년자 관람불가 성인영화	1 2 3 4 5	1 2 3 4 5
3) 폭력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1 2 3 4 5	1 2 3 4 5

IV. 아래의 행동들을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했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는 학생만 응답).

	〈경 험 정 도〉	〈생 각 정 도〉
	일주일 한 달 두세달 1년에 해 본 1-2회 1-2회 1-2회 1-2회 적 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 1. 켜	1 2 3 4 5	1 2 3 4 5
2. 야간 배회	1 2 3 4 5	1 2 3 4 5

	인주인한 달 두세달 1년에 해 본 1-2회 1-2회 1-2회 적 이 이 상 정 도 정 도 정 도 없 다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3. 무단 결석 (무단 결근)-----	1-----2-----3-----4-----5	1-----2-----3-----4-----5			
4. 도 박-----	1-----2-----3-----4-----5	1-----2-----3-----4-----5			
5. 절 도-----	1-----2-----3-----4-----5	1-----2-----3-----4-----5			
6. 집단 폐싸움-----	1-----2-----3-----4-----5	1-----2-----3-----4-----5			
7. 흥기소지-----	1-----2-----3-----4-----5	1-----2-----3-----4-----5			
8. 흡 연-----	1-----2-----3-----4-----5	1-----2-----3-----4-----5			
9. 음 주-----	1-----2-----3-----4-----5	1-----2-----3-----4-----5			
10. 위 협-----	1-----2-----3-----4-----5	1-----2-----3-----4-----5			
11. 복 행-----	1-----2-----3-----4-----5	1-----2-----3-----4-----5			
12. 가 출-----	1-----2-----3-----4-----5	1-----2-----3-----4-----5			
1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2-----3-----4-----5	1-----2-----3-----4-----5			
14. 반항 (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	1-----2-----3-----4-----5	1-----2-----3-----4-----5			
15. 음란낙서-----	1-----2-----3-----4-----5	1-----2-----3-----4-----5			
16. 이성과 성관계-----	1-----2-----3-----4-----5	1-----2-----3-----4-----5			
17. 가벼운 성추행-----	1-----2-----3-----4-----5	1-----2-----3-----4-----5			
18. 성폭행-----	1-----2-----3-----4-----5	1-----2-----3-----4-----5			

19. 가벼운 성추행을 당한 경험 이 있습니까?1) 있 다 2) 없 다
20. 성폭행을 당한 경험 이 있습니까?1) 있 다 2) 없 다

V.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려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해당 되는지 맞는 번호에 ○표 하시오 (*는 학생만 응답).

	(생 각 정 도)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정도>				
	아 주 어 렵 다	어 리 스 다	보 통 이 다	해 롭 다	아 주 해 롭 다	아 주 어 렵 다	어 리 스 다	보 통 이 다	해 롭 다	아 주 해 롭 다
1. 가 정										
1) 식구들의 잦은 음주·흡연	1	2	3	4	5	1	2	3	4	5
2) 부모님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1	2	3	4	5	1	2	3	4	5
3) 식구들의 잦은 싸움	1	2	3	4	5	1	2	3	4	5
4)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1	2	3	4	5	1	2	3	4	5
5) 식구들의 지나친 폭행	1	2	3	4	5	1	2	3	4	5
6) 식구들의 무관심	1	2	3	4	5	1	2	3	4	5
2. 학교 (직장)										
1) 학교(직장)의 부족하거나 낡은 시설	1	2	3	4	5	1	2	3	4	5
2)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간 (근로시간)	1	2	3	4	5	1	2	3	4	5
3) 선생님 (상사)의 지나친 간섭	1	2	3	4	5	1	2	3	4	5
4) 선생님 (상사)의 지나친 차별	1	2	3	4	5	1	2	3	4	5
5) 선배나 친구의 강요	1	2	3	4	5	1	2	3	4	5
6) 친구들간의 경쟁	1	2	3	4	5	1	2	3	4	5
7) 학교 (직장) 주변 폭력배	1	2	3	4	5	1	2	3	4	5
*8) 자율학습	1	2	3	4	5	1	2	3	4	5

	아 주 이롭다 보 통 해롭다 아 주 이롭다 이 다 해롭다	많 이 조 금 그 지 별 상 전 히 해 당 해 당 관 이 상 관 된 다 된 다 없 다 없 다
* 9) 잦은 시험 및 임시위주 교육	1-1-2-2-3-4-5	1-1-2-2-3-4-5
* 10) 여러가지 학원다니기	1-1-2-2-3-4-5	1-1-2-2-3-4-5
3. 사 회		
1) 황금만능주의 사회풍조	1-1-2-2-3-4-5	1-1-2-2-3-4-5
2) 정치불안	1-1-2-2-3-4-5	1-1-2-2-3-4-5
3) 물가 폭등 등 사회혼란	1-1-2-2-3-4-5	1-1-2-2-3-4-5
4) 테 모	1-1-2-2-3-4-5	1-1-2-2-3-4-5
5) 유흥가 불량배	1-1-2-2-3-4-5	1-1-2-2-3-4-5
6) 민생치안 부재	1-1-2-2-3-4-5	1-1-2-2-3-4-5
7) 파소비 풍조	1-1-2-2-3-4-5	1-1-2-2-3-4-5
4. 기 타		
1) 장난전화	1-1-2-2-3-4-5	1-1-2-2-3-4-5
2) 어른들의 술주정	1-1-2-2-3-4-5	1-1-2-2-3-4-5
3) 청소년의 화려한 복장	1-1-2-2-3-4-5	1-1-2-2-3-4-5
4) 유행어 (홍비워주의)	1-1-2-2-3-4-5	1-1-2-2-3-4-5

VI.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씩만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이 유해환경을 접할 때나 유해행위를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간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지나치다.
- 2) 지나치다
- 3) 보통이다.
- 4) 무관심하다.
- 5) 너무 무관심하다.

2. 여러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재 정부와 사회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스럽다.
- 5) 매우 불만스럽다.

3.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가 정 2) 학 교 3) 살고있는 동네
- 4) 일반어른의 세계 및 사회 5) 기 타 _____

4. 여러분이 유해한 환경을 접하거나 유해행위를 했을 때 제일 간섭을 많이하는 사람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한명씩만 고르시오.

- 1) 간섭하는 사람 _____ 번
- 2)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_____ 번

(보 기)	(보 기)
(1) 부모님	(2) 선생님
(3) 친척 및 친지	(4) 동네어른
(5) 낯선어른	(6) 친구 및 동료
(7) 선배 및 후배	(8) 경 찰
(9) 없 음	(10) 기 타

5.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해한 환경 (업소, 장소, 물품 등 ...)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하나만 고르시오.

- 1) 각종 법적인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2) 카페나 비디오 제작 등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 동네어른이나 지역주민이 유해환경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 4) 어른들이 청소년의 환경이나 행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 5) 학교선생님들이 학교주변의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Ⅶ. 다음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화실히 대체로 그 저 별로그 전혀그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들은 발생꾸러기가 많아서 어울리다보면 나도 발췌을 일으키게 된다	1-----2-----3-----4-----5	
2. 정직하고 고지식하게 사는 것 보다 약게 사는 것이 더 좋다.	1-----2-----3-----4-----5	
3. 조용하고 겸손게 노는 것보다 스릴있고 화끈하게 노는 것이 더 좋다.	1-----2-----3-----4-----5	
4.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바움대로 살고 싶다.	1-----2-----3-----4-----5	
5. 좋은 성적(근무실적)을 얻는 것은 내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1-----2-----3-----4-----5	
6. 친한 친구중 학교(직장)에서 처벌받거나 경찰에 간 친구가 있다.	1-----2-----3-----4-----5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1-----2-----3-----4-----5	
8. 부모님은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꾸짖으신다.	1-----2-----3-----4-----5	
9.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1-----2-----3-----4-----5	
10. 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경을 쓰는 편이다.	1-----2-----3-----4-----5	
11. 선생님(직장상사)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1-----2-----3-----4-----5	
12. 학교(직장)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나는 학교(직장)생활에 만족한다.	1-----2-----3-----4-----5	
13. 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친구와 같이 의논하는 편이다.	1-----2-----3-----4-----5	
14. 학교(직장)가 끝난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낸다.	1-----2-----3-----4-----5	
15.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1-----2-----3-----4-----5	
16. 복력만 좋으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1-----2-----3-----4-----5	

Ⅷ. 다음은 여러 가지의 일반적의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자
남(1)
$$Z(\phi)$$

2. 당신의 지금 나이누? (만)

3. 功を成すに於ては？

1) 근로청소원

2) 중화생

3) 인문계 고등학교

4) 실업계 고등학교생

4. 지금까지 주로 자란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
을

2) 직할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3) 도청소재지

4) 기타시

5) 음·변 소재지

(9) 吳・李・張氏

7) 5) 11)

5. 탕신 가정의 한달 총수입은?

1) 20만 원 미만

2) 20-30만원

3) 30-50만원

50-7040 (P)

5) 70-100만원

6) 100-130만원

7) 130만원 이상

[illegible]

1) 아버지

五

2) $\phi|_{\mathcal{M}} \neq 1$

五

(1) 중학교나 국민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

7.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아버지 _____ 번 2) 어머니 _____ 번

(보	기)
(1) 농림어업자 (농업, 어업, 양업, 축산, 수산양식, 원예)	
(2) 자영업 (상점, 음식점, 공장, 운송업 등에서 종업원 9인 이하의 경영자)	
(3) 판매·서비스 (상점, 음식점 등의 종업원, 이발소·미장원 종업원, 스튜디어스, 가정부)	
(4) 기능직·작업직 (공원, 기계조작원, 목공, 운전기사, 간추공사 작업원 등)	
(5) 사무직·기술직 (사무·기술관계 사원, 조종사, 항해사, 교사, 보조, 간호원, 군인, 경찰 등)	
(6) 관리직·경영자 (회사, 은행의 부장급 이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 10-49인의 기업 경영자)	
(7)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목사 등)	
(8) 주 부	
(9) 직업이 없는 사람	

8. 당신의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2)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 3) 중간 정도이다.
4)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다.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9. 당신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1) 자기집 2) 전세집 3) 전세방
4) 월세방 5) 친척집 6) 가족사
7) 하 숙 8) 자 취

10.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위는 어떤 곳입니까?

- | | | |
|------------------|----------------|--------------------|
| 1) 상업이나 점포가 많은 곳 | 2) 논이나 밭이 많은 곳 | 3) 아파트 단지 |
| 4) 일반주택이 많은 곳 | 5) 공장이 모여 있는 곳 | 6)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곳 |

11. 당신의 가족구조는?

- | | | |
|--------------------------------|-------------------|--------------|
| 1) 어머니 + 아버지 + 자녀 | 2) 아버지 + 자녀 | 3) 어머니 + 자녀 |
| 4) 할아버지나 할머니 + 부모 + 자녀 | 5) 할아버지나 할머니 + 자녀 | 6) 형, 오빠, 동생 |
| 7) 누나, 언니, 동생 | 8) 혼자 있음 | |
| 9) 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직접 쓰시오. _____ | | |

* 다음 질문은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의 학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상위권이다. | 2) 중위권이다. | 3) 하위권이다. |
|-----------|-----------|-----------|

* 다음 질문은 근로청소년만 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느정도 규모입니까?

- | | | |
|--------------------|------------------|-------------------|
| 1) 종업원 9인 미만 | 2) 종업원 10-49인 정도 | 3) 종업원 50-100인 정도 |
| 4) 종업원 100-300인 정도 | 5) 종업원 300인 이상 | |

2.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 | |
|-----------|-----------|----------|-----------|
| 1) 제조업 | 2) 건설업 | 3) 도·소매업 | 4) 음식·숙박업 |
| 5) 운수·창고업 | 6) 금융·보험업 | 7) 서비스업 | |

수고하셨습니다.

(Ⅲ) 부 록 표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공원

〈부록표 Ⅲ-1-1〉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7.8	16.9	18.0	37.2	19.7	.4	80.0	17.8	29.4	47.3	2.7	1.9	.9	4.6
국 민 학 생															
남	(496)	12.3	19.8	18.3	32.5	16.7	.4	89.9	24.2	35.1	36.3	1.6	.8	2.0	2.4
여	(486)	10.9	18.7	21.0	34.0	15.4	.0	84.6	18.5	32.5	46.3	1.4	1.2	.0	2.5
소 계	(982)	11.6	19.2	19.7	33.2	16.1	.2	83.7	21.4	33.8	41.2	1.5	1.0	1.0	2.5
중 학 생															
남	(763)	8.3	13.6	17.3	35.3	25.4	.1	74.4	19.5	32.1	40.8	3.9	2.9	.8	6.8
여	(829)	5.1	11.7	13.3	43.3	26.1	.6	73.3	12.9	21.7	56.3	5.2	2.8	1.1	8.0
소 계	(1592)	6.6	12.6	15.2	39.4	25.8	.4	73.9	16.1	26.7	48.9	4.6	2.8	.9	7.4
고 등 학 생															
남	(696)	6.9	18.7	17.4	39.7	17.1	.3	82.6	15.8	31.8	47.6	2.3	1.7	.9	4.0
여	(701)	3.1	10.0	12.6	43.4	30.8	.1	69.0	10.7	26.0	58.6	3.1	1.3	.3	4.4
소 계	(1397)	5.0	14.3	15.0	41.5	24.0	.2	75.8	13.2	28.8	53.1	2.7	1.5	.6	4.2
근로청소년															
남	(334)	13.8	26.3	24.9	24.9	10.2	.0	89.8	20.4	28.4	46.7	.6	2.4	1.5	3.0
여	(660)	8.0	24.5	25.5	35.0	5.9	1.1	93.0	25.3	31.1	40.2	.9	1.2	1.4	2.1
소 계	(994)	10.0	25.2	25.3	31.6	7.3	.7	92.0	23.6	30.2	42.4	.8	1.6	1.4	2.4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음악감상실

〈부록표 Ⅲ-1-2〉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3983)	3.3	5.8	8.0	17.6	64.5	.8	34.7	22.2	39.5	29.6	2.7	3.8	2.1	6.5
중 학 생															
남	(763)	2.0	3.4	5.5	13.8	74.8	.5	24.6	24.8	38.1	27.5	3.0	4.7	1.8	7.7
여	(829)	2.4	1.9	2.2	14.6	77.9	1.0	21.1	18.8	34.9	35.5	2.9	6.0	1.9	8.9
소 계	(1592)	2.2	2.6	3.8	14.2	76.4	.8	22.8	21.7	36.4	31.7	3.0	5.4	1.9	8.4
고 등 학 생															
남	(696)	3.2	3.7	6.8	13.2	72.7	.4	26.9	25.3	38.1	29.3	3.0	2.9	1.4	5.9
여	(701)	.9	2.9	3.6	14.3	77.5	.4	22.1	18.1	45.2	30.0	2.3	3.0	1.4	5.3
소 계	(1397)	2.0	3.3	5.2	14.0	75.1	.4	24.5	21.7	41.7	29.6	2.6	2.9	1.4	5.5
근로청소년															
남	(334)	6.9	10.5	16.5	20.4	44.0	1.8	54.2	25.7	39.8	24.3	2.1	4.2	3.9	6.3
여	(660)	6.8	16.2	20.2	32.1	23.5	1.2	75.3	23.0	42.1	27.3	2.6	1.8	3.2	4.4
소 계	(994)	6.8	14.3	18.9	28.2	30.4	1.4	68.2	23.9	41.3	26.3	2.4	2.6	3.4	5.0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시설특시설

〈부록표 Ⅲ-1-3〉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4.8	8.6	11.9	21.2	51.8	1.7	26.4	16.6	27.0	37.4	7.2	8.6	3.2	15.8
국 민 학 생															
남	(496)	5.2	5.8	9.9	13.9	63.1	2.0	34.9	34.3	25.4	23.0	4.6	8.9	3.8	13.5
여	(486)	3.7	8.8	8.8	15.4	61.7	1.4	36.8	28.2	25.9	31.9	3.3	8.4	2.3	11.7
소 계	(982)	4.5	7.3	9.4	14.7	62.4	1.7	35.8	31.3	25.7	27.4	4.0	8.7	3.1	12.7
중 학 생															
남	(763)	3.5	10.6	14.0	14.9	55.2	1.7	43.1	14.5	27.0	34.2	8.7	12.5	3.1	21.2
여	(829)	2.8	6.4	7.7	17.2	63.8	2.1	34.1	8.2	19.3	43.2	12.2	13.3	3.9	25.5
소 계	(1592)	3.1	8.4	10.7	16.1	59.7	1.9	38.4	11.2	23.0	38.9	10.5	12.9	3.5	23.4
고 등 학 생															
남	(696)	8.9	12.2	16.4	25.6	35.9	1.0	63.1	16.1	35.2	36.5	5.5	5.0	1.7	10.5
여	(701)	4.4	9.0	12.7	26.4	46.4	1.1	52.5	8.0	29.8	47.5	6.6	6.3	1.9	12.9
소 계	(1397)	6.7	10.6	14.5	26.0	41.2	1.1	57.8	12.0	32.5	42.0	6.0	5.7	1.8	11.7
근로청소년															
남	(334)	5.4	8.1	18.6	26.0	40.4	1.5	58.1	22.5	21.9	39.8	6.9	5.7	3.3	12.6
여	(660)	5.0	7.1	9.7	30.5	45.2	2.6	52.3	14.4	29.5	38.0	6.5	5.6	5.9	12.1
소 계	(994)	5.1	7.4	12.7	29.0	43.6	2.2	54.2	17.1	27.0	38.6	6.6	5.6	5.0	12.1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제과점

〈부록표 Ⅲ-1-4〉

부 록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12.2	25.3	27.9	25.7	8.2	.7	91.1	10.5	33.2	52.5	1.3	.9	1.6	2.2
국 민 학 생															
남	(496)	24.4	27.8	21.0	17.3	8.1	1.4	90.1	8.7	24.4	61.1	2.0	1.4	2.4	3.4
여	(486)	16.5	31.9	24.5	17.9	7.6	1.6	90.7	5.8	24.7	64.8	1.2	1.4	2.1	2.6
소 계	(982)	20.5	29.8	22.7	17.6	7.8	1.5	90.6	7.2	24.5	62.9	1.6	1.4	2.2	3.0
중 학 생															
남	(763)	13.9	23.3	25.0	25.0	12.3	.4	87.3	11.3	34.5	50.3	1.3	1.3	1.3	2.6
여	(829)	13.1	22.8	25.2	27.9	10.5	.5	89.0	11.2	31.5	53.3	1.7	.8	1.4	2.5
소 계	(1592)	13.5	23.1	25.1	26.5	11.4	.4	88.2	11.2	32.9	51.9	1.5	1.1	1.4	2.6
고 등 학 생															
남	(696)	6.0	26.0	30.6	27.3	9.5	.6	89.9	11.5	38.6	47.7	1.0	.3	.9	1.3
여	(701)	9.0	23.7	30.2	31.1	5.7	.3	94.0	10.4	37.1	49.9	1.0	.7	.9	1.7
소 계	(1397)	7.5	24.8	30.4	29.2	7.6	.4	92.0	11.0	37.9	48.8	1.0	.5	.9	1.5
근로청소년															
남	(334)	11.1	24.9	31.7	24.6	6.9	.9	92.2	12.6	36.5	46.4	1.8	.3	2.4	2.1
여	(660)	7.4	24.8	34.8	29.1	2.9	.9	96.2	11.5	35.0	49.4	.9	.6	2.6	1.5
소 계	(994)	8.7	24.8	33.8	27.6	4.2	.9	94.9	11.9	35.5	48.4	1.2	.5	2.5	1.7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분석점

〈부록표 Ⅲ-1-5〉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23.4	30.9	24.0	14.2	6.6	.9	92.5	12.1	30.2	50.8	4.0	1.2	1.7	5.2
남	(496)	20.6	24.8	24.0	16.5	12.3	1.8	85.9	4.4	16.3	60.7	13.3	2.4	2.8	15.7
여	(486)	17.3	28.8	24.1	19.8	8.8	1.2	89.9	4.3	12.6	69.8	9.3	2.7	1.4	12.0
소 계	(982)	18.9	26.8	24.0	18.1	10.6	1.5	87.9	4.4	14.5	65.2	11.3	2.5	2.1	13.8
중 학 생															
남	(763)	17.4	27.3	25.7	18.3	10.9	.4	88.7	11.3	27.8	54.4	3.7	1.8	1.0	5.5
여	(829)	24.5	25.3	25.1	17.4	6.8	1.0	92.3	10.4	28.0	55.9	3.0	1.0	1.8	4.0
소 계	(1592)	21.1	26.3	25.4	17.8	8.7	.7	90.6	10.8	27.9	55.2	3.3	1.4	1.4	4.7
고 등 학 생															
남	(696)	19.5	36.4	26.1	12.5	4.9	.6	94.5	13.6	40.7	42.4	1.6	.4	1.3	2.0
여	(701)	34.0	32.0	21.1	9.7	3.0	.3	96.7	18.0	38.5	41.2	.7	.6	1.0	1.3
소 계	(1397)	26.8	34.1	23.6	11.1	3.9	.4	95.6	15.8	39.6	41.8	1.1	.5	1.1	1.6
근로청소년															
남	(334)	24.9	33.8	23.1	12.0	4.8	1.5	93.7	16.2	34.1	44.0	2.4	.3	3.0	2.7
여	(660)	27.7	40.0	22.1	7.3	2.0	.9	97.1	16.8	37.4	41.1	1.8	.6	2.3	2.4
소 계	(994)	26.8	37.9	22.4	8.9	2.9	1.1	96.0	16.6	36.3	42.1	2.0	.5	2.5	2.5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패스트푸드

〈부록표 Ⅲ-1-6〉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6.8	16.7	21.0	25.3	29.2	1.0	69.8	7.5	21.7	60.5	4.3	3.8	2.2	8.2
남	(496)	5.8	16.9	18.5	23.6	33.3	1.8	64.9	4.8	14.3	64.7	7.5	5.8	2.8	14.3
여	(486)	5.1	16.3	21.0	25.9	30.7	1.0	68.3	2.7	14.2	68.7	6.8	5.1	2.5	11.9
소 계	(982)	5.5	16.6	19.8	24.7	32.0	1.4	66.6	3.8	14.3	66.7	7.1	5.5	2.6	12.6
중 학 생															
남	(763)	6.6	13.2	18.3	24.6	36.4	.8	62.8	7.9	20.7	59.4	4.5	5.8	1.8	10.3
여	(829)	8.2	15.7	21.6	26.3	27.7	.5	71.8	6.8	22.7	60.6	4.2	4.1	1.7	8.3
소 계	(1592)	7.4	14.5	20.0	25.5	31.9	.6	67.5	7.3	21.7	60.0	4.3	4.9	1.8	9.2
고 등 학 생															
남	(696)	4.2	17.0	23.4	27.0	27.9	.6	71.6	9.2	27.6	55.9	2.7	3.0	1.6	5.7
여	(701)	7.8	20.3	19.0	25.7	26.7	.6	72.8	9.6	26.1	58.2	3.3	1.3	1.6	4.6
소 계	(1397)	6.0	18.6	21.2	26.3	27.3	.6	72.2	9.4	26.8	57.1	3.0	2.1	1.6	5.1
근로청소년															
남	(334)	8.1	16.8	21.9	24.9	27.2	1.2	71.6	10.2	21.0	59.6	3.9	2.7	2.7	6.6
여	(660)	8.2	18.3	24.1	23.9	23.5	2.0	74.5	8.5	22.4	60.0	2.9	2.7	3.5	5.6
소 계	(994)	8.1	17.8	23.3	24.2	24.7	1.7	73.5	9.1	21.9	59.9	3.2	2.7	3.2	5.9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입시 및 각종학원

〈부록표 Ⅲ-1-7〉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 민 학 생	계 (4965)	26.3	5.4	6.2	23.7	36.6	1.8	61.6	21.1	34.3	32.2	3.9	5.3	3.1	9.2
	남 (496)	54.2	4.2	5.6	13.5	20.2	2.2	77.6	40.7	34.5	15.3	3.4	2.8	3.2	6.2
	여 (486)	58.8	4.7	3.9	10.3	19.8	2.5	77.8	34.8	34.4	22.8	1.6	4.5	1.9	6.1
소 중 학 생	계 (982)	56.5	4.5	4.8	11.9	20.0	2.3	77.7	37.8	34.4	19.0	2.5	3.7	2.5	6.2
	남 (763)	23.1	5.6	5.9	21.0	43.6	.8	55.6	17.4	35.1	32.5	4.6	8.0	2.4	12.6
	여 (829)	19.7	6.8	4.2	27.4	40.9	1.1	58.0	12.4	30.9	41.4	6.2	6.9	2.3	13.1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21.3	6.2	5.0	24.3	42.2	.9	56.8	14.8	32.9	37.1	5.4	7.4	2.3	12.8
	남 (696)	16.4	5.2	9.2	31.3	36.9	1.0	62.1	20.7	32.6	35.9	3.7	5.3	1.7	9.0
	여 (701)	27.8	6.6	9.6	32.7	22.4	1.0	76.6	13.8	42.4	36.7	3.3	2.3	1.6	5.6
소 근 로 청 소 년	계 (1397)	22.1	5.9	9.4	32.0	29.6	1.0	69.4	17.3	37.5	36.3	3.5	3.8	1.6	7.3
	남 (334)	9.6	4.5	6.3	18.3	58.4	3.0	38.6	20.4	27.5	34.7	4.5	7.2	5.7	11.7
	여 (660)	10.8	3.9	4.5	24.7	51.7	4.4	43.9	20.2	34.4	29.8	3.2	5.0	7.4	8.2
소 계	(994)	10.4	4.1	5.1	22.5	53.9	3.9	42.2	20.2	32.1	31.5	3.6	5.7	6.8	9.3

시설 및 장소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문방구

〈부록표 Ⅲ-1-8〉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가본적 없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 민 학 생	계 (4965)	66.8	19.6	7.0	3.6	2.3	.7	97.1	37.6	37.2	21.2	1.1	1.4	1.5	2.5
	남 (496)	84.5	8.1	2.2	2.8	1.8	.6	97.6	37.7	37.5	20.8	1.6	1.2	1.2	2.8
소 증 학 생	여 (486)	85.4	8.6	1.9	2.3	1.4	.4	98.1	43.0	29.4	24.9	1.0	1.0	.6	2.0
	계 (982)	84.9	8.4	2.0	2.5	1.6	.5	97.9	40.3	33.5	22.8	1.3	1.1	.9	2.4
중 학 생	남 (763)	71.2	18.5	4.5	2.1	3.1	.7	96.2	37.6	37.4	19.8	1.4	2.4	1.4	3.8
	여 (829)	84.7	8.8	2.3	2.4	1.2	.6	98.2	36.2	42.0	19.3	.5	.5	1.6	1.0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78.2	13.4	3.3	2.3	2.1	.6	97.2	36.9	39.8	19.5	.9	1.4	1.5	2.3
	남 (696)	56.2	29.9	9.3	2.0	2.2	.4	97.4	38.1	36.5	21.7	1.0	1.6	1.1	2.6
소 근 로 청 소 년	여 (701)	74.0	19.3	3.3	1.0	1.7	.7	97.6	40.7	36.4	20.8	.6	.9	.7	1.5
	계 (1397)	65.1	24.6	6.3	1.5	1.9	.6	97.5	39.4	36.4	21.3	.8	1.2	.9	2.0
남 여	(334)	34.7	32.9	19.2	9.0	3.0	1.2	95.8	31.4	34.7	27.2	2.4	1.8	2.4	4.2
	(660)	32.0	34.1	18.8	10.5	3.8	.9	95.3	34.8	39.2	19.8	1.1	2.1	2.9	3.2
소 계	(994)	32.9	33.7	18.9	10.0	3.5	1.0	95.5	33.7	37.7	22.3	1.5	2.0	2.7	3.5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불량장난감

〈부록표 Ⅲ-2-1〉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비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1.8	2.6	4.3	20.1	70.6	.6	28.7	.7	1.2	11.5	35.7	49.1	1.8	84.9
국 민 학 생															
남	(496)	5.2	7.9	11.5	30.4	44.0	1.0	55.0	1.0	1.4	9.5	38.3	48.4	1.4	86.7
여	(486)	1.9	3.9	4.9	20.8	68.5	.0	31.5	.4	.4	7.2	34.8	57.0	.2	91.8
소 계	(982)	3.6	5.9	8.2	25.7	56.1	.5	43.4	.7	.9	8.4	36.6	52.6	.8	89.2
중 학 생															
남	(763)	2.2	3.9	7.3	31.8	54.3	.4	45.3	1.2	2.4	19.7	36.4	38.7	1.7	75.1
여	(829)	.8	1.2	1.3	11.6	84.3	.7	15.0	.2	.2	.4	32.6	58.3	1.2	90.9
소 계	(1592)	1.5	2.5	4.2	21.3	69.9	.6	29.5	.7	1.3	13.3	34.4	48.9	1.4	83.3
고 등 학 생															
남	(696)	2.0	1.9	3.3	26.9	65.8	.1	34.1	1.1	2.3	16.5	42.8	36.2	1.0	79.0
여	(701)	.1	.6	1.4	13.0	84.6	.3	15.1	.0	.6	8.7	39.7	49.8	1.3	89.5
소 계	(1397)	1.1	1.2	2.4	19.9	75.2	.2	24.6	.6	1.4	12.6	41.2	43.0	1.1	84.2
근로청소년															
남	(334)	2.7	2.1	7.2	20.7	66.8	.6	32.6	1.5	2.4	19.5	32.3	41.9	2.4	74.2
여	(660)	1.1	.8	1.4	8.8	86.1	2.0	12.0	.6	.6	5.8	27.3	60.8	5.0	88.1
소 계	(994)	1.6	1.2	3.3	12.8	79.6	1.5	18.9	.9	1.2	10.4	29.0	54.4	4.1	83.4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평가-불량학용품

〈부록표 Ⅲ-2-2〉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비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1.7	3.8	9.1	29.7	54.7	.9	44.3	.7	.6	8.1	38.2	50.2	2.0	88.5
국 민 학 생															
남	(496)	3.6	7.5	12.5	25.0	50.2	1.2	48.6	.8	.6	6.9	36.1	53.2	2.4	89.3
여	(486)	2.7	4.7	7.2	29.0	56.2	.2	43.6	.6	1.2	6.6	30.7	60.5	.4	91.2
소 계	(982)	3.2	6.1	9.9	27.0	53.2	.7	46.1	.7	.9	6.7	33.4	56.8	1.4	90.2
중 학 생															
남	(763)	1.8	5.0	9.3	27.1	56.2	.5	43.3	1.2	.9	10.9	38.9	46.5	1.6	85.4
여	(829)	1.4	2.9	7.0	26.1	61.6	1.0	37.4	.6	.1	5.1	38.0	54.8	1.4	92.8
소 계	(1592)	1.6	3.9	8.1	26.6	59.0	.8	40.2	.9	.5	7.9	38.4	50.8	1.5	89.2
고 등 학 생															
남	(696)	1.1	4.3	14.7	36.8	42.7	.4	56.9	1.0	1.0	11.5	43.4	42.0	1.1	85.4
여	(701)	.6	2.6	8.1	36.4	51.8	.6	47.6	.3	.1	8.7	43.7	45.9	1.3	89.6
소 계	(1397)	.9	3.4	11.4	36.6	47.2	.5	52.3	.6	.6	10.1	43.5	44.0	1.2	87.5
근로청소년															
남	(334)	2.7	3.3	10.8	30.8	51.2	1.2	47.6	1.5	1.2	13.2	38.6	42.2	3.3	80.8
여	(660)	1.1	1.4	4.7	25.9	64.4	2.6	33.0	.3	.5	3.9	33.5	56.7	5.2	90.2
소 계	(994)	1.6	2.0	6.7	27.6	60.0	2.1	37.9	.7	.7	7.0	35.2	51.8	4.5	87.0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불량식품

〈부록표 Ⅲ-2-3〉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6.5	8.5	13.7	31.5	37.9	1.9	60.2	.6	1.1	8.7	30.2	56.8	2.6	87.0
남	(496)	17.5	16.7	17.5	24.8	20.6	2.8	76.6	1.0	.4	8.1	33.5	54.4	2.6	87.9
여	(486)	15.0	12.1	16.7	33.7	21.2	1.2	77.6	.2	1.2	4.3	34.0	58.2	2.1	92.2
소 중 학 생	(982)	16.3	14.5	17.1	29.2	20.9	2.0	77.1	.6	.8	6.2	33.7	56.3	2.3	90.0
남	(763)	7.5	13.0	18.5	26.9	32.9	1.3	65.8	1.3	1.8	14.8	32.1	47.4	2.5	79.5
여	(829)	4.9	7.7	12.2	36.2	37.4	1.6	61.0	.1	.4	8.8	30.9	58.0	1.8	88.9
소 고 등 학 생	(1592)	6.2	10.2	15.2	31.7	35.2	1.4	63.3	.7	1.1	11.7	31.5	53.0	2.1	84.5
남	(696)	2.9	6.0	14.9	33.0	41.7	1.4	56.9	1.0	1.7	8.8	29.5	57.0	2.0	86.5
여	(701)	3.0	4.0	10.3	38.8	42.7	1.3	56.1	.0	.4	8.0	33.1	57.1	1.4	90.2
소 근 토 청 소 년	(1397)	2.9	5.0	12.6	35.9	42.2	1.4	56.5	.5	1.1	8.4	31.3	57.1	1.7	88.4
남	(334)	3.9	7.5	13.2	24.3	47.9	3.3	48.8	1.8	2.7	11.4	27.5	52.4	4.2	79.9
여	(660)	1.7	3.3	7.7	28.5	55.6	3.2	41.0	.3	.8	4.5	20.8	68.3	5.3	89.1
소 계	(994)	2.4	4.7	9.6	27.1	53.0	3.2	43.8	.8	1.4	6.8	23.0	63.0	4.9	86.0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전자오락 및 컴퓨터 게임

〈부록표 Ⅲ-2-4〉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17.2	13.6	14.8	25.1	28.5	.9	70.6	3.6	9.8	48.8	18.4	17.4	1.8	35.8
남	(496)	28.2	14.7	17.3	20.6	17.5	1.6	80.8	3.0	5.2	47.6	22.4	19.2	2.6	41.6
여	(486)	8.6	8.2	10.7	27.8	43.6	1.0	55.3	.6	3.5	38.5	28.8	27.2	1.4	56.0
소 중 학 생	(982)	18.5	11.5	14.1	24.1	30.4	1.3	68.2	1.8	4.4	43.1	25.6	23.1	2.0	48.7
남	(763)	33.8	20.8	16.0	17.2	11.5	.7	87.8	6.7	13.5	53.3	15.6	9.6	1.3	25.2
여	(829)	9.3	8.1	13.0	29.7	39.1	.8	60.1	1.7	6.6	45.0	20.5	24.5	1.7	45.0
소 고 등 학 생	(1592)	21.0	14.2	14.4	23.7	25.9	.8	73.4	4.1	9.9	49.0	18.2	17.3	1.5	35.5
남	(696)	24.9	22.7	20.8	20.3	10.9	.4	88.7	5.5	15.9	56.6	14.1	7.2	.7	21.3
여	(701)	7.4	10.8	15.0	32.4	34.2	.1	65.6	2.6	12.1	56.1	16.1	12.1	1.0	28.2
소 근 토 청 소 년	(1397)	16.1	16.8	17.9	26.3	22.6	.3	77.1	4.0	14.0	56.3	15.1	9.7	.9	24.8
남	(334)	24.9	17.7	18.6	24.6	14.1	.3	85.6	6.6	11.4	55.7	15.6	9.0	1.8	24.6
여	(660)	4.1	6.2	8.5	27.3	51.7	2.3	46.1	3.0	8.2	37.6	17.1	29.8	4.2	46.9
소 계	(994)	11.1	10.1	11.9	26.4	39.0	1.6	59.4	4.2	9.3	43.7	16.6	22.8	3.4	39.4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잡상인

〈부록표 Ⅲ-2-5〉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만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 민 학 생	제 (4965)	1.5	3.5	7.5	28.2	57.9	1.6	46.6	.8	1.9	32.8	29.5	32.5	2.5	62.0
	남 (496)	3.0	1.8	5.4	17.5	70.6	1.6	27.8	1.8	.6	19.2	28.2	48.0	2.2	76.2
	여 (486)	2.7	3.3	5.3	24.1	63.4	1.2	35.4	.6	.6	22.4	26.1	48.1	2.1	74.2
소 중 학 생	계 (982)	2.9	2.5	5.4	20.8	67.0	1.4	31.6	1.2	.6	20.8	27.2	48.1	2.1	75.3
	남 (763)	1.6	4.3	7.5	26.5	58.6	1.6	39.8	.3	2.1	32.1	31.8	31.3	2.4	63.1
	여 (829)	.7	1.8	4.6	26.8	64.3	1.8	33.9	.5	.8	30.6	28.1	37.6	2.3	65.7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1.1	3.0	6.0	26.6	61.6	1.7	36.7	.4	1.4	31.3	29.9	34.6	2.3	64.5
	남 (696)	1.1	3.7	7.5	37.5	49.0	1.1	49.9	1.4	2.9	41.1	33.3	19.8	1.4	53.1
	여 (701)	1.3	4.0	8.7	35.1	49.9	1.0	49.1	.3	2.1	43.7	31.1	20.5	2.3	51.6
소 단 트 청 소 년	계 (1397)	1.2	3.9	8.1	36.3	49.5	1.1	49.5	.9	2.5	42.4	32.2	20.2	1.9	52.4
	남 (334)	1.5	6.0	14.7	28.7	47.9	1.2	50.9	.9	4.2	40.4	26.9	25.1	2.4	52.0
	여 (660)	.8	3.8	9.2	25.3	58.2	2.7	39.1	.9	2.7	30.0	27.9	33.8	4.7	61.7
소 스 제	(994)	1.0	4.5	11.1	26.5	54.7	2.2	43.1	.9	3.2	33.5	27.6	30.9	3.9	58.5

물품 이용경험 및 유해도 평가-인기인 사진

〈부록표 Ⅲ-2-6〉

구 분	사례수	이 용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이용안 해봤다	무응답	이용율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 민 학 생	채 (4965)	7.6	11.2	13.2	28.7	38.5	.8	60.7	3.1	7.2	58.9	14.5	14.8	1.4	29.3
	남 (496)	4.6	4.8	7.7	19.6	61.7	1.6	36.7	1.4	2.8	33.7	26.0	33.7	2.4	59.7
	여 (486)	2.3	4.9	6.6	28.6	57.0	.6	42.4	.4	.8	38.9	26.7	31.7	1.4	58.4
소 중 학 생	계 (982)	3.5	4.9	7.1	24.0	59.4	1.1	39.5	.9	1.8	36.3	26.4	32.7	1.9	59.1
	남 (763)	9.2	11.1	15.7	25.2	38.4	.4	61.2	3.1	8.1	62.6	12.3	12.5	1.3	24.7
	여 (829)	12.1	15.0	12.3	29.0	31.1	.6	68.3	4.5	8.1	62.5	13.4	10.9	.7	24.3
소 고 등 학 생	계 (1592)	10.7	13.1	13.9	27.1	34.6	.5	64.9	3.8	8.1	62.6	12.9	11.6	1.0	24.5
	남 (696)	8.0	15.1	15.4	32.0	28.9	.6	70.5	4.6	11.1	65.2	10.2	8.3	.6	18.5
	여 (701)	8.7	15.0	17.8	31.7	26.7	.1	73.2	2.3	9.3	72.8	10.0	5.6	.1	15.6
소 단 로 청 소 년	계 (1397)	8.4	15.0	16.6	31.9	27.8	.4	71.9	3.4	10.2	69.0	10.1	6.9	.4	17.0
	남 (334)	10.2	12.6	16.8	28.4	31.4	.6	68.0	6.6	9.0	63.5	8.1	11.1	1.8	19.2
	여 (660)	3.5	7.4	11.4	32.9	42.9	2.0	55.2	2.3	5.9	60.3	13.5	14.7	3.3	28.2
소	계 (994)	5.7	9.2	13.2	31.4	39.0	1.5	59.5	3.7	6.9	61.4	11.7	13.5	2.8	25.2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연속극 및 수사물

〈부록표 Ⅲ-3-1〉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56.6	24.1	8.1	5.2	5.5	.5	94.0	6.0	19.6	62.3	7.8	3.6	.8	11.4
남	(496)	51.0	26.6	8.7	6.5	6.0	1.2	92.7	3.4	14.3	62.7	12.3	5.2	2.0	17.5
여	(486)	50.0	26.5	10.3	7.4	5.8	.0	94.2	1.9	10.3	61.7	20.2	5.8	.2	26.0
소 계	(982)	50.5	26.6	9.5	6.9	5.9	.6	93.5	2.6	12.3	62.2	16.2	5.5	1.1	21.7
중 학 생															
남	(763)	61.1	20.7	5.2	4.8	7.9	.3	91.9	7.2	20.8	60.3	6.0	5.2	.4	11.2
여	(829)	63.6	16.9	7.2	4.9	6.3	1.1	92.6	4.8	12.8	69.2	8.1	4.0	1.1	12.1
소 계	(1592)	62.4	18.7	6.3	4.9	7.0	.7	92.3	6.0	16.6	64.9	7.1	4.6	.8	11.7
고 등 학 생															
남	(696)	53.0	29.9	10.2	3.9	2.7	.3	97.0	8.5	27.0	57.6	4.9	1.6	.4	6.5
여	(701)	64.2	21.8	7.8	2.4	3.7	.0	96.3	4.4	20.4	66.9	6.4	1.7	.1	8.1
소 계	(1397)	58.6	25.8	9.0	3.1	3.2	.1	96.6	6.4	23.7	62.3	5.7	1.6	.3	7.3
근로청소년															
남	(334)	42.2	35.3	9.6	6.3	6.6	.0	93.4	11.4	29.9	52.7	2.7	2.7	.6	6.4
여	(660)	54.8	24.1	7.7	7.3	5.3	.8	93.9	7.6	23.3	60.6	4.4	2.7	1.4	7.1
소 계	(994)	50.6	27.9	8.4	6.9	5.7	.5	93.8	8.9	25.6	57.9	3.8	2.7	1.1	6.5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 국내영화 및 미니시리즈

〈부록표 Ⅲ-3-2〉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35.2	30.3	17.2	10.4	6.2	.7	93.1	5.8	16.9	61.3	10.2	4.6	1.2	14.8
남	(496)	22.0	25.8	18.1	18.3	14.1	1.6	84.3	2.2	5.4	55.0	23.8	10.9	2.6	34.7
여	(486)	13.8	28.8	19.1	20.0	17.1	1.2	81.7	0.6	3.7	49.4	30.2	14.6	1.4	44.8
소 계	(982)	17.9	27.3	18.6	19.1	15.6	1.4	83.0	1.4	4.6	52.2	27.0	12.7	2.0	39.7
중 학 생															
남	(763)	38.9	31.7	14.4	8.0	6.4	.5	90.7	5.5	14.7	64.5	9.6	4.6	1.2	14.2
여	(829)	38.5	26.2	16.3	11.6	6.5	1.0	92.5	2.9	11.2	71.0	9.2	4.5	1.2	13.7
소 계	(1592)	38.7	28.8	15.4	9.9	6.5	.8	92.8	4.1	12.9	67.9	9.4	4.5	1.2	13.9
고 등 학 생															
남	(696)	37.8	31.9	18.7	9.6	1.7	.3	98.0	9.9	23.4	61.6	3.9	.9	.3	4.8
여	(701)	40.8	32.2	17.7	7.3	2.0	.0	98.0	4.4	20.3	67.9	5.7	1.3	.4	7.0
소 계	(1397)	39.3	32.1	18.2	8.4	1.9	.1	98.0	7.2	21.8	64.8	4.8	1.1	.4	5.9
근로청소년															
남	(334)	36.8	35.0	19.8	5.7	2.1	.6	97.3	12.3	28.4	53.3	3.0	2.1	.9	5.1
여	(660)	43.2	31.8	16.1	5.5	2.6	.9	96.5	10.5	28.3	55.5	2.3	1.2	2.3	3.5
소 계	(994)	41.0	32.9	17.3	5.5	2.4	.8	96.8	11.1	28.4	54.7	2.5	1.5	1.8	4.0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뉴스 등 기타 교양프로

〈부록표 Ⅲ-3-3〉

구 분	사레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불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69.5	14.6	7.8	4.4	2.6	1.2	96.3	43.8	34.7	17.2	1.2	1.3	1.7	2.5
국 민 학 생															
남	(496)	73.4	9.3	8.3	5.0	2.8	1.2	96.0	48.6	31.5	14.5	1.2	2.0	2.2	3.2
여	(486)	72.6	12.6	6.8	4.9	2.9	.2	96.9	46.5	30.5	19.8	.8	2.1	.4	2.9
소 계	(982)	73.0	10.9	7.5	5.0	2.9	.7	96.4	47.6	31.0	17.1	1.0	2.0	1.3	3.0
중 학 생															
남	(763)	70.8	13.9	6.4	4.3	3.0	1.6	95.4	46.3	31.8	16.6	2.0	1.4	1.8	3.4
여	(829)	68.3	16.2	6.4	4.9	2.8	1.4	95.8	39.3	37.0	18.9	1.2	1.7	1.8	2.9
소 계	(1592)	69.5	15.1	6.4	4.6	2.9	1.5	95.6	42.7	34.5	17.3	1.6	1.6	1.8	3.2
고 등 학 생															
남	(696)	72.6	13.8	8.5	2.9	1.4	.9	97.7	44.5	37.9	14.9	.7	.7	1.1	1.4
여	(701)	70.6	16.3	7.8	3.1	1.7	.4	97.9	40.7	39.9	17.0	.9	.7	.9	1.6
소 계	(1397)	71.6	15.0	8.2	3.0	1.6	.6	97.8	42.6	38.9	16.0	.8	.7	1.0	1.5
소 로 청 소 년															
남	(334)	60.5	18.6	10.8	6.3	2.4	1.5	96.1	39.8	32.9	21.0	1.8	1.8	2.7	3.6
여	(660)	64.2	15.9	9.2	5.0	3.6	2.0	94.4	45.3	32.7	16.7	1.4	.8	3.2	2.2
소 계	(994)	63.0	16.8	9.8	5.4	3.2	1.8	95.0	43.5	32.8	18.1	1.5	1.1	3.0	2.6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만화영화

〈부록표 Ⅲ-3-4〉

구 분	사레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불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45.3	20.5	14.2	13.7	5.2	1.0	93.7	9.0	16.8	64.5	5.9	2.0	1.7	7.9
국 민 학 생															
남	(496)	84.3	5.0	5.2	3.0	1.4	1.0	97.6	17.9	23.8	46.8	6.3	2.6	2.6	8.9
여	(486)	77.4	12.8	5.8	3.1	.8	.2	99.0	8.2	20.0	63.0	6.6	1.2	1.0	7.8
소 계	(982)	80.9	8.9	5.5	3.1	1.1	.6	98.3	13.1	21.9	54.8	6.4	1.9	1.8	8.3
중 학 생															
남	(763)	61.7	18.6	8.1	6.0	4.2	1.3	94.5	11.3	19.5	61.1	4.5	2.5	1.2	7.0
여	(829)	48.3	23.2	11.0	11.3	5.2	1.1	93.7	6.8	14.8	67.8	6.4	2.4	1.8	8.8
소 계	(1592)	54.7	21.0	9.6	8.8	4.7	1.2	94.1	8.9	17.1	64.6	5.5	2.4	1.5	7.9
고 등 학 생															
남	(696)	27.0	26.3	21.7	18.2	6.3	.4	93.2	8.6	15.9	66.1	6.6	2.2	.6	8.8
여	(701)	27.8	25.1	18.8	21.5	6.1	.6	93.3	5.0	13.1	73.8	5.4	1.3	1.4	6.7
소 계	(1397)	27.4	25.7	20.3	19.9	6.2	.5	93.3	6.8	14.5	69.9	6.0	1.7	1.0	7.7
소 로 청 소 년															
남	(334)	24.9	25.7	24.3	18.6	5.1	1.5	93.4	9.6	13.8	65.3	9.0	.9	1.5	9.9
여	(660)	18.2	23.2	20.5	25.5	10.6	2.1	87.3	7.6	15.2	67.0	4.7	2.4	3.2	7.1
소 계	(994)	20.4	24.0	21.7	23.1	8.8	1.9	89.3	8.2	14.7	66.4	6.1	1.9	2.6	8.0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여성 대상 월간지

〈부록표 Ⅲ-3-5〉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2.2	8.8	14.6	28.0	45.5	1.0	53.5	2.6	11.1	50.2	18.1	15.7	2.4	33.8
국 민 학 생															
남	(496)	1.6	2.2	3.8	9.5	81.5	1.4	17.1	1.8	5.0	25.6	25.3	39.7	2.0	65.5
여	(486)	.8	5.8	8.8	18.3	65.0	1.2	33.7	1.0	4.9	44.4	25.1	22.4	2.1	47.5
소 계	(982)	1.2	4.0	6.3	13.8	73.3	1.3	25.4	1.4	5.0	34.9	25.5	31.2	2.0	56.7
중 학 생															
남	(763)	1.2	5.2	7.7	25.3	60.0	.5	39.4	1.4	4.7	40.4	25.4	26.0	2.1	51.4
여	(829)	1.9	6.0	11.0	29.4	50.3	1.3	48.4	1.7	9.0	56.2	16.5	13.8	2.8	30.4
소 계	(1592)	1.6	5.7	9.4	27.4	55.0	.9	44.1	1.6	7.0	48.6	20.8	19.6	2.4	40.4
고 등 학 생															
남	(696)	3.6	8.2	17.4	35.2	34.9	.7	64.4	3.0	8.5	58.6	19.4	9.1	1.4	28.5
여	(701)	1.0	9.1	19.3	41.1	29.2	.3	70.5	1.3	15.5	63.1	14.1	4.6	1.4	18.7
소 계	(1397)	2.3	8.7	18.3	38.2	32.1	.5	67.4	2.1	12.0	60.8	16.8	6.8	1.4	23.6
근로청소년															
남	(334)	5.1	13.8	18.3	32.0	29.9	.9	69.2	3.9	13.2	52.7	15.3	11.4	3.6	26.7
여	(660)	3.6	21.2	26.5	29.8	17.3	1.5	81.2	7.3	26.8	52.6	5.3	4.1	3.9	9.4
소 계	(994)	4.1	18.7	28.4	26.0	21.5	1.3	77.2	6.1	22.2	52.6	8.7	6.5	3.8	15.2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청소년 대상 월간지

〈부록표 Ⅲ-3-6〉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제	(4965)	5.2	14.2	20.6	26.4	32.7	.9	66.5	4.6	15.3	52.0	14.0	12.2	2.0	26.2
국 민 학 생															
남	(496)	2.8	3.8	8.1	11.1	71.8	2.4	25.8	2.0	3.4	28.4	25.4	38.1	2.6	63.5
여	(486)	4.7	7.2	10.7	17.9	58.8	.6	40.5	3.1	8.4	44.4	20.8	22.6	.6	43.4
소 계	(982)	3.8	5.5	9.4	14.5	65.4	1.5	33.1	2.5	5.9	36.4	23.1	30.4	1.6	53.5
중 학 생															
남	(763)	5.1	10.5	11.5	21.5	50.9	.5	48.6	3.5	8.7	46.1	18.0	21.1	2.6	39.1
여	(829)	5.7	19.1	24.2	27.6	22.7	.7	76.6	4.8	20.3	58.6	9.2	5.3	1.8	14.5
소 계	(1592)	5.4	14.9	18.2	24.7	36.2	.6	63.2	4.2	14.7	52.6	13.4	12.9	2.2	26.3
고 등 학 생															
남	(696)	6.3	15.2	23.3	33.5	21.6	.1	78.3	7.5	16.5	56.5	14.2	4.9	.4	19.1
여	(701)	3.9	18.8	28.8	36.9	11.4	.1	88.4	2.9	19.7	60.8	12.3	3.6	.9	15.9
소 계	(1397)	5.1	17.0	26.1	35.2	16.5	.1	83.4	5.2	18.1	58.6	13.2	4.2	.6	17.4
근로청소년															
남	(334)	9.6	18.3	24.6	23.7	22.5	1.5	76.0	6.6	20.7	53.3	9.3	6.0	4.2	15.3
여	(660)	5.2	17.0	29.8	31.4	15.0	1.7	83.3	6.2	22.3	58.9	5.6	3.3	3.6	8.9
소 계	(994)	6.6	17.4	28.1	28.8	17.5	1.6	80.9	6.3	21.7	57.0	6.8	4.2	3.8	11.0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실화, 야담잡지

〈부록표 Ⅲ-3-7〉

구분	사태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물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3983)	3.4	6.0	10.5	27.7	51.6	.9	47.5	2.6	7.7	40.9	20.3	25.8	2.8	46.1
중학생															
남	(763)	3.8	5.4	7.6	19.1	63.3	.8	35.9	2.6	6.0	30.3	21.5	37.1	2.5	58.6
여	(829)	1.6	4.3	6.2	15.3	71.2	1.4	27.4	1.3	4.3	36.6	18.1	35.7	4.0	54.8
소계	(1592)	2.6	4.8	6.8	17.1	67.4	1.1	31.5	1.9	5.2	33.5	19.7	36.4	3.3	56.1
고등학생															
남	(696)	5.2	8.2	14.5	38.4	33.3	.4	66.2	4.2	9.9	40.7	24.9	19.5	.9	44.4
여	(701)	.7	3.0	7.4	30.4	58.1	.4	41.5	.6	7.6	44.4	22.7	23.3	1.6	46.0
소계	(1397)	2.9	5.6	11.0	34.4	45.7	.4	53.8	2.4	8.7	42.5	23.8	21.4	1.2	45.2
근로청소년															
남	(334)	9.6	11.7	20.7	31.7	25.4	.9	73.7	6.6	11.7	43.5	15.6	14.4	3.3	30.0
여	(660)	3.0	6.5	13.0	37.0	39.1	1.4	59.6	2.6	9.5	51.2	16.8	15.2	4.7	32.0
소계	(994)	5.2	8.2	15.6	35.2	34.5	1.2	64.3	3.9	10.3	50.3	16.4	14.9	4.2	31.0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어린이 월간지

〈부록표 Ⅲ-3-8〉

구분	사태수	접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물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8.3	15.0	18.4	32.4	24.7	1.1	74.1	7.8	19.0	59.3	5.6	5.9	2.5	11.5
국민학생															
남	(496)	23.6	30.2	19.8	15.1	9.9	1.4	88.7	15.1	27.3	45.4	4.4	4.6	2.6	9.0
여	(486)	17.3	27.4	19.8	22.4	10.1	3.1	86.8	11.9	16.9	57.8	6.4	4.1	2.9	9.5
소계	(982)	20.5	28.8	19.8	18.7	10.0	2.2	87.8	13.5	22.4	51.5	5.4	4.4	2.7	9.8
중학생															
남	(763)	11.8	20.2	23.5	26.6	17.4	.5	82.0	10.9	23.7	50.9	4.7	7.7	2.1	12.4
여	(829)	5.1	13.8	22.0	35.9	22.2	1.1	76.7	6.0	18.3	63.8	5.2	4.7	1.9	9.9
소계	(1592)	8.3	16.8	22.7	31.5	19.9	.8	79.3	8.4	20.9	57.6	5.0	6.2	2.0	11.2
고등학생															
남	(696)	3.7	10.8	16.4	35.6	32.9	.6	66.5	6.5	18.0	60.6	5.6	7.8	1.6	13.4
여	(701)	2.6	6.4	15.0	44.1	31.5	.4	68.0	2.7	17.0	69.3	5.1	3.7	1.7	8.9
소계	(1397)	3.1	8.6	15.7	39.9	32.2	.5	67.3	4.6	17.5	65.2	5.4	5.7	1.6	11.1
근로청소년															
남	(334)	7.5	12.9	18.6	28.4	30.8	1.8	67.4	10.2	16.8	55.4	7.2	6.9	3.6	14.1
여	(660)	1.8	4.8	11.5	41.1	39.4	1.4	59.2	3.5	13.8	64.5	6.8	7.3	4.5	14.1
소계	(994)	3.7	7.5	13.9	36.8	36.5	1.5	62.0	5.7	14.5	61.5	6.9	7.1	4.2	14.0

대중매체 접촉경험과 유해도 평가-신문광고

〈부록표 Ⅲ-3-9〉

구 분	사례수	접 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접해본 적없다	무응답	접촉률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46.6	19.7	14.2	9.6	8.6	1.3	90.2	5.8	15.5	63.9	8.4	4.4	2.1	12.8
국 민 학 생															
남	(496)	33.7	20.2	14.5	15.3	14.7	1.6	83.7	3.3	13.1	59.7	8.1	7.3	3.6	15.4
여	(486)	25.1	20.6	21.0	17.7	14.2	1.4	84.4	6.4	14.6	63.2	10.1	3.9	1.9	14.0
소 계	(982)	29.4	20.4	17.7	16.5	14.5	1.5	84.0	7.3	13.8	61.4	9.1	5.6	2.7	14.7
중 학 생															
남	(763)	45.3	18.5	16.1	8.4	10.7	.9	88.3	5.1	13.2	61.5	12.1	6.8	1.3	18.9
여	(829)	41.6	19.2	16.2	10.6	11.0	1.4	87.6	2.4	11.8	67.8	9.3	6.2	2.5	15.5
소 계	(1592)	43.4	18.8	16.1	9.5	10.9	1.2	87.9	3.7	12.5	64.8	10.6	6.5	1.9	17.1
고 등 학 생															
남	(696)	66.4	15.7	9.2	5.2	2.3	1.3	96.4	6.8	21.6	61.2	7.5	1.9	1.1	9.4
여	(701)	53.2	22.8	11.1	7.0	5.0	.9	94.2	3.7	12.0	75.5	5.3	2.0	1.6	7.3
소 계	(1397)	59.8	19.3	10.2	6.1	3.7	1.1	95.3	5.2	16.8	68.4	6.4	1.9	1.4	8.3
근로청소년															
남	(334)	52.1	22.2	12.9	6.6	4.8	1.5	93.7	7.2	22.5	56.9	9.0	3.0	1.5	12.0
여	(660)	48.9	20.8	13.6	8.6	6.5	1.5	92.0	8.9	18.8	59.4	6.1	3.8	3.0	9.9
소 계	(994)	50.0	21.2	13.4	7.9	5.9	1.5	92.6	8.4	20.0	58.6	7.0	3.5	2.5	10.5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야간배회

〈부록표 Ⅳ-1-1〉

구 분	사례수	비 행 경 험							유 해 도 평 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은	아 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체	(4965)	5.9	8.4	9.5	23.3	48.5	4.3	47.2	1.0	4.1	25.2	28.1	36.3	5.3	64.4
국 민 학 생															
남	(496)	13.1	10.1	9.1	23.8	42.7	1.2	56.1	.4	1.0	12.9	35.3	48.2	2.2	83.5
여	(486)	6.4	9.3	9.1	26.1	48.8	.4	50.8	.4	1.2	9.7	31.5	56.4	.8	87.9
소 계	(982)	9.8	9.7	9.1	24.9	45.7	.8	53.5	.4	1.1	11.3	33.4	52.2	1.5	75.6
중 학 생															
남	(763)	4.7	5.2	6.9	14.5	61.5	7.1	31.5	1.3	2.1	22.4	26.0	40.4	7.9	66.4
여	(829)	2.5	4.3	4.5	13.9	69.7	5.1	25.2	.5	1.7	16.2	22.9	52.7	6.0	75.6
소 계	(1592)	3.6	4.8	5.7	14.2	65.8	6.0	28.2	.9	1.9	19.2	24.4	46.8	6.9	71.2
고 등 학 생															
남	(696)	8.9	14.9	14.9	28.2	30.6	2.4	67.0	2.3	9.6	40.2	28.4	16.5	2.9	44.9
여	(701)	2.4	6.4	6.4	29.4	53.4	2.0	44.7	.9	4.7	30.8	29.7	30.7	3.3	60.4
소 계	(1397)	5.7	10.7	10.7	28.8	42.0	2.2	55.8	1.6	7.2	35.5	29.1	23.6	3.1	52.7
근로청소년															
남	(334)	11.4	15.3	18.3	26.6	24.3	4.2	71.6	1.5	8.7	38.9	26.9	18.3	5.7	45.2
여	(660)	3.8	7.0	12.6	29.7	37.3	9.7	53.0	.9	5.5	31.4	27.7	22.9	11.7	50.6
소 계	(994)	6.3	9.8	14.5	28.7	32.9	7.8	59.3	1.1	6.5	33.9	27.5	21.3	9.7	48.8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무단결석(결근)

<부록표 IV-1-2>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1.0	1.2	2.0	9.2	84.5	2.2	13.4	.8	.8	7.8	28.0	59.3	3.3	87.3
국민학생															
남	(496)	.6	.6	1.0	2.6	93.3	1.8	4.8	.4	.4	1.4	9.5	86.5	1.8	96.0
여	(486)	.2	.4	.4	1.9	96.9	.2	2.9	.6	.2	1.0	9.1	88.3	.8	97.4
소계	(982)	.4	.5	.7	2.2	95.1	1.0	3.9	.5	.3	1.2	9.3	87.4	1.3	96.7
중학생															
남	(763)	.9	.4	1.0	7.2	87.5	2.9	9.6	.8	.3	7.9	26.5	60.6	4.1	87.1
여	(829)	.2	.4	.6	4.3	91.7	2.8	5.5	.6	.6	5.9	26.1	62.4	4.5	88.5
소계	(1592)	.6	.4	.8	5.7	89.7	2.8	7.5	.7	.4	6.8	26.3	61.5	4.3	87.8
고등학생															
남	(696)	1.9	1.0	1.9	8.9	85.6	.7	13.6	1.6	1.1	8.5	37.1	50.4	1.3	87.5
여	(701)	.1	.4	.3	4.4	94.6	.1	5.3	.3	.1	9.7	34.5	54.1	1.3	88.6
소계	(1397)	1.0	.7	1.1	6.7	90.1	.4	9.4	.9	.6	9.1	35.8	52.3	1.3	88.1
근로청소년															
남	(334)	4.5	6.0	9.3	26.9	51.2	2.1	46.7	.9	2.4	16.5	35.6	40.1	4.5	75.7
여	(660)	1.5	2.9	4.7	24.1	60.9	5.9	33.2	.9	2.1	12.9	39.4	37.1	7.6	76.5
소계	(994)	2.5	3.9	6.2	25.1	57.6	4.6	37.7	.9	2.2	14.1	38.1	38.1	6.5	76.2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절도

<부록표 IV-1-3>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4	.4	.6	3.7	92.3	2.6	5.1	.4	.3	1.8	10.0	83.8	3.8	93.8
국민학생															
남	(496)	.2	.2	.4	5.0	92.1	2.0	5.8	.4	.0	.4	2.4	94.2	2.6	96.6
여	(486)	.0	.2	.0	4.7	94.9	.2	4.9	.2	.2	.6	2.7	95.5	.8	98.2
소계	(982)	.1	.2	.2	4.9	93.5	1.1	5.4	.3	.1	.5	2.5	94.8	1.7	97.3
중학생															
남	(763)	1.2	.4	.4	3.8	90.8	3.4	5.8	.7	.4	1.6	11.1	81.5	4.7	92.6
여	(829)	.1	.0	.4	1.3	94.9	3.3	1.8	.2	.1	1.0	7.8	85.9	4.9	93.7
소계	(1592)	.6	.2	.4	2.5	93.0	3.3	3.7	.4	.3	1.3	9.4	83.8	4.8	93.2
고등학생															
남	(696)	.4	1.0	1.1	7.3	89.2	.9	9.9	.6	.3	3.4	17.1	76.9	1.7	94.0
여	(701)	.0	.0	.3	.7	98.6	.4	1.0	.0	.0	1.0	11.8	85.7	1.4	97.5
소계	(1397)	.2	.5	.7	4.0	93.9	.6	5.4	.3	.1	2.2	14.5	81.3	1.6	95.8
근로청소년															
남	(334)	1.5	1.8	2.1	9.6	81.1	3.9	15.0	.6	1.2	6.0	16.5	71.3	4.5	87.8
여	(660)	.3	.2	.5	1.5	90.9	6.7	2.4	.8	.5	1.7	9.7	78.8	8.6	88.5
소계	(994)	.7	.7	1.0	4.2	87.6	5.7	6.6	.7	.7	3.1	12.0	76.3	7.2	88.3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집단 패싸움

〈부록표 IV-1-4〉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6	.8	1.5	6.7	88.0	2.4	9.7	.5	.3	2.5	13.3	79.7	3.6	93.0
국민학생															
남	(496)	1.0	2.6	3.4	13.5	78.4	1.0	20.6	.4	.2	.8	13.7	83.1	1.8	96.8
여	(486)	.8	1.0	2.1	10.7	85.0	.4	14.6	.4	.4	1.6	12.6	84.4	.6	97.0
소계	(982)	.9	1.8	2.7	12.1	81.7	.7	17.6	.4	.3	1.2	13.1	83.7	1.2	96.8
중학생															
남	(763)	.7	.3	.9	5.5	89.1	3.5	7.3	.8	.0	2.2	12.5	79.6	5.0	92.1
여	(829)	.2	.0	.1	2.8	94.3	2.5	3.1	.4	.2	1.2	8.9	84.6	4.7	93.4
소계	(1592)	.4	.1	.5	4.1	91.8	3.0	5.1	.6	.1	1.7	10.6	82.2	4.8	92.8
고등학생															
남	(696)	1.0	1.0	2.0	9.3	85.6	1.0	13.4	.6	.4	5.6	18.7	73.1	1.6	91.8
여	(701)	.0	.0	.4	2.1	97.1	.3	2.6	.0	.0	1.4	13.1	84.2	1.3	97.3
소계	(1397)	.5	.5	1.2	5.7	91.4	.6	8.0	.3	.2	3.5	15.9	78.7	1.4	94.6
근로청소년															
남	(334)	.9	3.3	6.6	15.9	70.1	3.3	26.7	.3	1.2	8.7	21.3	64.4	4.2	85.7
여	(660)	.6	.5	.3	2.3	89.8	6.5	3.6	1.1	.3	1.4	10.8	78.0	8.5	88.8
소계	(994)	.7	1.4	2.4	6.8	83.2	5.4	11.4	.8	.6	3.8	14.3	73.4	7.0	87.7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위협

〈부록표 IV-1-5〉

구 분	사례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체	(4965)	.8	1.0	1.7	6.0	88.0	2.6	9.5	.4	.2	2.8	15.6	77.0	3.9	92.6
국민학생															
남	(496)	.6	.2	.8	3.4	92.9	2.0	5.0	.2	.2	.6	5.8	90.7	2.4	96.5
여	(486)	.2	.2	.2	2.5	96.1	.8	3.1	.4	.2	.4	5.6	92.6	.8	98.2
소계	(982)	.4	.2	.5	3.0	94.5	1.4	4.1	.3	.2	.5	5.7	91.6	1.6	97.3
중학생															
남	(763)	1.2	1.6	2.0	10.1	81.7	3.5	14.8	.4	.3	2.5	19.4	72.6	4.8	91.9
여	(829)	.2	.0	.6	2.9	93.7	2.5	3.7	.2	.0	1.3	10.5	83.0	4.9	93.5
소계	(1592)	.7	.8	1.3	6.3	87.9	3.0	9.0	.3	.1	1.9	14.8	78.0	4.9	92.0
고등학생															
남	(696)	1.3	1.6	3.9	11.4	80.6	1.3	18.1	.7	.1	6.6	25.9	65.1	1.6	91.0
여	(701)	.1	1.1	.1	1.6	96.9	.1	3.0	.0	.0	2.0	16.5	79.6	1.9	95.1
소계	(1397)	.7	1.4	2.0	6.4	88.8	.7	10.5	.4	.1	4.3	21.2	72.4	1.7	93.6
근로청소년															
남	(334)	2.4	4.5	8.1	17.7	64.4	3.0	32.6	1.5	1.2	9.3	28.4	56.0	3.6	84.4
여	(660)	.8	.2	.8	2.9	88.5	7.0	4.5	.3	.5	2.3	14.4	73.2	9.4	87.6
소계	(994)	1.3	1.6	3.2	7.8	80.4	5.6	14.0	.7	.7	4.6	19.1	67.4	7.4	86.5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반항(부모, 선생, 직장상사 등)

〈부록표 IV-1-6〉

구분	사레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중 학생	(3983)	4.7	7.0	11.1	34.6	39.6	3.0	57.4	1.2	2.4	19.0	33.8	39.6	4.0	73.4
남	(763)	3.4	5.5	8.0	29.1	49.8	4.2	46.0	.9	.8	10.4	30.1	53.1	4.7	83.2
여	(829)	5.4	6.3	9.5	31.4	44.8	2.7	52.6	.8	2.5	17.6	26.4	48.3	4.3	74.7
소 계	(1592)	4.5	5.9	8.8	30.3	47.2	3.4	49.4	.9	1.7	14.1	28.2	50.6	4.5	78.8
고 등 학생															
남	(696)	5.6	8.6	12.5	35.8	36.1	1.4	62.5	2.2	1.7	19.5	38.4	36.5	1.7	74.9
여	(701)	6.1	9.8	14.8	39.4	29.2	.6	70.2	.6	2.6	26.2	43.2	26.1	1.3	69.3
소 계	(1397)	5.9	9.2	13.7	37.6	32.6	1.0	66.4	1.4	2.1	22.9	40.8	31.3	1.5	72.1
근로청소년															
남	(334)	6.0	9.0	12.3	35.3	34.7	2.7	62.6	1.5	5.4	21.0	32.0	36.8	3.3	68.8
여	(660)	2.3	3.6	10.0	38.3	38.6	6.4	55.0	1.5	2.9	21.7	33.3	32.3	8.3	65.6
소 계	(994)	3.5	5.4	11.3	37.3	37.3	5.1	57.5	1.5	3.7	21.4	32.9	33.8	6.6	66.7

비행경험 및 유해도 평가-음란낙서

〈부록표 IV-1-7〉

구분	사레수	비행경험							유해도평가						
		일주일 1-2회	한달에 1-2회	두세달 1-2회	일년에 1-2회	해본적 없다	무응답	경험을	아주 이롭다	이롭다	보통 이다	해롭다	아주 해롭다	무응답	유해도
		%	%	%	%	%	%	%	%	%	%	%	%	%	%
전 국민 학생	(4965)	1.0	1.4	2.6	13.2	79.3	2.6	18.2	.6	.7	6.9	20.6	67.3	4.0	87.9
남	(496)	.2	.8	.8	9.9	86.7	1.6	11.7	.4	.2	1.0	8.5	87.3	2.6	95.8
여	(486)	.6	.0	.2	5.3	93.6	.2	10.3	.6	.4	.4	6.6	92.0	.0	98.6
소 계	(982)	.4	.4	.5	7.6	90.1	.9	9.0	.5	.3	.7	7.5	89.6	1.3	97.1
중 학생															
남	(763)	1.6	2.5	3.8	19.8	68.7	3.7	27.7	.8	.9	7.3	22.0	63.7	5.2	85.7
여	(829)	.4	.7	1.7	8.4	85.5	3.3	11.2	.2	.5	4.3	18.7	71.0	5.2	89.7
소 계	(1592)	.9	1.6	2.7	13.9	77.4	3.5	19.1	.5	.7	5.8	20.3	67.5	5.2	87.8
고 등 학생															
남	(696)	2.0	3.3	7.5	22.3	63.8	1.1	35.1	1.1	1.3	15.1	34.8	45.8	1.9	80.6
여	(701)	.6	.4	1.3	9.6	88.0	.1	11.8	.0	1.1	6.3	23.3	68.9	1.4	92.2
소 계	(1397)	1.3	1.9	4.4	15.9	75.9	.6	23.4	.6	.7	10.7	29.0	57.4	1.6	86.4
근로청소년															
남	(334)	3.0	3.6	4.8	24.3	61.4	3.0	35.6	.3	2.7	14.1	28.7	49.4	4.8	88.1
여	(660)	.3	.6	.8	8.2	83.5	6.7	9.8	.9	.3	7.0	18.8	63.6	9.4	82.4
소 계	(994)	1.2	1.6	2.1	13.3	76.1	5.4	18.5	.7	1.1	9.4	22.1	58.9	7.8	81.0

비행경험-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록표 IV-1-8〉

구 분	사 례 수	있 다	없 다	무 응 답
		%	%	%
전 체	(3983)	9.7	86.7	3.5
중 학 생				
남	(763)	4.2	91.0	4.8
여	(829)	7.6	89.7	2.7
소 계	(1592)	6.0	90.3	3.7
고 등 학 생				
남	(696)	6.8	91.2	2.0
여	(701)	16.1	83.0	0.9
소 계	(1397)	11.5	87.1	1.4
근 로 청 소 년				
남	(334)	7.5	85.9	6.6
여	(660)	16.4	77.6	6.1
소 계	(994)	13.4	80.4	6.2

비행경험-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록표 IV-1-9〉

구 분	사 례 수	있 다	없 다	무 응 답
		%	%	%
전 체	(4965)	2.9	93.7	3.4
국 민 학 생				
남	(496)	10.7	89.9	3.4
여	(486)	2.7	95.9	1.4
소 계	(982)	6.7	90.8	2.4
중 학 생				
남	(763)	3.0	92.3	4.7
여	(829)	0.8	96.3	2.9
소 계	(1592)	1.9	94.3	3.8
고 등 학 생				
남	(696)	2.4	95.5	2.0
여	(701)	1.0	98.0	1.0
소 계	(1397)	1.7	96.8	1.5
근 로 청 소 년				
남	(334)	3.9	89.5	6.6
여	(660)	2.0	92.0	6.1
소 계	(994)	2.6	91.1	6.2